

육아정책연구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KICCE

육아정책연구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제11권 제1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2017. 6.

차례

보육교사의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 이재무·박용성	1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수로 / 김진성	29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적용한 종단 매개효과 분석 / 박새롬·노보람·박혜준·이순형	51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김수정·정익중	8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 부담의 조절효과 / 홍예지·이순형	105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2017. 6.

차 례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분석 / 길혜지·황정원	127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 및 요구 / 임효미·이승연	155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효과 / 정혜옥·김순환·이지영·이현지	185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인식 분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다양화를 중심으로 / 박창현·양미선	209
청탁금지법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사례와 향후과제 / 김아름·배윤진·최윤경	239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행동 군집별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문제행동의 차이 분석 / 김미라·신유림	265

■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보육교사의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이재무¹⁾ 박용성²⁾

요약

본 연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직무열의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보육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직무요구에 따른 압박은 크게 느끼는 편이 아니었으며, 직무자원도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크게 효용성을 실감하지 않는 편이었다. 반면에 직무열의의 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며, 이직의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변수별 영향관계는, 직무요구와 이직의도 간 정적(+) 관계,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간에는 부적(-) 관계, 직무요구와 직무열의 간 부적(-) 관계, 직무자원과 직무열의 간 정적(+) 관계, 직무열의와 이직의도 간 부적(-) 관계가 각각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직무요구와 이직의도 사이의 영향관계에서 직무열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사이의 영향관계에서도 직무열의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보육교사, 직무요구, 직무자원, 이직의도, 직무열의

I. 서론

보육교사는 교육자로서 영유아들과 직면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정서적 및 사회적 잠재력 발달에 깊이 관여하고(이미화·김명순, 2004: 43), 영유아들이 통상적이지 않은 증세나 행동을 표출할 때 가장 먼저 발견하고 대응하는 전문적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이재무·송영선, 2012). 또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행위자로서 관련 프

1)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초빙교수

2)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로그래밍의 효과성과 어린이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이재무·조성명·송영선, 2013: 72). 이외에도 안정적인 국가적 보육정책의 시행과 실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육교사들의 중요성은 이의 없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지대함과 그들이 자각하는 사명감에 비해 사회적 위상은 높지 않으며, 재정적 수익이나 직무수행 환경은 거의 대부분 열악한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만연하고 있다(구은미·박성혜, 2013; 김건옥, 2016; 이병록·이광연, 2012).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잦아지면 보육서비스는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되며, 그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이나 수준 또한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Bollin, 1993; Molgaard, 1993). 그러므로 보육이라는 전사회적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부정적 원인에 의해 불필요한 이직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이직의도가 발생하는 근원에 대한 규명 노력이 필요하고 대책 마련 역시 진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연구는 그동안 적지 않게 실행되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직무만족과의 영향관계(강재희·김진영, 2013; 이주영·고재욱, 2015; 이혜원, 2011)나 직무소진의 영향력(배성희·김연화·한세영, 2014; 윤혜미·노필순, 2013; 최형성, 2015)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다른 직무관련 조직유효성 요인들과의 분석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보육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가 충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직무관련 요인들의 정보를 다방면으로 취득하고자 직무요구-자원모형(job demands-resources model)의 구성요소들을 분석변수로 차용하였다. 직무요구-자원모형은 직종에 무관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직무수행에 동반되는 위험과 지원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결과의 편중을 예방할 수 있어 유용하다(이철기·윤동열, 2015: 172). 특히 Schaufeli와 Bakker(2004)가 제시한 직무요구-자원모형은 직무요구, 직무자원, 직무소진, 직무열의(job engagement) 등과 같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가 의도한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직무소진에 관한 연구는 선행된 사례가 다수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석결과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차원에서 직무소진의 영향관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원래의 모형에서는 이직의도보다 직무열의가 선행하고,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직무열의보다 선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직무요구나 직무자원이 이직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직무요구와 직무열의 간 영향관계에 대해서도 규명하고 있지 않다. 그에

본 연구는 이들 변수의 위치는 직무요구-자원모형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직무열의가 매개요인으로써 작용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관리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며, 그동안 분석되지 못한 보육교사 직무열의의 과학적인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보다 나은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전략을 마련하는데 효용적 가치를 지닐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직무요구-자원 모형의 고찰

전통적 직무요구-자원모형은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에 기초하여 Demerouti와 Bakker, Nachreiner, Schaufeli(2001)에 의해 제안된 모형으로 인적서비스 업종에 제한되어 적용하는 직무소진 개념을 모든 직종의 직무에 적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오정학·육풍림, 2011: 377). 전통적 직무요구-자원 모형의 개발 논리는 모든 직종의 직무 상 존재하는 위해요인은 대처와 관리가 불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조직과 구성원에게 해로운 위해요인 중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할 경우 비로소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직무요구로 칭할 수 있으며, 이 직무요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직무자원이라는 것이다(최민석, 2016: 36). 전통적 직무요구-자원모형은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건강/에너지 감소, 동기부여, 조직의 결과 사이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였다.

Schaufeli와 Bakker(2004)의 직무요구-자원모형은 전통적 직무요구-자원모형을 보다 확장시킨 모형이다. 전통적 직무요구-자원모형이 모든 직종에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직무소진을 매개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했다면 본 모형은 직무소진과 더불어 직무열의가 다양한 조직유효성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모형은 보험회사, OH&S지사, 재가보호기관, 연금기금기업 등에 종사하는 1,698명을 대상으로, 조직직무와 관련된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직무소진 중심의 활성화 과정(energetic process), 직무열의 중심의 동기부여 과정(motivational process) 등의 두 가지 심리적 과정으로 구분하여, 직무요구(job demands)와 직무자원(job resources)이 건강문제(health problems)와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직무소진(job burnout) 및 직무열의

(job engagement)가 각 관계 속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직무요구와 직무소진, 직무소진과 건강문제, 직무자원과 직무열의, 직무소진과 이직의도, 건강문제와 이직의도 사이에는 각기 정적(+) 영향관계가 성립하며,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직무자원과 직무소진, 직무소진과 직무열의, 직무열의와 이직의도 사이에는 각기 부적(-) 영향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직무소진은 직무요구와 건강문제,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며, 직무열의는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직무요구와 이직의도, 직무요구와 건강문제, 직무자원과 건강문제 사이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직무요구-자원모형의 효용성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검증되어온 다양한 직무관련 요인들의 직간접 영향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직무요인 분석도구로서의 가치를 갖는다(이재무, 2017: 136).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건강 상태와 정서적 평안함을 예측하여 보다 전향적인 직무여건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결과변수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무소진, 긴장, 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에 한정되는 관리가 아닌 긍정적 차원의 심리적 변수를 도입하는 관리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조직관리 측면에서 높은 유용성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박상언, 2012: 183).

2. 분석변수에 대한 이해

가.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

첫째, 직무요구는 직무를 수행하는 개체에게 가해지는 원활한 직무수행과 그를 위한 역량의 집중적 투입에 관한 외부적 압박이다(Schaufeli & Bakker, 2004). 그래서 직무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노력과 부담이 수반되며,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김효연·방지영·류기상, 2015: 98; 임광모·탁진국, 2016: 43). 그렇다고 직무요구 자체가 유해한 요인은 아니며 적절하지 못한 직무통제와 결부될 때 긴장을 야기하고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Karasek, 1979).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직무요구는 처리해야할 업무의 양이 많거나 동일한 양이지만 부여된 처리시간이 짧을 때, 부여받은 업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란이 야기되는 등 질적 혹은 양적으로 높게 요구될 때 부작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박상언·김민용, 2006: 368). 반면에 적당한 수준의 직무요구는 직무담당자의

직무에 대한 적응력과 집중력을 강화시켜주고, 그를 통해 직무역량과 수행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확장되는 직무요구에 대한 대응은 물론 혁신행동과 직무만족, 성과를 제고시켜줄 수 있다(Caplan, 1983; Gardner, 1986). 직무요구의 구성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역할갈등(role conflict),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 시간압박(time pressure)(Karasek & Theorell, 1990; 이재무, 2017 재인용), 업무과부하(work overload), 감정적 요구(emotional demands), 직장-가정갈등(work-home interference)(Schaufeli, Bakker & Van Rhenen, 2009; 이재무, 2017 재인용) 등이 자주 인용된다. 그러나 시간압박은 평소보다 많은 직무가 부여되거나 일시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넘어선 역할이 주어졌을 때 당연하게 부족해진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기에 사실상 업무과부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직장-가정갈등은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두 가지 역할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에 일종의 역할갈등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이재무, 2017: 137).

둘째, 직무자원은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통한 목표달성과 부정적 영향력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이라는 취지로 직무를 수행하는 개체에게 제공되는 다방면의 지원이다(Demerouti et al. 2001: 501). 직무를 수행하는데 직·간접적 필요요인들의 제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동기부여(motivation)의 근원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이철기·윤동열, 2015: 172). 또한 자신을 자극하는 직무요구에 기능적으로 대처하여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직무목표 달성을 명확하게 달성하도록 작용한다(김진호, 2016: 13). 다만 직무자원이 풍족하다고 좋은 결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충분한 직무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넉넉함에 기인하여 오히려 방만한 태도를 보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직무자원의 구성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주로 인용되는 과업정체성(task identity), 과업중요성(task significance), 직무자율성(job autonomy), 기술다양성(skill variety), 피드백(feedback)(Hackman & Oldham, 1976; 이재무, 2017 재인용),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자기개발기회(opportunities to learn and to develop)(Schaufeli et al. 2009; 이재무, 2017 재인용)를 비롯해, 직무통제, 의사결정 참여, 협력, 신뢰, 임금, 고용안정성(하성욱·장함자, 2014: 26) 등이 직무자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과업정체성이나 과업중요성, 기술다양성 등 일부 요인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직무를 수행하는 개체의 정체성과 크게 상이한 과업정체성이 부여될 경우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과업의 중요성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역량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각하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강한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재무, 2017: 137).

보육교사들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에 관한 연구는 유미나·신나리(2013)의 연구와 같이 직무소진이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거나 최인숙·이혜숙·임신일(2013)의 연구처럼 직무스트레스를 규명하는데 부분적으로 활용된 경우가 일부 확인되었다. 관련된 연구의 양에 미루어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직무요구와 자원에 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이들 연구를 통해 직무요구는 직무소진, 직무스트레스에 정적(+) 영향력을, 직무만족에는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각각 파악되었고, 직무자원은 직무소진, 직무스트레스에 부적(-) 영향력을, 직무만족에는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각각 파악되었다.

나. 직무열의

직무열의는 직무를 수행하는 개체가 자발적으로 의무감을 인식함으로써 책임감을 배양하고, 정서적 행동과 인지적 사고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활발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전환, 유지하려는 태도이다(이재무, 2016: 57). 그렇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촉진하고, 다각적인 동기부여와 심리적 만족의 근원으로 작용하여 조직생산성 향상에 실효적으로 기여한다(Harter, Schmidt & Hayes, 2002; Warr & Inceoglu, 2012; 이재무, 2017 재인용). 개념의 도입 초기에는 직무소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취급되었다. Leiter와 Maslach (2000)은 직무열의가 개인의 회복력과 밀접하며, 에너지(high energy), 효능감(sense of efficacy), 열중감(strong involvement)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측정은 이들의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고갈(exhaustion), 냉소(cynicism), 무력함(ineffectiveness)을 측정함으로써 반비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연구가 거듭될수록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이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성에 기반을 둔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독립적 영향요인임이 확인되고 있다(오아라·김성환, 2016: 3). 소진 상태이거나 압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무수행 중 부분적 혹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열의를 느끼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이철기·윤동열, 2015: 172). 다만 직무소진은 자신의 원동력이 고갈된 상태를 전제함으로 개인차가 적을 수밖에 없지만 직무열의는 개인이 스스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요인들을 끌어올리고 활용하는 것이기에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이나 역량 등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직무소진은 측정의 기준점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직무열의는 주관성이 강하여 관리 전략의 수립과 이론화를 위해 기준의 설정이 따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열의

에 대한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의 보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직무열의의 하위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도 다수 있었으나 활력(vigor), 전념(dedication), 집중(absorption)(Schaufeli, Bakker, 2004; Schaufeli, Bakker & Salanova, 2006; 이재무, 2017 재인용)을 인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육교사들의 직무열의에 관한 연구는 이재무(2016)의 연구를 제외하고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상태였다. 그동안 보육교사와 관련된 연구 대부분이 직무소진이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재무(2016)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신뢰에 부정(-) 영향력을 행사할 때 직무열의가 그를 감소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직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던 구성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당 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반납하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행동 실현 이전의 유보적 개인경향성이다(Mobley, 1982). 이직의도가 이직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이직의도가 행동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이병록·이광연, 2012: 57). 이직의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조직의 직무가 안정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성과 역시 불규칙해진다는 연쇄적 악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이직의도 자체가 완전한 부정적 요인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개인에 따라서는 이직의도가 발동함에 따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직무 자체를 검토함으로써 직무에 보다 열의를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역량 성장으로 인해 조직의 직무가 적절하지 않거나 새로운 경력개발의 기회가 나타났을 때 보다 긍정적인 이유에서 이직의도를 갖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시장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구에 따라 규정될 만큼 다양하고 수도 많아 이직의도의 하위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구들이 분석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육교사들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는 윤혜미·노필순(2013), 최형성(2015) 등의 연구와 같이 직무소진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거나 이혜원(2011), 강제희·김진영(2013) 등의 연구처럼 직무만족의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활용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조운성·홍아정(2015)의 연구가 조직몰입을, 권영란·문영경(2016)의 연구가 교사효능감을, 김건욱(2016)의 연구가 직무스트레스를 각기 선정해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를 통해 직무소진,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정적(+) 영향력을,

조직몰입, 교사효능감,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각각 파악되었다.

3. 각 변수별 영향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김진호(2016), 오아라·김성환(2016), 이춘길(2015) 등의 선행연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직무요구-자원모형과 구성요소들을 활용한 제반 민간기업과 조직에 관한 검증과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그에 비해 본 연구가 확인하고자 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 변수들 간 영향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는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이 찾을 수 없었다.

첫째, 보육교사의 직무요구와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중, 유현숙·권정애(2017)는 직무요구를 포괄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들이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분석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에서 이직의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며 교사효능감, 조직헌신, 소진 등의 요인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정경진·윤혜미(2016) 역시 직무요구를 세부 범주로 둔 직무스트레스와 보육교사 이직의도 사이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였다. 중남부 광역자치단체 내 어린이집에서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 600명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직무요구를 비롯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관계 속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임을 파악하였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중, 이주영·고재욱(2015)는 직무자원을 포괄하는 직무환경 요인들이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경기북부지역 보육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분석을 통해 직무환경은 이직의도에 부적(-)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성규(2015)는 직무자원을 근무환경의 일부로 포함하여 이직의도와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영남권 어린이집 보육교사 241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근무환경은 이직의도에 직접적 영향력으로 작용하며 둘 관계에서 직무소진이 부분매개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요구와 직무열의의 간 영향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이재무(2016)는 직무요구를 포괄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들이 보육교사의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수도권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분석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열의에 부적(-) 영향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보육교사의 직무열의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다른 직종에 비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직무자원과 직무열의, 직무열의와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그에 따라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이직의도에 영향력을 미칠 때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도 부재한 실정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측정도구

가.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선정된 분석변수와 세부 측정지표를 규정하였고, 이를 자기응답식 설문문항으로 구성한 뒤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자료수집 대상은 서울시에 주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다. 본래 연구취지를 고려하면 전국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연구자의 역량과 자원의 제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상위 대표성을 갖는 서울시 주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만을 조사하게 되었다. 응답은 구조화된 리커트 5점 척도로 작성되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2개소, 가정어린이집 2개소는 저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 의도와 응답의 비밀보장 등 연구윤리를 설명한 뒤 설문을 배포, 회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25여개소의 어린이집은 앞서 직접 방문한 5개소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들에게 배포를 부탁하였는데 저자가 설문을 배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방법이었다. 다만 25여개소의 어린이집 설문의 회수는 저자가 방문 혹은 택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답례는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저자가 소속된 기관에는 본 연구와 같은 분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이나 연구윤리에 관한 동의 절차는 생략하였다. 설문은 2016년 10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35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총 303부의 응답을 회수하였으나 일부를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나 기타 분석에 이용할 수 없는 1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8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적 분석과정에는 MS Excel와 PASW Statistics 18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확보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283명(98.6%)로 남성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118명(41.1%), 30대 116명(40.4%), 40대 38명(13.2%), 50대 이상 15명(5.2%)으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혼인여부는 미혼자가 169명(58.9%)으로 기혼자 118명(41.1%)보다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19명(6.6%), 전문대졸 124명(43.2%), 대졸 130명(45.3%), 대학원졸 이상 14명(4.9%)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육교사가 보유한 자격증은 보육교사 1급 130명(45.3%)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2급정교사 71명(24.7%), 보육교사 2급 63명(22.0%), 보육교사 3급 및 기타 13명(4.5%), 유치원1급정교사 10명(3.5%) 순이었다. 경력은 1년 미만 22명(7.7%), 1년 이상 3년 미만 69명(24.0%), 3년 이상 5년 미만 70명(24.4%), 5년 이상 7년 미만 42명(14.6%), 7년 이상 10년 미만 46명(16.0%), 10년 이상 38명(13.2%)이었다. 급여수준은 100만원 미만 11명(3.8%),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59명(20.6%),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53명(53.3%),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48명(16.7%), 250만원 이상 16명(5.6%)이었다. 근무시간별로는 9시간 근무자가 146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8시간 78명(27.2%), 10시간 이상 53명(18.5%), 4시간 이하(시간제) 10명(3.5%) 순이었다.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어린이집 92명(32.1%), 민간어린이집 118명(41.1%), 가정어린이집 63명(22.0%), 기타 14명(4.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세부 측정지표의 선정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분석변수들의 세부 측정지표를 <표 1>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보육교사의 직무요구는 Karasek와 Theorell(1990), Schaufeli, Bakker와 Van Rhenen(2009)의 연구내용을 검토하여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업무과부하, 감정적 요구 4개를 측정하였다. 역할갈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야기되는 개인적 판단기준이나 신념과의 대치되는 외부 요구와 압력으로 인한 혼란을 의미하며, 역할모호성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규범과 정보가 확실하게 제공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어려움을 뜻한다(이춘길, 2015: 60). 업무과부하는 수행해야 할 직무의 양이 너무 많아 막중한 피로를 느끼고 규정된 시한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며(김효연 외, 2015: 98; 이재무, 2017: 137 재인용), 감정적 요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강력하게 요구받는 정서적 인내로써 예민함과 긴장감을 초래하게 된다(최민석, 2016: 60; 이재무, 2017: 137 재인용). 보육교사의 직무요구 요인 활용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일반교사를 비롯한 다른 직무분야까지 시야를 확장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을 선택하였다. 다만 앞서 고찰한바와 같이 시간압박처럼 보다 포괄적인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제외하였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자원은 Hackman과 Oldham(1980), Demerouti et al.(2001)의 연구내용을 검토하여 업무자율성, 사회적 지원, 피드백, 자기개발기회 4개를 책정하였다. 업무자율성은 직무수행 속도나 처리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부여된 탄력적 권한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원은 상사나 동료, 조직 차원에서 제공되는 협조와 심적 지지를 의미한다(최민석, 2016: 61). 또한 피드백은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조직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수행자에게 명확하게 제공하는 수준이며, 자기개발기회는 조직 차원에서 행해지는 구성원에 대한 성장과 역량개발 지향적 교육과 훈련, 학습 등을 뜻한다(김효연 외, 2015: 100). 보육교사의 직무자원 요인 활용사례 역시 앞서 직무요구와 마찬가지로 충분하지 않아 다른 직무분야까지 시야를 확장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앞서 고찰한바와 같이 과업중요성처럼 직무요구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요인들은 제외하였다. 특히 자기개발기회를 선택한 이유는 보육교사들이 영유아, 학부모, 관련 기관 공무원까지 상호 이질적인 고객집단 셋을 대응하는 관계로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서이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열의는 Schaufeli et al.(2006)의 내용을 검토하여 활력, 전념, 집중 3개를 선정하였다. 활력은 직무를 수행할 때 에너지 넘치고 강한 의지와 인내심 등을 무장하는 태도이고, 전념은 스스로 직무에 의미를 부여해 도전정신과 자부심을 갖고 매진하는 태도이며, 집중은 직무를 수행할 때는 주위나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몰두해 처리하는 태도이다(이재무, 2016: 57). 이재무(2016)의 연구를 제외하면 보육교사 직무열의 분석사례가 없어 다른 직무분야에서 사용한 지표들을 선택하였다.

넷째,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는 별도의 세부 측정지표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이직에 대한 고민이나 행동하기 위한 자료수집, 실제 실행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강제희·김진영(2013), 구은미·박성혜(2013) 등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를 파악한 선행연구들도 이직의도에 대한 별도의 세부지표는 설정하지 않았다.

〈표 1〉 연구의 분석변수에 대한 측정지표와 설문내용

분석변수 및 세부지표	문항 수	참고 선행연구
직무요구	역할갈등	Rizzo, House & Lirtzman(1970), Karasek &
	역할모호성	Theorell(1990), QEEW(1994), Schaufeli,
	과중한 업무	Bakker & Van Rhenen(2009), 이춘길(2015),
	감정적 요구	최민석(2016)

(표 1 계속)

분석변수 및 세부지표	문항 수	참고 선행연구
직무자원	업무자율성	Hackman & Oldham(1980), QEEW(1994), Demerouti et al.(2001)이춘길(2015), 최민석(2016)
	사회적 지원	
	피드백	
	자기개발기회	
직무열의	활력	Schaufeli et al.(2006), 이재무(2016)
	전념	
	집중	
이직의도	5	Becker(1960), 강재희·김진영(2013), 구은미·박성혜(2013)

설문문항은 각 세부 측정지표별로 해외의 참고 선행연구의 원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번역하여 사용한 국내 참고 선행연구의 문장이 적절하게 한글화되었는지 전문 번역기관을 통해 판별한 뒤, 설문의 주체를 보육교사로 변경하여 구성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실행되었다. 첫째, 신뢰도분석을 통해 설문 문항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신뢰도분석은 크론바하 알파값(Cronbach's α)을 확인하여 .600 이상의 값을 가진 경우에 유의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통상 크론바하 알파값이 .600이면 수용할 수 있고 .800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이학식·김영, 2003: 107). 각 분석변수별 문항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을 산출한 결과, 직무요구의 역할갈등 .850, 역할모호성 .901, 업무과부하 893, 감정적 요구 .882, 직무자원의 업무자율성 .885, 사회적 지원 .857, 피드백 .880, 자기개발기회 .893을 나타냈다. 또한 직무열의의 활력은 .832, 전념은 .947, 집중은 .826, 이직의도는 .829의 크론바하 알파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모두 .800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어 내적일관성이 결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항목 모두를 요인분석에 투입하였다.

둘째, 세부 측정지표별로 타당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통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지표의 타당성을 강화하지만, 본 연구가 사용하는 세부 분석지표들의 경우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요인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지표들에 대해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적용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결과로 도출된 공통성(communality) 지수만을 확인

하였다. 지수를 확인하여 .500 이상인 지표들은 측정도구로서 유의한 공통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지표로 확정하였다. 배리맥스 회전방법을 적용하여 주성분분석 추출방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의 모든 요인들이 .500이 넘는 공통성 지수를 나타내어 충분한 요인으로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직의도 세부지표 ‘이직을 위해 친구나 친척, 알선기관 등을 접촉한 경험이 있다’ 1개의 요인적재량이 .455에 불과하여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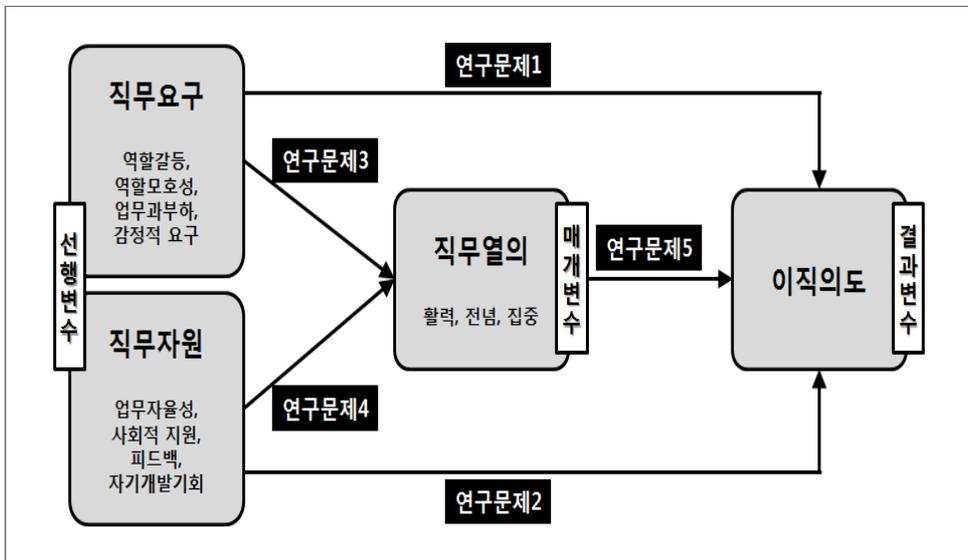
셋째, 세부 측정지표별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결정된 세부 분석지표들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직무요구는 역할갈등 2.23, 역할모호성 1.94, 업무과부하 2.47, 감정적 요구 2.69로 감정적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직무자원은 업무자율성 3.21, 사회적 지원 3.82, 피드백 3.42, 자기개발기회 3.42로 사회적 지원이 가장 높았다. 또한 직무열의는 활력 3.28, 전념 3.77, 집중 3.57로 전념이 가장 높았고, 이직의도는 2.31이었다. 직무요구나 이직의도와 같이 부정적 요인의 기술통계량은 모두 3.0에 못미치고 있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고, 직무자원이거나 직무열의와 같이 긍정적 요인의 기술통계량은 모두 3.0을 넘고 있었다. 사회적 지원이나 전념은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 3.5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는 것에 비해 업무자율성이나 활력은 3.5에 많이 미치지 못해 요인별 편차가 다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변수별 관계에 대해 검증한 후,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시킨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방법을 활용한 Baron &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독립변수로 선정한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매개변수로 추정되는 직무열의, 결과변수인 이직의도에 각각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확인하고, 직무열의와 이직의도 사이의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판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통해 매개변수의 유의성 검증을 행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가 검증하려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이직의도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이직을 줄일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 안정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보육정책의 효과성 향상이라는 목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직의도의 발생 근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요인들과 깊게 관계되어 있을 것으로 주목하였기 때문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성된 직무요구-자원모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분석에 직무요구-자원모형을 활용하고자 구

상하였다. 다만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요구-자원모형을 활용한 선례가 부재하고,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직무요구, 직무자원, 직무소진, 직무열의, 건강문제, 이직의도 사이의 일부관계에 대해서만 분절적으로 영향력 관계가 확인된 사례만 있는 바, 각 요인별 영향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검증을 필요로 하는 각 요인별 영향 관계를 연구문제로 규정하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 *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직무요구는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직무자원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 연구문제 3. 보육교사의 직무요구는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 연구문제 4. 보육교사의 직무자원은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 연구문제 5. 보육교사의 직무열의는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 연구문제 6. 보육교사의 직무요구와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서 직무열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가?
- * 연구문제 7. 보육교사의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서 직무열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가?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IV. 연구결과

1. 각 변수별 영향관계 분석결과

가. 선행변수와 결과변수 간 영향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문제 1은 모형1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투입하고, 모형2에 선행변수 직무요구를 투입해 결과변수 이직의도와와의 관계를 검증했다. 분석결과, $F=12.47(p<.001)$ 의 회귀모형적합도가 파악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8.6%($R^2=.286$)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R^2 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직무요구의 회귀계수($\beta=.528, t=10.43,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2는 모형1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투입하고, 모형3에서 선행변수 중 직무자원을 투입해 결과변수 이직의도와와의 관계를 검증했다. $F=6.35(p<.001)$ 의 회귀모형적합도가 파악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5.8%($R^2=.158$)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R^2 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직무자원의 회귀계수($\beta=-.389, t=-7.07,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표 2> 직무요구와 이직의도,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사이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변수	결과변수: 이직의도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통제변수	성별	-.105	-1.76	-.119	-2.35*	-.067	-1.21
	연령	-.017	-0.28	.026	0.51	.000	0.00
	결혼	-.127	-2.13*	-.060	-1.18	-.081	-1.46
	학력	.027	0.43	.030	0.56	.046	0.79
	자격증	.020	0.33	.035	0.70	.019	0.34
	경력	-.047	-0.79	-.040	-0.78	-.059	-1.08
	급여	-.069	-1.12	-.065	-1.23	-.065	-1.14
	근무시간	-.019	-0.33	.011	0.22	-.007	-0.13
	어린이집유형	.074	1.23	.065	1.27	.070	1.26
선행변수	직무요구			.528	10.43***		
	직무자원					-.389	-7.07***
	R^2	.040		.311		.187	
	Adj. R^2	.009		.286		.158	
	F	1.28		12.47***		6.35***	

* $p < .05$. *** $p < .001$. β 는 회귀식의 표준화계수

나. 선행변수와 매개변수 간 영향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문제 3은 모형1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투입하고, 모형2에 선행변수 직무요구를 투입해 매개변수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검증했다. 분석결과, $F=17.01(p<.001)$ 의 회귀모형적합도가 파악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9%($R^2=.359$)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R^2 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직무요구의 회귀계수($\beta=.597, t=-12.44,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4는 모형1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투입하고, 모형3에 선행변수 직무자원을 투입해 매개변수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검증했다. $F=24.28(p<.001)$ 의 회귀모형적합도가 파악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4.9%($R^2=.449$)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R^2 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직무요구의 회귀계수($\beta=.658, t=15.00,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표 3> 직무요구와 직무열의, 직무자원과 직무열의 사이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변수	매개변수: 직무열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성별	.039	0.66	.055	1.15	-.026	-0.58	
연령	.084	1.38	.035	0.72	.054	1.21	
결혼	.090	1.49	.014	0.29	.011	0.24	
학력	.052	0.82	.049	0.97	.019	0.41	
통제변수	자격증	.044	0.73	.026	0.54	.045	1.02
	경력	-.073	-1.22	-.082	-1.71	-.053	-1.18
	급여	.065	1.05	.060	1.21	.058	1.27
	근무시간	-.041	-0.70	-.075	-1.58	-.062	-1.40
	어린이집유형	-.043	-0.71	-.032	-0.67	-.036	-0.80
선행변수	직무요구			-.597	-12.44***		
	직무자원					.668	15.00***
	R^2	.034		.381		.468	
	Adj. R^2	.003		.359		.449	
	F	1.09		17.01***		24.28***	

*** $p < .001$. β 는 회귀식의 표준화계수

다. 매개변수와 결과변수 간 영향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구문제 5를 검증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연구문제 5의 검증은 모형1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투입하고, 모형2에 매개변수 직무열의를 투입해 결과변수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긍정했다. 분석결과, $F=14.06(p<.001)$ 의 회귀모형적합도가 파악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1.3%($R^2=.313$)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R^2 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직무열의의 회귀계수($\beta=.555$, $t=-11.14$,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표 4> 직무열의와 이직의도 사이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변수	이직의도				
	모형1		모형2		
	β	t	β	t	
성별	-.105	-1.762	-.083	-1.68	
연령	-.017	-0.279	.030	0.59	
결혼	-.127	-2.125*	-.078	-1.55	
학력	.027	0.428	.056	1.07	
통제변수	자격증	.020	0.328	.044	0.89
	경력	-.047	-0.793	-.088	-1.77
	급여	-.069	-1.118	-.033	-0.64
	근무시간	-.019	-0.325	-.042	-0.86
	어린이집유형	.074	1.228	.050	1.00
매개변수	직무열의		-.555	-11.14***	
	R^2	.040		.337	
	Adj. R^2	.009		.313	
	F	1.28		14.06***	

* $p < .05$. *** $p < .001$. β 는 회귀식의 표준화계수

2.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가. 직무요구와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직무요구와 이직의도 사이의 영향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문제 6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결과를 보면, 변수들이 추가됨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했고($\Delta R^2=.085$, $p<.001$), 매개변수 직무열의의 효과도 유의한 것($\beta=-.371$, $t=-6.22$, $p<.001$)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직무요구와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

에서 직무열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Sobel Test 결과($Z = \frac{a \times b}{S_{ab}}$, $S_{ab} = \sqrt{b^2 S_a^2 + a^2 S_b^2 + S_a^2 S_b^2}$), Z값이 8.26으로 산출되어 유의한 Sobel Test 값으로 인정되는 1.96보다 크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되었다.

<표 5> 직무요구와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변수	이직의도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통제변수	성별	-.105	-1.76	-.119	-2.35*	-.099	-2.07*
	연령	-.017	-0.28	.026	0.51	.039	0.81
	결혼	-.127	-2.13*	-.060	-1.18	-.055	-1.15
	학력	.027	0.43	.030	0.56	.048	0.95
	자격증	.020	0.33	.035	0.70	.045	0.95
	경력	-.047	-0.79	-.040	-0.78	-.070	-1.47
	급여	-.069	-1.12	-.065	-1.23	-.042	-0.86
	근무시간	-.019	-0.33	.011	0.22	-.017	-0.36
	어린이집유형	.074	1.23	.065	1.27	.053	1.10
선행변수	직무요구			.528	10.43***	.307	5.17***
매개변수	직무열의					-.371	-6.22***
	R^2	.040		.311		.396	
	Adj. R^2	.009		.286		.372	
	F	1.28		12.47***		16.40***	
	Sobel test						8.26

* $p < .05$. *** $p < .001$. β 는 회귀식의 표준화계수

나.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사이의 영향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문제 7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결과를 보면, 변수들이 추가됨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했고($\Delta R^2 = .151$, $p < .001$), 매개변수 직무열의의 효과도 유의한 것($\beta = -.533$, $t = -7.92$, $p < .001$)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서 직무열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Sobel Test 결과($Z = \frac{a \times b}{S_{ab}}$, $S_{ab} = \sqrt{b^2 S_a^2 + a^2 S_b^2 + S_a^2 S_b^2}$), Z값이 -8.97으

로 산출되어 유의한 Sobel Test 값으로 인정되는 -1.96보다 작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되었다.

〈표 6〉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변수	이직의도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통제변수	성별	-.105	-1.76	-.067	-1.21	-0.081	-1.62
	연령	-.017	-0.28	.000	0.00	0.029	0.58
	결혼	-.127	-2.13*	-.081	-1.46	-0.076	-1.50
	학력	.027	0.43	.046	0.79	0.056	1.07
	자격증	.020	0.33	.019	0.34	0.043	0.86
	경력	-.047	-0.79	-.059	-1.08	-0.088	-1.75
	급여	-.069	-1.12	-.065	-1.14	-0.034	-0.66
	근무시간	-.019	-0.33	-.007	-0.13	-0.040	-0.81
어린이집유형	.074	1.23	.070	1.26	0.051	1.01	
선행변수	직무자원			-.389	-7.07***	-0.033	-0.50
매개변수	직무열의					-0.533	-7.92***
	R^2	.040		.187		.338	
	Adj. R^2	.009		.158		.312	
	F	1.28		6.35***		12.77***	
	Sobel test						-8.97

* $p < .05$. *** $p < .001$. β 는 회귀식의 표준화계수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중요한 조직유효성 요인인 직무열의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여 보육교사들에 대한 전략적 관리에 유용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해 실증 과정을 거쳐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검증한 결과, 직무요구와 이직의도 간에는 정적(+) 영향관계가,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간에는 부적(-) 영향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Schaufeli와 Bakker(2004)의 직

무요구-자원모형이 제시한 ‘직무요구와 이직의도 간 정적(+) 관련성’,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간 부적(-) 관련성’이 재차 확인된 결과이다. 또한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결과는, 직무요구의 구성요인을 직무스트레스에 포함시켜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 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유현숙·권정애(2017), 정경진·윤혜미(2016)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역량의 집중적 투입을 요구하는 외부적 압박이 강해질수록 이직하려는 마음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직무요구가 부정적 속성을 가진 외부적 압박이고, 외부 압력에 대한 개인적 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강해질수록 그를 벗어나고자 하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는, 직무자원의 구성요인을 직무환경 혹은 근무환경에 포함시켜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 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이주영·고재욱(2015), 이성규(2015), 정지언·박영희(2015)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수행을 통한 목표달성과 부정적 영향력 감소를 위해 제공되는 자원들이 많아질수록 이직하려는 마음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직무자원은 긍정적 속성을 가진 직무환경적 지원이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원활함을 제공해주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무현장을 떠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를 검증한 결과, 직무요구와 직무열의 간에는 부적(-) 영향관계가, 직무자원과 직무무열 간에는 정적(+) 영향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는 Schaufeli와 Bakker(2004)의 직무요구-자원모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영향관계가 파악된 것이며, 연구문제 4의 분석결과는 Schaufeli와 Bakker(2004)의 직무요구-자원모형이 제시한 ‘직무자원과 직무열의 간 정적(+) 관련성’이 재차 확인된 결과이다. 또한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결과는, 직무요구의 구성요인을 직무스트레스에 포함시켜 보육교사의 직무열의와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이재무(2016)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역량의 집중적 투입을 요구하는 외부적 압박이 강해질수록 자발적으로 직무수행에 적극성과 만족감을 유발하는 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직무요구가 부정적 속성을 가진 외부적 압박이고 특정 대상에 대해 부정적 정서가 강해질수록 긍정적 심리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 심리에 근간한 직무열의가 직무요구의 증가에 따라 감소되는 것은 타당한 결과이다. 연구문제 4에 대한 분석결과는, 비교할 보육교사 대상의 선행연구가 부재하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수행을 통한 목표달성과 부정적 영향력 감소를 위해 제공되는 자원들이 많아질수록 자발적으로 직무수행에 적극성과 만족감을 유발하는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긍정적 속성의 직무환경적 지

원이 많아질수록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함이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한 긍정적 속성의 직무열의의 수준 역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문제 5를 검증한 결과, 직무열의와 이직의도 간에는 부적(-) 영향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Schaufeli와 Bakker(2004)의 직무요구-자원모형이 제시한 ‘직무열의와 이직의도 간 부적(-) 관련성’이 재차 확인된 결과이지만 비교할 보육교사 대상의 선행연구는 부재하다. 자발적으로 직무수행에 적극성과 만족감을 유발하는 태도가 증가할수록 이직하려는 마음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전향적으로 행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현재 직장을 떠나겠다는 모순적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순리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연구문제 6과 연구문제 7을 검증한 결과, 직무요구와 이직의도 사이의 영향관계,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사이의 영향관계 모두에서 직무열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문제 6의 분석결과는 Schaufeli와 Bakker(2004)의 직무요구-자원모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영향관계가 파악된 것이며, 연구문제 7의 분석결과는 Schaufeli와 Bakker(2004)의 직무요구-자원모형이 제시한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간 관계 속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가 재차 확인된 결과이다. 하지만 두 결과 모두 비교할 보육교사 대상의 국내 선행연구는 부재하다. 그러나 환경적 영향과 개인적 심리, 행동 직전의 태도 간 관계라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부정적 속성의 환경적 영향력인 직무요구 혹은 긍정적 속성의 환경적 영향력인 직무자원이 긍정적 심리에 근간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심리적 변화 양상이 다시 부정적 이직의도라는 태도 수준을 좌우했을 것이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진하게 시행되고 있는 보육교사 직무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시초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근거한 논의는 향후 다양한 후속연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라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요구 수준을 낮추고, 직무자원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직무요구 중 감정적 요구를 보육교사들이 가장 부정적인 직무요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감정적 요구는 감정적 표현이나 공격적 위협, 타인의 불평과 화풀이 등 보육교사의 정서적 측면을 자극하는 직무요구로써 미성숙한 영유아를 비롯해 영유아를 위탁한 부모, 보육정책 집행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기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대응해야 하는 보육교사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감정적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정적 요구의 감소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에게 감정적 요구를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기회를 공식적으로 보장해주어 직무수행으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상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무자원을 확대함에 있어 현재 체감 수준이 낮은 업무자율성이나 피드백, 자기개발기회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업무자율성의 경우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수행 일정 결정, 직무처리 시간과 속도, 완료 시점 등에 대한 독립성과 자유 보장이 관건인데, 이러한 사항들의 결정에 보육교사들의 의견과 주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라는 활동을 직무로 하는 보육교사에게 직무수행 상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업무자율성 강화해줄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부분적으로나마 직무수행에 관한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해준다면 이직의도를 줄이는데 실효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보육교사들의 경우 직무요구와 이직의도, 직무자원과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서 직무열의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직무열의를 강화할 수 있는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보육교사들은 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보육교사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활력이 감소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의 제거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일단 과도한 피로나 건강이상 등으로 활력이 소실되면 다시 채워지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며 아예 충전이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직무수행 중이라도 틈틈이 휴식을 보장해주며, 보육교사들의 심신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명상이나 요가 프로그램, 금주/금연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설에서 보육교사들의 활력증진 관리에 깊은 관심을 실질적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들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보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점차 확장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역할 수행 기대에 기인하여 본연에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재고해야 한다. 사회적 보육 욕구가 강해지면서 보육교사들의 역할 기대는 아동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자, 아동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상담자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연구자(송정애·장정순, 2008: 231), 새로운 보육서비스를 창출하는 기획자, 의사소통과 각종 조율에 능통한 정치적 관리자의 역할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이라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보육교사들에게 추가적 업무를 부과함으로써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불만이 발단이 되어 직무열의를 함양할 수 없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직무역할에 대한 명확한 제한

범위를 명시해주고 불가피하게 확장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보육교사들의 직무열의가 상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육정책적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정부나 사회적 차원에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실효성 높은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약할 수 있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현행 정책적 대응은 주로 보수체계나 신분보장 등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보수나 신분보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이 자신들이 속한 직장에 만족하면서 꾸준하게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것은 직무요구의 감소와 직무자원의 증가, 직무열의의 증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시설별로 직무요구를 효과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충분한 직무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합리화할 필요도 있다. 특히 직무열의의 경우 초기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연구를 확대하여 보육교사들의 직무열의가 강화될 수 있는 거시적 사업 구상을 검토할만하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에게 유의한 조직유효성 요인에 대한 계속적 연구를 통해 시론적 결과를 얻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의 분석대상을 서울시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보육교사로 한정했기 때문에 지역 선정의 임의성으로 인한 오류가 잠재되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 분석결과들이 태생적으로 갖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의 위치 문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외의 통제변수의 영향력 여부, 범주형 자료로 처리한 통제변수의 자료 처리 방식, 선정한 매개요인이나 조절요인 이외 요인들의 영향력 등에 대한 보다 진중한 고려가 부족했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재희·김진영(2013).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한국영유아보육학, 76, 121-138.
- 구은미·박성혜(2004). 보육교사의 건강과 기관의 조직건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4), 34-53.
- 권영란·문영경(2016).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6(1), 99-119.

- 김건옥(2016).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MeFOT 창의인성연구*. 5(1), 5-22.
- 김진호(2016). 청소년지도자의 개인자원과 직무자원, 보수만족이 일몰입과 근무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직무요구-자원(JD-R) 모형의 관점에서. *청소년문화포럼*. 46, 7-36,
- 김효연·방지영·류기상(2015). 커피전문점 종사자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JD-R), 직무열의, 직무만족의 관계 연구. *외식경영연구*. 18(1), 95-115,
- 박상언(2012).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각된 정서적 안녕(Affective Well-Being)이 직무요구-자원 모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실증연구. *인사·조직연구*. 20(1), 177-220.
- 박상언·김민용(2006). 직무요구와 직무소진(job burnout) 그리고 조직공정성 요인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5(2), 367-388.
- 배성희·김연화·한세영(2014).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1), 234-258.
- 송정애·장정순(2008). 보육교사의 역할갈등이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4), 229-249.
- 오아라·김성환(2016). 직무요구-자원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16(4), 1-17.
- 오정학·육풍림(2011). 카지노종사원의 직무요구, 직무자원과 소진 그리고 직무만족의 관계 - 직무요구-자원(JDR) 모형과 안면환류가설(FFH)의 관점에서. *관광연구*. 26(4), 375-397.
- 유미나·신나리(2013). 보육교사의 소진과 관련된 직무만족도와 직장 내 사회적 지지. *생애학회지*. 3(2), 73-85.
- 유현숙·권정애(2017).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조직헌신, 소진과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21(1), 113-132.
- 윤혜미·노필순(201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경력몰입, 소진과 이직의도 간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43, 157-184.
- 이미화·김명순(2004). 영아를 위한 대화식 그림책 읽기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아동학회지*. 25(2), 41-57.
- 이병록·이광연(2012).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71, 53-72.
- 이성규(2015). 보육교사의 직무특성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4), 593-612.

- 이재무(201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열의, 조직몰입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10(2), 51-82.
- 이재무(2017). 직무요구-자원모형을 활용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영향요인과 직무만족 간 관계구조 분석. 한국행정연구, 25(4), 133-168.
- 이재무·송영선(2012).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2, 379-399.
- 이재무·조성명·송영선(2013). 보육교사의 경력과 근무여건에 따른 조직신뢰가 어린이집 내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 어린이집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3(3), 71-93.
- 이주영·고재욱(2015). 영아보육교사의 직무환경과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63-82.
- 이철기·윤동열(2015). 직무요구-자원모형을 활용한 직업상담사의 직무소진 및 업무열의에 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22(5), 169-186.
- 이춘길(2015). 직무요구-직무자원과 조직유효성 및 조절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학식·김영(2003). 기업경영연구. 서울: 법문사.
- 이혜원(2011). 보육교사의 조직몰입과 경력몰입,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5(2), 109-126.
- 임광모·탁진국(2016). 직무요구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2), 61-83.
- 정경진·윤혜미(2016).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및 이직의도. 한국영유아보육학, 86, 129-152.
- 정지언·박영희(2015).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진의 매개효과와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5(6), 297-316.
- 조윤성·홍아정(2016).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진성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간 구조적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33(2), 337-366.
- 최민석(2016). 직무 소진과 작업 열의가 직무 스트레스관련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 직무 요구-자원 모형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인숙·이혜숙·임신일(2013). 보육교직원이 경험한 직무스트레스 개념도 연구 - 원장과 보육교사간 비교. 아동교육, 22(4), 277-292.
- 최형성(2015).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모형 탐색: 소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2), 101-118.
- 하성욱·장함자(2014). 직무요구와 직무소진 그리고 리더십 유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21(4), 23-47.

- Bollin, G. G.(1993). An Investigation of Job Stability and Job Satisfaction among Family Day Care Provid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207-220.
- Caplan, R. D.(1983). Person-environment fit: Past, present and future. 35-78 in *Stress Research*. Cooper, C. L. London: Wiley.
- Demerouti, E., Bakker, A. B., Nachreiner, F., & Schaufeli, W.B.(2001). The job demands resources model of burnou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3): 499-512.
- Gardner, D. G.(1986), Activation theory and task design: An empirical test of several new predic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3), 411-418.
- Hackman, J. R. and Oldham, G. R.(1976).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6(2), 250-279.
- Harter, J. K., Schmidt, F. L. & Hayes, T. L.(2002). Business Unit-Level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Satisfaction, Employee Engagement and Business Outcome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2), 268-279.
- Karasek, R. A.(1979),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2), 285-308.
- Karasek, R. A., & Theorell, T.(1990). *Healthy Work: Stress, Productivity and the Reconstruction of Working Life*. New York: Basic Books.
- Leiter, M. P., & Maslach, C.(2000). *Preventing burnout and building engagement: A complete program for organizational renewal*. San Francisco: Jossey Bass.
- Mobley, W. H. (1982). *Employee turnover,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MA: Addison-Wesley.
- Molgaard, V. K.(1993). Caregiver's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Day Care Business and Their Own Families. *Child and Youth Care Forum*, 22, 55-71.
- Schaufeli, W. B., & Bakker, A. B.(2004).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sampl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 293-315.
- Schaufeli, W. B., Bakker, A. B., & Salanova, M.(2006). The measurement of work engagement with a short questionnaire: a cross-national stud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 701-716.
- Schaufeli, W. B., Bakker, A. B., & Van Rhenen, W.(2009). How changes in job

demands and resources predict burnout, work engagement, and sickness absenteeism.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0(7): 893-917.

Warr, P. & Inceoglu, I.(2012). Job Engagement, Job Satisfaction, and Contrasting Associations With Person-Job Fit.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7(2), 129-138.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1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박용성,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메일 yspark1@paran.com

Abstract

The Effects of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on Turnover Intention and Mediating Effect of Job Engagement of Child-Care Teachers

Lee Jae-Moo and Park Yong-Sung

This study determines how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of a teachers of child-care centers influence the teachers' turnover intention and confirms whether job engagement, an important factor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teracts as a mediation facto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eachers did not fully feel pressure because of job demands nor did they realize the effect of job resources, except for some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job tenure was high, and the turnover intention was relatively low. The results show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job demands and turnover intention,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job resources and turnover intention,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job demands and job engageme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job resources and job engagement, and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job engagement and turnover intention. Furthermore, job engagement acted as a mediator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demands and turnover intention and also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resources and turnover intention.

Keyword: child-care teacher, job demands, job resources, turnover intention, job engagement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수로

김진성¹⁾

요 약

본 연구는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수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 중 아버지를 대상으로 설문한 데이터이며, 이중 결측치를 제외한 1,455 가구의 데이터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분석 데이터로 선정된 자료는 SPSS 24.0 WIN과 AMOS 24.0 WI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자기통제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쳤으며,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온정적 양육행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아버지의 우울은 유아의 자아통제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아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유아의 발달을 위하여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감을 낮추는 한편, 긍정적인 자아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아버지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자기통제능력

1) 연세대학교 신학과 상담코칭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I. 서론

자기통제능력(self-control)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송명자, 1995; 정옥분, 2004). 자기통제능력은 유아기에 기초가 형성되며, 이후 인지발달뿐 아니라 사회적 유능감, 정서, 도덕성, 정신병리 등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Bronson, 2000; Perry, 2002; Tangney, Baumsiter, & Boone, 2004). 실제로 만약 자기통제능력이 약하여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항상 다른 사람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공격적인 행동이나 청소년기 비행과 같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Wenar, 1998).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도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자기통제능력을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이 나타남은 자기통제능력이 부족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송명자, 1995). 또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은 학업이나 또래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 정서 및 행동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낮고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많이 보일 뿐 아니라 학습 동기나 성취도 낮았으며, 학습으로 인한 소진도 높았다(남상필·이지연·장진이, 2012; Mayer & Salovey, 1997). 유아에게 있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각적인 욕구나 행동을 억제하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자기통제능력은 유아가 이후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자기통제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아 초기부터 아동기에 이르는 발달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발달한다(Kopp, 1982). 자기통제의 발달에 관한 이론들에서는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다(정옥분, 2004). 하나는 유아들의 행동은 거의 전적으로 부모 등에 의한 외적인 감독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아가 자기통제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준을 채택하고 그 기준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습득함에 따라, 자기통제는 점차 내면화되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자기통제능력의 발달에 있어 유아의 인지적 발달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유아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모가 유아에게 애정과 관심이 많고, 일관적이며, 유아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유아의 입장을 존중할수록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이 높아지는 반면, 자녀에게 엄격한 통제와 부모가 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훈육 시 체벌을 사용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재·이영환, 2010; 정옥분, 2004; 조운주·김은영, 2014; Eiden, Edwards, & Leonard, 2007; Malin et al., 2014; Meece & Robinson, 2013).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였다. 1970년대 이후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연구에 비하여 상당부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대부분 어머니에게 집중된 연구들로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았다는 연구(양미숙, 2005), 아버지의 정서표현이 긍정적일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았다는 연구(유은희·임미옥, 2006),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대하여 아버지의 역할이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정지영·도현심·최미경, 2005), 아버지와 유아의 상호작용에서 설득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이 높았다는 연구(이수재·이영환, 2010), 아버지의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이 높다는 연구(은채린·성소영, 2012) 정도이다.

한편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부모가 수행하는 양육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신념, 정서,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 내적 변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핵심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Belsky, 1984; Doherty, Kouneski, & Erickson, 1998).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아버지일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 반면(김정주·김용미, 2011; 김혜영·고효정, 2012; 노보람 외, 2016), 아버지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수행의 질은 낮아지고 자녀를 수용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신체적 처벌을 하는 행동,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행동 등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증가하였다(김가윤·신혜영, 2013; 조선휘, 1998; 최효식·연은모, 2014). 김미숙과 김바다(2016)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애정적/독립적 양육행동은 높고,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은 낮아졌다. 또한 김규수, 윤진주와 김선희(2004)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우울, 애착, 자아존중감과 같은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Abidin, 1995). 특히 아버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양

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수경 외, 2016; 양진희·김영철, 2016; 최효식·연은모, 2014; Cowan & Cowan, 2010; Saisto et al., 2008).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버지일수록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최효식·연은모, 2014; Cowan & Cowan, 2010).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함께 우울 또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버지의 높은 우울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수경 외, 2016; 최효식·연은모, 2014). 반면 단기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양진희와 김영철의 연구(2016)에서는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이는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연구결과가 아직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Belsky, 1984; Wilson & Durbin, 2010). 낮은 우울과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버지일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최효식·연은모, 2014). 장진영, 김진희와 김영희(2011)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우울은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행동을 통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이르러 아버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성의 발달을 예측하는 유아발달의 주요한 변인인 자기통제능력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로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등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아동패널(PSKC) 7차년도(2014)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총 2,078가구를 선정하여 매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7차년도(2014) 데이터에는 총 1,620가구가 참여하였다. 표본은 아버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직접 설문에 참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하도록 모형에 투입된 변인의 결측치를 제외한 1,455 가구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가. 우울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육아정책연구소, 2014)에서는 아버지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Kessler와 동료들(2002)이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한 Kessler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아버지의 우울을 측정한 데이터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Kessler 우울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안 느낌(1점)’에서 ‘항상 느낌(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94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455, 단위:명(%)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유아성별	남아	746(51.3)
	여아	709(48.7)
유아월령	72 ~ 74개월	507(34.8)
	75 ~ 77개월	862(59.2)
	78 ~ 79개월	86(5.9)
아버지 연령	30세 이하	10(0.7)
	31 ~ 40세	935(64.3)
	41 ~ 50세	497(34.2)
	51세 이상	13(0.9)
아버지 소득	150만원 이하	25(1.7)
	151 ~ 250만원	169(11.6)
	251 ~ 350만원	338(23.2)
	351 ~ 450만원	360(24.7)
	451 ~ 550만원	264(18.1)
	551 ~ 650만원	129(8.9)
아버지 최종학력	651만원 이상	170(11.7)
	중졸 이하	7(0.5)
	고졸	387(26.6)
	대졸	909(62.5)
	대학원졸	152(10.4)

나. 자아존중감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육아정책연구소, 2014)에서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가 개발, 이상균(1999)이 번안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데이터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적재치 값이 낮은 1문항을 제외한 총 9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일부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91로 나타났다.

다. 온정적 양육행동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육아정책연구소, 2014)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복희와 동료들(1999)이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부모 양육방식 척도 중 온정적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한 데이터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온정적 양육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기꺼이 자녀양육을 수행하면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양육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측정도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온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86으로 나타났다.

라. 양육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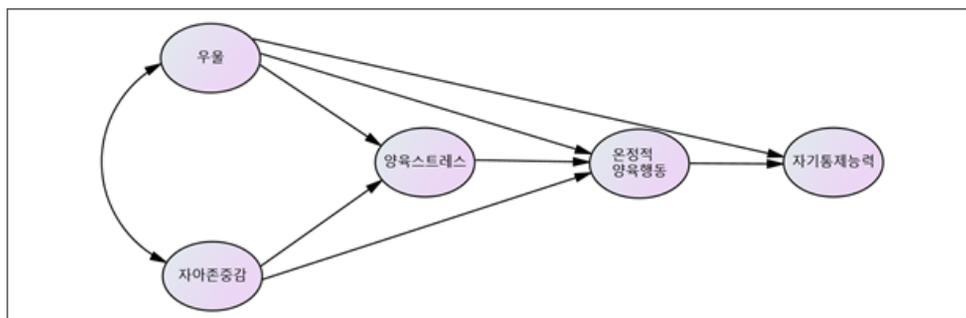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육아정책연구소, 2014)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 요인 중 ‘부모역할 수행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한 데이터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적재치 값이 낮은 2문항을 제외한 총 9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에서는 아버지가 부모역할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아버지가 지각하는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87로 나타났다.

마. 자기통제능력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육아정책연구소, 2014)에서는 유아의 자기통제능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Gresham과 Elliott가 개발하고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하였으며,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아동용 사회적 기술척도(K-SSRS) 중 자기통제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을 측정한 데이터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유아의 자기통제를 측정한 본 도구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적재치 값이 낮은 2문항을 제외한 총 5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3점)’까지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기통제능력은 유아가 부모의 지시에 잘 따르고, 게임이나 활동 시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며, 환경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가지고 있는 자기통제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7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데이터는 SPSS 24.0 WIN과 AMOS 24.0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연구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a*를 산출하여 다문항으로 이루어진 변인들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 연구변인들의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요 연구변수들의 특성 및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온정적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각 모형과 자료 간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TLI(기준>.90), NFI(기준>.90), RMSEA(기준>.05), AGFI(기준>.90)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주요 연구변수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전체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한 연구모형은[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 결과

1. 기초통계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 평균은 최소 1.77에서 최대 4.13, 표준편차는 최소 .534에서 최대 1.024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값이 최소 .107에서 최대 1.356, 첨도는 절대값이 최소 .00에서 최대 2.556의 값을 보였다. 이는 왜도가 2보다, 첨도가 7보다 작으므로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Curran, West, & Finch, 1996).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소 -.541에서 최대 .499의 상관을 보였으며, 모든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8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과 아버지의 우울($r=-.057, p<.05$), 그리고 양육스트레스($r=-.167, p<.01$)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유아의 자아통제능력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r=.144, p<.01$), 그리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r=.124, p<.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함께 우울과 온정적 양육행동($r=-.284, p<.01$), 그리고 자아존중감($r=-.521, p<.01$)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과 양육스트레스($r=.499, p<.01$)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상관($r=-.541, p<.01$)을 보였으며, 온정적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r=.420, p<.01$)을 보였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r=-.540, p<.01$)을 보였다.

〈표 2〉 유아의 자기통제능력과 아버지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온정적 양육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1455, 단위: 점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M	2.51	2.52	2.50	2.52	2.48	1.95	1.98	1.75	2.19	1.68	1.64	
SD	.541	.536	.534	.538	.535	.897	.890	.784	1.002	.782	.753	
왜도	-.463	-.438	-.357	-.482	-.288	.947	.799	1.163	.705	1.356	1.282	
첨도	-.972	-1.053	-1.149	-.982	-1.172	.859	.397	1.973	.058	2.556	2.149	
변수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M	3.42	3.66	3.43	3.09	3.67	3.81	2.25	2.13	2.21	1.88	2.05	1.84
SD	.778	.686	.788	.870	.706	.686	.847	.808	.871	.835	.843	.817
왜도	-.159	-.434	-.197	-.081	-.366	-.368	.357	.453	.504	.762	.540	.809
첨도	-.073	.440	-.217	-.469	.255	.335	-.313	-.039	-.059	.373	-.068	.416
변수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M	2.66	3.02	2.10	3.95	3.77	1.93	4.13	2.20	3.84	3.66	1.86	1.77
SD	1.024	.890	.845	.751	.755	.828	.761	.868	.793	.803	.825	.833
왜도	.107	-.350	.492	-.475	-.230	.785	-.864	.332	-.373	-.290	.762	.910
첨도	-.698	-.188	-.111	.544	.021	.532	1.391	-.306	.000	-.005	.334	.351

주: 1. 자기통제능력1, 2. 자기통제능력2, 3. 자기통제능력3, 4. 자기통제능력4, 5. 자기통제능력5, 6. 우울1, 7. 우울2, 8. 우울3, 9. 우울4, 10. 우울5, 11. 우울6, 12. 온정적 양육행동1, 13. 온정적 양육행동2, 14. 온정적 양육행동3, 15. 온정적 양육행동4, 16. 온정적 양육행동5, 17. 온정적 양육행동6, 18. 양육스트레스1, 19. 양육스트레스2, 20. 양육스트레스3, 21. 양육스트레스4, 22. 양육스트레스5, 23. 양육스트레스6, 24. 양육스트레스7, 25. 양육스트레스8, 26. 양육스트레스9, 27. 자아존중감1, 28. 자아존중감2, 29. 자아존중감3, 30. 자아존중감4, 31. 자아존중감5, 32. 자아존중감6, 33. 자아존중감7, 34. 자아존중감8, 35. 자아존중감9

〈표 3〉 유아의 자기통제능력과 아버지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N=1455

구분	자기통제능력	우울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능력	1				
우울	-.057*	1			
온정적 양육행동	.144**	-.284**	1		
양육스트레스	-.167**	.499**	-.541**	1	
자아존중감	.124**	-.521**	.420**	-.540**	1

* $p < .05$. ** $p < .01$.

2. 모형검증

가.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전 단계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수들을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값은 1671.358(df=686), TLI값은 .946, NFI값은 .932, RMSEA값은 .038로 모형은 자료에 잘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요인과 연구변수 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표준화 λ 의 C.R.값이 $p < .05$ 기준에서 1.96이상이어야 한다(노경섭, 2014).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아존중감 1문항(C.R.=.712, $p > .05$)은 제외하였다. 또한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기준 표준화 $\lambda > .5$)과 판별타당성(기준 $AVE > \rho^2$)을 검증한 결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양육스트레스 2문항(표준화 $\lambda = .473, .398$)과 자기통제능력 2문항(표준화 $\lambda = .481, .421$)을 제외하였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최종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최종 측정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성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λ	S.E.	C.R.	표준화 λ	AVE	ρ^2
자기통제 능력(A)	→ 자기통제능력1	1			.705	0.7307141	A&B 0.003481
	→ 자기통제능력2	.778	.044	17.722	.543		
	→ 자기통제능력3	.984	.045	21.855	.696		
	→ 자기통제능력4	1.034	.046	22.486	.726		
	→ 자기통제능력5	.886	.044	20.069	.626		
우울(B)	→ 우울1	1			.800	0.75475645	A&C 0.0196
	→ 우울2	1.040	.024	42.857	.801		
	→ 우울3	1.253	.041	30.887	.753		
	→ 우울4	1.166	.030	38.687	.896		
	→ 우울5	1.253	.035	36.090	.849		
	→ 우울6	1.323	.037	35.607	.889		
자아 존중감(C)	→ 자아존중감1	1			.661	0.63437335	A&E 0.035344
	→ 자아존중감2	1.052	.037	28.475	.690		
	→ 자아존중감3	1.246	.056	22.081	.740		
	→ 자아존중감4	.950	.044	21.493	.615	B&C 0.330625	
	→ 자아존중감5	1.269	.058	21.949	.720		
	→ 자아존중감6	1.107	.046	24.164	.688		
	→ 자아존중감7	1.147	.047	24.295	.703	B&D 0.097344	
	→ 자아존중감8	1.320	.057	23.345	.788		
	→ 자아존중감9	1.309	.057	23.018	.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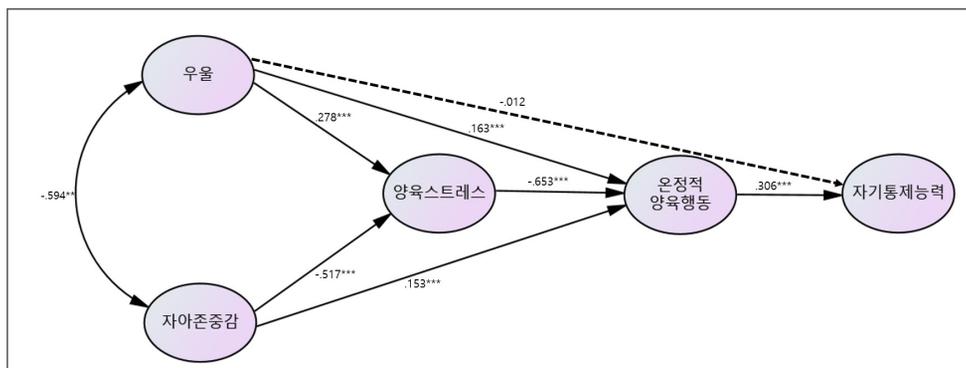
(표 4 계속)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λ	S.E.	C.R.	표준화 λ	AVE	ρ^2
온정적 양육행동 (D)	→ 온정적 양육행동1	1			.706	0.65793683	B&E 0.297025
	→ 온정적 양육행동2	1.042	.039	26.739	.716		
	→ 온정적 양육행동3	1.089	.053	20.630	.607		
	→ 온정적 양육행동4	1.215	.049	24.658	.747		
	→ 온정적 양육행동5	1.125	.043	25.893	.795		
	→ 온정적 양육행동6	1.139	.050	22.818	.710		
양육 스트레스 (E)	→ 양육스트레스1	1			.875	0.50949104	C&D 0.212521
	→ 양육스트레스2	.934	.019	49.053	.855		
	→ 양육스트레스3	.793	.031	25.247	.673		
	→ 양육스트레스4	.696	.032	21.905	.617		
	→ 양육스트레스5	.799	.032	25.341	.701		
	→ 양육스트레스6	.677	.033	20.378	.614		
	→ 양육스트레스7	.699	.037	18.773	.505		
	→ 양육스트레스8	.699	.035	20.199	.581		
	→ 양육스트레스9	.669	.035	19.108	.585		

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및 온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자기통제능력 간의 인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즉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은 5009.791(df=552), TLI값은 .837, NFI값은 .834, RMSEA값은 .075, AGFI값은 .777로 적합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변수 간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기준으로 동일 외생잠재변수와 내생잠재변수의 측정오차 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우울과 자기통제능력 간의 직접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값은 1541.002(df=504), TLI값은 .959, NFI값은 .949, RMSEA값은 .038, AGFI값은 .924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차이검증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48, χ^2 차이는 3468.789로, 자유도 50, 유의수준 .05에서의 임계치 67.50보다 컸다. 따라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차이가 없다는 가설은 기각되어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최종모형

〈표 5〉 연구모형과 최종모형의 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NFI	RMSEA	AGFI
연구모형	5009.791	552	.000	.837	.834	.075	.777
최종모형	1541.002	504	.000	.959	.949	.038	.924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6>와 같다.

〈표 6〉 유아의 자기통제능력과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및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모수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λ	표준화 λ	S.E.	C.R.
우울 → 양육스트레스	.313	.278	.037	8.341
우울 → 온정적 양육행동	.131	.163	.028	5.945
우울 → 자기통제능력	-.006	-.012	.016	-.383
자아존중감 → 양육스트레스	-.587	-.517	.042	-13.866
자아존중감 → 온정적 양육행동	.124	.153	.035	3.547
양육스트레스 → 온정적 양육행동	-.465	-.653	.037	-12.645
온정적 양육행동 → 자기통제능력	.166	.306	.028	5.945

연구문제1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beta=.278$, $p<.001$),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517$, $p<.001$). 이는 아버지의 우울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우울은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12$, $p>.05$). 다음으로 연구문제2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우울($\beta=.163$, $p<.001$)과 자아존중감($\beta=.153$, $p<.001$)은

온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653, p<.001$). 이는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아버지일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임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306, p<.001$). 이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3과 4를 검증하기 위해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자아통제능력 간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와 같이 우울에서 자기통제능력으로의 경로를 제외하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온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우울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우울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표 7> 유아의 자기통제능력과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및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증 결과

경로	전체 효과(β)	직접 효과(β)	간접 효과(β)
우울 → 양육스트레스 → 온정적 양육행동	-.015(-.018)	.131(.163)	-.146(-.181)
자아존중감 → 양육스트레스 → 온정적 양육행동	.397(.490)	.124(.153)	.273(.337)
우울 → 온정적 양육행동 → 자기통제능력	-.002(-.006)	-	-.002(-.006)
자아존중감 → 온정적 양육행동 → 자기통제능력	.066(.150)	-	.066(.150)
양육스트레스 → 온정적 양육행동 → 자기통제능력	-.077(-.199)	-	-.077(-.199)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인과관계와 이들이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자아존중감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온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손수경 외, 2016; 최효식·연은모,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양진희와 김영철의 연구(2016)는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양진희·김영철, 2016; 최효식·연은모, 2014; Cowan & Cowan, 2010),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최효식·연은모, 2014)는 지지하였다. 이는 Belsky(1984)와 Doherty, Kouneski, Erickson(1998)이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제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국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미숙·김바다, 2016; 이수재·이영환, 2010).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인 아버지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부모상담, 아버지 학교 등의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높은 우울과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위험요인을 선별(screening)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아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우울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장진영·김진희·김영희, 201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우울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장진영, 김진희와 김영희(2011)의 연구결과는 지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장진영, 김진희와 김영희(2011)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정의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유아 문제행동의 기저가 되는 자기통제능력을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로 하였다는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우울은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아

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또한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발달에 주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기통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온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버지를 위한 양육코칭 및 육아학교 등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아버지 양육행동의 중요성과 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상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아버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으며,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아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우울은 유아의 자아통제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아져 유아의 자아통제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건강한 유아의 발달을 위하여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우울감을 낮추는 한편, 긍정적인 자아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제안을 논의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을 만 6세 유아를 둔 아버지만으로 분석을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이영환, 2014). 따라서 연구의 대상을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로 한다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자기통제능력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온정적 양육행동만을 매개요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자녀에 대한 양육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온정적인 양육행동의 정도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긍정적인 양육이란,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양육방식으로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허용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녀들을 지배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방식이다(이경선, 2011; 조복희 외, 1999).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차원으로 함께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행동은 어머니에 비하여 가족·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상호적으로 영향을 준다(Doherty, Kouneski, & Erickson, 1998).

이는 아버지에 대한 연구를 생태체계적 관점(ecological systemic perspective)에서 수행될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 즉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요인에 대하여 어머니 요인, 자녀 요인, 그리고 정책, 직장문화, 가치관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양적연구방법은 계량화된 자료를 통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연관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양적연구는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인간 내면에 담겨있는 본질을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버지 양육행동과 관련한 변수들, 그리고 유아의 자아통제능력 사이에 담겨있는 본질과 상호적 관계의 심층적 서술(thick description)을 담아내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이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을 통하여 양적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가운·신혜영(2013).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 탐색.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191-213.
- 김규수·윤진주·김선혜(2004). 유아의 사회 성숙도와 아버지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성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2), 277-295.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숙·김바다(2016).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8(4), 21-38.
- 김정주·김용미(201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아동기 경험이 아버지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1), 113-129.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혜영·고효정(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 계명학교 간호과학, 16(1), 35-44.
- 남상필·이지연·장진이(2012). 학업성취 압력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1(3), 219-230.

- 노경섭(2014).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통계분석. 서울: 한빛아카데미.
- 노보람·은민선·이강이·김은영(201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구조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3(4), 155-179.
-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3.
- 손수경·장유나·노주성·홍세희(2016). 부와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육아정책연구*, 10(3), 25-50.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양미숙(2005).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학교 생활적응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진희·김영철(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인과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2), 33-57.
- 유은희·임미옥(2006).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97-106.
- 은채린·정소영(2012). 아버지의 리더십과 자녀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3), 43-63.
- 이경선(201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관련 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27-145.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수재·이영환(2010). 아버지-유아 상호작용 유형 및 아버지 통제전략이 유아의 자기통제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99-118.
- 이영환(2014). 아버지의 부모역할과 아동발달. 경기: 교육과학사.
- 장진영·김진희·김영희(2011). 아버지의 우울과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2(2), 79-107.
-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지영·도현심·최미경(2005).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통제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305-319.
-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 37(10), 123-133.
- 조선화(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 수행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운주·김은영(2014). 유아의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8(2), 155-174.
- 최효식·연은모(2014).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 태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6), 5-30.
- Abidin, R. R. (1995). *The Parenting Stress Index(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ronson, M. B.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Y: The Guilford.
- Cowan, C. P., & Cowan, P. A. (2010). Association between father-daughter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academic engagement of African American adolescent girls: Self-esteem as a mediator? *Journal of Black Psychology*, 35(4), 495-516.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oherty, W. J., Kouneski, E. F., & Erickson, M. F. (1998). Responsible fathering: An overview and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277-292.
- Eiden, R. D., Edwards, E. P., & Leonard, K. E. (2007). A conceptual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mong kindergarten children on alcoholic families: Role of parenting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3(5), 1187-1201.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ters, E. E., & Zaslavsky, A. M.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opp, C. B. (1982). Antecedent of self 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Malin, J. L., Cabrera, N. J., Karberg, E., Aldoney, D., & Rowe, M. L. (2014). Low-income, minority fathers' control strategies and their children's regulatory skill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5(5), 462-472.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P., & Sluyter, D.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 New York: Basic Books.
- Meece, D., & Robinson, C. M. (2013). Father-child interaction: Associations with self-control and aggression among 4.5-year-old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4*(5), 783-794.
- Perry, N. E. (2002). Promoting nonviolent behavior in children. *Scholastic Early Childhood Today, 16*, 26-29.
- Saisto, T., Salmela-Aro, K., Nurmi, J.-E., & Halmesmäki, E. (2008). Longitudinal study on the predictors of parental stress in mothers and fathers of toddlers. *Journal of Psychosomatic Obstetrics & Gynecology, 29*, 213-222.
- Tangney, J. P., Baumsiter, R. F., & Boone, A. I.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 271-324.
- Wenar, C. (1998). 발달정신병리학 3판(이춘재 외 공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Wilson, S., & Durbin, C. E. (2010).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on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167-180.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김진성, 연세대학교 신학과 상담코칭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이메일 elim2002@hanmail.net

Abstract

The Influences of Paternal Depression,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on Child's Self-Control: with Mediation of Warm Parental Behavior

Jinsung Kim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fluences of paternal depression, self-esteem, parenting stress, and warm parental behavior of father on child's self-control. For the purpos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tested. The data for the analysis was the seventh data collected for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PSS 24.0 WIN and Amos 24.0 WIN program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with 1455 c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aternal depression had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parenting stress, and self-esteem had negative influence on parenting stress. Also, depression and self-esteem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warm parental behavior through parenting stress. Second, paternal depression did not influence child's self-control directly. However, through paternal warm parental behavior as a mediator, paternal depression,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influenced child's self-control indirectl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e need for the programs, to reduce paternal depression, that influences parenting stress and professional support programs to promote positive self-esteem.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aternal depression, self-esteem, parenting stress, warm parental behavior, child's self-control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적용한 종단 매개효과 분석

박새롬¹⁾ 노보람²⁾ 박혜준³⁾ 이순형⁴⁾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각각 검증하고,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5차 연도(2012년)~7차 연도(2014년) 부모 1,352쌍의 자료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부부갈등(2012년)이 온정적 양육태도(2013년)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상대방효과는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이 유의하였다. 자기효과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부부갈등(2012년)이 가족유연성(2013년)의 지각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효과 크기 비교 결과,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는 어머니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방효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2014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관계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 사회적 유능감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및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4)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I. 서론

가족은 영유아기 자녀가 최초로 마주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회·정서적 환경이다. 가족체계이론의 관점에서는 가족을 모빌에 비유하여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원과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본다. 가족의 하위체계인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는 영유아기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족 하위체계 간 상호작용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달의 맥락을 조성하고 역할모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상호작용 특성으로 부부갈등, 양육태도, 그리고 가족의 기능에 주목하여 이들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횡단 및 종단 연구들은 부부갈등(김미정, 2015; 윤해옥·최효식, 2016; 정소희, 2011), 양육태도(이찬숙·이재호, 2009; 채영문, 2010; Anthony et al., 2005; Baumrind, 1978; Rispoli et al., 2013), 가족기능(권태우·조규관, 2015; 선애순·이미나, 2012; 표하나·김영모, 2005)을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가족 내 상호작용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거나 어머니 혹은 아버지만의 응답을 분석하여 가족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활용하여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과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종단적 구조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은 사회적응과 관련된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사회의 규칙과 가치를 내면화하는 능력이다. Rose-Krasnor(1997)의 메타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유능감은 상호작용에서의 효율성을 의미하는데, 연구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회적 기술, 사회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 혹은 발달 결과로 사용되었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은 사회적 정보의 처리과정, 갈등 조절 기술,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 가정에서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라는 다면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Webster-Stratton & Lindsay, 1999).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유아는 다른 유아와의 관계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아는 또래에게 잘 수용되고 교사와도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이찬숙·이재호, 2009).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감의 여러 측면 중 가정 및 일상생활 맥락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초점을 두며 여기에 부부갈등,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유연성과 같은 가족 내 상호작용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 및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부부갈등은 부부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부부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하며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이인정·김미영, 2014). 부부갈등이 정상적인 것이라 해도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거나 적절히 다루어지지 못하면 부부의 정신건강과 부부관계를 해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은 자녀를 포함한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자녀에게 부모의 부부갈등은 부모의 이혼보다 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정소희, 2011). 부모의 부부갈등은 그 자체로 자녀에게 스트레스 원인으로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높임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하고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하다고 지각하는 자녀는 높은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하며, 공격 성향 또한 증가한다(박정희·유순화, 2007).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 때 유아기 자녀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고(임미지·문혁준, 2014),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 때 자녀의 친사회적 또래상호작용은 낮아지고 반사회적 또래상호작용은 높아진다(김미정, 2015).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부부갈등은 부모가 어떻게 갈등상황을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모델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자녀는 부모가 부부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을 지켜보면서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이는 자녀의 사회성발달과 관련될 수 있다.

부부갈등은 양육행동이나 가족기능과 같은 가족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부갈등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저해하고 부정적 양육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김미정, 2015; 정소희, 2011; Kitzmann, 2001; Shamir, Schudlich, & Cummings, 2001).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대한 관심과 지지수준이 낮으며(Kitzmann, 2001), 정서적 수용에 더 취약하다(Shamir, Schudlich, & Cummings, 2001).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보이기 어렵고, 적절한 행동지도와 감독을 적게 하기 쉬우며, 심할 경우 자녀를 학대하는 부정적 양육행동 보이기도 한다(정소희, 2011). 부부갈등과 가족기능의 관계는 주로 가족기능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되었는데, 부부갈등과 친밀성과 같은 가족기능 사이의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채유경, 2005), 부부갈등 수준이 높으면 가족원 간 역할을 공유하고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하고 부모로부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방식을 배우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

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부모는 양육을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부모-자녀관계를 맺기 때문에 부모의 정서·사회적 특성은 양육을 매개로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모의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이 자녀의 사회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민감하고 반응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자녀의 정서에 관심을 갖고 자녀와 대화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Dumm, Brown, & Beardsall, 1991, 김선희, 2014에서 재인용).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온정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친사회성이 높게 나타나고(김신정·김영희, 2007; 김현미·도현심, 2004; 민현숙·문영경, 2013; 채영문, 2010; Anthony et al., 2005; Rispoli et al., 2013), 놀이방해와 같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은 낮게 나타난다(김선희, 2014). 아버지가 온정적이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나고(강상·권가영·류경희, 2013; 우정희·이미숙·전춘애, 2003; 채영문, 2010),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수준이 낮아진다(노보람·은선민·이강이·김은영, 2016).

Olson(2000a)이 제시한 균형가족의 특성중 하나인 가족유연성은 가족체계가 문제에 마주하여 가족의 권력, 역할관계, 관계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개념은 유연성이 있는 체계는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가정에 토대하고 있다. 가족유연성이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토대로 하고, 이러한 능력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요구되기 때문에 가족유연성은 가족구성원의 사회성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가족 적응성이 높은 경우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고(권태우·조규판, 2015),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선애순·이미나, 2012).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은 커플 간 상호의존성을 검증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으로, 한 개인의 독립변수가 자신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종속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Kenny, Kashy, & Cook., 2006). 자신의 심리나 행동 특성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과(Actor-effect),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효과(Partner-effect)라고 한다. 가족체계 내 부부 간 상호의존적이며 역동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APIM에 종속변수로 자녀 변인을 추가하여 부모가 상호 의존적으로 자녀의 발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고 있다(윤해옥·최효식, 2016; 최효식·윤해옥·연은모, 2016). 윤해옥과 최효식(2016)은 부부갈등, 결혼만족도가 상호의존적으로 유아의 발달(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을, 최효식 등(2016)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상호의존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부모는 상호의존적으로 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은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 뿐 아니라 상대방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부모의 가족 내 상호작용 변인의 상호의존성과 역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상호역동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와 같은 연구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종단적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종단적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사이의 종단적 구조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활용하여 부모의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가족유연성이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종단적 구조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PSKC) 데이터 5차년도(2012년), 6차년도(2013년), 7차년도(2014년)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통하여 2,150가구 패널을 구축한 전국단위 데이터이다(육아정책연구소, 2014).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활용하기 위해 완전제거 방식(listwise)으로 결측치를 제거하였으며, 총 1,352가구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특성

N=1352쌍
단위: 명(%)

연구대상의 특성		부(%)	모(%)
연령	30세 이하	52(3.8)	140(10.4)
	31세-35세	392(29.0)	666(49.3)
	36세-40세	656(48.5)	455(33.7)
	41세 이상	247(18.3)	86(6.4)
	합계	1347(99.6)	1347(99.6)
	결측	5(0.4)	5(0.4)
학력	고졸 이하	367(27.1)	395(29.2)
	전문대졸	266(19.7)	378(28.0)
	대졸	577(42.7)	510(37.7)
	대학원 이상	137(10.1)	64(4.7)
	합계	1347(99.6)	1347(99.6)
	결측	5(0.4)	5(0.4)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23(9.1)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339(25.1)	
	3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362(26.8)	
	4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264(19.5)	
	500만원 초과	262(19.4)	
	합계	1350(99.9)	
	결측	2(0.1)	
자녀성별	남	698(51.6)	
	여	654(48.4)	
	합계	1352(100.0)	
자녀출생순위	첫째	624(46.2)	
	둘째	574(42.5)	
	셋째 이상	154(11.3)	
	합계	1352(100.0)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의 경우 아버지는 36세 이상 40세 이하의 비율이 48.5%, 어머니는 31세 이상 40세 이하의 비율이 49.4%로 가장 높았다.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4년제 대학교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은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가 26.8%로 가장 높았다. 자녀의 성비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 46.2%, 둘째 42.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따른 척도는 다음과 같다.

가.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 그리고 Blumberg(2001)의 연구와 정현숙(2004)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된 한국아동패널자료의 부부갈등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남편(아내)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 α 는 어머니 .916, 아버지 .911로 나타났다.

나. 온정적 양육태도

온정적 양육태도는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및 권희경(1999)의 연구를 기초로 구성된 한국아동패널자료의 양육스타일 문항 중 온정적 양육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온정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친밀감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 α 는 어머니 .841, 아버지 .876으로 나타났다.

다. 가족유연성

가족상호작용은 Olson(2010b) FACES IV의 하위요인인 응집성의 균형과 유연성의 균형 문항을 번역하여 구성한 한국아동패널자료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응집성 균형은 가족원 간 감정적 결합의 정도를 의미하고, 유연성 균형은 가족 내 역할관계와 변화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소통과 역할분담과 같은 상호작용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상호작용 척도 중 유연성 균형만을 사용하였으며 가족유연성이라 명명하였다. 가족유연성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우리 가족의 훈육은 공정하다.”,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기준치인 .50 미만(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으로 나타난 1문항(“우리 가족은 집안일을 돌아가면서 한다.”)을 제외하고 총 6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가족유연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 α 는 어머니 .830, 아버지 .81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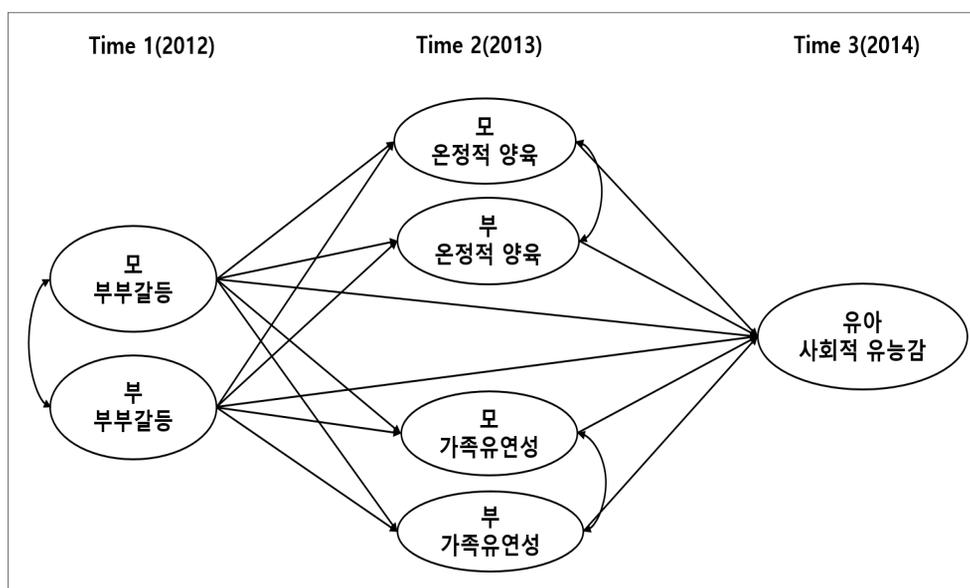
라. 사회적 유능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Gresham과 Elliot(1990)의 연구와 서미옥(2004)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한국아동패널자료의 사회적 유능감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유능감 척도는 어머니가 평정하였으며, 4개의 하위요인(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장성(11문항)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친구를 쉽게 사귀다.”, 협력성(6문항)은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돕는다.”, “장난감이나 집안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 자기통제(7문항)는 “다른 사람과 게임할 때 규칙을 지킨다.”, “부모의 지시를 따른다.”, 책임성(8문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를 공손히 거절한다.”, “다른 아이와 다툼 때 감정을 잘 처리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2: 가끔 그렇다, 3: 매우 자주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 α 는 사회적 유능감 전체 .924이었고, 각 하위요인별로는 주장성 .846, 협력성 .814, 자기통제 .794, 책임성 .777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및 자료의 분석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APIM은 부부, 연인, 부모-자녀와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로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다(Kenny et al., 2006). 자신의 심리적 특성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과(actor effect)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상호의존적으로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에 영향을 미칠 것, 그리고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자료는 SPSS 및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되었다. 첫째, 각 잠재변인들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

지의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 그리고 유아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측정도구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기술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상호의존적으로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에 종속변수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사이의 구조관계를 확인하였다. 종속변수가 포함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분석절차는 각각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모형비교를 한 후 최적모형을 찾는 연구(최효식·윤해옥·연은모, 2016)를 참고하였다. 여섯째,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붓스트랩 검증(bootstrapping)을 통하여 종단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χ^2 값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TLI*, *CFI*, *RMSEA*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는데, 이들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RMSEA*와 *TLI*의 경우 모형의 간명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홍세희, 2000). *TLI*, *CFI*는 .90이상, *RMSEA*는 .08이하이면 타당한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2012년, 5차 연도),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2013년, 6차 연도),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2014년, 7차 연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잠재변인의 기술통계

N=1352쌍

측정변인		M	SD	왜도	첨도	paired-t
부부갈등(2012)	모	2.09	.76	.65	.17	1.04
	부	2.08	.72	.47	-.08	
온정적 양육태도(2013)	모	3.68	.53	-.09	.31	3.57***
	부	3.61	.62	-.17	.43	
가족유연성(2013)	모	3.60	.58	-.43	1.01	-8.32***
	부	3.72	.53	-.11	.61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주장성	2.38	.36	-.26	-.55	-
	협력성	2.02	.40	.03	.27	
	자기통제	2.52	.35	-.37	-.71	
	책임성	2.26	.33	.06	-.03	
전체	2.29	.30	-.10	-.25		

*** $p < .001$.

5점 척도로 측정된 부부갈등 평균은 부모 각각 2.08, 2.09로 두 집단 모두 중간보다 낮은 양상을 보였으며 부모가 인식하는 갈등 수준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부모 각각 3.61, 3.68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57, p<.001$). 가족유연성 평균은 각각 3.72, 3.60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족유연성이 어머니에 비해 더 높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8.32, p<.001$). 즉,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가족구성원 간의 역할 관계를 더 균형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역할의 변화 또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3점 척도로 어머니가 평정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전체 평균은 2.29로 중간 이상이었으며 주장성($M=2.38, SD=.36$), 협력성($M=2.02, SD=.40$), 자기통제($M=2.52, SD=.35$), 책임성($M=2.26, SD=.33$) 4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또한 분석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측정변인 모두 왜도 ± 2 미만, 첨도 ± 7 미만으로(West, Finch, & Curran, 1995) 구조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정상 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다.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부모 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r=.63, p<.001$), 온정적 양육태도($r=.29, p<.01$), 가족유연성($r=.53, p<.001$) 수준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부갈등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모:

$r=-.20, p<.001$; 부: $r=-.19, p<.001$) 및 가족유연성(모: $r=-.48, p<.001$; 부: $r=-.34, p<.001$)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버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모: $r=-.15, p<.001$; 부: $r=-.18, p<.001$) 및 가족유연성(모: $r=-.35, p<.001$; 부: $r=-.38, p<.001$) 또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은 모두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보다 가족유연성의 평가와 더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부갈등이 자녀에 대한 반응적인 상호작용보다는 가족 내·외적 변화와 역할 분배, 문제해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욱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하위변인 및 전체 점수는 부모의 부부갈등과는 부적 상관,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과는 정적 상관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3〉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N=1352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63***	1									
3	-.20***	-.15***	1								
4	-.19***	-.18***	.29***	1							
5	-.48***	-.35***	.40***	.35**	1						
6	-.34***	-.38***	.25***	.50***	.53***	1					
7	-.07*	-.09*	.28***	.13**	.18**	.15**	1				
8	-.13***	-.10**	.25***	.16***	.21***	.16***	.46***	1			
9	-.18***	-.15***	.32***	.15***	.20***	.14***	.62***	.51***	1		
10	-.12***	-.10***	.34***	.20***	.22***	.17***	.70***	.57***	.70***	1	
11	-.15***	-.13***	.35***	.19***	.24***	.19***	.83***	.78***	.84***	.88***	1

주. 1: 모 부부갈등(2012), 2: 부 부부갈등(2012), 3: 모 온정적 양육태도(2013), 4: 부 온정적 양육태도(2013), 5: 모 가족유연성(2013), 6: 부 가족유연성(2013), 7: 유아 주장성(2014), 8: 유아 협력성(2014), 9: 유아 자기통제(2014), 10: 유아 책임성(2014), 11: 유아 사회적 유능감 전체(2014).

* $p < .05$. ** $p < .01$. *** $p < .001$.

2. 부모 부부갈등 측정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증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각각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부모의 부부갈등 측정모형에 대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부부갈등 8문항을 포함하는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A), 요인부하량을 제약한 모형(B), 요인부하량을 제약하지 않고 오차공분산을 가정한 모형(C), 그리고 요인부하량 제약 및 오차공분산 가정을 모두 설정한 모형(D)의 적합도를 <표 3>과 같이 비교하였다. 각 모형의 *TLI*, *CFI*, *RMSEA*, *SRMR*값을 비교하여 모형 C와 D의 적합도가 비교적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재관계에 있는 두 모형에 대한 χ^2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Delta\chi^2(df=7)=56.95, p<.05$), 모형 C에 대한 부분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 부부갈등 측정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CI)	SRMR
모형 A	1253.577	103	.909	.922	.091 (.086-.095)	.049
모형 B	1309.804	110	.911	.918	.090 (.086-.094)	.050
모형 C	926.077	95	.929	.944	.080 (.076-.085)	.041
모형 D	983.026	102	.930	.940	.080 (.075-.085)	.043

부분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모형 C에 부모 부부갈등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을 한 쌍씩 각각 제약한 모형들의 적합도를 <표 5>와 같이 비교하였다. 기저모형과의 χ^2 차이 검증 결과 영가설이 기각된($CV: .95\chi^2_1=3.84$) 경로 d와 f를 제외한 a, b, c, e, g 경로를 제약한 모형이 부분측정동일성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제약되지 않은 문항은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아내)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와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이다. 최종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df=100, N=1352)=943.369$, $TLI=.931$, $CFI=.943$, $RMSEA=.079(90\% CI[.074, .084])$, $SRMR=.042$ 로 적합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형에서 부모가 느끼는 부부갈등의 예측평균은 어머니 1.857(분산=.35), 아버지 1.904(분산=.34)이었으며 부모 간 상관은 .654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식하는 갈등수준은 유사하며 부부 간에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느끼는 갈등수준에는 개인차가 각각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표 5〉 부부갈등 측정모형의 부분측정동일성 검증

제약경로	χ^2	<i>df</i>	<i>TLI</i>	<i>CFI</i>	<i>RMSEA</i> (90% <i>CI</i>)	<i>SRMR</i>	제약여부
a (문항2)	926.452	96	.929	.944	.080 (.075-.085)	.041	✓
b (문항3)	928.021	96	.929	.943	.080 (.075-.085)	.041	✓
c (문항4)	926.266	96	.929	.944	.080 (.075-.085)	.041	✓
d (문항5)	937.852	96	.929	.943	.081 (.076-.085)	.043	
e (문항6)	928.913	96	.929	.943	.080 (.075-.085)	.042	✓
f (문항7)	936.710	96	.929	.943	.081 (.076-.085)	.042	
g (문항8)	929.526	96	.929	.943	.080 (.076-.085)	.042	✓

3.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검증

부부갈등(2012년)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2013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에서 온정적 양육태도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의 적합도를 <표 6>와 같이 비교하였다. χ^2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이 서로 다른 모형이므로($\Delta\chi^2(df=5)=13.69, p<.05$) 온정적 양육태도 측정모형에 대한 부분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을 한 쌍씩 제약한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영가설이 기각된($CV: .95\chi^2_1=3.84$) 경로 b를 제외한 a, c, d, e 경로를 제약한 모형이 부분측정동일성 모형으로 채택되었다(<표 7>). 제약되지 않은 문항은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이다. 최종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df=345, N=1352)=1729.357, TLI=.931, CFI=.937, RMSEA=.054$ (90% *CI*[.052, .057]), *SRMR*=.036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6〉 온정적 양육태도 측정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	χ^2	<i>df</i>	<i>TLI</i>	<i>CFI</i>	<i>RMSEA</i> (90% <i>CI</i>)	<i>SRMR</i>
기저모형	1721.928	341	.931	.938	.055 (.052-.057)	.036
제약모형	1735.622	346	.931	.937	.055 (.052-.057)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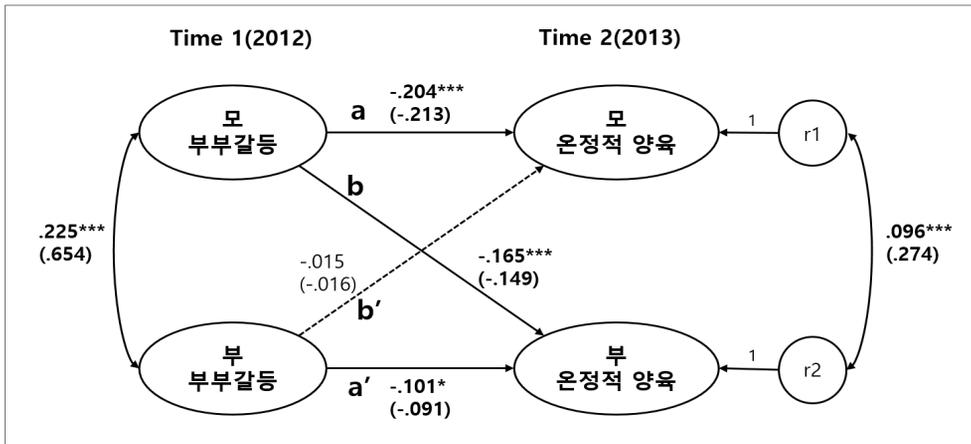
〈표 7〉 온정적 양육태도 측정모형의 부분측정동일성 검증

제약경로	χ^2	<i>df</i>	<i>TLI</i>	<i>CFI</i>	<i>RMSEA</i> (90% <i>CI</i>)	<i>SRMR</i>	제약여부
a (문항2)	1722.210	342	.931	.938	.055 (.052-.057)	.036	✓

(표 7 계속)

제약경로	χ^2	df	TLI	CFI	RMSEA (90% CI)	SRMR	제약여부
b (문항3)	1728.511	342	.931	.937	.055 (.052-.057)	.036	
c (문항4)	1724.853	342	.931	.938	.055 (.052-.057)	.036	✓
d (문항5)	1723.004	342	.931	.938	.055 (.052-.057)	.036	✓
e (문항6)	1724.227	342	.931	.938	.055 (.052-.057)	.036	✓

최종 선택된 온정적 양육태도의 부분측정동일성 모형을 적용하여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분석 결과, [그림 2]와 같이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213$, $p<.001$) 및 상대방효과($\beta=-.149$, $p<.001$), 그리고 아버지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091$, $p<.001$)가 부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아버지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계수.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들은 지면의 부족으로 인해 생략되었음.
* $p < .05$. *** $p < .001$.

[그림 2]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태도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크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경로에 대한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하여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차이 검증을 통해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되면 제약한 경로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상대방효과($b=b'$) 및 어머니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부모의 부부갈등 효과($a=b'$)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CV: .95\chi^2_1=3.84$). 이 결과는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로들 간의 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부부갈등의 효과는 자기효과($\beta=-.213$)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경우 자신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만이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부부갈등의 자기효과($\beta=-.091$)와 상대방효과($\beta=-.149$)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효과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 수준 또한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유의성 검증

모형	χ^2	<i>df</i>	<i>TLI</i>	<i>CFI</i>	<i>RMSEA</i> (90% <i>CI</i>)	<i>SRMR</i>	채택 여부
기저모형	1729.357	345	.931	.937	.054 (.052-.057)	.036	-
자기효과 등가제약 ($a=a'$)	1731.869	346	.932	.937	.054 (.052-.057)	.036	채택
상대방효과 등가제약 ($b=b'$)	1734.741	346	.931	.937	.055 (.052-.057)	.037	기각
모 온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등가제약($a=b'$)	1736.087	346	.931	.937	.055 (.052-.057)	.037	기각
부 온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등가제약($a'=b$)	1729.953	346	.932	.937	.054 (.052-.057)	.036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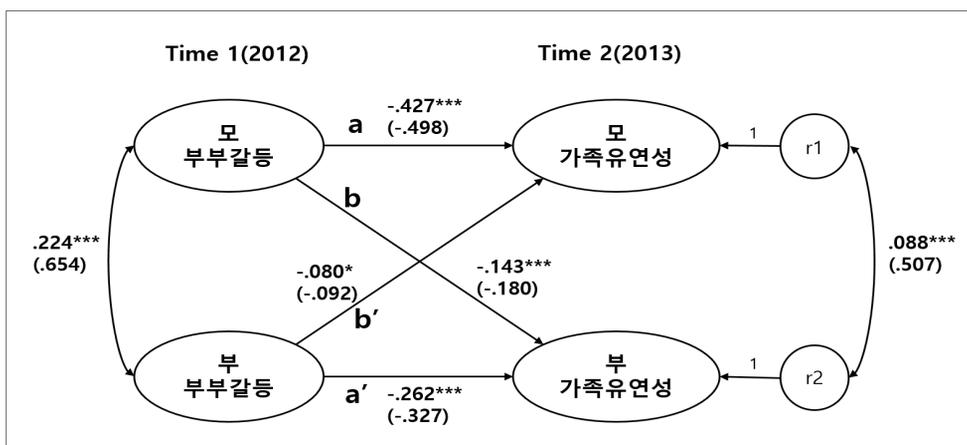
다.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검증

부부갈등(2012년)이 부모가 평정한 가족유연성(2013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1문항이 제외되고 총 6개 측정변인이 포함된 모형을 적용하였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에서 가족유연성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기저모형과 제약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χ^2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이 서로 동일한 모형이므로($\Delta\chi^2(df=5)=10.75, p<.05$) 제약모형을 채택하게 되어 가족유연성 측정모형의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표 9>와 같이 제약모형의 모형적합도는 *TLI*, *CFI*가 각각 .9 이상, *RMSEA*, *SRMR*이 .05 이하로 타당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9〉 가족유연성 측정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CI)	SRMR
기저모형	1701.816	341	.928	.935	.054 (.052-.057)	.040
제약모형	1712.567	346	.929	.935	.054 (.052-.057)	.040

최종 선택된 가족유연성의 측정동일성 모형을 적용하여 부부갈등과 가족유연성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498, p<.001$) 및 상대방효과($\beta=-.180, p<.001$), 그리고 아버지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자기효과($\beta=-.327, p<.001$) 및 상대방효과($\beta=-.092, p<.05$)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부모가 평가한 가족유연성 수준에는 자신과 상대방이 느끼는 부부갈등의 정도가 모두 반영되며,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유연성은 더 낮게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 계수.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들은 지면의 부족으로 인해 생략되었음.
* $p < .05$. *** $p < .001$.

[그림 3] 부부갈등과 가족유연성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부부갈등과 가족유연성의 관계에서 부부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크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경로에 대한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하여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자기효과($a=a'$), 어머니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부모의 부부갈등 효과($a=b'$), 아버지 가족유연성에 대한 부모의 부부갈

등 효과($a' = b$)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CV: .95X^2_1=3.84$).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은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효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등가제약 모형 검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어머니($\beta=-.498$)와 아버지($\beta=-.327$)의 자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부갈등의 지각이 가족유연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대방효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상대방의 가족유연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동일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평가한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부부갈등의 자기효과($\beta=-.498$)와 상대방효과($\beta=-.092$) 간, 그리고 아버지가 평가한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부부갈등의 자기효과($\beta=-.327$)와 상대방효과($\beta=-.180$)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신이 느끼는 부부갈등 수준이 자신의 가족유연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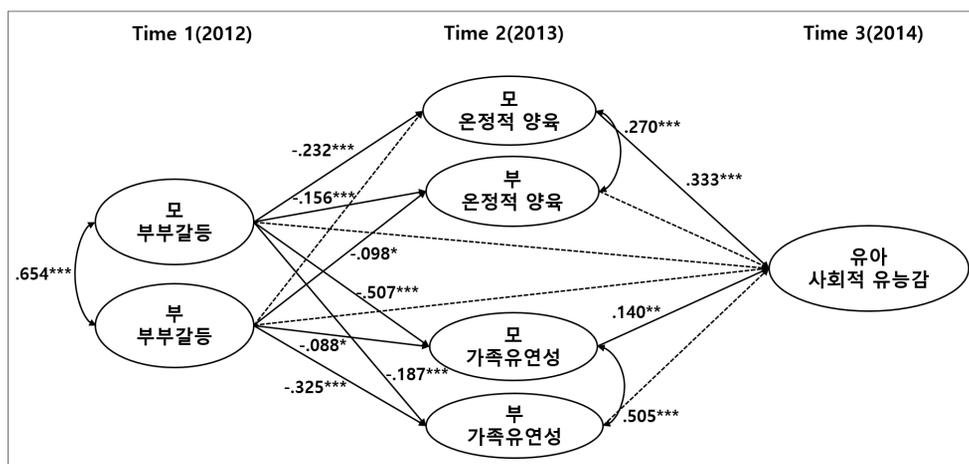
〈표 10〉 부부갈등과 가족유연성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유의성 검증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CI)	SRMR	채택 여부
기저모형	1712.567	346	.929	.935	.054 (.052-.057)	.040	-
자기효과 등가제약 ($a=a'$)	1723.244	347	.929	.935	.054 (.052-.057)	.042	기각
상대방효과 등가제약 ($b=b'$)	1714.160	347	.929	.935	.054 (.051-.057)	.040	채택
모 가족유연성에 대한 등가제약($a=b'$)	1747.453	347	.928	.934	.055 (.052-.057)	.044	기각
부 가족유연성에 대한 등가제약($a' = b$)	1716.915	347	.929	.935	.054 (.052-.057)	.041	기각

4.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 유아 사회적 유능감 간 구조모형의 종단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부부갈등(2012년),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2013년) 그리고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년) 간 구조모형에서 종단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df=891, N=1352)=3570.744$, $TLI=.911$, $CFI=.916$, $RMSEA=.047(90\% CI[.046, .049])$,

SRMR=.072로 이 모형이 자료에 대체로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 그리고 유아 사회적 유능감은 종단적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구조모형의 다중상관값(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을 확인한 결과, 이 모형은 어머니 온정적 양육태도 변량의 5.6%, 아버지 온정적 양육태도 변량의 5.4%, 어머니 가족유연성 변량의 32.3%, 아버지 가족유연성 변량의 22.1%, 그리고 유아 사회적 유능감 변량의 16.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그림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 계수.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들은 지면의 부족으로 인해 생략되었음.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표 11>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2012년)이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2013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기-상대방 상호 의존모형의 결과와 동일하게,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beta = -.232$, $p < .001$) 및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beta = -.156$, $p < .001$), 그리고 어머니 자신의 가족유연성($\beta = -.507$, $p < .001$) 및 아버지의 가족유연성($\beta = -.187$, $p < .001$)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느끼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beta = -.098$, $p < .05$) 및 가족유연성 평가($\beta = -.325$, $p < .001$), 그리고 어머니의 가족유연성($\beta = -.088$, $p < .05$)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2014년)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beta=.333, p<.001$)와 어머니가 평가한 가족유연성($\beta=.140, p<.01$)만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갈등(2012년)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2014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은 부모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유아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력을 완전 매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1〉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S.E.	β
모 부부갈등(2012) → 모 온정적 양육(2013)	-.223***	.040	-.232
모 부부갈등(2012) → 부 온정적 양육(2013)	-.173***	.045	-.156
모 부부갈등(2012) → 모 가족유연성(2013)	-.435***	.035	-.507
모 부부갈등(2012) → 부 가족유연성(2013)	-.149***	.031	-.187
부 부부갈등(2012) → 모 온정적 양육(2013)	-.007	.040	-.008
부 부부갈등(2012) → 부 온정적 양육(2013)	-.109*	.045	-.098
부 부부갈등(2012) → 모 가족유연성(2013)	-.077*	.032	-.088
부 부부갈등(2012) → 부 가족유연성(2013)	-.262***	.032	-.325
모 온정적 양육(2013)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161***	.016	.333
부 온정적 양육(2013)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019	.013	.046
모 가족유연성(2013)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076**	.025	.140
부 가족유연성(2013)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020	.025	.035
부 부부갈등(2012)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016	.019	-.034
모 부부갈등(2012)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018	.021	.039

* $p<.05$. ** $p<.01$. *** $p<.001$.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붓스트랩(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어머니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 평가를 통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가 유의하여 두 변인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beta=-.162, p<.01$). 반면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어머니의 가족유연성 평가를 통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부부갈등 수준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어머니 가족유연성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매개효과 검증

경로	총효과(β)	직접효과(β)	간접효과(β)
모 부부갈등(2012)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057(-.123)**	.018(.039)	-.075(-.162)**
부 부부갈등(2012) → 유아 사회적 유능감(2014)	-.030(-.065)	-.016(-.034)	-.014(-.031)

** $p < .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패널데이터 5~7차 연도(2012~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내 상호작용 특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족 내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부모가 느끼는 부부갈등(2012년),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유연성(2013년) 간의 관계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적용하여 각각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들이 이후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2014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를 이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검증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부부갈등의 지각은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어머니가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간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모두 부부 관계의 질이 자녀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며, 부부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자녀와의 관계 양상에도 영향을 미쳐 자녀와의 애정 있고 반응적인 상호작용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Kitzmann, 2001; Shamir, Schudlich, & Cummings, 2001).

또한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에는 자기효과뿐만 아니라 상대방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느끼는 갈등수준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동일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부부관계의 특성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Cummings, Merrilees, & George, 2010),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나 양육태도에 있어서 환경적 요

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노보람·은선민·이강이·김은영, 2016; Holmes & Huston, 2010)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에 부모가 함께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한 부부 간 의사소통이나 갈등 해결 기술과 관련된 중재 프로그램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가족유연성 평가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검증 결과,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는 부모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유연성의 개념은 가족리더십, 역할 관계와 관계에 따른 역할들의 변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유연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 동등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해결이나 가족 내·외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가족구성원 간의 역할 변화가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유연성 수준은 부부 간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가한 가족유연성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 평가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 자신이 느끼는 부부갈등 수준이 자신의 가족유연성 평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역할 분배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부부갈등의 원인 중 부부 간 의사소통이나 역할 분배 및 전환의 불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족의 경우 양육 부담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도 어머니는 가사 및 자녀 돌봄 등 가족영역에 보내는 시간비율이 더 높고, 유급활동과 여가활동의 비율은 아버지보다 낮으며, 전반적으로 아버지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장미나·한경혜, 2011). 전업모의 경우에도 취업모보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박새롬·노보람·박혜준·이순형, 2015), 이러한 역할 분배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한 경우 가족유연성의 평가와 높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이 가족유연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부부갈등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어머니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

성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간접 효과만이 유의한 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부부갈등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낮았고 가족유연성을 더 낮게 평가하였으며,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 인식 수준이 낮을수록 이후 유아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이 더 낮았다. 이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미지·문혁준, 2014; 김미정, 2015)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부부갈등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부갈등이 긍정적인 양육태도나 적응적인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자녀의 발달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부갈등과 관련된 중재 프로그램은 부부갈등의 존재 자체보다는 부부 간 긴장이 다른 심리적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갈등상황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영향력의 경로가 어머니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일상적인 자녀 돌봄 시간이 더 많은 어머니의 경우 부부갈등이 부정적인 양육태도나 경직된 역할 관계를 통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를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가족 상호작용 특성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척도는 어머니가 평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들과 더욱 관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버지가 인식한 가족관계의 특성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중단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유아의 가정 및 일상생활 맥락에서의 사회성 발달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유아기 후기에 증가하는 또래 상호작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감 척도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하여 이후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중단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 상호작용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분리하여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어머니-아버지의 짝 자료를 사용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활용하여 가족 내에서 부모의 관계적 특성 및 가족 상호작용 특성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더욱 정확하게 밝혀내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보육정책이 보육료 지원 및 영유아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것을 보완하여, 심리적 환경으로서의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가족 단위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3개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의 관계적 변인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단기 종단 연구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을 확장하여 영아기부터 부모 변인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더욱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부부갈등, 온정적 양육태도, 가족유연성과 같은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거나 예측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모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나 가족유연성의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 수준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의 유형, 갈등해결 방법과 같이 독립변인을 세분화한다면 부부관계의 특성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성 발달의 지표로 활용한 사회적 유능감 외에도 가족 내 상호작용 특성이 다양한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상·권가영·류경희(2013).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정서지능과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3(4), 329-356.
- 강선경(2011).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유연성 및 가족관계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4, 109-136.
- 권태우·조규관(2015). 학업적 자기효능감,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학급풍토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205-225.
- 김미정(2015). 아버지 심리특성 및 부부특성, 양육특성과 유아 사회성 발달간의 구조적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2014).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학논집, 18(5), 317-338.
- 김신정·김영희(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현미·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노보람·은선민·이강이·김은영(201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의 구조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3(4), 155-179.
- 민현숙·문영경(201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2(1), 43-56.
- 박새롬·노보람·박혜준·이순형(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과 영유아의 기질 및 내재화 문제의 구조관계: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육아정책연구, 9(1), 119-148.
- 박정희·유순화(2007). 지각된 부부갈등이 초등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8(1), 379-394.
-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 선애순·이미나(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족기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심리행동연구, 4(1), 79-90.
- 우정희·이미숙·전춘애(200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2), 91-101
- 육아정책연구소(2014). 1~6차년도 표본 유지율. <http://panel.kicce.re.kr>에서 2016년 10월 6일 인출
- 윤해옥·최효식(2016). 부모의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유아 발달 간 관계에 대한 중단연구: APIM 모형의 적용. 아동교육연구, 36(3), 357-378.
- 이인정·김미영(2014).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3), 127-149.
- 이찬숙·이채호(2009).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사회적 유능감,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구조모형 분석. 아동교육학논집, 13(5), 27-44.
- 임미지·문혁준(2014).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인간발달연구, 21(1), 159-179.

- 장미나·한경혜(2011).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일상생활경험: 경험표집법(ESM)으로 살펴본 남녀의 일상시간 구성과 정서경험 비교. *가족과 문화*, 23(1), 1-39.
- 정소희(2011). 갈등적인 부부관계와 한부모 가족, 어느 것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더 해로운가?. *사회복지연구*, 42(4), 165-186.
- 정현숙(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채영문(201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 *영유아교육연구*, 13, 117-132.
- 채유경(2005). 폭력노출 경험, 부부 갈등, 가족 기능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3), 1041-1054.
- 최효식·윤혜옥·연은모(201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아동교육학논집*, 20(2), 495-517.
- 표하나·김영모(2005). 가족기능이 아동의 품행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9(3), 505-525.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 Baumrind, D. (197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and Society*, 9(3), 239.
- Cummings, E. M., Merrilees, C. E., & George, M. W. (2010). Fathers, marriages, and families: Revisiting and updating the framework for fathering in family context.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pp. 154-176). Hoboken, NJ: Wiley.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American Guidance Service.
- Hair, J., Black, W., Babin, B., Anderson, R., & Tatham, R.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Prentice Hall.
- Holmes, E. K., & Huston, A. C. (2010). Understanding positive father-child

- interaction: Children's, fathers' and mothers' contributions. *Fathering*, 8(2), 203-22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enny, D. A., Kashy, D., & Cook, W. (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NY: Guilford.
- Kitzmann, K. M.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an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3-13.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Olson, D. H. (2000a).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Journal of Family Therapy*, 22, 144-167.
- Olson, D. H. (2000b). *FACES IV Manual*.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 Shamir, H., Schudlich, T. D. R., & Cummings, E. M. (2001).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represent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1-2), 123-151.
- Rispoli, K. M., McGoey, K. E., Koziol, N. A., & Schreiber, J. B. (2013). The relation of parenting, child temperament, and attachment security in early childhood to social competence at school entr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5), 643-658.
- Rose-Krasnor, L. (1997). The nature of social competence: A theoretical review. *Social Development*, 6(1), 111-135.
- Webster-Stratton, C., & Lindsay, D. W. (1999). Social competence and conduct problems in young children: Issues in assess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8(1), 25-43.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30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노보람,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이메일 borino@snu.ac.kr

Abstract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ffective Parenting, and Family Flexibility on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 : An Analysis of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Using Actor-Partner Independence Model (APIM)

Saerom Park, Boram No, Hye Jun Park and Soon-Hyung Y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verify (a) actor-partner effects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ffective parenting and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family flexibility and (b) longitudinal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ffective parenting, and family flexibility on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s within dyadic interactions of parents. A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352 couples and their children using Actor-Partner Independence Model (APIM). Samples were originated from 5th (2012) to 7th (2014) waves of PSKC collected by KICC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ctor effect of marital conflict on affective parenting was significantly negative in both mothers and father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ctor effects. The partner effect was significantly negative only in fathers. Second,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family flexibility were significant negatively in both mothers and fathers. Third, mothers' affective parenting and family flexibility evaluation had a complete mediation effect on the path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s. The results emphasize that marital conflict can cause a long-term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adjustment when it has a negative influence on positive parenting or family adaptability.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examined the mutual dynamism of marital conflict, affective parenting, family flexibility of mothers and fathers and their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n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s.

Key words: PSKC,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marital conflict, affective parenting, family flexibility, social competence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수정¹⁾ 정익중²⁾

요약

본 연구는 유아의 공격성 발달 궤적이 부모 관계(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사 관계(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 관계(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한국아동패널의 4차-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만 4세 1,703명, 만 5세 1,662명, 만6세 1,620명을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4세 시기의 유아의 공격성은 유아마다 개인차가 있고,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성은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4세 시기의 유아의 공격성의 초기치는 6세 시기의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조사 기간 3년 동안 공격성의 변화율은 교사, 또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부모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공격성이 높은 유아들에 대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래 관계나 교사 관계에 문제 있는 유아들에 대한 공격성 사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공격성, 발달궤적, 부모 관계, 교사 관계, 또래 관계

I. 서론

최근 대가족 생활양식에서 부모-자녀 중심의 핵가족으로의 이행, 이혼과 가족 해체, 취업모의 증가 등 21세기의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유아의 정서·행동 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예전에 비해 많은 유아들은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로 적절한 심리치료를 필요로 한다.

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

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아의 정서·행동 문제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공격성이다(Zahrt, & Melzer-Lange, 2011).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Shaw(2006)는 영유아의 공격성에 대해 “행동의 공격적인 의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위협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향한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영유아의 공격성은 성, 기질, 부모의 양육 방식, 아동학대와 방임, 폭력적 미디어의 노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Shaw, & Gilliom, 2000; Reebye, 2005; Schick, & Cierpka, 2016; Zahrt, & Melzer-Lange, 2011).

영유아의 공격성은 단기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격성은 성장했을 때 신체적 폭력, 비행, 관계적 문제 등과 같은 문제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Brame, Nagin, & Tremblay, 2001; Broidy, Nagin, Tremblay et al., 2003; Côté, Vaillancourt, LeBlanc et al., 2006; Pouwels, & Cillessen, 2013). 심각한 경우에는 청소년 범죄나 성인 범죄를 초래하게 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인과 사회에 상당한 손실을 미칠 수 있다(Bor, Najman, O’Callaghan et al., 2001;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2004).

이러한 우려는 초기의 공격성이 성장하면서 낮은 학업성취, 정서 및 행동 문제, 대인관계 등의 발달 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가속화하였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대부분 주로 한 시점만을 중심으로 하는 횡단적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두 개 이상의 시점을 중심으로 공격성과 여러 발달 산물의 관계를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 기초한 변수들의 단편적인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인과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횡단적으로만 볼 때에는 높고 낮음의 단순한 상태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김광혁, 2007; 정익중·권은선·박현선, 2011). 특히 성장하면서 공격성이 안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면서 발달 산물에도 연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격성이 성장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여러 발달 산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격성의 종단적 변화 양상과 개인차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발달 산물과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한편, 종단적인 발달궤적을 살펴보는 연구는 횡단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높고 낮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높았다가 낮아지거나 낮았다가 높아진 변화 양상과 추세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어 훨씬 더 내용을 풍부하게 살펴볼 수 있다(정익중·권은선·박현선, 2011). 또한 공격성의 변화 양상과 개인차를 파악할 수 있는 발달 궤적은 횡단 연구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공격성 발달에서 이질

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Nagin & Tremblay, 1999; Tremblay, 2000).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 외국에서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유아를 포함한 아동 및 청소년의 다양한 공격성 발달 궤적을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ôté, Vaillancourt, Barker et al., 2007; Côté, Vaillancourt, LeBlanc et al., 2006; Cui, Colasante, Malti et al., 2016; Olson, Sameroff, Lansford, et al., 201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Alink, Mesman, Van Zeijl et al., 2006; Bongers, Koot, Van Der Ende et al., 2004)에서는 공격성이 점차 성장하면서 감소한다고 하였지만 일부 연구(Campbell, Spieker, Burchinal et al., 2006; Côté, Vaillancourt, Barker et al., 2007; Tremblay, Nagin, Séguin et al., 2004)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내거나 높은 공격성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성 발달궤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유아 시기의 공격적 행동은 흔하지만, 초기 발달 과정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Tremblay, 2000). 즉, 유아들은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언어나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하므로 협상과 같은 대안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공격성이 감소하게 된다(Côté, Tremblay, Nagin et al., 2002; Tremblay, 2000). 하지만 소수의 유아들은 지속적으로 많은 공격성을 또래나 어른들에게 보여 주는 경우가 있다(Tremblay, 2000). 이러한 개인차는 4~10세까지 공격성의 발달궤적을 추적한 결과, 공격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과 안정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나타난 Villancourt, Miller, Fagbemi 외(2007)의 연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 적응적인 사회적 기술이 나타나 초기 안정적인 수준의 공격성을 보여주는 유아들과 초기 공격성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문제가 있는 유아들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초기 공격적 행동의 발달 궤적의 정도는 성장하면서 이후의 적응 문제를 예측하게 하고, 안정적이거나 높은 수준의 공격성은 부족한 정서 조절 및 사회적 기술, 충동적 행동, 또래 관계, 비행, 학업성취, 인지 등 여러 발달 산물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돕기 때문이다(Brennan, Shaw, Dishion et al., 2012; Campbell, Spieker, Burchinal et al., 2006; Gray, Carter, Briggs-Gowan et al., 2014; Reef, Diamantopoulou, van Meurs et al., 2010;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 William, 2004; Wildeboer, Thijssen, van IJzendoorn et al., 2015).

이처럼 초기의 지속적인 공격성은 부정적인 결과의 위험요인임을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지만 부모 관계, 또래 관계, 교사 관계 등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Ladd & Burgess, 1999). 초기의 건강한 관계의 발달은 이후의 유치원이나 학교 등 적응 문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업이고, 초기의 부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성공은 이후의 학교 적응 등 적응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에 해당한다(Appleyard, & Berlin, 2007; Hughes, 2012; Parker, Rubin, Erath et al., 2006). 그리고 대인간의 관계의 어려움은 이후 정신 병리를 예측하게 한다(Sroufe, Duggal, Weinfield et al., 2000).

초기 공격성의 발달궤적이 이후의 부모 관계, 교사 관계,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면 초기 공격성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 교사, 또래 관계 등이 공격성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Hamre, & Pianta, 2001; O'Connor, Dearing, & Collins, 2011; Silver, Measelle, Armstrong et al., 2010; Takahashi, Okada, Hoshino et al., 2015)도 부족하지만, 반대로 공격성 발달 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공격성 발달 궤적이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로 기능하는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수행된 두 편의 연구를 살펴보면, Campbell, Spieker, Burchinal 외(2006)의 연구에서는 24개월~9세까지 1,195명 중에서 높은 안정적 공격성 궤적을 나타낸 3%는 부족한 사회적 기술,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 또래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당히 안정적인 공격성 궤적을 나타낸 15%는 부족한 조절능력과 부주의를 보여주었다. 적당한 초기 공격성 수준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감소한 추세를 보인 12%는 이후에 잘 적응하였지만 낮은 수준의 안정적인 공격성을 보여준 25%는 예기치 않은 사회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의 공격성의 발달궤적과 대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초기에 공격성이 출현하고 안정적인 경우에 낮은 또래 수용과 갈등적인 교사-아동 관계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dd, & Burgess, 1999). 최근 Baydar과 Akcinar(2017)의 연구에서는 1,009명의 영유아를 5년간 조사한 결과, 3세 시기의 어머니의 엄하고 반응적인 훈육 방식은 연속적인 공격성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3세 시기의 공격성은 연속적인 부모의 양육 행동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유아의 공격성 발달 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며 실제 우리나라 유아들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적용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외국의 연구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입증된다면 인과 관계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차후 공격성과 부모, 교사, 또래 관계 간의 양방향 연구를 수행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공격성과 대인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많지 않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나 교사 관계보다는 유아나 초등학생의 공격성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김성아·최진아, 2011; 심희옥, 2005; 유안진·한유진·김진경, 2002; 정익중, 2008). 이중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공격성과 교사관계 및 또래 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윤소정·김민경(2011)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 250명과 교사 52명을 조사한 결과, 유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교사-유아 관계에서 친밀감이 낮고, 갈등이 높았으며,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에게 공격적·과잉활동적 행동과 비사회적인 행동이 높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부모와의 관계는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횡단적으로 설계된 연구로서 공격성의 변화 양상과 개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개인에 따른 공격성의 높고 낮음의 횡단적 상태뿐만 아니라 높았다가 낮아지거나 낮았다가 높아진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종단 연구를 진행한 국내연구로는 정현주(2011)가 아동의 (초4~중1)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경험 발달 궤적 간 종단적 상호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긴 하지만 이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교사나 부모 관계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유아기(3세~5세)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궤적을 살펴본 신유림(2012)의 연구는 어떠한 요인이 공격성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초기 공격성이 성장하면서 개인차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이러한 공격성 발달이 이후의 적응적인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대인 관계에 해당하는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면 이른 영유아 시기에 개인차에 따른 공격성 발현 시 적절한 개입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5~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만4세부터 만6세 시기의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이 만 6세 시기의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른 시기의 공격성 발달이 대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조기 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은 어떠한가?
- 2)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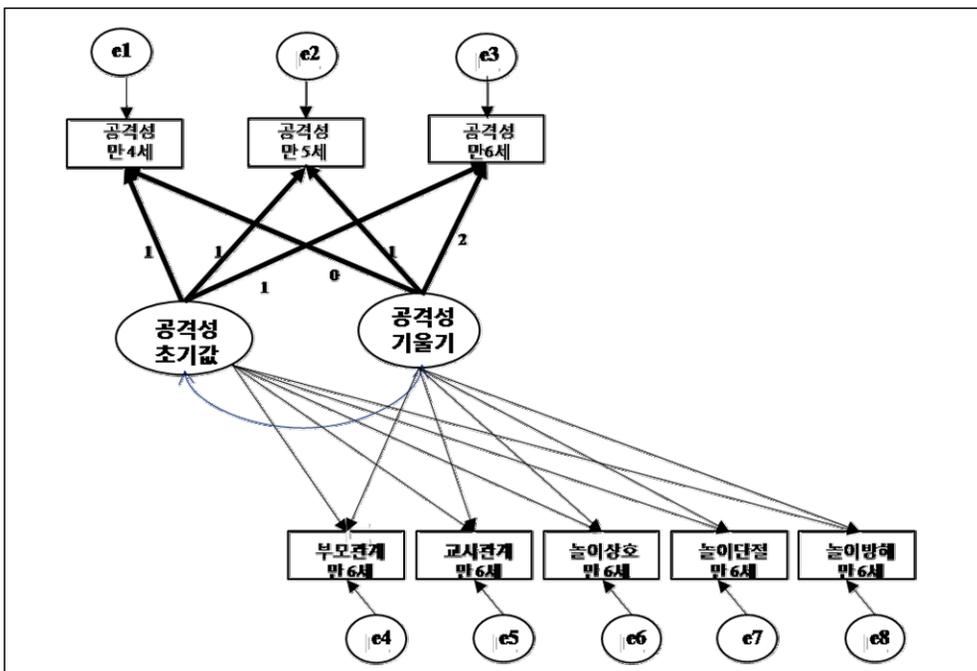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한국아동패널 중에서 5~7차년도의 만 4~6세 유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수준의 자료로,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2,150명의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요인들의 영향 관계와 관련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와 경로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모형을 정리하고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발달단계가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격성은 만 4~6세(5~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부모 관계(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사 관계(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 관계(또래 놀이행동: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단절)는 만6세(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 공격성

유아의 공격성은 Achenbach와 Rescorla(2000)의 CBCL 1.5~5(Child Behavior Checklist preschool 1.5~5)를 김영아·이진·문수종 외(2009)가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적합하도록 표준화한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1.5~5)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공격성 문항은 “다른 사람을 때린다,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로 부모가 응답하도록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은 왜도와 첨도가 정상분포에 가까운 T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Cronbach's a* = .87(만 4세), .87(만 5세), .87(만 6세)이었다.

나.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 자녀 상호작용은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 (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질문하는 일부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문항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등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4점 Likert 척도(전혀 하지 않음=1점, 매일함=4점)로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참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Cronbach's a* = .83(만 6세)이었다.

다.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Bredekamp(1985)의 ECOI를 일부 수정한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1988)의 문항을 김명자(1991)가 번역한 것을 토대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일부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문항은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한다, 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아이와 다정하고 자상한 태도로서 대화를 나눈다” 등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음=1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교사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대한 *Cronbach's a* = .92(만 6세)이었다.

라. 또래 놀이행동

또래 놀이행동은 Fantuzzo, Coolahan, Mendez외(1998)의 척도를 최혜영·신혜영(2008)이 타당화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또래 놀이행동은 총 30문항으로 놀이 상호작용 9문항, 놀이 방해 13문항, 놀이 단절 8문항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놀이 상호작용은 “친구를 돕는다, 친구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놀이방해는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놀이단절은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놀이를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등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항상 그렇다=4점)로 교사가 응답하도록 이루어졌으며, 역채점 문항의 경우에는 역코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 놀이 상호작용 수준이 높고, 놀이 방해나 놀이 단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또래 놀이행동에 대한 *Cronbach's a* = .81(만 6세 놀이 상호작용), .88(만 6세 놀이 방해), .89(만 6세 놀이 단절)이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를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고,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 Amos 21.0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의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유아의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추정하였다.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모형을 사용하여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모든 변수의 정보를

사용하여 결측치를 추정하면서 분석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RMSEA, TLI, CFI를 통해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TLI, CFI는 .90이상, RMSEA는 .06미만이면 모형이 적합하고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Hu & Bentler, 1999).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립변수	공격성(만4세)	53.63	5.49	1.65	2.47
	공격성(만5세)	52.78	4.93	2.03	3.75
	공격성(만6세)	52.03	4.27	2.35	5.44
종속변수	부모-자녀 상호작용(만6세)	2.25	.50	.58	.73
	교사-유아 상호작용(만6세)	4.26	.50	-.40	-.18
	또래 놀이상호작용	3.08	.45	-.65	1.24
	놀이행동(만6세)	1.64	.59	1.12	1.14
	놀이방해	1.94	.52	.63	-.06

본 연구의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공격성 평균은 만 4세 53.63점(SD = 5.49), 만 5세 52.78점(SD = 4.93), 만 6세 52.03점(SD = 4.27)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만 6세 시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평균은 2.25점(SD = .58)으로 최대값이 4점임을 감안할 때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만 6세 시기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평균은 4.26점(SD = .50)으로 최대값이 5점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 6세 시기의 또래 놀이행동 중에서 놀이 상호작용의 평균은 3.08점(SD = .45), 놀이 단절의 평균은 1.64점(SD = .59), 놀이 방해의 평균은 1.94점(SD = .52)이었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의 왜도(절대값 3 미만)와 첨도(절대값 10 미만)가 정규분포 가정(Kline, 2010)을 만족시켰다.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시점의 공격성의 상호작용은 서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만 4~6세 유아의 공격성과 만 6세 시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만 6세 시기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은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놀이 방해는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만 6세 시기의 교사-유아의 상호작용과 놀이 단절은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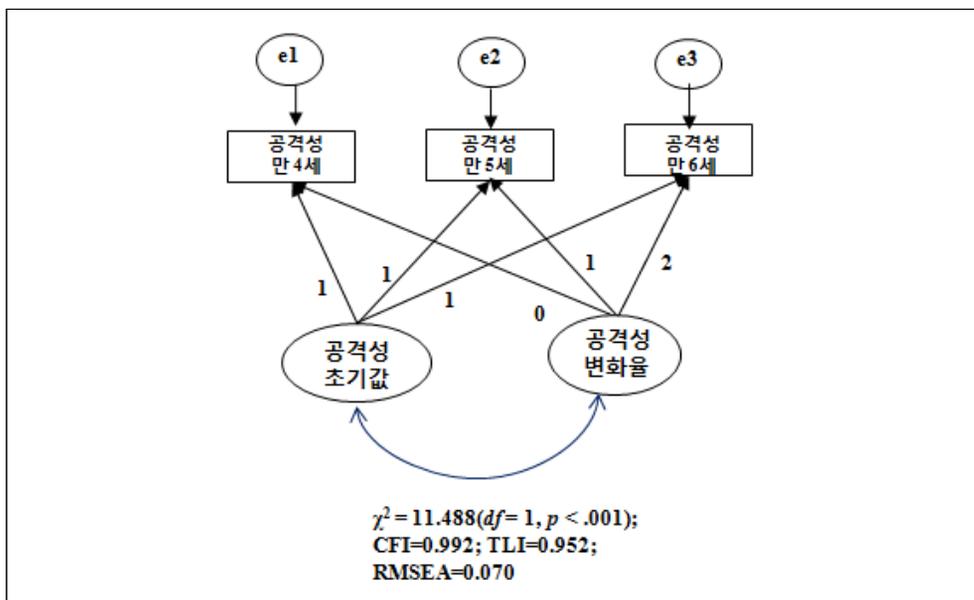
구분	1	2	3	4	5	6	7	8
1. 공격성(만4세)	1	-	-	-	-	-	-	-
2. 공격성(만5세)	.40**	1	-	-	-	-	-	-
3. 공격성(만6세)	.29**	.38**	1	-	-	-	-	-
4. 부모-자녀상호작용(만6세)	-.08**	-.09**	-.06*	1	-	-	-	-
5. 교사-유아상호작용(만6세)	.02	.03	-.04	.01	1	-	-	-
6. 놀이상호작용(만6세)	-.09**	-.09**	-.02	.04	.22**	1	-	-
7. 놀이단절(만6세)	.01	.05	.05	-.04	-.20**	-.38**	1	-
8. 놀이방해(만6세)	.09**	.04	.02	-.03	-.16**	-.34**	.59**	1

* $p < .05$, ** $p < .01$

2. 공격성의 무조건모형

유아의 공격성 변화궤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무조건모형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표 3> 참조). χ^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chi^2 = 11.488$, $df = 1$, $p < .001$), 다른 모형적합도가 수용가능하게 나타나 본 무조건모형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MSEA = 0.070; CFI = 0.992; TLI = 0.952). 또한 무조건모형에서 성장모수치를 살펴보면, 공격성의 초기치 평균은 53.463($p < .001$)으로 이는 출발점에서 공격성의 평균이 53.463 정도이었고, 이것이 유아들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율의 평균은 $-.740$ ($p < .001$)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마다 공격성이 $-.740$ 씩 감소하며 이는 변화율이 유아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격성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변량이 각각 15.020, 3.988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들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개인차가 충

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영향 미치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조건모형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공격성 발달궤적의 무조건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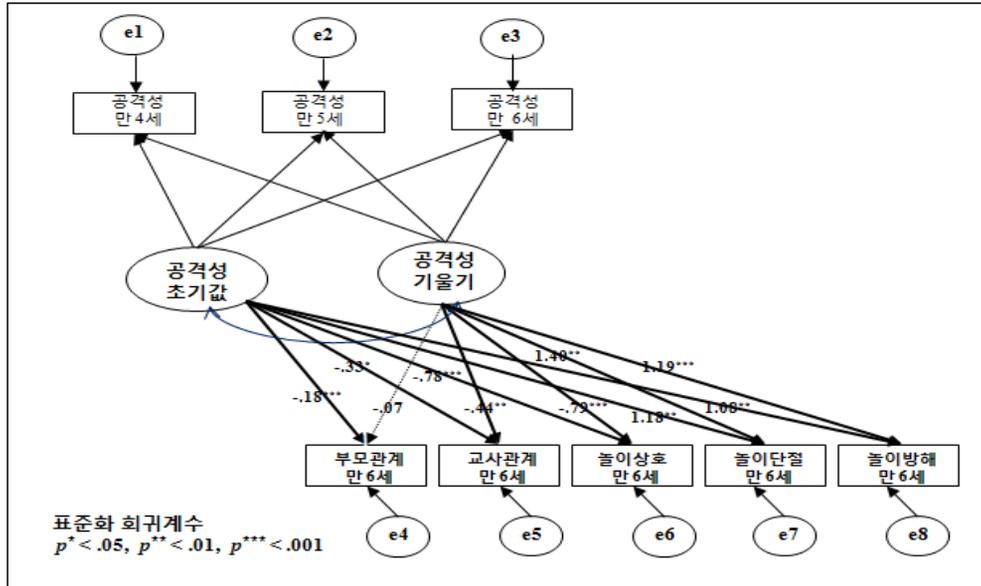
<표 3> 무조건모형의 분석결과

구분	초기치		변화율	
	평균	변량	평균	변량
공격성	53.463***	15.020**	-.740***	3.988***

** $p < .01$, *** $p < .001$

3. 공격성의 조건모형

공격성 발달 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건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3], <표 4> 참조). 전통적 절대 적합지수인 χ^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chi^2 = 49.52, df = 16, p < .001$), 다른 모형적합도가 수용가능하게 나타나 조건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RMSEA=0.03; CFI=0.98; TLI=0.97).



[그림 3] 공격성 발달궤적의 조건모형

<표 4> 조건모형의 분석결과

경로	b	β	SE	C.R.
공격성 초기치 → 만 6세 부모-자녀상호작용	-.02	-.18	.01	-3.21**
공격성 변화율 → 만 6세 부모-자녀상호작용	-.09	-.07	.07	-1.20
공격성 초기치 → 만 6세 교사-유아상호작용	-.04	-.33	.02	-2.32*
공격성 변화율 → 만 6세 교사-유아상호작용	-.54	-.44	.18	-3.04**
공격성 초기치 → 만 6세 놀이상호작용	-.09	-.78	.03	-3.40***
공격성 변화율 → 만 6세 놀이상호작용	-.87	-.79	.26	-3.31***
공격성 초기치 → 만 6세 놀이단절	.18	1.18	.06	2.88**
공격성 변화율 → 만 6세 놀이단절	1.99	1.40	.61	3.28**
공격성 초기치 → 만 6세 놀이방해	.14	1.08	.05	3.13**
공격성 변화율 → 만 6세 놀이방해	1.49	1.19	.45	3.32***

* $p < .05$, ** $p < .01$, *** $p < .001$

최종 분석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공격성의 초기치는 만 6세 시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지만 변화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공격성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모두 만 6세 시기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모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격성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만 6세 시기의 또래 간 놀이 상호작용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놀이 단절

과 놀이 방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세 시기(초기치)의 유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만 6세 시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낮았고($\beta = -.18, p < .01$), 조사기간 3년 동안 유아의 공격성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만 4세 시기(초기치) 유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만 6세 시기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낮았고($\beta = -.33, p < .05$), 조사기간 3년 동안 공격성 감소 속도가 빠를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증가했다는($\beta = -.44, p < .01$) 것을 의미한다. 만 4세 시기(초기치)의 유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만 6세 시기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 수준이 낮았고($\beta = -.78, p < .001$), 조사기간 3년 동안 공격성의 감소 속도가 빠를수록 만 6세 시기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 수준이 증가했다는($\beta = -.79, p < .001$)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 4세 시기(초기치)의 유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만 6세 시기의 놀이 단절($\beta = 1.18, p < .01$)과 놀이 방해($\beta = 1.08, p < .01$) 수준이 높았고, 조사기간 3년 동안 공격성의 감소 속도가 느릴수록 만 6세 시기의 놀이 단절($\beta = 1.40, p < .01$)과 놀이 방해($\beta = 1.19, p < .001$)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5~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만 4~6세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이 만 6세 유아의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횡단적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종단적으로 공격성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가 소수이고, 특히 공격성 발달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격성 발달궤적의 개인 간 차이를 추정하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4세 시기의 유아의 공격성은 유아마다 개인차가 있고,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성은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만3세에서 만5세까지 313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 유아기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궤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발달 궤적은 개인차가 나타났다는 신유립(201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4세에서 18세까지 2,076명의 종단 분석에서 공격성이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고 보

고한 Bongers, Koot, Van Der Ende 외(200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는 Côté, Tremblay, Nagin 외(2002)와 Tremblay(2000)의 주장과 같이 유아들은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언어적 능력의 제한으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언어나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하므로 협상과 같은 대안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공격성이 감소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른 시기의 공격성의 발달 궤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차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결과(Campbell, Spieker, Burchinal et al., 2006; Villancourt, Miller, Fagbemi et al., 2007; Wildeboer, Thijssen, van IJzendoorn et al., 2015)와는 부분적으로 유사하지만 분석 방법에 차이가 있어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국내의 초중고생의 공격성 발달 궤적에 관한 일부 연구(김동기·홍세희, 2007; 김세원·김예성, 2009; 이은주, 2010)에서는 성장하면서 공격성 발달 궤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고, 일부 연구(박애리, 2014; 서미정, 2009; 최정아, 2013)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공격성 발달궤적이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만 4세 시기 유아의 공격성의 초기치는 만 6세 시기의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조사 기간 3년 동안 공격성의 변화율은 교사, 또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부모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 4세 시기의 유아의 공격성이 증가할수록 만 6세 시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 놀이 상호작용 수준이 낮아지고, 놀이 방해와 놀이 단절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종단 연구로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 출현한 공격성이 안정적인 경우에 또래 수용이 낮고, 갈등적인 교사-아동 관계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Ladd와 Burgess(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유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교사-유아 관계에서 친밀감이 낮고, 갈등 및 의존이 높으며, 또래에게 공격적·과잉활동적 행동과 비사회적인 행동 수준이 높다는 국내의 횡단연구 결과(윤소정·김민경, 2011)와도 유사하였다. 그리고 3세부터 8세까지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이 부모의 양육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Baydar과 Akcinar(201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이처럼 공격성의 초기치가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미치는 결과는 횡단 연구결과로서 해석되는데 국내의 연구결과는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일관되고 있기에 유아의 공격성은 부모, 교사, 또래 관계의 예측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격성의 변화율에서는 조사 기간 3년 동안 유아의 공격성의 감소 속도가 빠를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또래 간 놀이 상호작용 수준이 증가하고, 공격성의 감소 속도가 느릴수록 또래 간 놀이방해와 놀이단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간 공격성의 평균 변화율 역시 앞서 제시한 유아의 공격성의 초기치와 교사 및 또래 관계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서 유아기 동안 공격성이 발현될 경우, 공격성을 빠르게 감소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인 조기개입을 해주는 것이 교사-유아 관계나 또래 간 관계를 증진시켜 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사나 또래관계와 달리 공격성의 평균 변화율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때 부모가 둔감하여 유아 공격성의 변화됨을 쉽게 인식할 수 없어서 변화율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된다(Vaillancourt, Miller, Fagbemi et al., 2007). 그리고 부모와 달리 교사는 유아들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관찰 및 기록 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유아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며, 교실에서 여러 아이들을 만남으로 인해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아의 공격성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 공격성의 변화율이 교사 관계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공격성이 발현했을 때 긍정적인 부모, 교사, 또래 관계를 위해서는 공격성의 조기개입이 매우 중요하며, 공격성의 빠른 감소를 위한 효과적이면서 지속적인 개입은 교사나 또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들은 기존 선행연구(Appleyard, & Berlin, 2007; Hughes, 2012; Parker, Rubin, Erath et al., 2006; Sroufe, Duggal, Weinfield et al., 2000)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학교 적응 등 이후의 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에 공격성이 높은 유아들의 경우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만 4세 시기의 공격성은 만 6세 시기의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공격성이 초기 발현될 시 조기 개입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가 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나 교사 교육을 통해 공격성의 발달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기질, 유아의 공격적인 미디어 시청, 부모/교사의 스마트폰 사용 등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수정, 2016; 문혁준·홍현재, 2013; 유지은·김성재·황지은, 2017)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부모나 교사가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떠한 양육태도와 행동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아의 공격성이 높아서 부모나 교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더불어 놀이 치료나 정서 조절 등을 중심으로 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 관계나 교사 관계에 문제 있는 유아들에 대한 공격성 사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공격성의 변화율은 또래 관계나 교사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교사는 또래 관계나 교사 관계에 문제 있는 유아들의 경우에는 공격성 수준을 사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유아의 공격성 수준을 사정하고, 장기간 동안 공격성이 떨어지지 않는 유아들을 선별하며, 공격성 감소 속도가 늦은 유아들의 경우에 공격성의 빠른 감소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바대로 공격성이 높은 것은 당연히 문제로 바로 인식되지만 이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빨리 감소하지 않는 것도 매우 위험한 지표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개입과 교육이 필요하다. 공격성이 빨리 감소하지 않는 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에서 해마다 교사가 변경될 때 이전 담임교사가 새로운 담임교사에게 해당 유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여 일관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입과 더불어 공격성이 높은 유아들의 경우에는 또래 관계나 교사 관계가 부정적이므로 이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사-유아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나 또래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이 공격성에 대한 측정이 만 4세부터 이루어졌고, 7차년도까지만 데이터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아주 이른 영아 시기 및 초등학교 이후 시기의 공격성 발달 궤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완적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른 영아 시기 및 초등학교 이후까지 공격성 발달 궤적이 개인차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이러한 공격성 발달 궤적이 초등학교 시기나 그 이후에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변수중심적(variable-centered) 접근방법으로 공격성의 변화 상태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기에 공격성 발달의 질적 차이에 따른 집단유형별 공격성의 발달을 살펴보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공격성 발달의 질

적 차이를 반영하여 상이한 유형의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격성은 부모의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정보의 다각화(triangulation)를 위해 관찰법을 활용하거나 교사 등 다른 정보원을 활용한 다차원적인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각화를 통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발달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영향 미치는 것을 살펴보았지만 차후 연구에서는 반대로 부모, 교사, 또래관계의 발달궤적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또는 병렬적 잠재성장모형 등을 통해 양방향적 영향관계에 대해 검토하는 것도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광혁(2007).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아동학회지, 28(5), 127-141.
- 김동기·홍세희(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21-42.
- 김명자(1991). 유아교육기관의 질과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아·최진아(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공격성 및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관계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5(1), 17-28.
- 김세원·김예성(2009). 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 발달궤적 및 예측요인. 인간발달연구, 16(2), 87-107.
- 김수정(2016). 부모의 양육행동, 미디어 사용 유형,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의 구조관계. 육아정책연구, 10(1), 73-93.
- 김영아·이진·문수중·김유진·오경자(2009). 한국판 CBCL 1.5-5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28(1), 117-136.
- 문혁준·홍현재(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2(4), 245-274.
- 박애리(2014). 부모간의 폭력노출 및 학대 받은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0), 503-528.
- 서미정(2009).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와 비행, 우울/불안 및 학업성취감: 잠재성장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2), 141-167.

- 신유림(2012).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유아기 관계적 공격성의 발달궤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189-196.
- 심희옥(2005).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및 친사회성과 또래관계와의 횡단적 관계. *아동학회지*, 26(2), 121-134.
- 유안진·한유진·김진경(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 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유지은·김성재·황지은(2017).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 325-335.
- 윤소정·김민경(2011). 유아의 공격성이 교사-유아관계와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49-68.
- 이은주(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공동발달: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1-200.
- 정익중(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정익중·권은선·박현선(2011). 아동의 학업성취 발달궤적의 예측요인과 발달산물. *한국아동복지학*, 34: 63-93.
- 정현주(2011). 아동기 또래괴롭힘 가해/패해 경험과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간 관계와 예측 요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정아(2013). 초기 청소년기 공격성의 발달적 변화와 가족 영향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294-307.
- 최혜영·신혜영(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 (PIPPS) 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and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link, L. R., Mesman, J., Van Zeijl, J., Stolk, M. N., Juffer, F., Koot, H. M., et al. (2006). The early childhood aggression curve: Development of physical aggression in 10 to 50 month 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7(4), 954-966.
- Appleyard, K., & Berlin, L. (2007). *Supporting healthy relationships between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Lessons from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Durham, North Carolina: Center for Child and Family Policy, Duke University.
- Baydar, N., & Akcinar, B. (2017).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the trajectories of mothers' harsh discipline, responsiveness and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5(1), 1-15.
-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4).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5), 1523-1537.
- Bor, W., Najman, J. M., O'Callaghan M., Williams, G. M., & Anstey, K. (2001). Aggression and the development of delinquent behaviour in children. www.community.nsw.gov.au 에서 2017년 3월 1일 인출함.
- Brame, B., Nagin, D. S., & Tremblay, R. E. (2001).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from school entry to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4), 503-512.
- Bredenkamp, S. (1985). *Guide to accreditation by the national academy of early childhood programs*.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Brennan, L. M., Shaw, D. S., Dishion, T. J., & Wilson, M. (2012). Longitudinal predictors of school-age academic achievement: Unique contributions of toddler-age aggression, oppositionality, inattention, and hyperactiv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8), 1289-1300.
- Broidy, L. M., Nagin, D. S., Tremblay, R. E., Bates, J. E., Brame, B., Dodge, K. A., et al. (200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hood disruptive behaviors and adolescent delinquency: A six-site, cross-n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22.
- Campbell, S. B., Shaw, D. S., & Gilliom, M. (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03), 467-488.
- Campbell, S. B., Spieker, S., Burchinal, M., Poe, M. D., &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6). Trajectories of aggression from toddlerhood to age 9 predict academic and social functioning through age 12.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8), 791-800.
- Côté, S., Tremblay, R. E., Nagin, D., Zoccolillo, M., & Vitaro, F. (2002). The development of impulsivity, fearfulness, and helpfulness during childhood: Patterns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the trajectorie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5), 609-618.
- Côté, S. M., Vaillancourt, T., Barker, E. D., Nagin, D., & Tremblay, R. E. (2007). The joint development of physical and indirect aggression: Predictors of continuity and change during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01), 37-55.

- Côté, S., Vaillancourt, T., LeBlanc, J. C., Nagin, D. S., & Tremblay, R. E. (2006). The development of physical aggression from toddlerhood to pre-adolescence: A nation wide longitudinal study of Canadia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1), 68-82.
- Cui, L., Colasante, T., Malti, T., Ribeaud, D., & Eisner, M. P. (2016). Dual trajectori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from mid-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Relations to sensation seeking, risk taking, and moral reason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4), 663-675.
-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2004).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service provision, and further research. www.community.nsw.gov.au.에서 2017년 3월 2일 인출함.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 Gray, S. A., Carter, A. S., Briggs-Gowan, M. J., Jones, S. M., & Wagmiller, R. L. (2014). Growth trajectories of early aggression, overactivity, and inattention: Relations to second-grade rea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50*(9), 2255-2263.
- Hamre, B. K., & Pianta, R. C. (2001). Early teacher - child relationships and the trajectory of children's school outcomes through eighth grade. *Child Development*, *72*(2), 625-638.
- Holloway, S. D., & Reichhart-Erickson, M. (198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1), 39-53.
- Hughes, J. N. (2012). Teacher - student relationships and school adjustment: Progress and remaining challenge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4*(3), 319-327.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dd, G. W., & Burgess, K. B. (1999). Charting the relationship trajectories of aggressive, withdrawn, and aggressive/withdrawn children during early grade

- school. *Child Development*, 70(4), 910–929.
- Nagin, D., & Tremblay, R. E. (1999). Trajectories of boys' physical aggression, opposition, and hyperactivity on the path to physically violent and nonviolent juvenile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70(5), 1181–1196.
- O'Connor, E. E., Dearing, E., & Collins, B. A. (2011).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behavior problem trajectories in elementary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8(1), 120–162.
- Olson, S. L., Sameroff, A. J., Lansford, J. E., Sexton, H., Davis-Kean, P., Bates, J. E., et al. (2013). Deconstructing the externalizing spectrum: Growth patterns of overt aggression, covert aggression, oppositional behavior, impulsivity /in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between school entry and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03), 817–842.
- Parker, J. G., Rubin, K. H., Erath, S., Wojslawowicz, J. C., & Buskirk, A. (2006). 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and adjustment: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1. Theory and method* (2nd ed., pp. 419–493).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Pouwels, J. L., & Cillessen, A. H. (2013). Correlates and outcomes associated with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among elementary-school children in a low-income urban contex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2), 190–205.
- Reebye, P. (2005). Aggression during early years—infancy and preschool. *The Canadi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Review*, 14(1), 16–20.
- Reef, J., Diamantopoulou, S., van Meurs, I., Verhulst, F., & van der Ende, J. (2010). Predicting adul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from externalizing problem trajectories in a 24-year longitudinal study.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9(7), 577–585.
- Schick, A., & Cierpka, M. (2016). Risk factors and prevention of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for Educational Research Online*, 8(1), 90–109.
- Shaw, D. S. (2006).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In H. E. Fitzgerald, B. M. Lester, & B. Zuckerman (Eds.), *The Crisis in Youth Mental Health: Critical Issues and Effective Programs, Vol. 1: Childhood disorders* (pp. 183–203). Westport, CT: Greenwood.
- Silver, R. B., Measelle, J. R., Armstrong, J. M., & Essex, M. J. (2010). The impact of parents, child care providers, teachers, and peers on early externalizing

- trajectori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8(6), 555-583.
- Sroufe, L. A., Duggal, S., Weinfield, N., & Carlson, E. (2000). Relationship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In A. J. Sameroff & M. Lewis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nd ed., pp. 75-91).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Takahashi, Y., Okada, K., Hoshino, T., & Anme, T. (2015).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skills during early childhood and links to parenting practices in a Japanese sample. *PLoS One*, 10(8), e0135357(1-14).
-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 William, F. A. (2004).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from toddlerhood to middle childhood: Predictors, correlates, and outcom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9(4), vii(1-143).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Tremblay, R. E., Nagin, D. S., Séguin, J. R., Zoccolillo, M., Zelazo, P. D., Boivin, M., et al. (2004). Physical agg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Trajectories and predictors. *Pediatrics*, 114(1), e43-e50.
- Vaillancourt, T., Miller, J. L., Fagbemi, J., Côté, S., & Tremblay, R. E. (2007).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indirect aggression: Result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of Canadian children aged 2 - 10. *Aggressive Behavior*, 33(4), 314-326.
- Wildeboer, A., Thijssen, S., Van IJzendoorn, M. H., van der Ende, J., Jaddoe, V. W., Verhulst, F. C., et al. (2015). Early childhood aggression trajectories: Associations with teacher-reported problem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9(3), 221-234.
- Zahrt, D. M., & Melzer-Lange, M. D. (2011).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in Review*, 32(8), 325-332.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메일 ichung@ewha.ac.kr

Abstract

The Influence of Preschoolers' Aggression Trajectory on Relationships with Parents, Teachers and Peers

Soo Jung Kim and Ick-Joong 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eschoolers' aggression trajectory on parental relationship(parent-child interaction), teacher relationship(teacher-child interaction), and peer relationship(play interaction, play disturbance, play disconnection). We used the data of preschoolers aged 4-6 from the 5th to 7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ggression of preschoolers tended to decrease overall as preschoolers age, although individual differences existed. Second, the initial aggression of preschoolers aged 4 yea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lationships with parents, teachers, and peers at age 6. In addition, the rate of change of aggression during three years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on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s, but did not affect relationship with parents.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early aggressive children need early intervention and aggression on children with problems in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s need to be assessed.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aggression, developmental trajectory, parental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홍예지¹⁾ 이순형²⁾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에 참여한 60-66개월 유아를 둔 어머니 1,608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은 모두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은 유의한 조절 변인으로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유연성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의 양육 분담이 유의한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으로 대표되는 가족 기능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임을 시사하며,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가족 유연성, 양육 분담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I. 서론

가족 구성원 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인간 발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상호작용 양식으로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토대이다(Olson, Russell & Sprenkle, 1983). 가족 기능은 가족 체계 간의 다양한 형태의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가족 체계의 기능에 따라 가족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강병재, 2010). 이와 같은 상호 관계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타협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익힌다(Goldenberg & Goldenberg, 2013).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의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은 가족 기능을 가족 응집성(cohesion)과 가족 유연성(flexibility)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가족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말하며, 가족 유연성은 가족 구성원이 가족 내 또는 외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할관계 및 관계적 규칙을 유연하게 변화시켜 적절하게 반응하는 가족 체계의 능력을 말한다(Olson, Gorall, & Tiesel, 2007). 다시 말해, 가족 기능은 가족의 요구, 목표, 삶의 만족감 및 정서적 유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념(Ghamari, 2012)으로 이는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는 가족 기능과 부모의 결혼 만족도(고정자·김갑숙, 2000), 우울(연은모·윤해옥·최효식, 2016; Krug et al., 2016) 및 스트레스(양진희·김영철, 2016; 홍예지·이순형, 2017; Koutra et al., 2016)와 같은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특히 가족 응집성은 가족 내에서 구성원이 경험하는 정서적 연결과 지지의 수준으로 개념화되며(Olson, 1986;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이는 가족 구성원의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 및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Ghamari, 2012). Mitchell, Szczerepa와 Hauser-Cram(2016)의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서 배우자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신이 지각하는 가족 응집성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 응집성은 자녀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Leary & Katz, 2004; Leidy, Guerra, & Toro, 2010). 예를 들어, Leidy, Guerra와 Toro(2010)의 연구는 만 5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자녀로 둔 가정의 높은 수준의 가족 응집성은 이들이 아동 후기가 됐을 때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고, 청소년기의 공격적 행동을 낮추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밝혔으며, Leary와 Katz(2004)의 연구도 유아기의 가족 응집성은 아동 중기 또래와의 친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특성과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응집성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Olson과 Gorall(2006)의 순환모델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의 극단적 현상을 경계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즉,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을 비선형적 연속성의 측면에서 설명하였는데, 가족 응집성은 매우 낮은 수준의 가족 응집성을 의미하는 비관여적(disengaged)에서 가족 응집성이 지나쳐 매우 높은 수준의 극단적인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매몰적(enmeshed) 가족 응집성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 유연성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의 가족 유연성을 의미하는 경직된(rigid)에서 가족 유연성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혼돈상태의(chaotic) 가족 유연성까지 이를 수 있으며, 이에 최적의 가족 기능은 역동적 분리와 연결의 차원 내에서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과 자율성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Olson & Gorall, 2006). 즉, 가족 상호작용은 가족 체계가 독립적 또는 전체적으로 기능하여 가족 구성원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가족 구성원의 자립적 선택이 존중될 때 가족이 최적의 수준에서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가족 기능과 관련하여 Krug, Wittchen, Lieb, Beesdo-Baum과 Knappe (2016)의 연구는 가족 기능을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애정적 반응성, 애정적 참여, 역할 행동, 행동 조절과 같은 미시적 다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참고하여 가족 기능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 아닌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을 독립적 측면에서 분리하여 살펴보고,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현재까지 가족 응집성과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상태 및 자녀 발달과의 관련을 살펴본 연구에 비해 가족 유연성과 이들 변인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문 실정이다. 최적의 가족 기능을 위해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과 자율성의 균형을 강조되는 만큼 가족 유연성과 다른 변인 간의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더욱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인 양육 스트레스와 가정 내 지지를 의미하는 배우자의 양육 부담이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변인이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의 차이를 확인하고 가족 기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길러내는 생산적인 과정인 동시에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을 동반하는 과정이다. 양육 스트레스란 가정 내에서 기대되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과중하거나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내적 긴장, 죄책감과 같은 심리적 및 신체적 부정적 반응으로 정의된다(Abidin, 1992; Deater-Deckard, 2004; Zhang, Cubbin, & Ci, 2016). 몇몇 연구에서 가족 응집성과 가

족 유연성에 미치는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을 보고하였다. Margalit과 Kleitman(2006)는 높은 수준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에 부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홍예지와 이순형(2017)의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서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신의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역시 어머니의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 밖에 가족 기능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 가족이 처한 문제 중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을 저해하는 유의한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Hassall, Rose, & McDonald, 2005; Mitchell & Hauser-Cram, 2009).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적 가정에서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심리 상태로(Shiegeto, Mangelsdorf, & Brown, 2014), 자녀를 양육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의 가족 체계의 기능과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가족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되고,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정 내 양육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양하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가족에서 탈피하여 점차 양육의 책임을 부부가 함께 나누려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기혼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 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다. 즉,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이 과거에는 보조 양육자 또는 이차적 양육자에 머물러 있었다면(남효정·이숙현, 2011), 최근에는 기혼 남성이 가정 내에서 가사를 돕고, 육아에 참여하는 것에 높은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했으며(차동혁, 2014) 이에 아버지의 가정 내 가사와 양육에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가 요구된다(허영림, 2006). 그러나 이러한 개인 및 사회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현실은 저조한 실정이다. 통계청(2016)의 가사 분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성(41.9%)과 여성(51%) 모두 높은 수준에서 남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16.4%), 여성(16.0%)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점차 가사 분담에 대한 아내와 남편의 인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참여는 매우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 수준이 더 높다고 인지하거나 남편이 가사노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김은정·박성덕·김경철, 2014; 양진희·김영철, 2016; Ponnet et al., 2013). 즉,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부

모 역할 수행의 질적 수준을 낮추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을 저하시킨다(Kanner et al., 1981). 또한 가족 구성원의 개인사회적 안녕과 같은 심리적 상태는 가족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Abidin, 1992; Kanner et al., 1981; Mitchell, Szczerepa, & Hauser-Cram, 2016), 부부 간의 긍정적 관계는 가족의 정서적 환경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Ponnet et al., 2013). 다시 말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적절한 양육 분담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갈등과 같은 문제적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돕는 완충적 역할을 한다. 특히, 아버지의 적극적인 자녀 양육 참여 및 역할 수행은 어머니의 양육에의 부담을 감소하는데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양육 행위로 인한 가족 구성원과의 친밀감 및 만족감의 경험은 전반적인 가족의 기능적 수행을 높여 가족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킨다(Gleditsch & Pedersen, 2017; Lamb, 2000). 무엇보다 아버지의 가사 분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남편의 가사 분담의 절대적 양보다는 어머니의 주관적 인식과 지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유계숙 외, 2011).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족의 기능적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양육 분담의 역동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유아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의 관계를 탐색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버지의 양육 활동에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며,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의 기능을 저해하는 경로를 확인하여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는데 있어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 아버지의 양육 분담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유연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6차년도(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6차년도부터 부와 모를 대상으로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및 가정 내에서 자신과 배우자 간 양육 분담의 지각차이에 대한 보고가 포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변인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 완전제거(listwise) 방식으로 제거하였으며, 어머니가 보고한 “결혼상태” 중 아버지의 부재가 보고된 미혼, 사별, 이혼, 별거 중인 상태의 대상을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어머니 1,608명이 포함되었다. 선행연구(Ponnet et al., 2013)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어머니의 교육수준, 연령과 월 평균 가구소득이 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편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0-66개월에 해당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6.10 ($SD = 3.63$) 세이었으며, 유아의 평균 월령은 만 62.65 ($SD = 1.34$)개월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825 (51.3%)명, 여아가 783 (48.7%)명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38.2%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28.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전문대졸 26.6%, 대학원졸 5.2%, 중졸 이하 .4%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원 이하 32.3%,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47.1%, 5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13.5%, 7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5.5%, 1000만원 초과 .8%에 해당하였다.

2. 주요 변인

가. 양육 스트레스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양육 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로 측정되었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등의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어머니의 자기보

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가 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부담감과 같은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 = .875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나.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은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연구진이 Olson(2010)의 척도에 서 응집성 및 유연성의 문항을 인출하여 재구성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족 응집성은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도와준다,’ ‘우리 가족은 친밀하면서도 개별적인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 등의 7문항, 가족 유연성은 ‘우리 가족은 필요할 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가 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 응집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a* = .886이고, 가족 유연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a* = .823로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다. 아버지의 양육 분담

아버지의 양육 분담은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연구진이 NICHD(1999)의 SECCY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사용 허가를 취득하여 번역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아이를 목욕시킨다,’ ‘아이와 함께 놀아준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 준다,’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간다’ 등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머니의 평정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배우자가 함 1점, 대부분 배우자가 함 2점, 똑같이 함 3점, 대부분 내가 함 4점, 내가 함이 5점)로 측정되었으나 다른 변인과의 일관적 방향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보다 배우자가 양육 활동에 더 많이 관여함을 의미하도록 역코딩(내가 함 1점, 대부분 내가 함 2점, 똑같이 함 3점, 대부분 배우자가 함 4점, 배우자가 함이 5점)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신뢰도는 *Cronbach's a* = .910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과 가족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 간 높은 상호관련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산팽창지수(VIF)는 1.020-1.174로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869-1.926으로 잔차 간 자기 상관이 없었다. 상호작용 분석 시 사용한 변인은 모두 평균 중심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 간의 관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변인	(N=1,608)			
	1	2	3	4
1. 양육 스트레스	1			
2. 가족 응집성	-.385***	1		
3. 가족 유연성	-.386***	.821***	1	
4. 아버지의 양육 분담	-.125***	.260***	.339***	1

(표 1 계속)

변인	1	2	3	4
평균	2.650	3.961	3.590	1.993
표준편차	.620	.578	.594	.541
왜도	.053	-1.010	-.514	.391
첨도	.152	3.024	1.265	.576

*** $p < .00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응집성 ($r = -.385, p < .001$), 가족 유연성 ($r = -.386, p < .001$)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 ($r = -.125, p < .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가족 내 응집성은 가족 유연성 ($r = .821, p < .001$)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 ($r = .260,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가족 유연성 역시 아버지의 양육 분담 ($r = .339, p < .001$)과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에 미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가족 응집성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에 투입한 통제변인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080, p < .01$)과 월평균 가구소득($\beta = .082, p < .01$)이 유의미하였으며, 가족 응집성을 1.7%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통제 변인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048, p < .05$)만이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beta = -.345, p < .001$)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beta = .209, p < .001$)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이는 종속변인을 17.3% 추가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입된 상호작용변인도 유의하였으며($\beta = .071, p < .01$), 이는 가족 응집성을 .5% 추가로 설명하였다. 즉, 조절변인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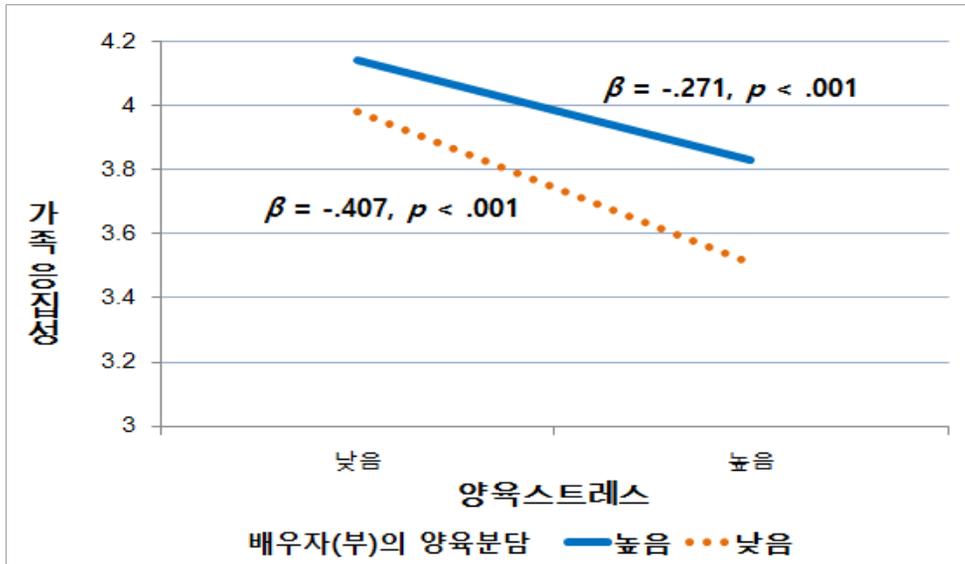
〈표 2〉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모델	변인	β	R^2	ΔR^2	F
1	모 나이	-.035	.017	-	9.377***
	모 교육수준	.080**			
	월평균 가구 소득	.082**			
2	모 나이	-.019	.191	.173	168.919***
	모 교육수준	.048'			
	월평균 가구 소득	.011			
	양육 스트레스	-.345***			
	아버지의 양육 분담	.209***			
3	모 나이	-.017	.196	.005	9.871**
	모 교육수준	.048'			
	월평균 가구 소득	.009			
	양육 스트레스	-.339***			
	아버지의 양육 분담	.209***			
	양육 스트레스 x 아버지의 양육 분담	.071**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는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평균에서 +1 SD와 -1 SD를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 점수에서부터 +1 SD와 평균에서부터 -1 SD의 범주에 속한 연구 대상의 수는 각각 520 (32.4%)명, 556 (34.6%)명 이었으며, 양쪽 범주에 과반수 이상씩 고루 분포하여 분석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각 집단별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식 기울기에 대해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 양육활동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더 적극적인 양육 분담 집단 ($\beta = -.271, p < .001$)과 덜 적극적인 양육 분담 집단 ($\beta = -.407, p < .001$)의 경우 모두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응집성을 유의하게 예언해주었으나 높은 수준의 아버지의 양육 분담 집단은 낮은 수준의 아버지의 양육 분담 집단과 비교하여 그 영향력의 정도가 낮았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그림 1]에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유연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가족 유연성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 투입한 통제변인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092, p < .01$)과 월평균 가구소득($\beta = .076, p < .01$)이 유의미하였으며, 가족 유연성을 1.9%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통제 변인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060, p < .05$)만이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beta = -.335, p < .001$)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beta = .296, p < .001$)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이는 종속변인을 21.5% 추가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입된 상호작용변인도 유의하였으며($\beta = .048, p < .05$), 이는 가족 유연성을 .2% 추가로 설명

하였다. 즉, 조절변인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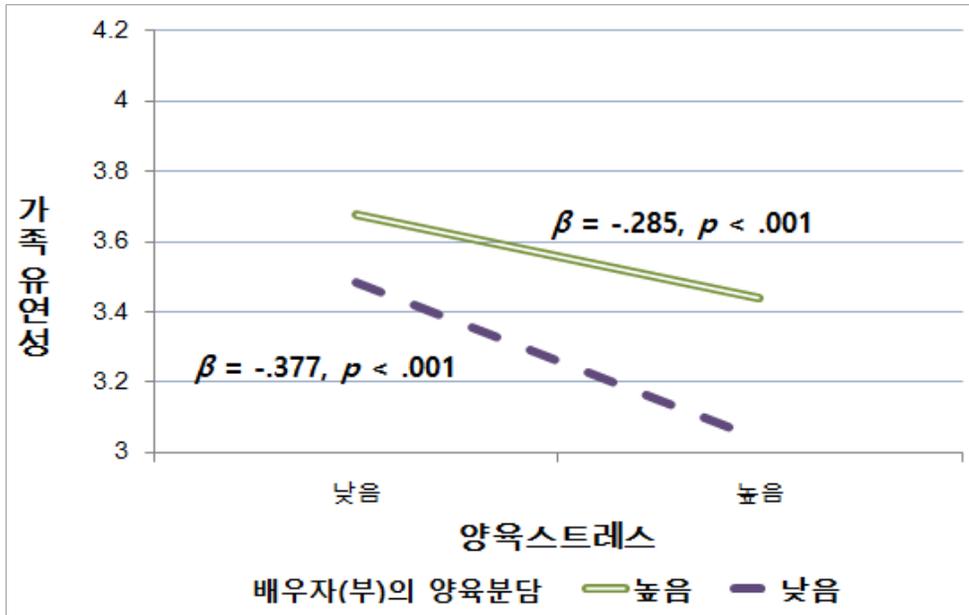
〈표 3〉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유연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모델	변인	β	R^2	ΔR^2	F
1	모 나이	-.016	.019	-	10.008***
	모 교육수준	.092**			
	월평균 가구 소득	.076**			
2	모 나이	-.008	.234	.215	221.577***
	모 교육수준	.060*			
	월평균 가구 소득	.006			
	양육 스트레스	-.335***			
	아버지의 양육 분담	.296***			
3	모 나이	-.010	.236	.002	4.722
	모 교육수준	.059*			
	월평균 가구 소득	.007			
	양육 스트레스	-.331***			
	아버지의 양육 분담	.297***			
	양육 스트레스 x 아버지의 양육 분담	.048*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는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평균에서 +1 SD와 -1 SD를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분포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 각 집단별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식 기울기에 대해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 양육활동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더 적극적인 양육 분담 집단 ($\beta = -.285, p < .001$)과 덜 적극적으로 양육 활동을 분담하는 집단 ($\beta = -.377, p < .001$)의 경우 모두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유연성을 유의하게 예언해주었으나 높은 수준의 아버지의 양육 분담 집단은 낮은 수준의 아버지의 양육 분담 집단과 비교하여 그 영향력의 정도가 낮았다.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은 [그림 2]에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유연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구축한 한국아동패널(PSKC)의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60-66개월에 해당하는 유아 자녀(평균 월령 62.65개월)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인의 관계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점적으로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및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응집성, 가족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하면서 지각한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내 응집성과 유연성이 낮고, 배우자가 자녀 양육 활동에 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홍예지·이순형, 2017; Margalit & Kleitman,

2006)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아 및 초기 단계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가 4~5세에 이르는 시점에는 점차 감소하는데(손수경외, 2016; Crnic & Booth, 1991), 이는 영아기의 불안정한 생활 패턴과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아의 욕구를 맞춰주는데서 기인한 어려움이 유아 시기 접어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이다(김영미·송하나, 2015).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로의 전이를 앞둔 만 5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에 비해 감소하였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양육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는 전반적인 가족의 기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의 관련은 양육 상황에서의 부정적 인지-정서 처리과정(Ponnet et al., 2013)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양육 환경에서 유발된 부정적 정서 상태가 어머니가 양육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라는 부정적 정서가 결국 전반적인 가족 기능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지각을 낮추고, 배우자의 양육 도움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가족이 기능적 역할을 하여 가족 구성원 간에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이고 가족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을 낮추는데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내 응집성은 가족 유연성 및 배우자의 양육 분담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가족 유연성 역시 배우자의 양육 분담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기능 중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은 서로 다른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즉,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의 기능적 역할은 배우자로부터의 적극적인 양육 활동의 도움과 모두 관련이 있었다(Abidin, 1992; Kanner et al., 1981). 이와 관련하여 경험적 연구가 더 축적되어 두 변인 각각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분담에의 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게서 모두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 분담을 하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그 영향력의 정도가 낮았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양육 분담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집단의 경우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

의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유연성의 관계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배우자의 양육 분담의 상호작용이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수준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분담에의 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게서 모두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 분담을 하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그 영향력의 정도가 낮았다. 배우자의 양육 분담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집단의 경우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유연성의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동일할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 활동을 분담한다고 지각하는 경우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분담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어머니에 비해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 각각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동일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육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이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가정 내에서 느끼는 정서적 연결 및 지지와 같은 가족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양진화·김영철, 2016; 홍예지·이순형, 2017; Koutra et al., 2016)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어머니가 지각한 배우자의 양육 분담은 1.993점으로 평균 수준보다 낮아 아버지의 양육에의 현실적인 참여가 여전히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 분담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에 유의미한 조절 변인으로의 역할을 한 것은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와 도움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상호작용은 가족 내,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관계적 규칙을 유연하게 변화시켜 적절하게 반응하는 가족 유연성($p < .05$)에 비해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대변되는 가족 응집성($p < .01$)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한국에서도 가족의 모습이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가족 내에서의 양육과 관련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일정 부분 고정되어 있어 유연한 상황 대처의 수준이 낮으며,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의 유동성이 적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수준이 미미할지라도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자녀

를 양육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연대감과 동료의식과 같은 심리적 안정감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최적의 가족 기능을 위해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자립적 선택의 존중이 균형을 이뤄 가족이 처하는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변화가 요구된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이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점차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정 내 가족 구성원의 개별적 고유 역할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지지하여 상호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고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가족 기능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또한 가정 내 또는 외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적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아버지 효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고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분담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양육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완충적 역할을 할 것이므로 가정 내 양육 스트레스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개입함으로써 아버지가 양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양육과 관련하여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역할 수행이 미흡함을 알고,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제도적 노력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기혼 남성이 육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의 개선이 되어 탄력근무제와 같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역할의 수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 학교, 적극적 부모 역할의 훈련 및 교육과 같은 실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장 내 및 지역 사회의 장기적 지원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유연성 및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매커니즘을 살펴보았다. 특히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와 가족 내에서의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정서적 연결 및 지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유연성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양육 분담의 상호작용 효

과를 검증하여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중요성 부각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의 기능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영향을 횡단적 연구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는데 한계가 있다. 각 측정 변인을 동일 시점에 측정한 횡단 연구의 검증 방법으로는 각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과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횡단 연구를 넘어서 변인 간 연속된 종단적 추이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 분담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지각한 주관적 보고만을 분석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실제 아버지 자신이 지각한 양육 분담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활동 분담과 관련하여 자신의 보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보고를 모두 고려하여 아버지 효과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발달 및 적응 관련 특성을 포함시켜 본 연구의 모형을 확장한다면 궁극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관련 특성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역기능은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족 구성원이 지각하는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 자녀 특성 및 가정 환경적 특성을 추가하여 통합적인 변인 간의 구조를 이해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병재(2010). 가족 상호작용과 아동의 또래상호작용 및 사회적 힘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9(4), 93-110.
- 고정자·김갑숙(2000). 가족적응성, 응집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10), 1-14.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영미·송하나(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2), 71-88.
- 김은정·박성덕·김경철(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육아정책연구*, 8(1), 129-151.
- 남효정·이숙현(2011).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정도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07-121.

- 손수경·장유나·노주성·홍세희(2016). 부와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중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육아정책연구, 10(3), 25-50.
- 양진희·김영철(2016).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7(3), 81-106.
- 연은모·윤해욱·최효식(2016). 부모의 우울, 지각된 가족기능,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243-269.
- 유계숙·강수향·오아림·이주현(201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17-136.
- 육아정책연구소(2013). 한국아동패널연구 6차년도 데이터 도구 프로파일.
- 차동혁(2014).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실행 유형과 영향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http://kostat.go.kr>에서 2017년 3월 23일 인출
- 허영립(2006).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6(1), 97-116.
- 홍예지·이순형(2017).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가족 응집성과 유연성 및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38(2), 37-50.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 Cm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42-1050.
- Deater-Deckard, K. (2004). *Parenting str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hamari, M. (2012). Family function and depression, anxiety, and somatization among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2(5), 101-105.
- Gleditsch, R. F., & Pedersen, D. E. (2017). Mothers' and fathers' ratings of parental involvement: Views of married dual-earners with preschool-age children. *Marriage & Family Review*, 1-24.
- Goldenberg, H., & Goldenberg, I. (2013). *Family therapy: An overview (8th ed.)*. Belmont, CA: Brooks/Cole.

- Hassall, R., Rose, J., & McDonald, J. (2005).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The effects of parental cognitions in relation to child characteristics and family support.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9*(6), 405-418.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l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1-39.
- Koutra, K., Simos, P., Triliva, S., Lionis, C., & Vgontzas, A. N. (2016). Linking family cohesion and flexibility with expressed emotion, family burde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caregivers of patients with psychosis: A path analytic model. *Psychiatry Research, 240*, 66-75.
- Krug, S., Wittchen, H-U., Lieb, R., Beesdo-Baum, K., & Knappe, S. (2016). Family functioning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3*, 184-189.
- Lamb, M. E. (2000). The history of research on father involvement: An overview. *Marriage and Family Review, 29*(2-3), 23-42.
- Leary, A., & Katz, L. F. (2004). Coparenting, family-level processes, and peer outcomes: The moderating role of vagal ton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593-608.
- Leidy, M. S., Guerra, N. G., & Toro, R. I. (2010). Positive parenting, family cohesion, and child social competence among immigrant Latino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3), 252-260.
- Margalit, M., & Kleitman, T. (2006). Mothers' stress, resilience and early intervention. *European Journal of Special Needs Education, 21*(3), 269-283.
- Mitchell, D. B., & Hauser-Cram, P. (2009). Early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s: Two years after early interven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32*(1), 3-16.
- Mitchell, D. B., Szczerepa, A., & Hauser-Cram, P. (2016). Spilling over: Partner parenting stress as a predictor of family cohesion in parents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49-50*, 258-267.
- NICHD Early Child Care Network (1999).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SECCYD)*.
- Olson, D. H. (1986). Circumplex model VII: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25*(3), 337-351.

- Olson, D. H. (2010). *FACES-IV manual*.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 Olson, D. H., & Gorall, D. M. (2006). *FACES IV and Circumplex Model*.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 Olson, D. H., Gorall, D. M., & Tiesel, J. W. (2007). *FACES-IV package: Administration*.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1), 69-83.
- Ponnet, K., Mortelmans, D., Wouters, E., Leeuwen, K. V., Bastaits, K., & Pasteels, I. (2013).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276.
- Shigeto, A., Mangelsdorf, S. C., & Brown, G. L. (2014). Roles of family cohesiveness, marital adjustment, and child temperament in predicting child behavior with 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1*(2), 200-220.
- Zhang, C., Cubbin, C., & Ci, Q. (2016). Parenting stress and mother-child playful interaction: The role of emotional support. *Journal of Family Studies, 1*-15.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이순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메일 ysh@snu.ac.kr

Abstract

Links among Parenting Stress, Family Cohesion and Family Flexibility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arenting Role-Sharing with Fathers

Yea-Ji Hong and Soon-Hyung Yi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arenting role-sharing with fathers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family cohesion and family flexibility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Data were drawn from the sixth wave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conducted in 2013. The subjects were 1,608 mothers of children aged 60–66 month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 alpha,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ver. 22. The results illustrated that both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role-sharing with fathers had main effects 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flexibility, respectively. Especial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analysis between factors, the parenting role-sharing with fathers moderated not only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family cohesion but also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family flexibility. Therefore, this study highlighted the need of fathers' active role in parenting to support the spouse's psychological well-being within a family. Moreover, findings suggest for the programs to promote fathers' participation in parenting with the help of the parenting role training education and to encourage the family friendly public policy.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arenting stress, family cohesion, family flexibility, parenting role-sharing with fathers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분석*

길혜지¹⁾ 황정원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취학 전 6세 아동) 1,099명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한 유형 분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 4가지 유형, 즉 엄격한 아버지 집단(31.8%),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23.5%), 소통하는 부모집단(22.9%),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21.7%)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양육태도 유형별로 부모학력, 취업여부 및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양육관련 특성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과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학 후 아동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방임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애정을 기반으로 양육하되, 필요하다면 자녀를 훈육하는 태도가 요구됨을 보여준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특성, 아동의 문제행동, 군집분석

* 본 논문은 제7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발표 원고(2016.11.24)를 수정 보완한 것임.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부연구위원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I. 서론

취학 전 아동기는 장래 유능한 사회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시기로서 전 생애에 있어 매우 중요하나(최정혜, 2015), 이 시기에 상당한 비율의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보이며 문제행동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안숙희(2010)는 취학 전 아동의 10~20% 정도가 심리적인 장애와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취업모의 증가, 출산률 감소,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부모의 성취압력 등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취학 전 아동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은 이후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학업과 사회 적응 측면에서 점차 심각해질 수 있으며,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발현하는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장진영·김진희, 김영희, 2011; Feil, Serverson & Walker, 1998).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은 복합요인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는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그 어떤 요인보다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부모’를 들고 있다(박혜원 2003; Lovejoy et al, 2000; Rutter, 1990). 이는 아동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같이 보내면서 성장·발달하므로, 부모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양육 과정에서 자녀의 정의적, 인지적 행동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아동의 인지능력 뿐 아니라 성격이나 정서 등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성년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정혜, 2015).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강은진·이예진·이정림, 2015; 광소현·김순옥, 2007; 이기숙·김순환·김민정, 2010; 임호찬, 2008; Hurlock, 1987; Rohner, 1991)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생활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애정적 태도를 취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덜 나타내는 반면, 아동에 대해 과도한 기대 및 과잉 간섭을 하는 양육방식을 사용할수록 문제행동이 더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최정혜, 2015, 재인용). Aunola와 Nurmi(2005), Braza 등(2015)의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높은 수준의 애정과 행동통제를 보이는 권위적인(authoritative) 부모에게 자란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Kritzas & Grobler, 2005; 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적응을 잘 하며(Hart et al., 2003),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반면(Akhter, Hanif, Tariq & Atta, 2011; Antolin, Oliver & Arranz, 2009), 혹독하

고 처벌적인 행동 통제를 하는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부모의 자녀들은 광범위하게 외현적 또는 내재적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높다(Akhter et al. 2011; Rinaldi & Howe, 2012; Pereira et al., 2009)고 밝히고 있다.

한편, Braza 등(2015)은 기존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의 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간과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가정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과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13년 EBS 다큐프레이밍 ‘파더쇼크’ 3부작이 방송되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부성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김미진, 2016; 김인경, 2017; 정금자·박미라, 2013, 조부월, 2009; 최정혜, 2015; Rohner & Veneziano, 2001; Rinaldi & Howe, 2012)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금자와 박미라(2013)는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도덕성이 높고, 특히 아버지가 생활지도를 많이 할수록 자녀들의 도덕적, 인습적, 사회도덕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김인경(2017)은 3세 이후 아동의 어휘력 발달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머니보다 더 크게 미친다고 하였으며, Rinaldi와 Howe(2012)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독자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아동의 외현적, 내재적, 적응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 허용적(permissive)인 어머니와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며, 권위적(authoritative)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아동의 행동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조부월, 2009; 노지형·송현주, 2012; Dwairy, 2008; 2010)도 있다. 조부월(2009)은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여부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애정-자율 일치 부모집단의 유아가 나머지 집단(애정-통제 일치, 거부-자율일치, 거부-통제일치, 불일치)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으며, 거부-통제 일치 부모집단의 유아는 불일치 집단의 유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Dwairy(2008)는 부모 양육태도의 불일치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인 장애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취학 전 아동의 발달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발달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보다 큰 영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에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과 중요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부모를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양육 관련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문제 행동 발현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예방과 취학 후 성공적인 학교적응 및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양육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특징

Rohner(1991)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 하였으며(김미진, 2016, 재인용), Baumrind(1967)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를 통제하고 사회화하는 시도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Braza et al, 2015, 재인용).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 또는 태도의 양상으로 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부모의 양육특성 관련 변인들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연구되어 왔으며(Aunola & Nurmi, 2015), Cummings, Davies & Campbell(2000)과 Pereira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의 발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시사하였다(Braza et al, 2015, 재인용). 또한 관련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행동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왔다(Hart, Newell, & Olsen, 2003).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분위기, 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 등 환경적 요인들과 관계 있으며(Watson & Lindgren, 1973), 자녀의 정서적(Badwin, 1949; Mussen et al.,

1969), 사회적(Coopersmith, 1967; 한중혜, 1980), 지적, 신체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강은주·김영주, 2006, 재인용).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는데, 국외 선행연구(Aunola & Nurmi, 2005; Braza et al, 2015; Dwairy, 2008; Williams & Wahler, 2010)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주로 차원적 접근에 따라 유형화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Schaefer(1965)와 Baumrind(1975)는 양육태도를 애정과 통제의 2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권위주의적인(authoritative), 허용적인(permissive),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부모로 분류하였다. Baumrind(1975)가 제안한 권위적인, 허용적인,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특징을 살펴보면,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유형으로, 필요시 엄격히 통제하면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반면, 권위주의적 부모는 통제나 무조건적 복종을 중시하며, 이를 어겼을 때 벌을 주고,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허용적 부모는 자기표현과 자기규제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신을 자원으로 생각하여 자녀에게 벌을 주지 않으며 비교적 온정적이다(박재우, 2015, 재인용). Aunola와 Nurmi(2005)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가지 차원(애정,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여 통제의 차원을 더 세분화하였다. Maccoby와 Martin(1983)은 부모의 요구(통제, 감독, 성숙함), 부모의 응답(애정, 허용, 관여)의 2가지 차원에 의해 양육태도를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허용적 양육태도를 허용과 방임으로 세분화한 것이 Baumrind 분류와의 차이점이다(Braza et al., 2015, 재인용). Kaufmann, Gesten, Santa, Rendina-Gobioff와 Cornell과 Frick(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적인, 권위주의적인의 두 차원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Williams와 Wahler의 연구(2010)에서는 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적인, 권위주의적인, 허용적인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오기선(1973)은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보호적 태도, 복종적 태도, 모순 불일치의 태도로 구분하였으며, 정원식(1974)은 수용-거부,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로, 정현희(1990)는 민주·자율적 태도, 기대·간섭적 태도, 온정적 태도, 불안·복종적 태도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조부월, 2009, 재인용). 최근, 최정혜(2015)는 애정과 통제의 두 차원에 의하여 권위주의적, 민주적, 허용적, 무관심적 양육태도로 유형화하였고, 김미진(2016)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Schaefer(1959)의 유형분류를 바탕으로 애정적, 거부적, 통제적, 자율적 양육태도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박재우(2015)도 Schaefer(1959)의 양육태도를 토대로 자율-통제 차원에서 통제 경향이 강한 알파맘, 애정-거부 차원에서 애정으로 지향된 알파맘으로 양육태도 유형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2.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전인적 발달에 있어 부적절하거나 역기능적인 행동으로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행동을 의미한다(류관열, 2014; 김은주, 2016) 이는 문제행동을 보는 관점과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부적응 행동(maladaptive behavior),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 행동장애(conduct disorder), 정서적 장애(emotional disturbance)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장진영·김진영·김영희, 2011; 김정겸·강영식, 2015). 여기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은 갈등의 표출 방식에 따라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와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로 구분할 수 있다. 외현화 문제는 아동이 감정이나 행동을 적절히 억제하기 못하여 표출되는 공격성, 주의력 결핍, 감정의 행동화, 반항성과 같은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반대로 내재화 문제는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정서적인 문제행동으로서, 위축이나 불안, 미성숙 등으로 나타난다(김정겸·강영식, 2015 재인용).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은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람과 사물에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어떤 상황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과잉 산만한 행동, 두려움과 초조해하는 걱정과 불안 등으로 나타난다(류관열, 2014, 재인용). 이 시기의 문제행동은 고정화되면 취학 후 아동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낮은 학업성취, 우울, 성격장애, 또래관계 부적응, 비행으로 연결되고 성인기에 사회 부적응 및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연은모·윤해욱·최효식, 2016; 송진숙·권희경, 2003). 따라서 취학 전 시기는 자녀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바른 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 초기 연구에서는 아동 개인의 정신·건강적 측면 즉, 개인내적 기질이나 요인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같은 외적 상호작용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김정겸·강영식, 2015).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 관계

다양한 부모관련 변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Aunola & Nurmi, 2005). 이는 이순자·유수옥(2012)의 연구에서 지난 2003년~2012년 10년간 국내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연구한 학술지 및 학위논문에 대한 변인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취학 전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적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Cummings et al., 2000; Galambos, Barker & Almeida, 2003; Rinaldi & Howe, 2012; Otto, Kolmorgen, Sierau, Weis, Klitzing & Klein, 2015; Pereira et al., 2009).

먼저, Galambos 등(2003)은 약 3년간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부모가 아동의 행동과 생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는 양육방식을 사용했을 때 아동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과잉간섭을 하거나 애정이 없는 양육방식을 사용할 경우 아동의 문제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Kaufmann 등(2000)은 아동의 적응에 대해 권위적인 양육태도와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아동의 행동에 대한 권위적인 부모의 긍정적인 영향과 이에 대비되는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권위적인 부모는 아동의 부적응을 줄여주지 못하였고,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아동의 부적응을 줄이는 데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e la Torre, Garcia & Casanova(2013)는 자녀가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형태와 신체적, 언어적 공격 행동, 친구들에게 보이는 화와 적대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가 권위주의적 즉, 자녀에 대해 애정의 수준이 높지 않고, 통제는 강할 때, 공격적 행동을 더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단순히 하나의 차원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ray와 Steinberg(1999), Pettit와 Laird(2002)는 부모의 애정이 높은 심리적 통제와 함께 작용할 때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Aunola & Nurmi, 2005, 재인용). 반면, 허용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자녀는 내재화, 외현적, 그리고 주의집중에 있어서 문제를 보였다(Aunola & Nurmi, 2005; Kaufmann et al., 2000). 또한 부모 양육태도의 일치여부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조부일, 2009; Aunola & Nurmi, 2005)은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unola & Nurmi(2005)는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조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6년의 종단연구를 통해 하였다. 그 결과, 높

은 애정과 동시에 높은 심리적 통제를 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재적, 외현적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 어머니의 행동통제가 낮은 수준의 심리적 통제와 같이 조합되었을 때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Rinaldi와 Howe(2012)의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이 독립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아동의 외현적, 내재적,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그 결과, 허용적인 어머니와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의미하게 아동의 외현적 행동을 예측한 반면 아버지의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적응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za 등(2015)의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허용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남아의 내재적인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허용적인 아버지와 동시에 허용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여아의 신체적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연은옥·윤해옥·최효식(2016)의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비독립적이라는 점을 가정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 지각된 가족기능, 긍정적 양육태도간의 관계에서 자기효과, 자기효과 상대방 효과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 간 상호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우울 수준이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취학 전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경험하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스트레스 상태(이정숙·두정일, 2008)로서, 심리적인 안정감에 방해가 되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 양육특성 중 하나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김혜금·조혜영, 2015; 최효식·연은모, 2014; 최효식·윤해옥·연은모, 2016; Anthony et al., 2005).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부모는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Woolfson & Grant, 2006),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온화함이 부족하고 처벌적 양육태도를 보이며, 양육행동이 비일관적이고 자녀와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지 못한다(김영미·송하나, 2015; Ponnet et al., 2013, 최효식·윤해옥·연은모, 2016에서 재인용). 그런데, 김정·이지현(2005)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의해 감소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어, 자녀양육에 있어 부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요컨대, 선행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특성은 취학 전 아동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며, 양육 스트레스, 양육분담과 같은 부부의 양육특성은 양육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 취학 전 6세 아동)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함께 고려한 유형 분류를 실시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핌과 동시에 유형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활용된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전국에서 태어난 2,150명의 신생아 패널로 시작되어, 매년 우리나라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나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주된 양육 책임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 기관 등을 통해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이정립 외, 2015).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동일한 항목을 동시에 측정하여 부모의 양육 관련 특성들을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양호도가 높은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을 표준화하여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전체 패널(2,150명)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문항을 비롯하여, 이 연구에서 관심 있는 주요 변수에 모두 성실히 응답한 1,09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아동 1,099명과 그 아동의 아버지, 어머니 각각 1,099명의 응답 자료가 함께 분석되었으며, 최종 분석 대상의 특성을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최종 분석 대상의 특성(N=1,099)

아동 특성		사례 수(%)	부모 특성		사례 수(%)
성별	여아	533 (48.5)	거주 지역	서울·경기권	450 (40.9)
	남아	566 (51.5)		그 외	649 (59.1)
첫째 여부	첫째	594 (54.0)	부 연령	34세 이하	114 (10.4)
	그 외	505 (46.0)		35-40세	606 (55.1)
외동 여부	외동	50 (4.5)		41세 이상	379 (34.5)
	형제	288 (26.2)	모 연령	34세 이하	295 (26.8)
	자매	202 (18.4)		35-40세	639 (58.1)
남매	559 (50.9)	41세 이상		165 (15.0)	

2. 분석 변수

가. 부모 유형화를 위한 변수

먼저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부모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 관련 문항을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양육태도는 크게 2개의 하위 영역인 ‘온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영역은 자기보고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분석을 위해, 온정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놀아주며 가족 규칙을 함께 결정하는 등 아이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6개 문항 평균값을 할당하였다. 반면 통제적 태도는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도록 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미리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는 등 아이를 얼마나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6개 문항 평균값을 할당하였다. 즉,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온정성과 통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각각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응답 값을 동시에 활용하여 집단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표 2> 부모 유형화를 위한 변수: 양육태도

구분		M (SD)	Cronbach α	대표 문항 예시
온정적 태도	아버지	3.53 (0.59)	0.869	-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어머니	3.64 (0.54)	0.867	-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통제적 태도	아버지	3.31 (0.56)	0.785	-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어머니	3.46 (0.50)	0.751	-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나. 부모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을 위한 변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한 후에는, 각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양육특성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3가지 변수, 즉,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수준 및 취업여부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은 지난 1년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서 각종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의미하는데, 2013년 기준 평균적으로 445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모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부부가 동일한 학력인지 아니면 상대보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재분류한 것이다. 분석 대상의 57.5%가 동일한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고 15.4%는 오히려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취업 상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현재 취업(휴직 포함) 상태인지에 따라 재분류한 것인데, 참고로 학업(휴학 포함) 중인 경우에는 미취업 상태로 보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 상태로 보았다. 분석 대상 중 부모가 모두 취업 상태에 있는 가구는 42.9%이며 부 또는 모 중에 한 명만 취업 중인 가구는 54.6%였다.

더 나아가 양육 분담 및 양육 스트레스 변수를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로 양육 관련 특성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양육 분담’은 아이 목욕시키기, 어린이집 등원시키기,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밤에 일어나기 등 양육 관련 16개 문항에 대해 배우자와 역할을 똑같이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각 1점을 부여하여 16점 만점으로 변환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양육 분담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하여 개발된 것인데(신나리 외, 2008),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등과 같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요인을 5점 척도로 측정된 11개 문항 평균값에 해당한다(부모 각각 Cronbach α = 0.872, 0.879).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양육 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고, 반면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은 편이었다.

〈표 3〉 부모 유형화에 따른 특성 분석을 위한 변수① : 가정 배경 및 양육특성

구 분		변수 설명		<i>M (SD)</i>	<i>Min-Max</i>
월평균 가구소득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수령한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 원)		445.40 (191.23)	100-2,500
양 육 특 성	양육 분담	아이 목욕시키기 등 16개 문항에 대하여 부부 간 똑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정도를 16점 만점으로 변환한 값	부	3.98 (3.26)	0-16
			모	3.28 (3.02)	0-16
	양육 스트 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요인을 묻는 11개 문항 평균 값	부	2.37 (0.60)	1-4.09
			모	2.56 (0.62)	1-4.73

(표 3 계속)

구분	변수 설명		사례 수	%
부모 학력	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재분류	부 = 모	632	57.5
		부 > 모	298	27.1
		부 < 모	169	15.4
부모 취업 상태	부모가 각각 취업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재분류	부모취업	472	42.9
		부취업	568	51.7
		모취업	32	2.9
		부모미취업	27	2.5

한편,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에, ‘아동의 문제 행동’은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CBBL1.5-5(Child Behavior Checklist 1.5-5) 검사를 통해 획득한 원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CBBL1.5-5는 오경자와 김영아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유아 행동 평가척도를 활용하여 표준화한 검사(총 99문항)로서, 주 양육자가 아동의 문제 행동이 6개월 이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3점 척도(0점=아니다, 1점=약간 혹은 때때로, 2점=매우 혹은 종종)로 평가하게 된다. 이 검사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등 7개 하위척도와 내재화문제, 외현화 문제의 2개 요인점수와 총 문제행동척도 등 10개의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를 제공하고 있다(김은설 외, 2012: 20). 구체적으로 문제행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 공격행동, 수면문제 및 기타문제로 구성되어 있다(이정립 외, 2015: 138).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 분석한 아동의 문제행동 총점 평균은 19.79점 정도였는데, 참고로 임상/준임상 판단 기준점은 총점 44점이고 내재화와 외현화는 각 15점에 해당한다(이정립 외, 2015: 138). 아동의 문제행동은 하위영역 및 총점 수준에서 모두 왜도와 첨도가 4이하로 나타나 정규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et al, 1995).

〈표 4〉 부모 유형화에 따른 특성 분석을 위한 변수② : 아동의 문제행동

구분	변수 설명		M (SD)	Min-Max
아동 문제 행동	내재화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요인의 합산 점수	6.65 (5.96)	0-37
	외현화	주의집중, 공격행동, 수면문제 및 기타문제 요인의 합산 점수	5.63 (5.22)	0-30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영역의 총 합산 점수	19.79 (15.34)	0-95

3. 분석 방법

먼저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인지 통제적인지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의 제안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별개의 분석대상으로 하여 각각 유형화해 왔기 때문에, 부모를 동시에 고려한 유형화를 위해서는 비계층적 군집화(nonhierarchical clustering)인 *K-means* 방식을 활용하여 탐색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연구에서는 군집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늘려가면서 군집별 사례 수의 분포를 확인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해석 가능성 등을 폭 넓게 고려하여 최종 군집 수를 결정하였다. 이 때, 양육태도를 표준 Z점수(평균 0, 표준편차 1)로 변환시킨 후 분석하여 변수들 간 유사성 거리를 측정하는 데 동등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이해되는 특성보다는, 군집 내에서 매우 높거나 낮은 수준을 보이는 특성에 주목하여 군집 명칭을 설정함으로써 군집의 특성을 차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이나와 손원숙(2012)의 제안을 적극 활용하였다. 즉, 평균 0을 기준으로 $\pm 0.75SD$ 까지는 높거나 낮은 수준, 그 밖의 범위는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해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군집 명칭을 부여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형을 확인한 후에는, 이러한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 때 관심 변수의 속성을 고려하여, 가정 배경 및 양육관련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χ^2 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 MANOVA)을 실시하였다.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간 상관인 0.720($p < 0.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F검증을 반복 실시함에 따른 1종 오류를 줄이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효과 크기(η^2) 및 사후 검증(*Scheffé*) 결과 또한 함께 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한 부모 유형화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4가지 양육태도를 동시에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5>, [그림 1]과 같다. 분석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탐색되었는데, 전체 1,099명 중에서 군집1에는 350명(31.8%), 군집2에는 239명(21.7%), 군집3에는 258명(23.5%), 군집4에는 252명(22.9%)이 각각 포함되어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군집1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와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아버지가 자녀를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태도를 매우 강하게 견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부모 모두 자녀에게 어느 정도는 애정을 주면서 같이 놀아주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등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고 규칙 준수 등을 강조하는 역할을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집1은 ‘엄격한 아버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2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어느 정도는 자녀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매우 소극적이고 자녀를 통제하는 의지 수준도 보통에 불과한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양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는 매우 낮은 집단으로 볼 수 있어,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군집3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적인 측면과 통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매우 낮은 태도를 보이는 집단에 해당된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 어린 관심이나 친밀감을 보이거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태도에 있어 모두 매우 소극적인 집단으로 나타나, 군집3은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4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에게 애정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를 매우 강하게 형성하고 있으며, 반면 아버지가 자녀 행동을 통제하려는 태도 역시 매우 낮은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부모 모두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자녀와 함께 규칙을 만들어가며 소통하는 것을 즐기고, 반대로 부모의 말에 일방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거나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는 태도는 매우 낮다는 점에서 군집4는 ‘소통하는 부모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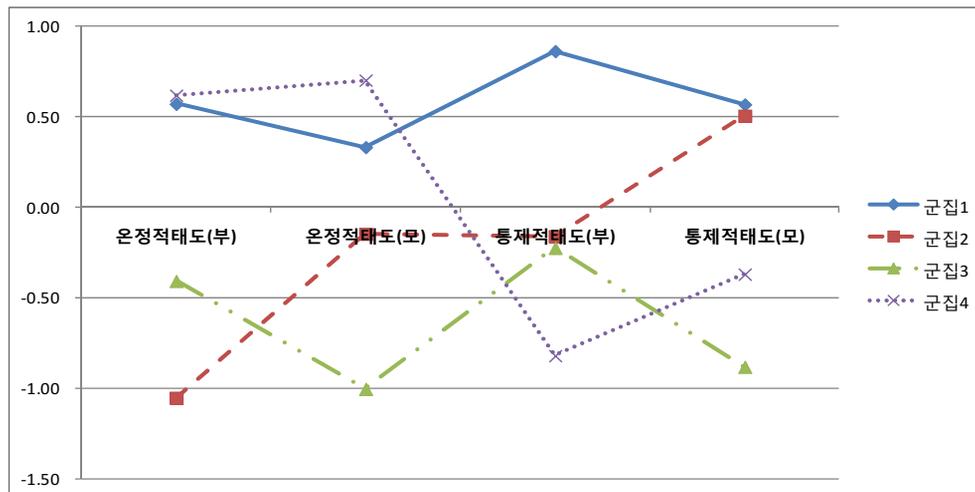
참고로 4가지 부모 유형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형에 따른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구체적으로 부모 모두 온정적 태도에 있어서는 ‘소통하는 부모 집단’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엄격한 아버지 집단’이 높았다. 또한 통제적 태도는 부모 모두 ‘엄격한 아버지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의 양육 태도를 고려한 유형화 결과

구분		군집1 (엄격한 아버지 집단)	군집2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	군집3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	군집4 (소통하는 부모 집단)	F검증 (Scheffé)
온정적 태도	부	0.57 (높음)	-1.05 (매우 낮음)	-0.41 (다소 낮음)	0.62 (높음)	233.606*** (4>1>3>2)
	모	0.33 (다소 높음)	-0.15 (평균 수준)	-1.00 (매우 낮음)	0.70 (높음)	327.232*** (4>1>2>3)
통제적 태도	부	0.86 (매우 높음)	-0.16 (평균 수준)	-0.22 (평균 수준)	-0.82 (매우 낮음)	252.874*** (1>2>3>4)
	모	0.57 (높음)	0.51 (높음)	-0.88 (매우 낮음)	-0.37 (다소 낮음)	217.255*** (1>2>4>3)
사례 수		350 (31.8%)	239 (21.7%)	258 (23.5%)	252 (22.9%)	

주1) 최종군집의 표준화된 Z점수(M=0, SD=±1)를 제시함.

*** $p < .001$



주: 군집1: 엄격한 아버지 집단, 군집2: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 군집3: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 군집4: 소통하는 부모 집단

[그림 1] 부모의 양육 태도를 고려한 유형화 결과

이와 같은 4가지 유형별 부모의 최종학력 및 취업상태를 분석한 결과, 부모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표 6> 참조). 특히, ‘엄격한 아버지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어머니의 학력보다 높은 가정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

해 다소 높았고,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은 오히려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아버지보다 높은 가정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다. 반면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이나 ‘소통하는 부모 집단’의 경우에는 부모의 최종학력이 동일한 가정의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데 주목할 수 있다. 또한,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가 모두 취업 상태인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아버지만 취업 중인 가정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참고로 통계청의 「2014년도 생활시간 보고」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하루 평균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시간은 남편은 13분, 아내는 35분이었고, 외벌이(남편) 가정의 경우에는 남편은 19분이었지만 아내는 1시간 47분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다시 말해서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남편이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시간 자체는 큰 변화가 없고, 아내의 양육 부담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별 부모의 학력 및 취업상태 분석 결과

구분		군집 n (%)				전체	χ ²
		군집1 (엄격한 아버지집단)	군집2 (소극적인 아버지집단)	군집3 (무관심한 어머니집단)	군집4 (소통하는 부모집단)		
부모 최종 학력	부=모	192 54.9%	131 54.8%	158 61.2%	151 59.9%	632 57.5%	17.941** (df=6, p=0.006)
	부>모	116 33.1%	57 23.8%	66 25.6%	59 23.4%	298 27.1%	
	부<모	42 12.0%	51 21.3%	34 13.2%	42 16.7%	169 15.4%	
부모 취업 상태	부모취업	151 43.1%	89 37.2%	119 46.1%	113 44.8%	472 42.9%	19.470* (df=9, p=0.021)
	부취업	188 53.7%	137 57.3%	117 45.3%	126 50.0%	568 51.7%	
	모취업	9 2.6%	4 1.7%	12 4.7%	7 2.8%	32 2.9%	
	부모 미취업	2 0.6%	9 3.8%	10 3.9%	6 2.4%	27 2.5%	
전체		350 100.0%	239 100.0%	258 100.0%	252 100.0%	1,099 100.0%	

* p < .05, ** p < .01

월평균 가구소득 및 양육 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부모 유형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표 7> 참조). 먼저,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있어서는 ‘소통하는 부모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부모 모두 ‘소극적인 아버지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소통하는 부모 집단’에서 부부 간 양육분담이 가장 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한편,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아버지집단’에서, 어머니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아버지집단’과 ‘무관심한 어머니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모두 ‘소통하는 부모집단’에서 가장 적은 양육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표 7>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별 가구소득 및 양육 관련 특성 분석 결과
단위: 만원, 점

구분	군집1 (엄격한 아버지집단)		군집2 (소극적인 아버지집단)		군집3 (무관심한 어머니집단)		군집4 (소통하는 부모집단)		F검증 (Scheffé)	η^2		
	M	SD	M	SD	M	SD	M	SD				
월평균 가구소득	442.60	171.17	424.35	176.55	423.72	165.61	491.43	241.95	7.078*** (4>1,2,3)	0.02		
양 육 관 련 특 성	양육 분담	부	4.41	3.41	2.76	2.94	3.68	3.09	4.86	3.14	27.176*** (4>1,3>2)	0.06
		모	3.51	3.08	2.40	2.46	3.18	3.06	3.91	3.20	11.522*** (1,3,4>2)	0.03
	양육 스트 레스	부	2.26	0.58	2.72	0.51	2.53	0.57	2.02	0.49	79.309*** (2>3>1>4)	0.18
		모	2.48	0.59	2.71	0.63	2.85	0.52	2.22	0.55	59.977*** (3,2>1>4)	0.14

***p < .001

2. 부모 유형에 따른 아동 문제행동의 차이 분석

더 나아가, 4가지 부모 유형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Pillai의 criterion 값이 6.909(p<0.001) 그리고 Wilks의 λ 값이 7.014(p<0.001)로 나타나 부모 유형별로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문제행동의 총점을 기준으로 할 때 ‘무관심한 어머니집단’과 ‘소극적인 아버지 집단’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엄격한 아버지 집단’과 ‘소통하는 부모 집단’

에서 양육되는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문제행동의 발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엄격하게 대하여 통제하려는 태도를 지닐 때보다 오히려 자녀의 행동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의 문제 행동 발현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주의집중, 공격행동, 수면 및 기타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제 행동에 있어서도 어머니가 무관심하거나 아버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집단에서 나머지 두 집단보다 더 유의하게 높았다.

〈표 8〉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아동 문제행동의 차이 분석 결과

단위: 점

	부모 유형				df	SS	MS	F검증 (Scheffé)	η^2
	군집1 (엄격한 아버지집단)	군집2 (소극적인 아버지집단)	군집3 (무관심한 어머니집단)	군집4 (소통하는 부모집단)					
내재화 문제	6.12 (5.58)	7.18 (6.04)	8.14 (6.45)	5.36 (5.52)	3	1159. 07	386. 36	11.164*** (3,2>1,4)	0.03
외현화 문제	4.84 (4.71)	6.11 (5.20)	7.45 (5.93)	4.40 (4.55)	3	1505. 15	501. 72	19.317*** (3,2>1,4)	0.05
총점	17.93 (14.35)	21.53 (14.75)	24.52 (17.12)	15.89 (13.79)	3	11556 .45	3852. 15	17.092*** (3,2>1,4)	0.45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4년에 수집된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취학 전 6세 아동)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함께 고려한 유형 분류를 실시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각 유형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요한 결과를 요약 및 논의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부모를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통제하는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맡고 있는 집단(엄격한 아버지 집단, 31.8%), 어머니가 어느 정도 자녀를 통제하고 관리하지만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매우 소극적인 집단(소극적 아버지 집단, 21.7%),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적인 측면과 통제적 측면에서 모두 매우 낮은 태도를 보이는 집단(무관심 어머니 집단, 23.5%),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애정을 보이면서도 통제 수준은 비교적 낮은 집단(소통하는 부모집단, 22.9%)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태도에 있어 애정과 통제의 두 축을 기준으로 부모 유형을 분류한 Baumrind(1967)와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엄격한 아버지 집단은 부모가 어느 정도는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되 아버지의 통제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Baumrind(1967)의 권위 있는 부모와 비교 가능하며,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은 방임형 또는 무관심 집단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부모를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Baumrind(1967)연구를 포함한 기존 연구들(김미진, 2016; 박혜원, 2003)과 차별성을 지닌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별개로 접근하여 아버지의 유형화와 어머니의 유형화에 독립적으로 활용한 선행연구를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어머니와 동등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 특징을 부모 학력이나 경제적 소득과 같은 배경 뿐 아니라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양육특성 측면에서도 비교하였다. 특히, 양육특성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 간 양육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도 소통하는 부모 집단에서 가장 높은 반면,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는 소극적 아버지 집단에서, 어머니는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소극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집단에서 오히려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결과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 아빠들에게 영유아 자녀들과 함께 놀고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아이조아 아빠교실’을 19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 것(이테일리, 2017년 3월 27일자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어떠한 역할을 갖추어야 하는 지를 교육받음으로써 소극적인 양육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개선하

고 가정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반응성, 불안 및 우울, 신체증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주의집중, 공격행동, 수면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모두 무관심한 어머니 집단, 소극적 아버지 집단, 엄격한 아버지 집단, 소통하는 부모 집단에서 양육된 자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제행동 전체 총점으로 보았을 때에도 동일한 순서로 문제 행동 발현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자녀의 문제행동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무관심한 방임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송진숙(2003)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형이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예측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취학 전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지영과 김미애(2010)의 연구에서 부모의 거부양육이 취학 전 아동의 공격성(언어공격, 공격성, 대물공격)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다는 분석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반면, 부모 모두 애정을 가지고 적당한 수준의 통제성을 발휘하면서 훈육하는 경우는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Baumrind(1967)의 권위 있는 부모가 자녀의 긍정적 행동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박재우(2015)의 연구에서 부모가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베타맘의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 자존감을 매개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와도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발현수준을 탐색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취학 전 아동이 또래 간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내면적 또는 외현적 문제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모는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되, 무조건적인 애정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엄격하게 훈육하는 것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취학 전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부모가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양육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로 한 것(관계부처 합동 2016.3.29일자 보도자료)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단년도 자료만을 활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통해 부모 유형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즉, 본 연구에서 취학 전 아동 자료를 통

해 구분한 4가지 부모 양육태도 유형에도 함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자녀의 문제행동 발현수준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진·이예진·이정림(2015).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문화인프라 이용 빈도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패널 2008-2014 자료 심층분석 연구, 연구보고 2015-34, 육아정책연구소.
- 강은주·김영주(2006).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차이,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0(4), 113-133.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진(2016).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의 유형 차이 분석: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2), 239-262.
- 김영미·송하나(2015). 영아기 자러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19(2), 71-88.
-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연구보고 2012-33.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주(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육아지원연구, 11(1), 5-28.
- 김인경(2017). 유아 발달을 위한 부모역할과 부모교육 개선방안. KDI FOCUS 제 79호. 한국개발원.
- 김정·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 김정결·강영식(2015).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행동 관련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 연구 추이 및 유형에 대한 종단적 탐색 연구: 1970-2015년까지의 연대별 문제행동 범주와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0), 6722-6742.
- 김혜금·조혜영(2015).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자아 인식 및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6), 1-14.
- 곽소현·김순옥(2007).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 모형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 관계부처 합동(2016).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16.3.29.일자.

- 노지형·송현주(2012).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가 아동의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1), 1-15.
- 류관열(2014).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3(3), 289-298.
- 박재우(2015). 알파맘-베타맘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녀 자존감의 매개 효과 분석. 교육치료연구, 3, 431-445.
- 박혜원(2003). 유아기 부모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생활과학논문집, 4(2), 85-95, 울산대학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통계로 본 사회보장 2016.
- 송진숙(2003).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 사회적 능력, 정서지능 및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영유아보육학, 35, 143-161.
- 송진숙·권희경(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07-225.
- 신나리·안재진·이정립·송신영·김영원. 한국아동패널 2008. 연구보고 2008-08.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신이나·손원숙(2012). 영재와 일반 중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 분석: 개인-중심적 접근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1), 65-83.
- 안숙희(2010). 유아의 기질,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연은모·윤해옥·최효식(2016). 부모의 우울, 지각된 가족기능,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2), 243-269.
- 이기숙·김순환·김민정(2010). 유아의 성, 연령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머니 양육유형과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0(4), 187-212.
- 이순자·유수옥(2012).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유아 문제행동관련 변인 분석: 국내학회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총론, 16(6), 127-156.
- 이정립·김길숙·송신영·이예진·김진미·김소아·김신경(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연구보고 2015-3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숙·두정일(2008). 유아의 적응적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3(2), 1-17.
- 임호찬(2008). 유아의 사고능력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 영재교육연구, 18(3), 613-634.

- 장진영·김진희·김영희(2011). 아버지의 우울과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2(2), 79-107.
- 정금자·박미란(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도덕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0, 43-64
- 조부월(2009).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일치유형 및 일치여부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비교,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4), 93-119.
- 최정혜(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9(5), 55-71.
- 최지영·김미애(2010). 유아기질과 부모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19-137.
- 최효식·연은모(2014).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6), 5-30.
- 최효식·윤해옥·연은모(2016).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자기-상대방 상호회존모형(APIM)의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20(20), 495-517.
- Akhter, N., Hanif, R., Tariq, N. & Atta, M. (2011). Parenting styles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mong children. *Pakistan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26(1), 18-35.
- Antolin, L., Oliva, A., & Arranz, E. B. (2009). Contexto familiar y conducta antisocial infantil. *Anuario de Psicología*, 40(3). 313-327.
- Anthony, L.G., Anthony, B.J., Glanville, D.N., Naiman, D.Q., Waanders, C., & Shaffer, S.(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 pt2), 1-103.
- Baumrind, D. (1991).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J. Brooks-Gunn, R. Lerner, & A. C. Peterson(Eds), *The encyclopaedia of adolescence*(pp. 746-758), New York, NY: Garland.
- Braza, P., Carreras, R., Manual, J. M., Braza, F., Azurmendi, A., Pascal, E., Cardas,

- J., & Sanchez, J. R.,(2013). Negative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as Predictors of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Moderating Effects of the Child's Sex.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 847-856.
- Cornell, A. H., & Frick, P. J. (2007).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tyl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Parent-Reported Guilt and Empathy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3), 305-318.
- Cummings, E. M., Davies, P.T., & Campbell, S. (2000).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family processes. New York: Guilford Press.
-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 44-58.
- De la Torre, M. J., Garcia, M. C., & Casanova, P. F. (2013).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Aggressiveness in Adolescents. *Electronic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al Psychology*, 12(1), 147-170.
- Dwairy, M. (2008). Parental inconsistency versus parental authoritarianism: Association with symptoms of psychological disord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616-626, doi: 10.1007/s10964-007-9169-3.
- _____. (2010). Parental Inconsistency: A Third Cross-Cultural Research on Parent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9, 23-29.
- Feli, E. G., Serverson, H. H., & Walker, H. M. (1998). Screening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elay: The early screening project.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1(3), 252-256.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 Gray, M. R., & Steinberg, L. (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574-587.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m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rt, C. H., Newell, L. D., & Olsen, S. F. (2003). Parenting skills and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e in childhood. In J. O. Greene & B. R. Burleson(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skills*(pp.

753-797).

- Hurllock, E. B.(1987). *Transition in Family Relationships in Adolescent Development*. McGrawHill Kogakusha, Ltd.
- Kaufmann, D., Gesten, E., Santa Lucia, R.C., Salcedo, O., Rendina-Gobioff, G., and Gadd, R.(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adjustment: The parents' perspectiv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2), 231-245.
- Kritzas, N., & Grobler, A. A.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resilienc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7(1), 1-12.
- Lamborn, S.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561-592.
- Otto, Y., Kolmorgen, K., Sierau, S., Weis, S., Klitzing, K., & Klein, A. M. (2016).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and Fathers of Preschool Age Children with Internalizing Disorders. *Child and Family Studies*, 25, 381-395, DOI 10.1007/s10826-015-0242-3
- Pettit, G. S., & Laird, R. D. (2002).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in early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al involvement and earlier child adjustment.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s' and adolescents*(pp. 97-12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reira, A. I., Canavarro, C., Cardoso, M. F., & Mendonca, D. (2009). Patterns of parental rearing styles and child behaviour problems among Portuguese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4), 454-464.
- Ponnet, K., Mortelmans, D., Wouters, E., van Leeuwen, K., Bastaits, K., & Pasteels, I.(2013).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276.
- Rinaldi, C. M., & Howe, N.(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66-273.

- Rohner, R. P.(1991).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NY: Sage Publications.
- Rohner, R. P. & Veneziano, R. A.(2001). The importance of Father Love: History and Contemporary Evidenc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82-405.
- Rutter, M.(1990). Commentary: Some focus and process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effects of parental depression o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0-67.
- Weiss, L. H., & Schwarz, J. C.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types and older adolescents' personality, academic achievement, adjustment, and substance use. *Child Development*, 67, 2101-2114.
- Williams, K. L., & Wahler, R. G.(2010). Are Mindful Parents More Authoritative and Less Authoritarian? An Analysis of Clinic-Referred Mothers.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9, 230-23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이데일리(2017.3.27.일자 기사). 서울시, 아빠교실 올해 19개 자치구로 확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384166615867584&DCD=A00703&OutLnkChk=Y> 에서 2017년 3월 28일자 검색.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황정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이메일 jwh@kcue.or.kr

Abstract

Analysis on the Preschool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according to the Types of Parenting Attitude of Their Parents

Hyeji Kil and Jeongwon Hwang

Since the need for the gender equality grows as the number of women who work increases, this study conducted group classification that considers the parenting attitude of both father and mother using data of 1,099 six-year-old preschool children in the 7th year Panel Study on Korea Children(PSKC).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and investigated the difference of the levels of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ir parents' attitude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of cluster analysis that explored the types of parenting attitudes indicated the following four main categories: strict father group (31.8%), neglecting mother group (23.5%), communicating parents group (22.9%), and passive father group (21.7%). The father and mother in Group 1 (strict father group) both formed a close relationship with children while father played the role to discipline the children. In Group 2 (passive father group), father took a very passive stance in form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children while mother controlled and managed children to a certain level. In Group 3 (neglecting mother group), mother showed a very low attitude toward children both in terms of compassion and controlling. Group 4 (communicating parents group) showed relatively low level of controlling while both mother and father showed affection toward children.

Second, parenting attitude types demonstr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not only in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such as parents' education level, working status, and income level, but also in parenting related characteristics such as sharing child care and parenting stress.

Finally, childrens' manifestation of problematic differed with the types of parenting attitudes: level of problematic behavior was higher among the children raised in the neglecting mother group and passive father group, compared to other two groups. These results imply that parents should rear their children with affection, and discipline them when necessary, rather than neglecting their problems during their preschool years in order for the children to adapt well in later school life. Based on these results, education programs for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for both father and mother with pre-school children are expected to help the parents pay more attention to their children and guide their children in desirable directions.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characteristics,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cluster analysis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 및 요구*

임효미¹⁾ 이승연²⁾

요약

본 연구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 원장 152명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30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과반에 가까운 수가 인정하고 있었으나, 대다수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장들은 맞춤형 운영시간과 보육료가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맞춤형 보육의 시행으로 인해 원장 및 교사의 근무여건과 보육료 수입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으며, 이는 재정적 부담과 행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둘째, 맞춤형 보육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에서는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향후 보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점으로는 국가,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책임지는 보육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새로운 보육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와 조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상의 결과들은 향후 맞춤형 보육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맞춤형 보육, 맞춤형, 종일반, 어린이집, 원장

I. 서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핵가족이 보편화 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며,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 방법에도 변화가 초래되어왔다. 즉, 자녀의 양육

* 본 논문은 201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엔씨소프트어린이집 원장

2)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모습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기관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일제로 운영되는 기관의 수요가 늘어 유치원 종일반과 어린이집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어린이집의 수는 1995년 9,085개소였던 것이 2016년에는 41,084개소로 20년만에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수도 2001년 734,192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451,215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그 중 영아의 수는 2001년 168,575명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던 것이 2016년에는 845,984명(만0세 141,013명, 만1세 318,245명, 만2세 386,726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3세 이하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이 출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OECD의 보고(Castles, 2003; Sleebos, 2003)를 감안하면, 영아의 어린이집 보육은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보육정책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 전환 요구로 이어지면서 각종 재정 지원 정책에 반영되었다.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은 1999년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2008년 차상위계층, 2009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201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었고, 2012년에는 전 계층 만 5세(누리과정)와 0-2세 영아로, 2013년부터는 모든 0-5세(보육료, 누리과정 지원)로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도입된 양육수당은 2009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하 저소득층 영아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지원연령을 차상위계층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여 연령에 따라 월 10-2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취약전 영유아 전 계층으로 그 지원이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3a).

그러나 김현숙·이수진(2012)의 문제 제기와 강경미·이승연(2016)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보육료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지원 금액이 적은 양육수당으로 인해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영아에게 12시간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기본으로 함으로써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중요한 영아의 가정양육 약화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한영규, 2016).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에게는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고,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 정책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3b)을 통해 그간의 보육정책 진단 및 한계 분석 결과, 실수요층에 대한 맞춤형 설계와 제도 기반이 부족했다고 평가되어 다양한 양육 여건,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2014년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12월 국회에서 2016년 예산을 확정하였고,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란,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 영아(0-2세)와 부모를 제외하고, 적정시간의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아와 부모에게 일일 6시간과 필요에 따라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이하 바우처)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보건복지부, 2016a). 이는 기존의 보육정책에서 부모의 취업요건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취업부모의 자녀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역차별의 사례가 발생(이미화·유해미·최효미·조아라, 2014)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도적으로 다양화(오후 2시 30분/7시 30분 귀가로 이원화+영아는 3시간 단시간형 보육 가능)해야 한다는 보육정책 개편방안(서문희·안재진·이세원·유희정, 2009)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맞춤형 보육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6d)에 의하면, 맞춤형 보육의 종류는 종일반, 맞춤반, 시간제 보육반, 시간연장형 보육으로 구분된다. 시간제 보육과 시간연장형 보육은 대상 및 시설에 있어서 일반적인 보육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 즉 종일반과 맞춤반에 대한 맞춤형 보육에 초점을 두고자 함을 밝힌다.

맞춤형 보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특성을 운영시간 및 반편성, 맞춤반 대상, 운영 방식, 맞춤반 보육료 및 바우처, 제도적 보완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보육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6d)에 따르면, 맞춤반 운영시간은 주중 6시간(기본 9:00-15:00)으로 하되, 지역별,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 하에 기본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조정이 가능하다. 반편성은 맞춤반 아동만으로 단일반 구성이 가능한 경우 종일 단독반과 맞춤 단독반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영 상황 및 이용아동 현황을 고려하여 합반 편성·운영도 가능하다.

둘째, 맞춤반의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로, 종일반 자격대상이 되지 않는 부모의 영아자녀이다. 종일반의 자격사유는 부모의 취업, 구직 및 취업준비, 돌봄 필요 가구(장애, 다자녀·육아부담, 임신 및 산후관리, 한부모·조손가구, 입원·간병, 학업, 장기부재),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인데, 이러한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맞춤반으로 확정된다(보건복지부, 2016a).

셋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종일반과 맞춤형의 프로그램 내용 및 질 등에 차이가 없도록 운영하며, 맞춤형은 급식 1회, 간식 2회(오전, 오후)를 제공하도록 한다. 맞춤형에는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맞춤형 보육 시행을 이유로 기존의 보육교사를 해고하거나 시간제로 전환하여서는 안 된다(보건복지부, 2016d).

넷째, 보육료 등의 측면에서는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보육료(부모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는 종일반 기준으로 2015년도 대비 6%가 인상되었으며, 맞춤형의 경우 보육료(부모 보육료)는 종일반 대비 80%, 기본보육료는 종일반과 동일하다. 맞춤형은 바우처가 지원되며, 그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60천원(15시간/월)으로, 긴급한 보육수요 발생 시 맞춤형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보건복지부, 2016a), 미사용분은 다음 해 2월까지 이월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6b). 이용방법은 영아와 부모가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이용가능하고, 이용시간 전 어린이집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며, 익월에 아이행복카드로 일괄 결제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바우처 사용내역과 사용사유를 보육통합시스템에 7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b).

다섯째, 제도적 보완의 측면에서 보면,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바우처를 12월이 아니라 학년말인 2월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 12월부터 바우처 사용내역 입력을 이용 후 3일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였으며(보건복지부, 2016b), 2017년 3월부터는 바우처 사용시간 입력 단위를 30분에서 1시간으로 변경(사회보장정보원, 2017. 2. 27.)하는 등의 후속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맞춤형 보육의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100일을 맞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보육의 현장 정착 상황’을 논의하였는데,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부모의 희망 이용시간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이 시행 이전보다 더욱 보장되고, 맞춤형 보육이 예상했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종일반 사유에 있어서는 맞벌이 가구가 45%정도이며, 맞벌이 외 다자녀, 임신, 산후관리 등이 32%로 홀벌이인 경우라도 돌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16c).

통계상으로 보아도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0-2세반 이용아 수는 7월 74.9만명에서 11월 83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종일반과 맞춤형 이용아의 비율은 약 77% 대 2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맞춤형 아동은 바우처 이용시간을 포함하여 8월 기준 일 평균 6시간 30분을 이용하였으며, 바우처는 맞춤형 아동 중 84.1%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영규, 2016). 바우처 이용 아동의 평균 이용시간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므로 이용가능시간 대비 평균이용시간의 비율은 9월 기준 60.1%로 시행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부모와 영아의 실제 이용에 큰 변화나 무리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그러나 현장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맞춤형 보육이 이루어져 문제점도 제기 되고 있다. 맞춤형과 종일반에 속한 영아들의 등·하원시간이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맞춤형 영아의 병원 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바우처 역시 어린이집 운영 편의에 따라 제멋대로 이용되는 등 도입 취지가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데일리, 2016. 10. 5.). 이원화된 보육시간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모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고하여 보육대상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김진석 외, 2016). 일각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지원금이 더 많은 종일반 대상자를 선호할 것이라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들은 편법 구직서류를 제출해 종일반을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었다(뉴스1, 2016. 7. 16.).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종일반과 맞춤형의 보육료의 차이(종일반의 80%)로 인해 맞춤형 보육은 그 초점이 보육이 아닌 보육료 지원에 맞춰져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부모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종일반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고(김진석 외, 2016),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문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고 영아가 전체 이용아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맞춤형 보육의 도입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뉴스1, 2016. 10. 9.).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종일반 보육료와 맞춤형 기본보육료 모두 인상되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가능하다는 평가도 내려진 바 있다(한영규, 2016).

이상에서 제시한 현황과 문제 제기를 고려하면,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 이후 보육 현장에서 과연 맞춤형 보육이 본연의 취지와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맞춤형 보육은 시행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아직 이루어진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현진·윤상용(2015)의 맞춤형 보육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가 있었으나, 이 연구는 24시간 보육에 대한 연구로 2016년 시행된 맞춤형,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보육과는 거리가 있다. 보육정책의 측면에서도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이보미, 2010; 주정옥, 2015) 및 부모의 인식(유영옥, 2008),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이금주, 2013), 보육정책 개편방향(서문희 외 2009; 이미화 외, 2014)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모두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의 상황이다.

보육정책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혼란을 겪으며, 부모와 아동에게 실제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들을 이끌고 지원하는 주체인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에 따른 실제 운영 현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요구를 알아본 연구는 임명수(2014), 박사빈(2016)의 연구 외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임명수(2014)의 연구는 0-2세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가정어린이집 원장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한 질적연구이므로 맞춤형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원장들의 인식 및 요구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박사빈(2016)은 경북지역의 민간어린이집 원장 11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 시행 직후인 2016년 8월에 현장에서 체감되는 만족여부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7문항)를 실시하여, 원장들이 보육형태, 시간, 바우처, 보육료 등에 있어서 불만족이 90%가 넘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자 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상이 경북지역 민간어린이집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과 어린이집 유형을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처음 1달간의 혼란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에 직면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많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안정된 이후에, 만족여부를 넘어 보다 다양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의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맞춤형 보육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보육에 대한 실제 활용도를 규명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화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아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보육에 대한 원장의 인식은 어떠한가?
2. 맞춤형 보육에 대한 원장의 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1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원장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원장의 일반적 배경

N=152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직위 형태	대표자 겸 원장	74(48.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6(23.7)
	임면 원장	75(49.3)		사회복지법인	1(0.7)
	무응답	3(2.0)		법인·단체 등	2(1.3)
원장 경력	10년 미만	98(64.5)		민간	36(23.7)
	10년 이상	46(30.3)		직장	41(27.0)
	무응답	8(5.3)		가정	36(23.7)
연령	30대 이하	35(23.0)		일반	92(60.5)
	40대	73(48.0)		영아전담	13(8.6)
	50대 이상	43(28.3)		장애아통합	2(1.3)
	무응답	1(0.7)		제공 서비스	시간연장형
교육 정도	대학교 졸업(4년제) 이하	60(39.5)	휴일보육	1(0.7)	
	대학원(석사) 졸업 이상	92(60.5)	24시간	2(1.3)	
최종 학교 전공	아동(복지)학, 보육학	28(18.4)	일시보육	1(0.7)	
	유아교육학	92(60.5)	무응답	2(1.3)	
	기타(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32(21.1)			

연구대상 어린이집의 전체 정원 및 현원, 영아반 정원 및 현원, 맞춤반 현원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약 3/4 정도의 어린이집은 전체 아동 80명 이하, 영아반 40명 이하, 맞춤반 5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었고, 정원과 현원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영아반 현원 중 맞춤반은 대략 10%, 종일반은 90%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2016c)에서 발표한 영아의 종일반 비율인 77%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상대적으로 종일반 영아의 비중이 높은 지역(서울, 경기)을 대상으로 하고, 종일반 영아의 비중이 높은 유형(국공립, 직장)을 절반 정도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연구대상 어린이집의 현황

단위: 명(%), N=152

인원구분	전체		영아반		인원구분	맞춤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 - 20명	37(24.3)	42(27.6)	62(40.8)	67(44.1)	1 - 5명	119(78.3)
21 - 40명	27(17.8)	31(20.4)	57(37.5)	47(30.9)	6 - 10명	7(4.6)
41 - 60명	31(20.4)	29(19.1)	11(7.2)	12(7.9)	11 - 15명	1(0.7)
61 - 80명	22(14.5)	19(12.5)	5(3.3)	5(3.3)	무응답	25(16.4)
81 - 100명	11(7.2)	12(7.9)	-	-		
101명 이상	22(14.5)	15(9.9)	-	-		
무응답	2(1.3)	4(2.6)	17(11.2)	21(13.8)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원장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맞춤형 보육 시행 전·후에 발행된 2016년 맞춤형 보육 안내(보건복지부, 2016a)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맞춤형 보육에 관련한 토론(김경수 외, 2016; 김진석 외, 2016), 신문기사(뉴시스, 2016. 10. 9.; 이데일리, 2016. 10. 5.) 등의 관련 문헌을 토대로 제작하였다.

〈표 3〉 설문지의 구성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식	·맞춤형 보육의 취지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이유) ·맞춤형 보육의 만족여부(이유) ·맞춤반 운영시간의 적절성(이유, 적절시간) ·맞춤반 보육료의 적절성(이유) ·맞춤형 보육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변화 여부, 변화된 정도, 바람직한 정도) ·맞춤형 보육에 유익한 대상과 불리한 대상 ·맞춤형 보육으로 인한 어려움	8(하위 12)
맞춤형 보육에 대한 요구	·맞춤형 보육의 개선점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맞춤반, 종일반) ·향후 보육정책의 지향점 ·새로운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	4(하위 2)
	계	12(하위 14)

설문지 제작 전에 국공립, 민간, 직장 어린이집 원장 3인에게 자문을 받았으며, 제작 후에는 원장 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응답하기 용이하도록 수정하였다. 이후 유아교육전문가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크게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로 구분되며, 12문항(하위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내용 및 문항구성은 <표 3>과 같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2016년 7월 1일부터)된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이며, 표집방법으로는 어린이집 유형 중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이 유사한 비중(약 25%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비율 층화표집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연합회와 원장모임 등에 연구 협조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가 회수되는 대로 유형을 파악하여 부족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추가 배부하였다. 총 230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152부가 회수되어 66%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에는 불성실한 응답이 없어 152부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자의 배경,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별로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중복응답 문항은 케이스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순위 응답 문항은 순위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고,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설문지는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이므로 무응답이 있을 수 있고,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각 문항별 응답자 수를 100%의 비율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을 밝힌다.

Ⅲ. 연구결과

1. 맞춤형 보육에 대한 원장의 인식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에서는 맞춤형 보육의 취지,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 맞춤형 보육의 만족여부, 맞춤형 운영시간의 적절성, 맞춤형 보육료의 적절성, 맞춤형 보육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 맞춤형 보육에 유익한 대상과 불리한 대상, 맞춤형 보육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맞춤형 보육의 취지

맞춤형 보육의 취지에 대한 원장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맞춤형 보육의 취지에 대해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아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오랜 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이 15.1%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대부분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를 각 가정의 상황에 따른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 맞춤형 보육의 취지에 대한 인식

		N=152
구분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아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 유도 • 맞벌이, 학업 등으로 오랜 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 전년 대비 맞춤형 기본보육료 인상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증가로 운영 안정화 •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간 증가 • 기타(정부의 보육예산 절감, 취지를 모르겠음 등) 	109(71.7)	
	23(15.1)	
	7(4.6)	
	1(0.7)	
	12(7.9)	

나.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2%,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1.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5>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 및 이유

		N=141	
구분	빈도(%)	이유 빈도(케이스%)	
필요하다	68(48.2)	• 가정 양육 가능 영아의 가정 양육 강화를 위해	59(86.8)
		• 종일반 영아의 충분한 보육서비스 보장을 위해	20(29.4)
		•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16(23.5)
		•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2(17.6)
		• 기타	2(2.9)
		계	109(160.2)
필요하지 않다	73(51.8)	•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변화가 없으므로	59(80.8)
		• 보육료 수입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33(45.2)
		• 원장의 업무 과중으로 충분한 역할 수행이 불가하므로	29(39.7)
		•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보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26(35.6)
		• 기타(케이스별 반영의 어려움, 취지에 위배 등)	6(8.2)
		계	153(209.5)

주: 이유는 중복응답 문항임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원장 6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묻은 결과, 전체의 86.8%가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의 가정 양육 강화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체의 29.4%가 종일반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73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묻은 결과, 전체의 80.8%가 맞춤형 보육 이전과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45.2%가 보육료 수입이 감소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원장의 업무 과중(39.7%)과 교사의 업무 과중(35.6%)도 1/3 이상의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

다. 맞춤형 보육의 만족여부

맞춤형 보육의 만족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맞춤형 보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15.2%인데 반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4.8%로 5배 이상 높았다.

<표 6> 맞춤형 보육의 만족여부 및 이유

구분	빈도(%)	이유	빈도(케이스%)
만족한다	22(15.2)	•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의 가정 양육 강화	22(100.0)
		• 바우처로 맞춤반 부모 편의성 증대	9(40.9)
		• 맞춤반 하원 후 교사의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시간 증가	9(40.9)
		• 맞춤반, 종일반의 보육료 차이	5(22.7)
		• 운영시간의 감소	3(13.6)
		계	48(218.2)
불만족한다	123(84.8)	•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획일성	89(72.4)
		•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입력으로 인한 원장 업무 과중	71(57.7)
		• 영아마다 다른 바우처 사용일로 인한 교사 업무 과중	68(55.3)
		• 맞춤반, 종일반으로 이원화된 영아 관리	58(47.2)
		• 각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획일성	47(38.2)
		• 자격 획득을 위한 실제와 다른 서류 제출	44(35.8)
		• 맞춤반 영아 비율이 많아 보육료 수입 감소	41(33.3)
		• 기타(맞춤반 하원 후 종일반 영아의 정서적 불안감 발생 등)	5(4.1)
계	423(343.9)		

주: 이유는 중복응답 문항임

맞춤형 보육에 만족한다고 선택한 22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묻은 결과, 모두(100%)가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의 가정 양육 강화 때문이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전체의 40.9%가 필요 시 바우처 사용으로 맞춤형 부모 편의성 증대, 맞춤형 영아들의 하원 후 교사의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간 증가 때문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맞춤형 보육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선택한 123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묻은 결과, 전체의 72.4%가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획일성 때문이라고 하였고,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입력으로 인한 원장의 업무 과중(57.7%), 교사의 업무 과중(55.3%)이 뒤를 이었다.

라. 맞춤형 운영시간의 적절성

맞춤반 운영시간(6시간/일+바우처 15시간/월)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맞춤형 운영시간의 적절성 및 이유

N=143

구분	빈도(%)	이유	빈도(%)
적절하다	31(21.7)	• 영아의 발달에 적절함	13(41.9)
		• 하루 일과 운영에 적절함	12(38.7)
		• 바우처 사용기준이 적절함	3(9.7)
		• 바우처 사용시간이 적절함	3(9.7)
		계	31(100.0)
적절하지 않다	112(78.3)	• 낮잠, 간식 시간 등 일과와 겹침	46(47.4)
		• 바우처 사용기준이 모호함	27(27.8)
		• 바우처 사용시간이 부적절함	15(15.5)
		• 특별활동 시간과 겹침	3(3.1)
		• 기타(의미가 없음 등)	6(6.2)
계	112(100.0)		

원장들의 21.7%가 맞춤형 운영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78.3%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맞춤형 운영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영아의 발달에 적절하기 때문(41.9%)과 하루 일과 운영에 적절하기 때문(38.7%)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낮잠시간 및 간식시간 등 일과와 겹치기 때문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맞춤반 운영시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원장들을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맞춤형 운영시간을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원장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맞춤반 운영시간은 평균 하루에 5.81($SD=2.09$)시간이었으며, 바우처 시간은 한 달에 16.76($SD=7.43$)시간으로 나타났다. 즉, 맞춤반 운영시간은 현재보다 약간 적게, 바우처 시간은 현재보다 약간 많이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응답의 편차가 커서 평균적으로는 현재 규정된 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 8〉 맞춤반 운영으로 적절한 시간

구분	평균(표준편차)	응답자수
맞춤반 운영시간(일)	5.81(2.09)	54
바우처 시간(월)	16.76(7.43)	42

마. 맞춤반 보육료의 적절성

맞춤반 보육료(종일반의 80%+바우처 최대 6만원/월)의 적절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맞춤반 보육료의 적절성

구분	빈도(%)	이유	빈도(%)
적절하다	21(14.4)	• 종일반과 맞춤반 운영비 차이에 비례함	12(57.1)
		• 종일반 영아가 많아 보육료 수입이 높아짐	6(28.6)
		• 바우처 금액이 적절함	3(14.3)
		계	21(100.0)
적절하지 않다	125(85.6)	• 종일반과 맞춤반 운영비 지출에 차이가 없음	38(32.8)
		• 맞춤반 영아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을 고려하지 않음	27(23.3)
		• 종일반 보육료 자체가 적절하지 않음	25(21.6)
		• 바우처 사용 후 추가 보육 시 부모 부담이 발생함	21(18.1)
		• 기타(어린이집 업무과중, 부모 부담 증가 등)	5(4.3)
		계	125(100.0)

N=146

원장들의 14.4%가 맞춤반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85.6%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맞춤반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2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종일반과 맞춤반의 운영비 차이에 비례하기 때문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12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종일반과 맞춤반의 운영비 지출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바. 맞춤형 보육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에서 변화된 점을 묻고, 변화된 정도와 바람직한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어린이집 운영상 변화 여부와 변화 및 바람직한 정도

N=152

내용	변화 여부 빈도(케이스%)	변화된 정도 평균(표준편차)	바람직한 정도 평균(표준편차)
• 보육료 수입	141(92.8)	2.99(1.23)	2.11(1.06)
• 원장의 근무여건	138(90.8)	3.32(1.27)	2.00(1.03)
•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130(85.5)	3.00(1.31)	2.02(1.01)
• 가정 양육이 가능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133(87.5)	2.45(1.21)	2.37(1.16)
•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126(82.9)	2.20(1.20)	2.21(1.08)
• 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126(82.9)	2.47(1.28)	2.19(1.04)
• 어린이집 전체 운영시간	122(80.3)	1.93(1.10)	2.07(0.99)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 여부에 대해 중복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92.8%가 보육료 수입에서 변화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변화를 느꼈다고 응답하여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변화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에서 변화된 점에 대해 그 변화 정도를 5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에서는 원장의 근무여건이 3.32($SD=1.27$),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3.00($SD=1.31$), 보육료 수입이 2.99($SD=1.2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93($SD=1.10$)로 가장 낮았다. 즉,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원장의 근무여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보육료 수입은 변화 정도가 보통 혹은 보통 이상이라고 느끼는 반면, 어린이집 전체 운영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그러한 변화가 바람직한지를 5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에서는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맞춤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M=2.37$, $SD=1.16$), 오랜 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아(종일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M=2.21$, $SD=1.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2.00-2.37의 분포를 보여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 맞춤형 보육에 유익한 대상과 불리한 대상

맞춤형 보육에 가장 유익한 대상과 가장 불리한 대상을 알아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맞춤형 보육에 유익한 대상과 불리한 대상

단위: 빈도(%)

구분	유익한 대상(N=142)	불리한 대상(N=152)
• 맞춤형 영아	49(32.2)	10(6.6)
• 종일반 영아	7(4.6)	8(5.3)
• 교사	7(4.6)	11(7.2)
• 원장	0(0.0)	59(38.3)
• 부모	8(5.3)	13(8.6)
• 모두	1(0.7)	24(15.8)
• 없음	63(41.4)	8(5.3)
• 기타(정부 등)	7(4.6)	2(1.3)

원장들이 인식한 맞춤형 보육에 유익한 대상은 없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맞춤형 영아가 32.2%로 뒤를 이었다. 그 이유를 자유기술한 내용을 보면, 없음을 선택한 경우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특별한 이익이 없기 때문, 맞춤형 영아를 선택한 경우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 애착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유익한 대상이 정부라는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보육 예산의 절감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

맞춤형 보육에 유익한 대상에 대해 원장을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것과 달리, 불리한 대상은 원장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모두라는 응답이 15.8%로 뒤를 이었다. 불리한 대상이 원장인 이유를 자유기술한 내용을 보면, 종일반과 맞춤형으로 분리된 영아 관리의 어려움, 보육통합시스템에 바우처 사용시간 입력 등의 업무 증가, 보육료 수입 감소 등이 있었다.

아. 맞춤형 보육으로 인한 어려움

원장으로서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1,2,3 순위로 알아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원장으로서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1순위로는 재정적 부담(보육료 수입 감소)이 26.3%로 가장 높았고, 매 월 변동되는 맞춤형, 종일반 자격 영아 확인(16.4%), 각 영아의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용사유 입력(15.1%) 순이었다. 2순위로는 각 영아의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용사유 입력이 25.0%로 가장 높았고, 학기 중 변경된 정책으로 인한 업무 혼동과 어려움 없음이 각기 15.1%로 동일하게 뒤를 이었다. 3순위로는 관계서류 준비가 13.2%로 가장 높았고, 각 영아의 바우처 사용시간 확인, 사용시간 및 사용사유 입력이 각기 12.5%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부모의 이해 부족과 교사의 이해 부족은 모든 순위에서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표 12〉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

단위: 빈도(%)

구분	1순위 (N=152)	2순위 (N=149)	3순위 (N=149)
• 매 월 변동되는 맞춤형, 종일반 자격 영아 확인	25(16.4)	13(8.6)	18(11.8)
• 부모의 이해 부족	1(0.7)	9(5.9)	9(5.9)
• 교사의 이해 부족	2(1.3)	1(0.7)	1(0.7)
• 맞춤형 보육 실행 초기 매뉴얼 미비	16(10.5)	7(4.6)	11(7.2)
• 각 영아의 바우처 사용시간 확인	11(7.2)	10(6.6)	19(12.5)
• 각 영아의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입력	23(15.1)	38(25.0)	19(12.5)
• 부모에게 바우처 사용 시 사유 받는 것	6(3.9)	14(9.2)	10(6.6)
• 맞춤형 보육 운영시간 계획	2(1.3)	10(6.6)	4(2.6)
• 맞춤형 보육의 하원 지도	3(2.0)	7(4.6)	12(7.9)
• 관계 서류 준비	4(2.6)	8(5.3)	20(13.2)
• 재정적 부담(보육료 수입 감소)	40(26.3)	9(5.9)	8(5.3)
• 학기 중 변경된 정책으로 인한 업무 혼동	17(11.2)	23(15.1)	17(11.2)
• 어려움 없음	1(0.7)	23(15.1)	1(0.7)

2. 맞춤형 보육에 대한 원장의 요구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맞춤형 보육의 개선점,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맞춤반, 종일반)을 위한 방안, 향후 보육정책의 지향점, 새로운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맞춤형 보육의 개선점

맞춤형 보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맞춤형 보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

N=144

내용	빈도(%)
• 맞춤형 보육료	38(26.4)
• 종일반과 맞춤형의 자격인정 방법	29(20.1)
• 맞춤형 운영시간	27(18.8)
•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입력 방법	26(18.1)
• 바우처 사용방법	9(6.3)
• 바우처 사용 영아의 보육환경(인력 및 공간)	9(6.3)
• 기타(맞춤형 보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 바우처 사용시간 입력기한 확대 등)	6(4.2)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맞춤형 보육료(26.4%)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종일반과 맞춤반의 자격인정 방법(20.1%), 맞춤반 운영시간(18.8%),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입력 방법(18.1%)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에서 전반적인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을 맞춤반과 종일반으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먼저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 영아의 애착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고 있음에 기초하여 원장들이 생각하는 맞춤반 영아를 위한 바람직한 보육의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과반에 가까운 46.3%가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종일반 이용 시 종일반 추가 보육료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맞춤반 영아를 위한 바람직한 보육의 방안에 대해 맞춤형 보육의 정착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4%에 그쳐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와 실효성 간에 차이를 느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표 14>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

내용	단위: 명(%)	
	맞춤반 (N=136)	종일반 (N=139)
•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	63(46.3)	64(46.0)
• 영아의 부모에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보육환경 보장	26(19.1)	24(17.3)
•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17(12.5)	21(15.1)
• 영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13(9.6)	6(4.3)
• 종일반 운영에 적합한 국가 지원금 제공	9(6.6)	21(15.1)
• 맞춤형 보육의 정착	6(4.4)	1(0.7)
• 외벌이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2(1.3)	2(1.4)

종일반 영아를 위한 바람직한 보육의 방안에서도 원장의 46%가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종일반 이용 시 종일반 추가 보육료 납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보육환경 보장(17.3%),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15.1%), 종일반 운영에 적합한 국가 지원금 제공(15.1%)이 뒤를 이었다. 반면, 맞춤형 보육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0.7%로 가장 낮았다. 즉, 원장들은 영아의 바람직한 종일반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하고, 종일반 이용 시 추가 보육료를 부과하여

종일반이 꼭 필요한 영아들만 종일반을 이용하도록 하고, 국가적으로 종일반이 필요한 영아를 줄이며, 추가 지원을 통해 종일반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 향후 보육정책의 지향점 및 새로운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

앞으로 보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점 및 새로운 보육정책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알아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원장들에게 앞으로 보육정책이 가장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가,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책임지는 보육이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일반 이용 영아의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24.5%), 교사가 행복한 보육 환경 지원(23.7%)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즉, 원장들은 보육정책이 어린이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국가,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하기를 원하며, 맞춤형 뿐 아니라 종일반 이용 영아의 보육의 질과 교사들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5> 향후 보육정책의 지향점 및 새로운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
단위: 빈도(%)

향후 보육정책의 지향점 (N=139)	새로운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 (N=142)
• 국가,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책임지는 보육 53(38.1)	•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와 조정 39(27.5)
• 종일반 이용 영아의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34(24.5)	• 충분한 기간의 시범사업 33(23.2)
• 교사가 행복한 보육 환경 지원 33(23.7)	• 정책 결정자의 전문성 26(18.3)
• 각 가정의 다양성을 인정한 보육지원 15(10.8)	• 시범사업의 공개와 논의 17(12.0)
•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0(0.0)	• 사전에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충분한 안내 제공 14(9.9)
• 기타(부모가 가정에서 영아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4(2.9)	• 정확한 수요조사 10(7.0)
	• 기타(실무자들의 의견 반영) 3(2.1)

새로운 보육정책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와 조정이라는 응답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분한 기간의 시범사업(23.2%), 정책 결정자의 전문성(18.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원장들은 새로운 보육정책을 마련할 때 실제 운영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을 공유 받고

의견을 나누어 조정하며, 충분한 기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보육정책이 제시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맞춤형 보육은 시행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선행연구와의 비교·논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맞춤형 보육의 취지, 필요성, 만족도, 어려움 등에 대한 원장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70% 이상의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가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아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맞춤형 보육의 가장 중요한 취지(보건복지부, 2016a)와 일치하는 것으로 새롭게 시행된 정책에 대해 비교적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간 증가라고 응답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맞춤형 보육이 영아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 제고에 대한 취지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영아를 보육하는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원장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원장들이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의 가정 양육 강화를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맞춤형 보육의 취지에 대한 인식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을 통해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들의 가정에서의 양육 시간을 늘림으로써 부모와의 바람직한 애착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원장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원장들이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과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맞춤형 보육이 필요한 이유와 대

조되는 결과로, 세 가지의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맞춤형 자격을 받은 영아들은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에도 일찍 하원하여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충분히 양육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실제로는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부모들이 서류상으로 종일반 자격을 받아 종일반 이용을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뉴스1(2016. 7. 16.) 등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는 것이다. 셋째는 맞춤형으로 자격을 받았더라도 바우처를 최대한 사용하거나 바우처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부모가 영아·자녀의 어린이집 추가 이용을 부탁하여 원장이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한 경우가 가능하다. 즉, 이러한 가능성들을 통해 실제로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면, 어린이집에 맞춤형 자격을 받은 영아가 있어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변화되지 않고 보육료 수입의 차이만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원장들이 그 이유로 답한 내용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보육료 수입이 감소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상통하며, 맞춤형과 종일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맞춤형 보육료를 종일반 보육료의 80%로 책정한 것이 가정에서 양육 가능한 영아가 가정에서 충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거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6년 9월에 부산 학부모 연대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연합뉴스, 2016. 9. 29.)에서도 학부모의 80% 이상이 맞춤형 보육에 불만족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등·하원시간이 달라지지 않아서, 보육내용은 변하지 않고 불필요한 절차가 생겨서, 육아 및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원장 뿐 아니라 부모들도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영아들의 등·하원 시간에 차이가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제도 자체가 불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영규(2016)의 분석대로 맞춤형 보육이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시행 초기이고,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이 계속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에 대해 약 8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박사빈(2016)이 경북지역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시행 초기인 8월에 조사하였을 때, 96.4%가 '불만족한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본 연구의 결과가 좀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시행 초기의 혼란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시점에, 민간만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여전히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획일성, 원장과 교사의 업무 과중 때문이었는데, 이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종일반과 맞춤형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기 어렵고, 맞춤형과 종일반으로 이원화된 영아의 관리 부담으로 원장 및 교사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토론내용(김진석 외, 2016)과도 맥을 같이한다.

넷째, 맞춤형 운영시간에 대해 원장들 중 1/5 정도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나머지 4/5 정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박사빈(2016)의 연구에서 맞춤형 보육의 보육시간에 대한 불만족이 94.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결과이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낮잠시간 및 간식시간 등 일과와 겹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과반에 가까웠다. 맞춤반의 적절한 운영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를 평균으로 살펴보면, 맞춤형 운영시간은 5.81시간(일), 바우처 시간은 16.76시간(월)이었다. 결과만으로 볼 때, 이는 현재의 맞춤형 운영시간(6시간/일) 및 바우처 시간(15시간/월)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맞춤형 운영시간이 일과와 겹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을 고려할 때 맞춤형 운영시간을 낮잠시간 이전(오후 1시 이전) 또는 낮잠시간 및 간식시간 이후(오후 4시 이후)로 희망하여 결국 평균 시간은 현재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보육정책 개편방안 연구(서문희 외, 2009)에서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제도적으로 오후 2시 30분 전후에 귀가하는 유형과 오후 7시 30분 정도까지 이용하는 유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영아에 한하여 12시경에 귀가하는 3시간 단시간형 보육도 가능하도록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대상이 0-2세 영아인 만큼 적절한 운영시간을 고려할 때는 영아들의 발달 상태와 생리적 필요가 반드시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겠다(Wittmer & Petersen, 2006/2011).

다섯째,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료에 대해 약 85%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박사빈(2016)의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육료에 대한 불만족이 92.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맞춤형 보육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종일반과 맞춤형 운영비 지출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영아반 보육료는 연령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나 바우처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60천원(월/최대)으로 책정되어 있어 0세 맞춤형 영아가 바우처를 사용할 때 가장 비용적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것도 맞춤형 보육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6d)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상황에 맞게 일과를 수립하여 맞춤형 영아에게

급식 1회, 간식 2회(오전, 오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맞춤형 보육 시행을 이유로 교사를 시간제로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보육교사 복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맞춤형의 운영비 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급·간식비 및 교사 인건비에 있어서 종일반의 운영비 지출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맞춤형 보육료가 종일반의 80%로 책정된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아 정부와 어린이집의 갈등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맞춤형 영아가 바우처를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이 추가될 수는 있으나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보건복지부, 2016b), 맞춤형 보육료 산정에 대해서는 실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는 대로 재조정 혹은 근거에 기초한 홍보가 필요하겠다. 맞춤형 보육을 비용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어린이집의 다툼(뉴시스, 2016. 10. 9.)이나 보육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이 아닌 예산 맞춤형 보육(김진석 외, 2016)으로 보는 시선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명확히 의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상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 결과에서는 원장들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에 직결되는 보육료 수입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에서 변화된 점에 대해 변화된 정도와 바람직한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원장의 근무여건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가장 많이 변화하였다고 인식하였으나, 반대로 바람직한 정도는 그 두 가지가 가장 낮았다. 가장 많은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 이후 변화된 점이라고 인식하는 보육료 수입에 있어서도 변화된 정도는 보통 수준이나 변화의 바람직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보육에서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보육료 수입, 원장 및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느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맞춤형 보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육료 수입, 원장 및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다양한 변화는 느끼되, 변화의 정도가 원장의 근무여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통 혹은 그 이하라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의 시행에 따라 변화는 있으나 그 변화가 크지는 않아서 크게 여파를 받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서울, 경기 지역 원장들은 앞서 ‘연구대상’에서도 밝혔듯이 맞춤형 영아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바람직한 정도는 보통보다 한참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다 심도있는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맞춤형 보육에 유익한 대상에 대해서는 ‘없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맞춤형 보육 시행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나 홍보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맞춤형 보육이 유익한 대상은 맞춤형 영아였는데, 그 이유는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 애착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정양육 시간의 증가가 맞춤형 영아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영아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만큼 가정에서의 양육 지원(한영규, 2016)이나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교육 등이 제공될 필요도 있겠다. 유익한 대상이 원장이라는 응답은 아무도 없었는데 반해, 불리한 대상이 원장이라는 응답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종일반과 맞춤형으로 분리된 영아 관리의 어려움, 보육통합시스템에 매일 바우처 사용시간 입력 등의 업무 증가, 보육료 수입 감소 때문이었다. 즉,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업무가 폭증하여 원장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맞춤형 보육의 바람직한 정착과 유지를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의 측면에서도 맞춤형 보육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여덟째, 원장으로서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재정적 부담(보육료 수입 감소), 각 영아의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사유 입력, 관계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맞춤형이 많은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원장의 업무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반면, 교사나 부모의 이해 부족, 맞춤형 보육 운영시간 계획, 맞춤형 영아의 하원 지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 대상이 원장이어서 자신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려움이 보다 크게 인식되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사와 부모 입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연구문제 2에서는 맞춤형 보육의 개선점,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 향후 보육정책의 지향점 및 고려점에 대한 원장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첫째, 맞춤형 보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료, 종일반과 맞춤형의 자격인정 방법, 맞춤형 운영시간,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입력 방법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위에서 맞춤형 보육료에 대해 대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결과와 연결되는 것으로, 실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들에게는 보육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종일반과 맞춤형의 자격인정 방법이 좀 더 실체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홍보·개선될 필요가 있고, 맞춤형 운영시간도 ‘맞춤형 보육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6d)에 제시된 대로 낮잠, 간식 등의 일과와 겹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탄력조정이 필요하겠다. 네 번째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힌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입력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미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입력 기간이 본 연구가 실시된 2016년 9-10월에는 3일 이내였으나 12월부터는 7일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은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7일이 적절한 기간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원장들은 맞춤형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과 종일반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 모두에 대해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종일반 이용시 종일반 추가 보육료 납부),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보육환경 보장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원장들이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현재 12시간 종일반 운영을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으로 두고 맞춤형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꼭 필요한 영아들에게만 12시간의 종일반 이용을 제공하는 방안이 영아의 바람직한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다면, 대부분 영아들은 8시간 내에 부모의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종일반 이용이 꼭 필요한 영아들은 추가 보육료를 납부하여 종일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좀 더 다각적인 차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도 개선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영아의 어머니와의 애착형성은 이후 발달과 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Stern, 2002) 영아의 바람직한 애착관계 형성은 그 중요성이 크지만, 맞춤형 영아를 위한 방안이 맞춤형 보육의 정착이라는 응답은 4.4%에 불과하였으며,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종일반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이 맞춤형 보육의 정착이라는 응답도 0.7%에 불과하였다. 이는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이 맞춤형 영아, 종일반 영아 모두에게 바람직한 보육의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장들의 의견대로 맞춤형 보육의 정착이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중요 방안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맞춤형 보육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주요 주체인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면, 그 실행의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원장들은 보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점으로 국가,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책임

지는 보육, 종일반 이용 영아의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교사가 행복한 보육 환경 지원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맞춤형 보육의 시행으로 원장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보육정책이 어린이집만의 부담 및 책임이 아닌 국가, 부모와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교사가 행복한 보육 환경 지원이라는 응답도 23.7%의 비율을 보여 원장들이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장들은 새로운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와 조정, 충분한 기간의 시범사업, 정책 결정자의 전문성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명수(2014)의 연구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보육정책에 대한 바람으로 일관성, 참여가능, 정책과 어린이집간의 양방향 소통을 꼽은 결과와 유사하다. 즉, 원장들은 보육정책에 실제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을 공유 받고, 의견 제시를 통해 내용이 조율되며, 충분한 기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새로운 보육정책이 마련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보육이 그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 이전과 이후에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변화가 없으며, 그 누구도 특별한 이익을 받지 못하고 있어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맞춤형 보육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원장들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맞춤형 보육이 그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심도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전반적인 보육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둘째, 영아들의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는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적으로 안정화 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맞춤형 보육이 다양한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과 체계화 되지 않은 업무 매뉴얼로 보육료 수입, 원장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맞춤형 영아가 많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중화된 영아의 하원 지도를 포함한 일과 운영 방안, 바우처 입력 방법 등에 대한 업무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보육정책은 국가, 부모, 어린이집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향후 보육정책의 지향점과 새로운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에서 국가, 부모, 어린이집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보육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어린이집과 부모, 영유아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보육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부모와 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을 서울과 경기로 한정하였고, 대표적인 어린이집 유형들(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유사한 비중으로 표집하였으므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으나 실제로 그 비중이 적은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이 과포함되어 결과를 전체에 일반화하거나 특정 유형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맞춤형 보육의 시행 상황을 좀 더 다각도로 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별이나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여파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 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됨으로써 제도가 충분히 안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각자의 입장에서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원장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의 인식 및 요구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맞춤형 보육을 개선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사례연구나 인터뷰를 사용한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의견과 생각을 파악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미·이승연(2016). 만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전업주부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질적 탐색. 육아지원연구, 11(4), 137-172.
- 김경수·김상희·남인순·박주민·백혜련·변재일·조용천(2016).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정책위원회, 맞춤형 보육 토론회 토론회, 1-72.

- 김진석·김은정·안정인·최경숙·김호연·이경민(2016).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곡성. 월간 복지동향, 214, 53-58.
- 김현숙·이수진(2012). 보육산업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응용경제, 14(2), 5-30.
- 김현진·윤상용(2015). 맞춤형 보육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24시간 보육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90, 131-157.
- 뉴스1(2016. 7. 16.). 정부 맞춤형 보육사업, 학부모들 '편법 취업' 부추겨. <http://news1.kr/articles/?2721656>에서 2016년 9월 18일 검색.
- 뉴스시스(2016. 10. 9). [맞춤형 보육 100일] 학부모는 불만 쌓이고...어린이집은 운영난 걱정.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08_0014436866&CID=10201&pID=10200에서 2016년 10월 20일 검색.
- 박사빈(2016).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조사와 개선방안 제안: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01, 95-115.
- 보건복지부(2013a). 13년 3월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현황(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3b).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6a). 2016년 맞춤형 보육 안내.
- 보건복지부(2016b).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보도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16c). 맞춤형 보육 100일, 보육현장에서 정착 중(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6d). 맞춤형 보육 운영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2017).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사회보장정보원(2017. 2. 27.).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안내('17. 3월 시행).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에서 검색.
- 서문희·안재진·이세원·유희정(2009). 보육정책 개편방안 연구 -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연합뉴스(2016. 9. 29). 맞춤형 보육 시행 석달...학부모 불만 부글부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9/0200000000AKR2016092906790051.HTML?input=1195m>에서 2016년 10월 8일 검색.
- 유영욱(2008). 보육료 지원 정책과 기본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및 활용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주(2013). 보육지원정책에 관한 보육교직원들의 인식 분석 -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데일리(2016. 10. 5). 맞춤형 보육 3개월째 제자리 걸음...종일반 4시 하원 여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357926612809968&DCD=A00701&OutLnkChk=Y>에서 2016년 10월 20일 검색.

- 이미화·유해미·최효미·조아라(2014). 무상보육 이후 보육정책 방향 연구(2014 수탁보고). 육아정책연구소.
- 이보미(2010).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정책의 추진 현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명수(2014). 만0-2세 무상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인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정옥(2015).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정책의 현황 분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규(2016). 정책동향: 아이와 부모를 위한 맞춤형 보육. 육아정책포럼, 50, 28-34.
- Castles, F. G. (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 friendly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209-227.
- Sleeboos, J. (2003). Low fertility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s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5, 10-54.
- Stern, D. N. (2002). *The first relationship: Infant and moth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ittmer, D. S., & Petersen, S. H. (2011). 영아 발달과 반응적 교육: 관계중심 접근법(이승연·김은영·강재희·문혜련·이성희 공역). 서울: 학지사. (원서 2006 출판)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메일 dearsy@ewha.ac.kr

Abstract

Childcare Center Directors' Perceptions and Demands on Customized Childcare

Hyo-Mi Lim and Seung Yeo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and demands of childcare center directors on customized childcare policy that was implemented recently since July 1, 2016 in Korea. 152 directors at various types of childcare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 filled out surveys from September 26 to October 30, 2016.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directors' perceptions on customized childcare, although they fully understood the intent of the policy and about half of them acknowledged the necessity of the policy, most of them were dissatisfied with the policy. In addition, they thought that the operating hours and the childcare fees for the customized classes were not appropriate. Furthermore, they felt the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of directors and teachers and center income from childcare fees due to the policy's enforcement, and these changes led to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difficulties. Second, in terms of the directors' demands on customized childcare, they demanded overall improvement of the policy. In particular, they suggested to modify the basic operating hours from 12 hours to 8 hours in order to provide advisable childcare for infants. For the question on what the future childcare policies should pursue, the most common response was a shared responsibility among the government, parents, and childcare centers. For the question on w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making a new childcare policy, most of the respondents demanded the notification and mediation of policy-making processes. These results imply the needs for the continuous improvement and active publicity of the customized childcare policy.

Key words: customized childcare, customized class, all-day class, childcare centers, directors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효과*

정혜옥¹⁾ 김순환²⁾ 이지영³⁾ 이현지⁴⁾

요약

본 연구는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시범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참여 유아교사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여 유아대상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5세 유아 1,067명과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교사 5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범적용을 통해 실험집단 만 3세, 4세, 5세 유아의 흡연예방 지식, 태도, 실천 능력이 증진되었다. 둘째,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개선점으로는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 가정과의 연계, 연령별 활동의 다양화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흡연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또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보급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흡연예방교육,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유아 흡연예방교육 시범적용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흡연은 조기 사망 및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이를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2009년 기준 27.7%였던 성인

* 본 논문은 2016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6). 유아 흡연 예방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흡연예방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체계 구축” 연구보고서의 일부임.

- 1)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 2)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 3)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 4)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의 흡연율과 12.8%였던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4년 기준 각각 24.5%와 9.2%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 특히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첫 흡연 시작 연령이 2009년 11.1세에서 2015년 10.6세로 낮아져, 첫 흡연경험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 외, 2015). 이러한 흡연연령의 하향화의 원인은 어린 연령의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어린 시기의 흡연 행위 및 흡연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은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흡연 시도 및 지속적인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흡연 환경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한 비흡연자는 60만 명에 이르며 특히 이 중 16만 5천여 명은 아동 사망자로 보고되었다(Öberg et al., 2010). 특히, 미국 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14)에 의하면 간접흡연에 노출이 가장 심한 연령이 3~11세 유아 및 아동이고, 이로 인한 어린이 돌연사 피해자는 연간 4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유아기는 성장발육의 시기이므로 간접흡연은 특히 유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유아기는 세포, 조직 및 장기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담배의 독성물질과 접촉하는 경우 손상 정도가 성인보다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유아기는 모든 세포가 성장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간접흡연은 뇌세포 성장을 저해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되어 유아의 성장과 발달이 저하된다(김일순, 1998). 간접흡연은 또한 유아의 뇌세포의 성장을 억제시켜 기억력을 감퇴시키며, 지능, 집중력, 학습 능력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ADHD)증상을 심화시킨다(WHO, 1999). 이와 같이 간접흡연이 유아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많은 유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간접흡연 개념과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애경, 2013). 또한 유아는 간접흡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박애경, 2013). 따라서 유아가 간접흡연에 대한 유해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택하지 않은 유해 물질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나아가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금연을 유도하는 유아 흡연예방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흡연 시작 연령의 하향화와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따른 유아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흡연예방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아동

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은 초등학교 아동 및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행되었으나(노원환·강복수·김석범·이경수, 2001; 보건복지부, 2014; 안옥희·권영미·전미순, 2005; 이정숙·김수진·권영란, 2009; 이주열, 2004), 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흡연예방교육은 미비한 실정이다.

유아기는 평생 유지되는 생활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로, 유아기에는 이후 생활과 건강에 기초가 될 생활습관 형성이 이루어진다. 이뿐만 아니라 유아는 흡연예방과 관련된 교육적 개입에 심리적으로 덜 반항적이며 스펀지처럼 새로운 지식을 흡수한다. 따라서 유아기는 청소년기에 비해 흡연과 관련된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쉽다(백경신·민소영·권영숙, 2008). 이에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작 연령을 유아기로 하향화시킴으로써 유아가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과 유아흡연예방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유아흡연예방 프로그램 적용 및 비교연구(권기남·민하영·윤충식, 2006; 김영실·인정이, 2009; 김정미, 2012; 박애경, 2013; 백경신 외, 2008; 보건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 2015; 오선영·조유나, 2014; Hrubá & Zaloudíková, 2012; Thomas & Perera, 2006), 유아흡연에 대한 인식연구(Porcellato, Dughill & Springett, 2002; Rosen et al., 2011)등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유아기에서부터 시작한 장기적인 흡연예방 프로그램은 흡연 인구 감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그러나 국내에서 선행된 유아 흡연예방교육 관련 연구들은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하였으나 대부분이 소수의 유아를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적용되어 중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유아 흡연예방교육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하여 유아의 흡연예방 지식, 태도, 실천적 역량 형성에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하고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교사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유아 흡연예방교육의 확산과 프로그램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의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에 대한 교사 만족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모집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아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3(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를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 먼저 효과크기(d)를 산정하였다. 유의수준(α) 0.05에서 검정력($1-\beta$) 0.90을 유지하면서 0.20의 효과크기를 감지하기 위한 표본 수는 총 1,054명(실험집단 527명과 대조집단 527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탈락률을 고려하여 최초 유아 연구대상자는 총 1,159명을 모집하였다. 연구 수행 도중 참여자의 손실(전원, 잦은 결석 등)과 불성실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포함된 유아 연구대상자는 총 1,067명이었다. 교사만족도는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기관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54명의 교사가 연구대상으로 참여하였다.

나. 연구대상자 모집 방법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먼저 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한 환경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개발된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모집하고자 했다.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120-24)이후,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본 연구의 협력기관인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 유아교육기관 대상 협조공문 발송을 요청하여 참여기관을 모집하였다. 연구대상 유아교육기관으로 서울지역과 전국 시·도 기준 흡연율이 최상위 지역인 강원, 인천, 대구 지역의 총 8개 기관이 시범운영에 참여하였다. 유아 연구대상자는 시범운영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5세 유아들 중에 유아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연구참여 동의를 허락받은 유아들로 최종 연구대상은 1,067명이었다.

교사만족도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사 5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시범운영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분은 먼저 사전검사 및 배경변인(교사의 경력, 사회경제적 환경, 학급구성 연령 등)을 바탕으로 실험집단의 학급 및 유아수와 통제집단의 학급 및 유아수를 유사한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와 기관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분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유아 및 학급 수
단위: 명(학급)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계
	만 3세	만 4세	만 5세	소계	만 3세	만 4세	만 5세	소계	
전체기관	137(9)	196(10)	230(11)	563(30)	161(9)	158(7)	185(8)	504(24)	1,067(54)
유치원	74(4)	131(6)	184(8)	389(18)	146(8)	140(6)	156(6)	442(20)	831(38)
어린이집	63(5)	65(4)	46(3)	174(12)	15(1)	18(1)	29(2)	62(4)	236(1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과 관련해서, 연구대상기관에 따른 유아 수 및 학급 수에 차이로 인해 동일기관의 유아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은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검사를 바탕으로 한 동질성 검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참조).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동질성 검사
N=1,067

구분	실험집단 M(SD)	통제집단 M(SD)	t
만 3세	3.25(.53)	3.29(.43)	-.94
만 4세	3.39(.43)	3.43(.43)	-.86
만 5세	3.54(.26)	3.51(.52)	.92

다. 연구도구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이 흡연에 대한 유아의 지식, 태도,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 유아평가 도구와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교사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교사 만족도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1)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유아평가 도구

유아평가 도구의 범주는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와 선행연구의 범주를 토대로 하였다. 유아평가 도구는 총 19문항(질문지형 14문항, 개방형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형 문항은 선행연구(박민지, 2016; 백경신 외, 2008; 백우선, 2016;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Brook,

Mendelberg, Galili, Priel & Bujanover, 1999)에서 유아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흡연대처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도구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선행연구들의 도구는 평가범주의 구분, 범주별 문항 수, 평가척도가 다양하여 유사한 유형의 문항은 통합하였다. 예를 들어, 흡연예방지식과 관련하여 ‘담배를 피우면 키가 잘 자라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면 기침을 하게 된다’, ‘담배는 몸에 좋지 않다’의 문항을 유사한 유형의 문항으로 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각 범주의 다양한 평가척도는 예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Likert 4점 척도로 수정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지식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 올바른 태도를 형성함, 실천에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개방형 문항은 Freeman, Brucks과 Wallendorf(2005)이 12세 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사진형 그림자료와 Porcellato, Dughill, Springett와 Sanderson(1999)과 Porcellato, Dughill과 Springett(2002)이 개발한 그림 자료 및 질문항목을 기초로 제작되었다.

검사 소요시간은 약 20분이며, 검사는 유아의 개인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면담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흡연 상황 그림을 보여주며 유아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유아검사기록지에 관찰 기록하였다. 평가도구의 내용타당도는 유아교육전문가 4인으로부터 적합성과 적절성을 검증받았다. 유아 흡연예방 지식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유아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며, 이에 문항의 예로 ‘담배에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다’가 있다. 유아 흡연예방 태도는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유아의 입장이나 관점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로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담배연기가 싫다’가 있다. 유아 흡연예방 실천은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유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노력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로 ‘누군가 내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연기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간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방형 5문항을 제외한 유아 평가도구의 신뢰도는 .74로 나타났다. 평가도구의 범주와 내용, 문항번호와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유아 평가도구의 범주와 내용

범주	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질문형문항 신뢰도
유아 흡연예방 지식	·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필요성 알기 ·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의 예방법 알기	3, 6, 9, 10, 12, 16, 17	7	.53

(표 3 계속)

범주	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질문형문항 신뢰도
유아 흡연예방 태도	·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에 대한 부정적 자세 갖기 ·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해성 인식을 기반으로 한 단호한 자세 갖기	1, 5, 7, 11, 13*, 15	6	.68
유아 흡연예방 실천	·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자기 보호하기 · 가족 및 주변인에게 금연 권유하기	2, 4, 8*, 14, 18, 19	6	.38
전체			19	.74

* 역채점 문항

2) 교사 만족도 평가도구

교사 만족도 평가도구의 평가범주는 Thomas와 Perera(2006)와 Thomas, McLellan와 Perera(2015)의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평가범주와 김성훈·김신영·서민원·양길석(2009)이 학교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개발한 평가준거의 범주를 기초로 개발하였다. 김성훈과 그 동료들이 개발한 평가준거의 범주에서는 본 연구도구와 관련성이 있는 ‘목적부합성’, ‘실행적합성’을 참고하였고, Thomas와 그 동료들이 개발한 도구(2006, 2015)에서는 프로그램의 유형, 실행방법에 대한 범주를 참고하였다. 교사 만족도 평가도구의 문항은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실행수준, 만족도 등을 측정할 류아영(2014), 손수연(2013), 정계숙(2013)의 측정도구의 문항을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맞게 수정하였다. 선행연구 질문지에서 ‘프로그램의 실행수준’의 하위문항영역이었던 ‘목표’, ‘내용’, ‘방법’을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의 적절성’, ‘프로그램 교육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 실행적합성 범주’로 수정하였고, 관련성이 적은 ‘이론적 근거 및 성격’, ‘자료’, ‘평가’ 문항영역은 삭제하였다. 프로그램의 교육효과와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교육결과의 효과성’, ‘프로그램의 보완점’, ‘프로그램의 개선점’의 범주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교사 만족도 평가도구는 설문지형태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방형문항을 제외한 13개 문항의 평정방법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범주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 만족도 평가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유아교육전문가 4인으로부터 적합성과 적절성을 검증받았고, 평가도구의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평가도구의 범주와 내용, 문항번호와 문항 수 및 신뢰도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 교사 만족도의 범주와 내용

범주	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목적 부합성	· 활동의 적합성 · 활동의 체계성 및 충실성	1, 2	2	.84
교육내용의 적절성	· 교육활동의 유아의 발달수준 적합성 · 교육활동의 유아들의 흥미 고려성 · 교육활동의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 교육활동들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	3, 4, 5, 6	4	.78
교육방법의 적절성	· 활동별 교육시간의 적절성 · 활동별 교육방법의 적절성	7, 8	2	.66
실행적합성	· 교육활동유형의 다양성 · 교사 및 기관의 의식향상	9, 10	2	.71
교육결과의 효과성	· 유아들의 흡연예방교육지식에 긍정적 변화 · 유아들의 흡연예방교육태도에 긍정적 변화 · 유아들의 흡연예방교육실천에 긍정적 변화	11, 12, 13	3	.93
프로그램의 보완점	· 프로그램 실행과정의 문제점 · 프로그램이 보완해야 할 점	14, 15	2	
프로그램의 발전성	· 프로그램 확대가능성 및 확산을 위한 개선점	16	1	
전체			16	.95

라. 연구절차

연구절차는 유아평가의 경우에 유아평가 도구개발, 예비연구 및 검사자 훈련, 유아 사전검사, 프로그램 시범운영(실험처치), 유아 사후검사, 자료 분석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교사만족도평가의 경우는 교사만족도평가 도구개발, 예비연구, 시범운영을 위한 교사훈련, 프로그램 시범운영, 교사만족도평가, 자료 분석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 유아평가(사전·사후검사)

유아평가를 위해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유아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도구의 적절성과 문제점, 소요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2016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만 3-5세 유아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평가 검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검사자 훈련이 7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차시(총 6시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검사자 훈련에는 공동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16명이 참여하였다. 검사의 동일성 확보를 위해 발문, 사진 및 그림자료 제시방법 등에 대한 검사자 매뉴얼이 제작되었고, 검사자들은 매뉴얼을 숙지한 후 검사과정을 모의 실습하였다. 또한 예비검사 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며 검사자들 간의 평가일치도가 각각 90% 이상이 될 때까지 검사자 훈련을 하였다. 평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보며 의견을 나누어 합의를 이루었다. 유아 사전검사는 유아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시작 직전에 유아평가 도구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1회 실시되었다. 검사일시 및 장소는 유아의 기관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당교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다. 유아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시범운영 종료 후 유아 사전검사와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2) 프로그램 시범운영

프로그램 시범운영은 연구대상학급 중 실험집단 학급에서 학급담임교사에 의해 2016년 7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되었다. 프로그램 시범운영 전 연구대상 기관 및 학급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각 해당연령의 프로그램의 교육활동은 교사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운영하였다.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은 유아 건강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가 흡연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며 나아가 흡연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사회를 지키는 건강한 행동양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을 살펴보면, 3~5세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과 사회관계 영역 중 흡연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흡연과 간접흡연의 유해성 알기’, ‘금연의 필요성 알기’, ‘간접흡연의 노출 피하기’, ‘흡연자에게 금연 권유하기’를 교육요소로 선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누리과정 운영에 통합·적용되어 실시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의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만 3세는 14개 활동, 만 4세는 22개 활동, 만 5세는 25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 활동 및 활동유형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연령별 활동(활동유형)

구분	3세	4세	5세
활동	1. 생쥐 가족 이사를 가요(동극) 2. 생쥐 가족 이사를 가요 인형극 놀이(언어) 3. 금연 꽃카드 만들기(미술) 4. 금연 패턴 만들기(수 조작) 5. 금연 미로 찾기(수 조작) 6. 깨끗한 이, 건강한 이 (수 조작) 7. 담배연기를 피해서(과학) 8. 빨리 천천히(신체) 9. 담배야 안녕!(게임) 10. 금연표시 완성하기(수 조작) 11. 금연 복주머니 만들기(미술) 12. 그림 속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알려줘요 (이야기나누기) 13. 할아버지의 곰방대(동극) 14. 금연 뚜껑 나라(수 조작)	1. 금연카드를 만들어요(미술) 2. 금연 아파트 마을 집 짓기 (미술) 3. 금연기도 인형(미술) 4. 금연이 꼭 필요해요(이야기나누기) 5. 담배가 생각날 땐 건강간식을(요리) 6. 금연 블록 구성하기 (쌓기놀이) 7. 흡연은 안돼요(수 조작) 8. 금연 도미노(수 조작) 9. 금연카드 게임(수 조작) 10. 도와주세요(이야기나누기) 11. 금연칩 모으기(수 조작) 12. 싫어요, 좋아요(음악) 13. 혈관 속을 피처럼 돌아볼까요?(신체) 14. 금연 승부킥(게임) 15. 할아버지의 곰방대 손가락 인형 놀이(미술/언어) 16. 금연돌탑 쌓기(미술) 17. 금연 메모리 카드 만들기 (미술/수 조작) 18. 그림 속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금연을 권유해요 (게임) 19. 금연 동네 만들기(쌓기놀이) 20. 같은 그림을 찾아라!(수 조작) 21. 담배 피우는 사람을 찾아서 “안돼요!”(과학) 22. 건강을 위해 이걸 어때요? (미술)	1. 금연하는 우리 집 디오라마 구성하기(역할놀이) 2. 금연테트리스게임/수 조작 3. 담배연기 싫어요(동시) 4. 금연기방 전하기(언어) 5. 건강 텀블러 만들기(미술) 6. 자동차 사세요(동극) 7. 들숨 날숨 (이야기나누기) 8. 다함께 뇌 스모킹 댄스 (신체) 9. 금연 포스터 만들기(미술) 10. 건강 솟대를 만들어요(미술) 11. 광고 생각해 보아요 (이야기나누기) 12. 금연카드 이야기하기(수 조작) 13. 건강한 나의 폐(수 조작) 14.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과학) 15. 금연 스티커를 만들어요 (미술) 16. 금연 타임캡슐 -미래의 나에게 보내요(미술) 17. 미래에는 없어질 표시(동시) 18. 금연 스트레칭(신체) 19. 카르망 백작에게! 그림TV 선물하기(미술) 20. 스포송 악기연주(음악) 21. 금연 연이의 시간 여행(동화) 22. 금연표시, 금연시설 표시 판 뒤집기(게임) 23. 금연 빙고(수 조작) 24. 몸을 건강하게 지켜요(신체) 25. 담배가 생각날 땐 건강 간식을(요리)
활동 수	14	22	25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위한 연령별 권장활동 유형 및 수를 제시하였
 다. 권장활동은 활동의 유형 및 수를 제시하여 기본활동과 활동의 유형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선택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기본활동의 수는 만 3세는 7개, 만 4세는 8개, 만 5세는 10개로 설정하였고, 선택활동은 활동의 유형과 관계없이 3개 이상을 하도록 설정하였다. 그 결과 각 연령별로 실시한 활동 수는 만 3세, 만 4세, 만 5세 각 최소 10~14개, 11~22개, 13~25개 활동이 실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통제집단에 동일한 효과를 주기 위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 실험집단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3) 교사 만족도 평가

교사 만족도 평가를 위해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평가도구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도구의 적절성과 문제점, 소요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 참여대상은 프로그램 시범운영 유아교육기관 2곳의 만 3-5세 각 연령별로 한 학급씩을 추출하여 총 6학급 6명의 교사에게 실시하였다.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 시범적용에 앞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해당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교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교사 만족도 평가는 프로그램 시범운영 종료 후 교사 만족도 평가도구로 해당교사 54명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 효과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만 3세 실험집단의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평균은 3.25($SD=.47$), 사후검사의 평균은 3.77($SD=.26$)이었고 만 3세 통제집단의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평균은 3.27($SD=.55$), 사후검사의 평균은 3.37($SD=.41$)이었다. 만 3세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1.383, p<.001$). 반면에 만 3세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3세 유아에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4세 실험집단의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평균은 3.39($SD=.43$)이며,

사후검사의 평균은 3.78($SD=.25$)이었고, 만 4세 통제집단의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평균은 3.44($SD=.42$), 사후검사의 평균은 3.52($SD=.37$)이었다. 만 4세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1.048, p < .001$). 반면에 만 4세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4세 유아에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5세 실험집단의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평균은 3.55($SD=.25$)이며, 사후검사의 평균은 3.86($SD=.15$)이었다. 만 5세 통제집단의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평균은 3.58($SD=.32$), 사후검사의 평균은 3.61($SD=.29$)이었다. 만 5세 실험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6.750, p < .001$). 이를 통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5세 유아에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3세, 4세, 5세 유아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6〉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 비교

$N=1,067$

구분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만 3세	실험집단	3.25(.47)	-11.383**
	통제집단	3.27(.55)	-1.737
만 4세	실험집단	3.39(.43)	-11.048**
	통제집단	3.44(.42)	-1.959
만 5세	실험집단	3.55(.25)	-16.750**
	통제집단	3.58(.32)	-1.154

** $p < .001$

유아평가의 각 하위범주인 유아 흡연예방 지식, 유아 흡연예방 태도, 유아 흡연예방 실천 측면의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가. 유아 흡연예방 지식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이 유아의 흡연예방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연

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만 3세 실험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지식의 평균은 3.28($SD=.62$), 사후검사의 지식의 평균은 3.79($SD=.36$)이었고, 만 3세 통제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지식의 평균은 3.22($SD=.65$), 사후검사의 지식의 평균은 3.33($SD=.55$)이었다. 만 3세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8.27, p < .001$). 반면에 만 3세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3세의 유아흡연예방 지식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4세 실험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지식의 평균은 3.42($SD=.63$), 사후검사의 지식의 평균은 3.72($SD=.54$)이었고, 만 4세 통제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지식의 평균은 3.50($SD=.57$), 사후검사의 지식의 평균은 3.59($SD=.48$)이었다. 만 4세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5.07, p < .001$). 반면에 만 4세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4세의 유아흡연예방 지식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5세 실험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지식의 평균은 3.61($SD=.40$), 사후검사의 지식의 평균은 3.89($SD=.23$)이었고, 만 5세 통제집단의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지식의 평균은 3.62($SD=.43$), 사후검사의 지식의 평균은 3.65($SD=.40$)이었다. 만 5세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9.34, p < .001$). 반면에 만 5세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5세의 유아흡연예방 지식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3세, 4세, 5세 유아의 흡연예방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교육적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7〉 유아 흡연예방 지식 사전·사후 검사 비교

N= 1,067

구분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만 3세	실험집단	3.28(.62)	3.79(.36)	-8.27***
	통제집단	3.22(.65)	3.33(.55)	-1.64
만 4세	실험집단	3.42(.63)	3.72(.54)	-5.07***
	통제집단	3.50(.57)	3.59(.48)	-1.54
만 5세	실험집단	3.61(.40)	3.89(.23)	-9.34***
	통제집단	3.62(.43)	3.65(.40)	.78

*** $p < .001$

나. 유아 흡연예방 태도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이 유아의 흡연예방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만 3세 실험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태도의 평균은 3.20(SD= .69)이며, 사후검사의 태도의 평균은 3.78(SD= .34)이었고, 만 3세 통제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태도의 평균은 3.27(SD= .67), 사후검사의 평균은 3.37(SD= .57)이었다. 만 3세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8.79, p < .001$). 반면에 만 3세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3세의 유아흡연예방 태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4세 실험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태도의 평균은 3.38(SD= .55)이며, 사후검사의 태도의 평균은 3.87(SD= .23)이었고, 만 4세 통제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태도의 평균은 3.46(SD= .46), 사후검사의 평균은 3.57(SD= .66)이었다. 만 4세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1.50, p < .001$). 반면에 만 4세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4세의 유아흡연예방 태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5세 실험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태도의 평균은 3.63(SD=.37)이며, 사후검사의 태도의 평균은 3.97(SD=.10)이었고, 만 5세 통제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태도의 평균은 3.61(SD=.41), 사후검사의 평균은 3.64(SD=.40)이었다. 만 5세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3.53, p < .001$). 반면에 만 5세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5세의 유아흡연예방 태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3세, 4세, 5세 유아의 흡연예방 태도를 증진시키는데 교육적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8〉 유아 흡연예방 태도 사전·사후 검사 비교

N= 1,067

구분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만 3세	실험집단	3.20(.69)	3.78(.34)	-8.79***
	통제집단	3.27(.67)	3.37(.57)	-1.44
만 4세	실험집단	3.38(.55)	3.87(.23)	-11.50**
	통제집단	3.46(.46)	3.57(.66)	-1.76
만 5세	실험집단	3.63(.37)	3.97(.10)	-13.53**
	통제집단	3.61(.41)	3.64(.40)	-.74

*** $p < .001$

다. 유아 흡연예방 실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이 유아의 흡연예방 실천에 미치는 효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만 3세 실험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실천 평균은 3.27(SD=.59)이며, 사후검사의 평균은 3.76(SD=.33)이었다. 만 3세 통제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실천의 평균은 3.34(SD=.64), 사후검사의 평균은 3.40(SD=.62)이었다. 만 3세 실험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8.44, p < .001$). 반면에 만 3세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3세의 유아흡연예방 실천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4세 실험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실천 평균은 3.35(SD=.63)이며, 사후검사의 평균은 3.73(SD=.35)이었다. 만 3세 통제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실천의 평균은 3.33(SD=.58), 사후검사의 평균은 3.38(SD=.50)이었다. 만 4세 실험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7.44, p < .001$). 반면에 만 4세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 실험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실천 평균은 3.36(SD=.47)이며, 사후검사의 평균은 3.69(SD=.39)이었다. 만 5세 통제집단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전검사의 실천의 평균은 3.48(SD=.48), 사후검사의 평균은 3.53(SD=.51)이었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4세의 유아흡연예방 실천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5세 실험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8.12, p < .001$). 반면에 만 5세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5세의 유아흡연예방 실천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만 3세, 4세, 5세 유아의 흡연예방 실천을 증진시키는데 교육적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9〉 유아 흡연예방 실천 사전·사후 검사 비교

$N=1,067$

구분		사전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만 3세	실험집단	3.27(.59)	3.76(.33)	-8.44**
	통제집단	3.34(.64)	3.40(.62)	-.945
만 4세	실험집단	3.35(.63)	3.73(.35)	-7.44**
	통제집단	3.33(.58)	3.38(.50)	-.81
만 5세	실험집단	3.36(.47)	3.69(.39)	-8.12**
	통제집단	3.48(.48)	3.53(.51)	-.95

** $p < .001$

2.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에 대한 교사 만족도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에 대한 교사 만족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 만족도의 결과는 평균 4.09(SD=.69)로 교사들의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범주별 교사 만족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내용 적절성’이 평균 4.13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목적부합성’, ‘교육방법 적절성’, ‘실행적절성’ 모두 평균 4.08로 그 다음 순이었다.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내용 적절성’ 범주의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흥미’ 항목이 평균 4.31(SD=.75)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교육결과 효과성’ 범주의 ‘유아들의 흡연예방 지식에 대한 긍정적 변화’ 항목이 평균 4.23(SD= 1.02), ‘교육방법의 적절성’ 범주의 ‘활동별 교육시간 적절성’ 항목이 평균 4.23(SD= .73)이었다.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사 만족도 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았다.

〈표 10〉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교사만족도

			N = 54	
범주	하위항목	M(SD)	M	
목적부합성	활동의 적합성	4.15(.69)	4.08	
	활동의 체계성 및 충실성	4.00(.82)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활동의 유아의 발달수준 적합성	4.15(1.07)	4.13	
	교육활동의 유아들의 흥미 고려성	4.31(.75)		
	교육활동의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4.15(.69)		
	교육활동들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	3.92(.76)		
교육방법의 적절성	활동별 교육시간의 적절성	4.23(.73)	4.08	
	활동별 교육방법의 적절성	3.92(.95)		
실행적합성	교육활동유형의 다양성	4.08(.95)	4.08	
	교사 및 기관의 의식향상	4.08(.76)		
교육결과의 효과성	유아들의 흡연예방 교육지식에 긍정적 변화	4.23(1.02)	4.05	
	유아들의 흡연예방 교육태도에 긍정적 변화	4.08(1.04)		
	유아들의 흡연예방교육실천에 긍정적 변화	3.85(.99)		
전체		4.09(.69)	4.09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용하고 그 효과

와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여 유아대상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범적용을 통해 만 3세, 4세, 5세 유아의 흡연예방 지식, 태도, 실천 능력이 각각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유아 흡연예방 지식은 모든 연령의 실험집단에서 전체적 유아흡연예방지식 범주와 그 하위내용인 ‘유아들의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행성과 금연의 필요성 알기’,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의 예방법 알기’에서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이 동 프로그램을 단기적으로 시범 적용한 연구에서 유아의 흡연예방관련 인식이 유의하게 증진된 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였다. 또한 이는 7차시~10차시의 단기적 유아흡연예방교육이 만 4세와 만 5세 유아의 흡연예방 인식과 지식에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있었던 선행연구(김영실·인정이, 2009; 백경신 외, 2008; 오선영·조유나, 2014)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유아 흡연예방 태도에서도 각 연령의 실험집단에서 전체적 유아 흡연예방태도 범주와 그 하위내용인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에 대한 부정적 자세 갖기’,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해성 인식을 기반으로 한 단호한 자세 갖기’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흡연예방교육이 유아의 금연에 대한 태도 및 의지와 같은 태도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김정미, 2012; 오선영·조유나, 2014)와 유사한 결과이나 흡연예방프로그램이 흡연에 대한 태도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백경신 외(2008)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본 연구가 단기적으로 운영된 선행연구와 달리 중·장기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단기적 선행연구(김정미, 2012; 오선영·조유나, 2014)에서 나타난 태도측면의 긍정적 효과는 선행연구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가정연계 및 부모교육을 강조하였고, 이를 유아대상교육과 병행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아 흡연예방 실천에서는 모든 연령의 실험집단에서 전체적 유아 흡연예방 실천과 그 하위내용인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자기 보호하기’, ‘가족 및 주변인에게 금연 권유하기’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실천적 측면의 긍정적 교육효과는 유아흡연예방교육이 유아의 흡연대처 능력(백경신 외, 2008),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유아의 대처행동(김영실·이정미, 2009),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김정미, 2012), 적극적이고 바른 대처행동(오선영·조유나, 2014)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유아평가의 개방형 문항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 유아들의 ‘담배피우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결과에서는 담배피우는 사람에 대해 ‘나쁘다’, ‘안 좋다’ 등의 부정적인 표현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사후검사결과에서는 ‘도와주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는 유아들의 표현이 나타났으며, 또한 부정적인 표현이 나타나더라도 ‘안 좋은 담배를 피우니까 몸이 안 좋은 사람’, ‘해로운 담배를 피우니까 나쁜 사람’과 같이 흡연자보다는 담배 또는 담배 피는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참여 유아들이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선행연구(Porcellato, Dughill & Springett, 2002)와 유아의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위험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연구(Rosen et al., 2011)와 유사한 결과였다. ‘담배 및 담배연기의 유해성’에 대한 유아들의 답변은 실험집단의 사후검사결과에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났다. 특히, 만 4, 5세 유아들의 폐, 심장 등 신체기관과 암, 폐렴 등 질병에 대한 어휘를 사용한 표현이 증가하였다. ‘간접흡연 대처방법 및 흡연예방 방법’에 대한 실험집단 유아들의 사후검사 답변은 사전검사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 실천방법으로 변화됨을 보였다. 즉, ‘마스크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손이나 팔로 입을 막고 빨리 간다’, ‘담배연기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 등 간접흡연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증가하였다. ‘흡연예방 방법’으로는 ‘운동하기’, ‘산책하기’, ‘체조하기’, ‘물 마시기’, ‘과일과 채소 먹기’ 등과 같이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표현이 실험집단의 사후검사에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유아의 표현 변화는 유아 흡연예방교육 시범운영이 만 3-5세 유아들의 유아 흡연예방 지식, 태도, 실천을 증진시키는 데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범주별 교사 만족도는 ‘교육내용의 적절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항목별로는 ‘교육내용의 적절성’ 범주의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흥미’ 항목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 만족도의 개방형 문항의 결과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개선안으로 교사교육 및 평가체제,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연령별 교육활동의 다양화, 실천중심의 활동 및 교재·교구의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따라서 유아 흡연예방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연령별 이야기나누기 활동 및 동화 개발, 교사교육체계구축, 부모교육 자료개발 등의 실천적 측면을 보다 더 강화하여야 한

다.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교사교육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시 된다.

이러한 결론에 따른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유아 흡연예방교육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중·장기적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만 3-5세 유아들의 흡연예방 지식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교육으로는 형성하기 어려운 정의적인 측면인 태도와 실천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는 유아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도록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확산을 위해 유아교육과정에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련 정책이 필요시 된다. 유아흡연예방교육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흡연예방교육은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안전교육의 약물 및 사이버 중독의 세부내용,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약물의 오남용 예방의 내용 등으로 포함되어 있다. 법문 상 '약물'로 표현되고 있는데, 흡연예방교육이 그에 분명히 포함될 수 있도록 법문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흡연예방교육이 안전교육의 실질적인 주요내용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유아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시수배정이 요구된다. 즉, 유아교육기관 연간계획에 유아흡연예방교육이 포함되어 계획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기관의 흡연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담당기관, 즉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일환인 유아대상 흡연예방사업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을 위해서는 이를 실행하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시된다. 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아 흡연예방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양성과 교사의 질적 관리를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유아 흡연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중·장기적 시범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적 제약으로 보다 장기적인 교육효과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참여 유아의 추적 연구를 통해 유아 흡연예방교육의 장기적·지속적 효과를 검증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만족도만을 평가하였다. 효과적인 유아 흡연예방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교사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아 흡연예방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의 질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유아 흡연예방교육의 효과 증진을 위해서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임을 시사하였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연계를 위한 유아흡연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시 된다. 본 연구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알아보고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보급 확대를 위한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권기남·민하영·윤충식(2006). 유아의 건강 권리 증진을 위한 유아 간접흡연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2), 187-196.
- 김성훈·김신영·서민원·양길석(2009). 교육 프로그램 메타평가 기준 개발. 교육평가연구, 22(3), 557-585.
- 김영실·인정아(2009). 유아 대상 흡연 예방교육의 효과.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김일순(1998). 심각한 청소년 흡연문제- 전망과 대책- 제11회 금연의 날 기념 심포지움. 금연운동 협의회
- 김정미(2012). 유아를 위한 간접흡연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309-324.
- 노원환·강복수·김석범·이경수(2001). 흡연예방교육에 의한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변화와 흡연량의 감소 효과. 지역보건학회, 26(1), 37-56.
- 류아영(2014).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행수준 및 만족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지(2016). 유아 흡연예방교육의 적용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애경(2013). 영·유아 간접흡연, 피해인지 교육 및 금연교육현황. 한국교육문제연구, 31(4), 141-158.

- 백경신·민소영·권영숙(2008). 학령전기 흡연예방프로그램이 아동의 흡연 지식, 흡연태도, 흡연대처 행동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3), 358-367.
- 백우선(2016). 만 4, 5, 6세 유아의 흡연에 대한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4).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안내지침.
- 보건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2015).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금연사업전문가 교육교재.
- 손수연(2013). 5세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행수준 및 프로그램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옥희·권영미·전미순(2005). 청소년의 흡연경험, 흡연예방교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6(4), 467-477.
- 오선영·조유나(2014). 유아기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6(2), 1-16.
- 이정숙·김수진·권영란(2009). 청소년 흡연과 음주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2), 105-115.
- 이주열(2004). 청소년 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인문사회연구*, 6, 99-120.
- 정계숙(2013). 누리과정 실시에 대한 교사 만족도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ook, U., Mendelberg, A., Galili, A., Priel, I., & Bujanover, Y. (1999). Knowledge and attitudes of children towards cigarette smoking and its damage.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37(1), 49-53.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4). CDC's Best practices for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rograms-2014.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1149-1160.
- Freeman, D., Brucks, M., & Wallendorf, M. (2005).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s of cigarette smoking. *Society for the Study of Addiction*, 100(10), 1537-1545.
- Hrubá, D., & Zaloudíková, I. (2012). What limits the effectiveness of school-based anti-smoking programmes?. *Central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1), 18-23.
- Öberg, M., Jaakkola, M., Woodward, A., Peruga, A., & Prüss-Ustün, A. (2010). Global estimate of the burden of disease from second-hand smoke. Geneva,

Swiss Confederation: WHO.

- Porcellato, L., Dughill, L., & Springett, J. (2002). Using focus groups to explore children's perceptions of smoking: Reflections on practice. *Health Education, 102*(6), 310-320.
- Porcellato, L., Dughill, L., Springett J., & Sanderson, F. H. (1999). Primary school children's perceptions of smoking: Implications for health educa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14*(1), 77-83.
- Rosen, L. J., Guttman, N., Hovell, M. F., Noach, M. B., Winickoff, J. P., Tchernokovski, S., Rosenblum, J. K., Rubenstein, U., Sedimann, V., Vardavas, C. I., Klepeis, N. E., & Zucker, D. M. (2011). Development, design, and conceptual issues of project zero exposure: A program to protect young children from tobacco smoke exposure. *BMC Public Health, 11*, 1-11.
- Thomas, R. E., & Perera, R. (2006). School-based programmes for preventing smoking. Bognor Regis,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 Thomas, R. E., McLellan, J., & Perera, R. (2015). Effectiveness of school-based smoking prevention curricul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J open, 5*(3), e006976.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4). *Surgeon general's report: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50 years of progress*. Atlanta, GA: CDC.
- WHO (1999).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environmental tobacco smoke(ETS) and child health.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김순환,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이메일 ksh6220@ewha.ac.kr

Abstract

The Pilot Application and the Effects of the Smoking Preven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Hoewook Chung, Soon Hwan Kim, Ji Young Lee and Hyeonji Lee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smoking preven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in middle and long term and to evaluate the program satisfac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67 children aged 3-5 years old who were at the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nd 54 teachers who operated the program.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knowledge of prevention, attitude, and practical ability of the children improved through the pilot application of the smoking prevention program. Second, the teachers'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was high, and the teachers suggested that teacher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connection with families and differentiation of activities according to ages need improvement.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smoking preven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the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the smoking preven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Key words: smoking prevention program, smoking preven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pilot application of the smoking preven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인식 분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다양화를 중심으로*

박창현¹⁾ 양미선²⁾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 실행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원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여 누리과정의 질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6년 9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총 868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식과 요구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에 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원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차이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누리과정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누리과정의 성과는 오전 일과 중 특별활동의 감소, 바깥놀이 시간 증가, 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 경감,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교육과 보육의 평등성 강화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낮게 나타났다. 셋째, 누리과정 도입 후, 현장의 교육·보육과정이 획일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획일화원인은 누리과정 운영시간과 일과시간의 획일화, 누리과정 CD와 지도서를 그대로 활용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역량으로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능력, 유아의 발달 및 심리적 특성 등이, 원장 역량으로는 교직원 간의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조정능력,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지원 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추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유아교사, 누리과정,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

* 본 논문은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박창현·양미선·조혜주, 2016)의 연구의 일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1)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2)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I. 서론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현재 누리과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실천해왔다. 특히 2011년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부터 만 3, 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시행하여 한국의 모든 3-5세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받게 되었으며, 누리과정을 받는 아이들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누리과정’ 정책은 무상교육·보육 정책인 동시에,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을 동시에 의미하는 기표가 되었다.

누리과정의 애초 목표는 취학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초기 동등한 학습 출발선을 제공하여 국가가 약속한 0-5세 영유아교육·보육의 국가 완전책임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1; 교육과학기술부, 2011). 실제로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현장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높아졌고, 교육·보육의 책무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 높아졌다. 또한 누리과정 정책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3-5세 가정에는 부모의 가구소득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학비/보육료가 지급되어 가계 부담도 완화시킨 효과를 나타냈다(이진화·박창현·윤지연, 2015; 이윤진·이규림·조아라, 2014). 정책 시행 초기에는 사실상 12년으로 확대되는 의무교육 효과를 기대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러나 정책 실행과정에서 누리과정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자체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문제를 풀지 못해 고비를 겪었으며,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였다는 한계점이 나타났다(박창현, 2016; 이옥, 2016). 즉, ‘누리과정’은 유치원의 유아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3-5세 보육과정을 통합한 ‘유·보 통합형 커리큘럼’임에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부족하였다는 비판이었다. 이와 더불어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의 질의 문제와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이진화, 박창현, 윤지연(2015)에 따르면,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전국의 3-5세 교육·보육과정이 다양성을 잃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학계에서는 누리과정의 운영 기제가 위에서 아래로(top-down) 방식, 충실도의 관점이 보다 강조될 때, 영유아의 흥미와 경험, 가정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과정의 실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이경화, 2014; 정선아, 2014; 김은주, 2013). 특히 영유아의 다양한 발달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부족함

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어왔다.

이상의 이슈들은 그간 교육과정 정책에서 ‘교육과정 자율화 및 다양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 ‘교육과정 자율화 및 다양화’란 교육·보육과정의 분권화라는 지향 하에 교원의 교육과정 리더십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지역사회, 학부모, 학습자의 요구를 수렴한 후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질을 제고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려는 행위를 말한다(곽영순 외, 2013; 조난심 외, 2009). 즉,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를 통해 각 단위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교육과정의 규제적 속성을 완화하고 기관에서 구성원들의 교육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기관의 특성 및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산출 및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영근 외, 2010, p. 17). 이러한 교육과정 자율화의 개념은 초등 6차 교육과정 이후 다양화, 특성화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주로 자율화 개념과 함께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박순경(2009)은 우리나라에서는 분권화는 지역화를, 지역화는 자율화를, 자율화는 특성화, 다양화와 연결된다고 하였다.

유아교육과정도 초등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5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에 지역화와 자율화를 명시하였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이미 제 1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유아교육과정 내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 분권화, 자율화의 의미를 구현해 왔다. 예를 들어,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1969. 2. 19. 문교부령 제207호)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도록, 그리고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할 것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문교부, 1969). 이러한 의미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과정 자율화·다양화란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양질의 교육·보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기관의 특색을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을 만들어 유아에게 유의미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종합하면, 앞으로의 누리과정은 국가수준의 유아교육·보육과정으로서, 유·보통합형 커리큘럼으로서 그 위상에 맞게 연구되어야 하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누리과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나타난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수준의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준에서, 학급 수준에서 유아의 특성과 요구에 알맞은 교육·보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의 영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양상에 중점을 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과 성과를 교육·보육과정 자율화와 다양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이해정도, 누리과정의 긍·부정적 성과, 교육·보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교사가 원하는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교육·보육과정의 확실적 운영 여부와 원인, 교사와 원장에게 필요한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 등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인식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과정 정책의 변화에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누리과정 이해 정도, 누리과정 성과와 문제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에 대한 인식, 확실적 운영과 원인에 대한 인식, 교사와 원장의 역량)과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절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원감의 누리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9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총 868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표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혼합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단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균등 층화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 유형의 모수에 기초하여 비율층화표집방법³⁾을 적용하였다. 유치원이 451개, 어린이집이 417개로 각각 52.0%, 48.0%로 비슷한 비중으로 구성되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치원 설립유형의 경우, 사립사인이 41.9%, 공립병설이 40.4%이었다. 어린이집 설립유형의 경우에는 민간이 58.0%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국공립이 15.3%를 차지하였다. 소재지의 경우 대도시가 40.1%, 중소도시가 33.5%, 읍면지역이 26.4%의 순이었다. 유치원 규모에서는 50명 미만이 31.5%로 가장 많았고, 50명에서 100명이 26.6%로 그 다

3) 표본 할당은 유치원은 국공립 200, 사립 200, 어린이집은 국공립 50, 민간 250, 법인단체 등 30, 사회복지법인 40, 직장 30의 비율로 설정함.

음을 차지하였다. 200명 이상도 7.3%로 낮은 비율이지만 포함되었다. 어린이집 규모의 경우 30명 이상 60명 미만의 경우 3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명 이상 90명 미만이었다. 유치원 학급수의 경우 1-2개가 29.5%로 가장 많았고, 학급수가 많아짐에 따라 비율은 점차 낮아졌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학급 수에 따라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어린이집 학급수의 경우 5개 이상이 78.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4개인 경우가 13.7%, 3개인 경우가 6.2% 등으로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응답 기관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특성		빈도	비율	가중비율
기관유형	유치원	451	52.0	52.0
	어린이집	417	48.0	48.0
	전체	868	100.0	100.0
유치원 설립유형	공립단설	21	2.4	4.7
	공립병설	182	21.0	40.4
	사립법인	59	6.8	13.1
	사립사인	189	21.8	41.9
	소계	451	52.0	100.0
	미응답	417	48.0	-
	전체	868	100.0	-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64	7.4	15.3
	사회복지법인	40	4.6	9.6
	법인단체/부모협동	35	4.0	8.4
	민간	242	27.9	58.0
	직장	36	4.1	8.6
	소계	417	48.0	100.0
	미응답	451	52.0	-
전체	868	100.0	-	
소재지	대도시	348	40.1	40.1
	중·소도시	291	33.5	33.5
	읍면지역	229	26.4	26.4
	전체	868	100.0	100.0
유치원 규모	50명 미만	142	16.4	31.5
	50-100명 미만	120	13.8	26.6
	100-150명 미만	96	11.1	21.3
	150-200명 미만	60	6.9	13.3
	200명 이상	33	3.8	7.3
	소계	451	52.0	100.0
	미응답	417	48.0	-
	전체	868	100.0	-

(표 1 계속)

특성		빈도	비율	가중비율
어린이집 규모	30명 미만	48	5.5	11.5
	30-60명 미만	162	18.7	38.8
	60-90명 미만	101	11.6	24.2
	90-120명 미만	49	5.6	11.8
	120-150명	25	2.9	6.0
	150명 이상	32	3.7	7.7
	소계	417	48.0	100.0
	미응답	451	52.0	-
유치원 학급수	전체	868	100.0	-
	1-2개	133	15.3	29.5
	3-4개	119	13.7	26.4
	5-6개	106	12.2	23.5
	7개 이상	93	10.7	20.6
	소계	451	52.0	100.0
	미응답	417	48.0	-
어린이집 학급수	전체	868	100.0	-
	1개	2	0.2	0.5
	2개	5	0.6	1.2
	3개	26	3.0	6.2
	4개	57	6.6	13.7
	5개 이상	327	37.7	78.4
	소계	417	48.0	100.0
	미응답	451	52.0	-
전체	868	100.0	-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93.8%로 대다수였으며, 30-40대가 53.5%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학력의 경우, 전문대졸 26.3%, 대졸 35.6%, 대학원졸이 35.4%로 전문대졸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기타는 2.8%로 학점은행제 졸업자이거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 무응답 경우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경력의 경우, 3년 미만은 7.1%로 가장 낮았고, 3-6년 미만 12.9%, 6-10년 미만은 16.8%, 10-15년은 22.5%, 14-20년 미만은 16.4%로 거의 비율상으로 비슷하였으며, 20년 이상은 2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기관의 경력은 2년 미만이 2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2-4년 미만이 23.4%였다. 응답한 교직원의 직책으로는 교사가 41.9%로 가장 높았으며, 원장이 24.1%, 부장(주임)교사가 20.3%, 원감이 13.5%였다. 담당유아연령으로는 만 5세반이 29.0%, 만 3세반이 26.0%, 혼합연령이 19.9%, 만4세가 10.0%의 순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특성		빈도	비율	가중비율
성별	여성	814	93.8	93.8
	남성	54	6.2	6.2
	전체	868	100.0	-
연령	20대	79	9.1	9.1
	30대	204	23.5	23.5
	40대	263	30.3	30.3
	50대	153	17.6	17.6
	60대 이상	15	1.7	1.7
	무응답	154	17.7	17.7
	전체	868	100.0	-
학력	전문대졸	228	26.3	26.3
	대졸	309	35.6	35.6
	대학원졸	307	35.4	35.4
	기타	24	2.8	2.8
	전체	868	100.0	-
전체 경력	3년 미만	62	7.1	7.1
	3-6년 미만	112	12.9	12.9
	6-10년 미만	146	16.8	16.8
	10-15년	195	22.5	22.5
	15-20년 미만	142	16.4	16.4
	20년 이상	211	24.3	24.3
	전체	868	100.0	100.0
현 기관 경력	2년 미만	246	28.3	28.3
	2-4년 미만	203	23.4	23.4
	4-6년 미만	121	13.9	13.9
	6-10년	127	14.6	14.6
	10년 이상	171	19.7	19.7
	전체	868	100.0	-
직책	교사	364	41.9	41.9
	부장(주임)교사	176	20.3	20.3
	수석교사	2	.2	.2
	원감	117	13.5	13.5
	원장	209	24.1	24.1
	전체	868	100.0	-
담당유아 연령	만 3세	226	26.0	26.0
	만 4세	87	10.0	10.0
	만 5세	252	29.0	29.0
	혼합연령	173	19.9	19.9
	총괄	130	15.0	15.0
	전체	868	100.0	100.0

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원감의 누리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총 5개의 항목에 총 61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고,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전문가 3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받았다. 교육과정 및 보육전문가 3인은 유아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10년 이상 현직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내용 전문가 3인의 학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문항은 누리과정 이해 정도 인식 1문항, 누리과정의 긍정적, 부정적 성과 24문항, 학급수준 교육·보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인식과 자율적 운영이 어려운 이유 13문항, 교육·보육과정의 획일적 운영 여부와 그 원인 2문항, 교사와 원장에게 필요한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 21문항이었다.

누리과정의 이해 정도는 교사가 누리과정을 숙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거의 모르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적절히 알고 있다’, ‘완전히 알고 있다’의 리커트 5점 척도에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누리과정의 긍정적인 성과는 교육과 보육의 질이 높아짐, 유아와 학부모의 보육 만족도와 참여가 높아짐, 교육과 보육의 평등성이 강화됨,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됨, 교육보육과정을 통해 유보통합이 강화됨, 오전일과 중 특별활동이 줄어들 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에 답하도록 되어 있다. 누리과정의 부정적 성과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해 생활주제 및 활동이 획일화됨, 국가의 규제와 개입의 수준이 높아짐, 교육보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이 약화됨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생각을 정도를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누리과정의 지침에 맞추어야 해서 등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에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보육과정 역량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을 유아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 창의와 인성교육 운영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통합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 등의 문항을, 원장에게 필요한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과 이해,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미래 교육 및 보육비전에 관한 안목 등을 문항을 중심으로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표 3〉 문항 내용과 문항수

구분	항목	문항	문항수
1	누리과정 이해 정도 인식	1	1
2	누리과정의 긍정적, 부정적 성과 인식	2,3,4,5,6,7,8,9,10,11,12,13,14,15, 16,17,18,19,20,21,22,23,24,25,	24
3	교육·보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인식과 자율적 운영이 어려운 이유	26,27,28,29,30,31,32,33,34,35,36,37,38	13
4	교육·보육과정의 확립적 운영 여부와 원인	39, 40	2
5	교사와 원장에게 필요한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	41,42,43,44,45,46,47,48,49,50,51, 52,53,54,55,56,57,58,59,60,61	21
총계			61

3.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첫째, 주요 변인의 기초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 12.0 영어버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Ⅲ. 분석결과

1. 누리과정 이해 정도 인식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누리과정 이해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균은 4.00으로 비교적 숙지하고 있다고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숙지 수준이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누리과정 숙지 수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누리과정 이해 정도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 분석

단위: %, 점

문항	거의 모름	잘 모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적절하게 알고 있음	완전히 알고 있음	평균	표준 편차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 수준	0.10	0.60	18.90	59.90	20.50	4.00	0.65

〈표 5〉 누리과정 이해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문항	기관유형	평균	표준편차	t
누리과정 숙지 수준	유치원	4.10	0.66	2.97*
	어린이집	3.90	0.65	

* $p < .05$

2. 누리과정의 성과 인식

가. 누리과정의 긍정적 성과 인식

누리과정의 긍정적 성과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석결과를 보면, 11개의 항목 전체의 평균은 3.46으로 중간 이상의 인식 수준을 보였다. 문항별로는 오전 일과 중 특별활동의 감소, 바깥놀이 시간 증가, 부모의 교육부담 경감,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교육과 보육의 평등성 강화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의 경우에는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유형에 따라서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문항은 교육·보육의 질 향상, 유아와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와 참여 향상, 교육·보육의 평등성 강화, 교육과정을 통한 유보통합 강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바깥놀이 시간 증가, 초등과의 연계 강화였다. 이중 바깥놀이 시간 증가의 경우에만 유치원의 경우가 어린이집의 경우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다른 문항은 모두 어린이집이 유치원 보다 평균이 높았다.

〈표 6〉 누리과정의 긍정적 성과 인식 기술통계 분석

단위: %, 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교육과 보육의 질이 높아짐	2.90	10.80	32.60	42.90	10.80	3.50	0.93
유아와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와 참여가 높아짐	2.30	13.70	40.80	35.00	8.20	3.30	0.89
교육과 보육의 평등성이 강화됨	3.90	13.60	28.60	39.90	14.10	3.50	1.02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됨	2.90	12.30	28.80	36.90	19.10	3.60	1.02
교육과정을 통한 유보통합이 강화됨	6.00	15.60	31.80	33.10	13.60	3.30	1.08
오전일과 중 특별활동이 줄어듦	3.60	9.70	22.00	37.80	27.00	3.80	1.07
유아기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인식이 증대함	5.10	12.40	30.90	35.70	15.90	3.50	1.06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	10.70	18.90	35.00	26.80	8.50	3.00	1.11
바깥놀이 시간이 늘었음	2.00	7.50	28.60	41.20	20.70	3.70	0.94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보다 많아짐	9.70	15.60	30.80	32.50	11.50	3.20	1.14
초등과의 연계가 보다 강화됨	6.00	15.10	36.20	33.30	9.40	3.30	1.02
전체						3.50	0.99

〈표 7〉 누리과정의 긍정적 성과 인식 차이분석

문항	기관유형	평균	표준편차	t
교육과 보육의 질이 높아짐	유치원	3.30	0.98	-8.32***
	어린이집	3.70	0.79	
유아와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와 참여가 높아짐	유치원	3.20	0.93	-4.94***
	어린이집	3.50	0.83	
교육과 보육의 평등성이 강화됨	유치원	3.30	1.01	-5.00***
	어린이집	3.60	1.01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됨	유치원	3.60	1.05	-0.68
	어린이집	3.60	0.99	
교육과정을 통한 유보통합 강화	유치원	3.10	1.08	-7.51***
	어린이집	3.60	1.01	
오전일과 중 특별활동의 감소	유치원	3.70	1.07	-0.37
	어린이집	3.80	1.07	
유아기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인식 증대	유치원	3.50	1.08	0.47
	어린이집	3.40	1.04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유치원	2.90	1.18	-4.73***
	어린이집	3.20	0.99	
바깥놀이 시간이 늘었음	유치원	4.00	0.93	7.86***
	어린이집	3.50	0.90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보다 많아짐	유치원	3.10	1.20	-1.86
	어린이집	3.30	1.06	
초등과의 연계가 보다 강화됨	유치원	3.00	1.06	-7.66***
	어린이집	3.50	0.90	

*** $p < .001$

나. 누리과정의 부정적 성과 및 문제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가 인식하는 누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평균 3.35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항목별로 보면, 대부분 평균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약화, 부모 교육비 부담, 초등과의 연계 약화 등이 평균 이하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8〉 누리과정의 문제점 인식 기술통계 분석

단위: %, 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약화	2.80	17.40	34.10	34.40	11.30	3.30	0.98
학사운영이 획일화	3.90	16.20	24.50	41.90	13.40	3.50	1.04
일과운영이 획일화	4.10	16.80	25.70	40.30	13.00	3.40	1.04
생활주제 및 교육활동의 획일화	3.50	14.60	25.10	42.10	14.70	3.50	1.02

(표 8 계속)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행정서류 및 교육·보육과정 운영 관련 서류 작성 업무증가	1.60	7.10	24.50	37.40	29.30	3.90	0.97
국가의 규제와 개입 수준 증가	1.60	6.90	21.10	41.20	29.10	3.90	0.96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재구성의 폭의 감소	3.20	16.70	29.60	34.20	16.20	3.40	1.05
연령별 교육·보육과정 도입으로 인한 혼합연령반 구성의 어려움	3.70	15.30	30.20	32.90	17.90	3.50	1.07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감소 (레지오 에말리아, 생태교육 숲 프로그램 등)	4.00	14.40	25.80	32.10	23.60	3.60	1.12
부모 교육비 부담 증가	21.40	34.60	34.90	7.30	1.80	2.30	0.95
초등 연계 약화	11.40	31.90	45.20	8.60	2.90	2.60	0.90
전체						3.40	1.01

<표 9>는 앞서 살펴본 누리과정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교육·보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약화와 초등과의 연계 약화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고, 학사 운영 및 일과 운영의 획일화, 부모교육비 부담 증가는 반대로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다. 부모 교육비의 증가와 초등연계의 약화는 평균이 2.3과 2.6으로 다소 낮아 다른 항목에 비해 누리과정 운영의 측면에서 문제 크게 인식하지는 않고 있으나, 부모교육비 증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교사, 초등연계의 약화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9> 누리과정의 문제점 인식 차이분석

문항	기관유형	평균	표준편차	t
교육·보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약화됨	유치원	3.40	1.02	3.00*
	어린이집	3.20	0.93	
학사운영이 획일화됨	유치원	3.30	1.09	-3.63***
	어린이집	3.60	0.96	
일과운영이 획일화됨	유치원	3.30	1.08	-2.48*
	어린이집	3.50	0.99	
생활주제 및 교육활동의 획일화	유치원	3.50	1.08	-1.50
	어린이집	3.60	0.96	
행정서류 및 교육·보육과정 운영 관련 서류 작성 업무 증가	유치원	3.90	0.99	1.67
	어린이집	3.80	0.95	

(표 9 계속)

문항	기관유형	평균	표준편차	t
국가의 규제와 개입 수준이 높아짐	유치원	3.90	0.99	0.55
	어린이집	3.90	0.92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재구성의 폭이 좁아짐	유치원	3.50	1.10	0.43
	어린이집	3.40	0.99	
연령별 교육·보육과정의 도입으로 혼합연령반 구성이 어려움	유치원	3.40	1.10	-0.66
	어린이집	3.50	1.03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줄어들(레지오 에밀리아, 생태교육, 숲 프로그램 등)	유치원	3.60	1.17	-0.65
	어린이집	3.60	1.06	
부모 교육비 부담 증가	유치원	2.30	0.99	-2.09*
	어린이집	2.40	0.91	
초등과의 연계 약화	유치원	2.70	0.93	4.95***
	어린이집	2.40	0.85	

* $p < .05$, *** $p < .001$

3. 학급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인식

가. 교육·보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다음은 학급수준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평균이 5점 만점에 평균 2.86점으로 중간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10〉 학급수준 교육·보육과정 운영 인식 기술통계 분석

단위: %, 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교육·보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적 구성	1.50	21.30	67.20	10.00	2.90	0.59

또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에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치원 교사가 5점 만점에 평균 2.96점이고, 어린이집 교사가 평균 2.74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11〉 학급수준 교육·보육과정 운영 인식 차이분석

문항	기관유형	평균	표준편차	t
교육·보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운영	유치원	2.90	0.55	5.63***
	어린이집	2.70	0.62	

*** $p < .001$

나. 교사가 원하는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교사가 원하는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3.10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11개 항목 중 평균이 높게 나타난 항목들은 연구시간이 부족해서, 유치원 평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해야 해서, 행사 준비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가 과다하여, 누리과정의 지침에 맞추어야 해서, 부모의 인지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였다. 누리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교사 개인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 부족, 교육과정에 관한 연수나 컨설팅 부족, 원의 분위기 또는 문화의 비민주성, 강사 위주의 특별활동 또는 특성화 활동의 파행적 운영 5개 항목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표 12〉 원하는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인식 기술통계 분석
단위: %, 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누리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10.6	44.4	37.4	7.6	0.0	2.40	0.78
누리과정의 지침에 맞추어야 해서 (생활주제 등)	2.0	8.6	30.3	48.5	10.6	3.60	0.87
교사 개인의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하여	8.6	36.4	31.8	21.2	2.0	2.70	0.96
교육·보육과정에 관한 연수나 컨설팅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9.1	35.9	34.8	17.7	2.5	2.70	0.95
행사준비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 과다하여	2.5	10.6	19.7	37.4	29.8	3.80	1.06
연구할 시간 부족하여	1.0	5.6	22.2	43.4	27.8	3.90	0.90
유치원 평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해야 해서	2.0	5.1	20.7	36.9	35.4	3.90	0.97
기관의 교육·보육과정이 이미 짜여 있으므로	2.5	17.2	35.9	33.3	11.1	3.30	0.97
학부모들의 인지교육(한글, 수, 영어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3.0	11.1	33.8	39.4	12.6	3.50	0.95
원의 분위기 또는 문화가 민주적이지 않으므로	25.3	37.4	23.2	10.6	3.5	2.30	1.07
강사 위주의 특별활동 또는 특성화 활동의 파행적 운영	26.8	31.8	27.8	11.6	2.0	2.30	1.05
전체						3.10	0.96

교사가 원하는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누리과정 지침에 따른 운영, 교육·보육과정에 관한 연수 또는 컨설팅 받지 못해서, 유치원·어린이집 평가를 위한 지침 준수해야 해서 3개 항목이다. <표 13>와 같

이 3개 항목 모두 어린이집 교사보다 유치원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인식하고 있었다.

〈표 13〉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인식 차이분석

문항	기관유형	평균	표준편차	t
누리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유치원	2.30	0.83	-1.44
	어린이집	2.50	0.75	
누리과정의 지침에 맞추어야 해서 (생활주제 등)	유치원	3.30	0.94	-2.77**
	어린이집	3.70	0.81	
교사 개인의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하여	유치원	2.70	1.02	0.19
	어린이집	2.70	0.94	
교육·보육과정에 관한 연수나 컨설팅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유치원	2.50	0.94	-2.34*
	어린이집	2.80	0.94	
행사 준비 및 서류 작성 등의 업무 과다하여	유치원	3.90	1.08	0.81
	어린이집	3.80	1.05	
연구할 시간 부족하여	유치원	3.90	1.01	-0.19
	어린이집	3.90	0.84	
유치원·어린이집 평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해야 해서	유치원	3.70	1.07	-3.30**
	어린이집	4.20	0.88	
기관의 교육과정이 이미 짜여 있으므로	유치원	3.20	1.06	-1.65
	어린이집	3.40	0.91	
학부모들의 인지교육(한글, 수, 영어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유치원	3.30	0.91	-1.62
	어린이집	3.60	0.97	
원의 분위기 또는 문화가 민주적이지 않으므로	유치원	2.40	1.11	1.22
	어린이집	2.20	1.05	
강사 위주의 특별활동 또는 특성화 활동의 파행적 운영	유치원	2.10	1.03	-1.80
	어린이집	2.40	1.05	

* $p < .05$, ** $p < .01$

4. 누리과정 운영의 획일화 인식

가. 교육·보육과정의 획일적 운영 여부

다음은 누리과정 도입 후 교육·보육과정의 획일적 운영 확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교육과정이 이전보다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질문에 40.2%가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5.5%는 매우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2.80점이다.

<표 14> 누리과정 도입 후 교육·보육과정의 획일적 운영 확대 인식 기술통계 분석
단위: %, 점

문항	매우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전과 차이없다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보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평균	표준 편차
교육과정이 이전보다 획일적으로 운영	5.50	40.20	29.50	18.50	6.20	2.80	1.00

<표 15>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유치원은 평균 2.82점, 어린이집은 평균 2.77점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누리과정 도입 후 교육·보육과정의 획일적 운영 확대 인식 차이분석

문항	기관유형	평균	표준편차	t
교육·보육과정이 이전보다 획일적으로 운영	유치원	2.80	1.02	.77
	어린이집	2.80	1.00	

나. 교육·보육과정의 획일적 운영 원인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대상으로 교육과정 획일화의 원인을 조사한 것이다. 응답자 중 28.2%는 누리과정 운영시간과 일과시간의 획일화를 꼽았고, 24.7%는 누리과정 CD와 지도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21.2%는 기관 평가점수를 잘 받으려면 되도록 지도서 지침대로 하는 게 유리해서, 12.6%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정신적 심리적 여유가 없어서 순이었다. 나머지는 5% 내외로 소수이었다.

<표 16> 교육과정의 획일화의 원인 인식 기술통계 분석

단위: %(명)

문항	비율(사례수)
누리과정 CD와 지도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24.70(980)
기관 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면 되도록 지도서의 지침대로 하는 것이 유리해서	21.20(84)
누리과정 예산 지원으로 국가의 관리감독이 보다 높아져서	8.60(34)
누리과정 운영 시간과 일과 시간이 획일화되어 있어서	28.20(112)
교육과정 재구성에 중점을 둔 교사연수가 부족해서	3.30(13)
새로운 것을 시도할 정신적, 심리적 여유가 찾기 어려워서	12.60(50)
기타	1.50(6)
소계	100.00(397)

<표 17>는 교육·보육과정의 획일화 원인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각각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비율을 살펴보면, 누리과정 운영 시간과 일과 시간이 획일화가 28.2%, 누리과정 CD와 지도서 그대로 활용이 24.7%, 기관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지도서의 지침대로 실행 21.2%, 새로운 것을 시도할 정신적/심리적 여유 부족 12.6%, 국가의 관리감독이 보다 높아져서 8.6%, 교육·보육과정 재구성에 중점을 둔 교사연수가 부족해서 3.3% 순이었다.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교사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누리과정 운영 시간과 일과 시간이 획일화가 32.4%, 누리과정 CD와 지도서를 그대로 활용 22.9%, 기관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지도서의 지침대로 실행 19.5%, 새로운 것을 시도할 정신적/심리적 여유 부족 14.3% 순이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누리과정 CD와 지도서 그대로 활용이 26.7%, 누리과정 운영 시간과 일과 시간이 획일화 23.5%, 기관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지도서의 지침대로 실행 23.0% 순이었다.

<표 17> 교육·보육과정의 획일화의 원인 인식과 기관유형 간 비교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전체 비율 (빈도)
	기관내 비율	기관간 비율	빈도	기관내 비율	기관간 비율	빈도	
누리과정 CD와 지도서를 그대로 활용	26.70	51.00	50	22.90	49.00	48	24.70(98)
기관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한 지도서의 지침대로 수행	23.00	51.20	43	19.50	48.80	41	21.20(84)
국가의 관리감독의 강화	12.80	70.60	24	4.80	29.40	10	8.60(34)
누리과정 운영 시간과 일과 시간이 획일화	23.50	39.30	44	32.40	60.70	68	28.20(112)
교육·보육과정 재구성에 중점을 둔 교사연수 부족	1.60	23.10	3	4.80	76.90	10	3.30(13)
새로운 것을 시도할 정신적/심리적 여유 부족	10.70	40.00	20	14.30	60.00	30	12.60(50)
기타	1.60	50.00	3	1.40	50.00	3	1.50(6)
전체	100.0	47.10	187	100.0	52.90	210	100.0(397)

4. 질 높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량

가.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았다.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4.31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11개 항목 모두 4점대로 높았다. 특히, 유아와의 상호작용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4.59점, 유아의 발달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평균 4.47점으로 높았다.

〈표 18〉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 인식 기술통계 분석

단위: %, 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을 유아에게 알맞게 재구성하는 능력	0.10	0.50	12.00	45.70	41.70	4.30	0.70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	0.10	0.60	12.10	49.40	37.80	4.30	0.69
창의인성교육 운영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0.00	0.50	10.00	42.90	46.70	4.40	0.68
교직원 간 의사소통 능력	0.00	0.60	12.60	44.90	41.90	4.30	0.70
자기반성능력 및 지속적인 학습 능력	0.00	0.50	9.60	43.70	46.30	4.40	0.67
유아의 발달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0.10	0.30	7.70	35.90	55.90	4.50	0.66
다양한 교수학습이론에 관한 지식	0.00	0.60	13.80	46.00	39.60	4.30	0.71
유아와의 상호작용 능력	0.00	0.20	5.90	28.60	65.30	4.60	0.61
평가기준, 방법 및 도구의 개발 및 활용 능력	0.30	1.30	14.30	49.00	35.10	4.20	0.74
유아와 학부모의 교육·보육과정 관련 요구와 필요를 조사하여 반영하는 능력	0.10	1.40	17.90	48.60	32.00	4.10	0.74
주제 및 영역 간 통합교육·보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	0.00	0.20	9.70	47.50	42.60	4.30	0.65
전체						4.30	0.69

앞서 살펴본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 인식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1개 항목 중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유아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 교직원 간 의사소통 능력, 자기반성 능력 및 지속적인 학습능력 4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들 모두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19〉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 인식 차이분석

문항	기관유형	평균	표준편차	t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을 유아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	유치원	4.40	0.69	3.80***
	어린이집	4.20	0.69	

(표 19 계속)

문항	기관유형	평균	표준편차	t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	유치원	4.30	0.68	2.16*
	어린이집	4.20	0.69	
창의·인성교육 운영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유치원	4.40	0.68	1.00
	어린이집	4.30	0.67	
교직원간 의사소통 능력	유치원	4.30	0.69	2.31*
	어린이집	4.20	0.71	
자기반성능력 및 지속적인 학습능력	유치원	4.40	0.66	2.79**
	어린이집	4.30	0.68	
유아의 발달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유치원	4.50	0.66	0.36
	어린이집	4.50	0.66	
다양한 교수학습이론에 관한 지식	유치원	4.20	0.71	-0.60
	어린이집	4.30	0.69	
유아와의 상호작용 능력	유치원	4.60	0.61	0.33
	어린이집	4.60	0.62	
평가기준, 방법 및 도구의 개발 및 활용 능력	유치원	4.20	0.78	0.10
	어린이집	4.20	0.69	
유아와 학부모의 교육·보육과정 관련 요구와 필요를 조사하여 반영하는 능력	유치원	4.20	0.74	1.38
	어린이집	4.10	0.75	
주제 및 영역간 통합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	유치원	4.40	0.63	1.92
	어린이집	4.30	0.67	

* $p < .05$, ** $p < .01$, *** $p < .001$

나. 원장의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

원장도 교사와 유사하게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의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4.44점으로 교사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교사와 마찬가지로 10개 항목 모두 평균 4점이상의 높은 운영 역량을 보여주었다. 항목 중 교직원 간의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조정능력이 평균 4.56점,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지원 평균 4.53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평균 4.50점으로 높았다.

〈표 20〉 원장의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 인식 기술통계 분석

단위: %, 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에 관한 지식과 이해	0.30	0.00	7.80	42.90	49.00	4.40	.066

(표 20 계속)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기관이 위치한 지역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 등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는 능력	0.00	0.30	7.50	42.20	50.00	4.40	0.64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0.00	0.50	11.6	43.80	44.10	4.30	0.69
미래 교육비전에 대한 안목	0.00	0.10	9.90	39.50	50.50	4.40	0.67
교직원 간의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조정능력	0.00	0.20	6.00	31.80	62.00	4.60	0.62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계자에게 교육·보육과정을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0.00	0.20	7.10	37.90	54.70	4.50	0.64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	0.00	0.20	7.90	40.60	51.30	4.40	0.65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0.00	0.00	6.80	36.30	56.90	4.50	0.62
교육·보육과정 운영 혁신에 대한 마인드	0.00	0.50	8.30	40.00	51.30	4.40	0.67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지원	0.00	0.10	6.00	34.80	59.10	4.50	0.62
전체						4.40	0.65

교사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간에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관이 위치한 지역과 교육수요자의 요구 등을 분석하여 교육·보육과정 편성에 반영하는 능력, 미래 교육비전에 대한 안목, 교직원 간의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조정능력,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계자에게 교육과정을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지원 등 10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차이가 유의하였고, 모두 유치원 원장의 인식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21〉 원장의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 인식 차이분석

문항	기관유형	평균	표준편차	t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에 관한 지식과 이해	유치원	4.40	0.69	1.46
	어린이집	4.40	0.63	
기관이 위치한 지역과 교육수요자의 요구 등을 분석하여 교육·보육과정 편성에 반영하는 능력	유치원	4.50	0.63	2.91*
	어린이집	4.40	0.66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유치원	4.30	0.70	.75
	어린이집	4.30	0.68	
미래 교육비전에 대한 안목	유치원	4.50	0.63	2.57*
	어린이집	4.30	0.70	
교직원 간의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조정능력	유치원	4.60	0.58	3.16**
	어린이집	4.50	0.65	

(표 21 계속)

문항	기관유형	평균	표준편차	t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계자에게 교육과정을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유치원	4.60	0.580	3.92***
	어린이집	4.40	0.68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	유치원	4.50	0.62	3.57***
	어린이집	4.40	0.67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유치원	4.50	0.61	1.75
	어린이집	4.50	0.63	
교육·보육과정 운영 혁신에 대한 마인드	유치원	4.50	0.65	1.48
	어린이집	4.40	0.68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지원	유치원	4.60	0.58	3.17**
	어린이집	4.50	0.64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사들의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법적기반과 양성과정이 상이하므로 두 집단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점은 연구문제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누리과정 이해정도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모두 평균 4.00으로 스스로 이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관심도, 만족도, 교사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수준도 높았다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김영희·김수향, 2015; 유희정, 2015; 차봉진·홍순옥·김근혜, 2015; 손수연·이기숙, 2013), 교사의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 연구에서 교사들은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정도가 스스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이정옥·양지애, 2012; 손수연·이기숙, 2012), 본 연구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른 선행연구들과 다소 다르게 양상을 보였다. 이정옥·양지애(2012)의 5세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에서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누리과정 이해 정도에 대한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손수연·이기숙(2012)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학력과 경력이 높을수록, 국공립, 단일연령 학급일수록 누리과정의 인식의 정도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와는 달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대상으로 하였고, 유치원 교사의 누리과정 인식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점은 이상의 연구와 차별적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교육부 산하에서 1969년부터 1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던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해왔기 때문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와 인식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아닐지 잠정적 추정은 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과의 평균의 차이는 거의 미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누리과정의 성과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누리과정의 긍정적 성과로 오전 일과 중 특별활동 감소, 바깥놀이 시간 증가, 부모의 교육부담경감, 교육과 보육 질 향상, 교육과 보육의 평등성 강화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진화·박창현·윤지현(2015)의 연구와 상당히 일치한다. 이 중, 바깥놀이 시간증가의 경우만 유치원 교직원이나 어린이집 교직원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정옥, 박진이(2013)에 의하면, 서울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은 하루 4.98시간동안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1시간 정도의 바깥놀이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기관평가에서 바깥놀이 1시간 이상 운영이 기관평가의 중요한 항목이고,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기관 유형별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들의 바깥놀이 시간 증가에 대해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추후 보다 자세한 근거와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장의 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2013년 이후 서울시 교육청의 바깥놀이 실태조사와 교육부의 누리과정 운영 방침 및 평가기준들은 유치원 교사들의 바깥놀이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연합뉴스, 2013).

한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약화와 초등과의 연계 약화 등에 대해 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고, 일과 운영의 획일화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다. 우선,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과 초등연계는 누리과정 이전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매우 강조했던 사안들이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 반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이 보다 강조되어 있어,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교사의 학급 교육과정의 자율

적 운영과 유초연계 부분은 상당부분 축소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저항하고, 이전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교육과정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Koksal, 2013; Armstrong, 2011). 교사들이 이전의 교육과정을 답습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고, 누리과정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졌던 점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이전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황세윤(2012)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누리과정 도입 초기 만 5세 누리과정의 초등연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도입된지 6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누리과정의 개편, 교사연수 등을 통해 교사의 자율성 강화와 유-초 연계의 강화를 보다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일과운영의 획일화 등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인식은 그간 12시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반일제 중심의 누리과정 도입되면 어린이집에서 체감하는 인식의 결과일 수 있다. 4-5시간의 기본과정과 방과 후 시간으로 쪼개지는 일과운영의 변화에 대해 어린이집의 불만이 2013년 이후 보다 높아졌다. 실제로 박창현·양미선·조혜주(2016)의 연구의 어린이집 사례조사를 살펴보면, 누리과정은 국가가 제시한 3-5세 영유아를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담은 표준이지 일과과정은 아니므로, 누리과정 운영 시간을 4-5시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비판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들이 학급 수준의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누리과정 지침에 맞추어야 해서, 교육보육과정에 관한 연수 또는 컨설팅을 받지 못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해야해서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경화(2014), 정선아(201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그간 교육·보육과정 운영과 재정지원이 누리과정 정책으로 묶여지면서 실행되다보니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의 책무성과 충실도가 더욱 강조되었고, 정부의 성과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상세하게 규정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평가의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었고, 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인식하는 현상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도입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50%가 교육·보육과정이 이전보다 획일화되었다고 인식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누리과정 CD와 지도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24.7%, 누리과정 운영시간과 일과시간이 획일화되어 있어서 28.2%로 답하였다. 즉,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교사들의 편의를 돕고자 누

리과정 CD와 지도서를 국가가 제시해주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교육활동의 실체를 보다 확일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윤희·황해익(2014)이 밝힌 바와 같이 교사들의 대다수가 아직도 누리과정 에 대한 이해를 교육목표에 중점을 두는 해석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누리과정 지도서를 주 자료로 활용하여 교육하는 텍스트관, 실체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시간과 일과시간의 확일화는 세 번째 연구문제와 맞물리며 현장의 확일화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확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45.7이었으나,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29.5, 확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18.5, 보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평가한 의견과 확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는 이전부터 확일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중립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수도 있으며, 누리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을 바꿀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냉소적인 반응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추후 조사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확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의견이 50%에 가까웠으나, 근소한 차이로 넘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만큼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는 않았으나, 누리과정 전반에서 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교사의 인식은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서 나타나는 관점의 차이,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연수의 부재, 또는 평가인증이나 유치원 평가로 인한 오해 등의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와 원장의 역량에 대한 인식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 중요한 교사의 역량으로 유아와의 상호작용 능력, 유아의 발달과 심리적 이해를 들었다. 특히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을 유아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 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 교직원간의 의사소통, 자기반성능력 및 지속적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역량은 유치원 교원의 주요 핵심역량으로(신은수 외, 2011) 이해되며, 교사들은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의 역량의 경우, 교직원간의 의사소통 능력,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치원 원장의 역량의 경우, 기관이 위치한

지역과 수요자 요구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능력, 미래 교육비전에 대한 안목, 교직원간의 의사소통을 조정하는 능력,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교육과정을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능력,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지원에 인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역량은 최근 주목받는 기관장의 지속가능한 리더십(Hargreaves, & Fink, 2006)과 맥을 같이 한다. 현장에서는 책무성보다 책임감을 강조하고, 협력적 네트워크와 민주적인 운영, 다양성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누리과정’이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정책이 현장에서 다양한 적용되기를 바라고 지속가능한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누리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누리과정 시행 6년차에 접어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누리과정이 현장에서 확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각각의 유형별 차이와 교사의 개인특성 배경인 학력, 경력 등과의 관계성을 살펴보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속된 기관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교사들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 문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맥락적 원인은 자세하게 조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질적 면담 등을 통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를 위한 국가수준의 공통교육과정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행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교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의 이해를 높여 현장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획일적인 평가지표나 과도한 행정업무 해소 등을 통해 교사가 누리과정 실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조교사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개편, 교사전문공동체 지원,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강화 연수 등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누리과정은 한국의 모든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공통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누리

과정은 최소한의 방침과 지침으로 자리매김해야할 필요가 있다. 수업과 일정표(timetable)에 아이들이 끼워 맞추어지고, 국가의 교육 표준화와 책무성의 압력으로 교사의 자율성과 다양한 목소리가 감안된다면, 누리과정이 애초 추구했던 교육의 목표와 이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국가가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누리과정 속에서 아이와 교사가 살아움직이는 지속가능한 교육과정 운영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영순·백경선·이미숙·민재원·김용(2013). 교사의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과학기술부(200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1 총론 (2007 개정).
-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실상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 12. 14). 5세 누리과정 만 4세, 만 3세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2). 만 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 김영희·김수향(2015).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관심도와 실행경험.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1), 419-438.
- 김윤희·황혜익(2014).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교육과정적 이해와 실행. *유아교육학논집*, 18(3), 283-307.
- 김은주(2013). 영유아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11회 연속토론회: 생태유아교육에서 본 누리과정 분석 및 유아교육과정 운영 자율화를 위한 제언. 제 8차 토론회 자료집(2013.9.24.).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 문교부(1969). 1차 유치원 교육과정.
- 박순경(2009). 교육과정 분권화의 가능성과 쟁점. 교육과정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의 방향 탐색을 위한 세미나(P.7).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박창현(2016). 신문기사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 인식과 정책개선방안: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2016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225-242. 육아정책연구소.
- 박창현·양미선·조혜주(2016).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손수연·이기숙(2013). 5세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행수준. 유아교육연구, 33(4), 119-144.
- 신은수·박은혜·조운주·이경민·유영의·이진화·이병호(2011). 유치원 교원 핵심역량 구성 방향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5(5), 203-226.
- 연합뉴스(2013. 7. 21일자). 서울 유치원 10곳 중 1곳 바깥활동 1시간 안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84188> 에서 2017년 3월 31일 인출.
- 유희정(2015). 만 3-4세 보육교사의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따른 실행수준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153-171.
- 이경화(2014). 국가수준 영·유아교육기관평가의 평가지표에 대한 비판적 탐색. 한국교육, 41(2), 107-137.
- 이옥(2016).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제문. 누리과정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유보통합과 누리과정 예산을 중심으로. 국민의 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김삼화, 최도자 주관 정책 자료집. pp. 11-24.
- 이운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옥·양지혜(2012). 5세 누리과정 정책과 교육내용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16(4), 167-192.
- 이정옥·박진이(2013). 어린이집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실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3(6), 339-365.
- 이진화·박창현·윤지연(2015). 3-5세 누리과정 이용 실태와 정책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정선아(2014).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관점에 관한 연구: OECD 6개국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1), 147-164.
- 정영근·이근호·조규판·박지만·강미란(2010).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난심·박순경·이광우·이미숙·정영근·김진숙·민용성·이근호·백경선·김태은·홍원표·남기종·지성환·박경옥·신호근·나장기·안종석·박지만(2009). 교육과정 자율화 현장 적용 모형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차봉진·홍순옥·김근혜(2015).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이 4세 누리과정 실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1), 251-269.
- 황세운(201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새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연계성 분석. 유아교육연구, 32(5), 321-344.

- Armstrong, A. (2011). 4 Key Strategies to Help Educators Overcome Resistance to Change. *Tools for Schools, 14*(2), 1 - 7.
- Koksal, H. (2013). Reducing Teacher Resistance to Change and Innovations. Prepared address, Kingston University, London, England.
- Hargreaves, A. & Fink, D. (2006) Sustainable Leadership.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메일 msyang@kicce.re.kr

Abstract

An Aanalysi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 Teacher's Perception of the Nuri Curriculum Based on Curriculum Autonomy and Diversity

Changhyun Park and Misun 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wareness of teacher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 on the Nuri curriculum implementation based on curriculum implementation autonomy and divers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ECEC. Target sample included 868 teachers in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from September 29 to October 21 in 2016 for an online survey. The descriptive analysis, the cross tab analysis and t-test were implemented for data analysis. The key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in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 seemed to understand the Nuri curriculum in depth relatively. Second, the teachers stated that there were improvements in increase of outdoor play, decrease of parents' financial burden, increase of education and care quality etc.; on the other hand, autonomy and diversity in the Nuri curriculum relatively indicated low performance among the teachers. Third,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curriculum in the field has standardized since the Nuri curriculum began. Fourth, for effective curriculum operation, the teacher competency was found to be the most needed in child-teacher interaction skills, child development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tc., and the director competency in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lict-resolving skill among staffs, and confidence and support for teacher's autonomous curriculum implementation.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Key words: teacher, the Nuri curriculum, curriculum autonomy and diversity

청탁금지법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사례와 향후과제*

김아름¹⁾ 배윤진²⁾ 최윤경³⁾

요약

지난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법의 적용범위와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기본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시행 초기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와 관련 종사자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영유아의 교육·보육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후 3개월 만에 관련부처 유권해석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주요쟁점 고찰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특수성에 따른 향후 개선과제들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유치원, 어린이집

I. 서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금품 등의

* 본 논문은 육아정책연구소 2016년 수시연구과제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적용 사례 연구(김아름·배윤진·최윤경)”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또한 이 글은 2017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2017. 3. 21)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1)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2)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3)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수수를 제재하여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15년 3월 제정되었다.⁴⁾

논의 초기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함)은 공직자 등이 부정하게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목적에서 제안되었다. 하지만 입법과정 중에 적용의 대상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을 비롯하여 언론인 등 정부 등의 공직자 외에도 민간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청탁금지법 해석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T/F”를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해석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공통된 정부의 입장을 제안함과 동시에 법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6). 그러나 법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고, 법의 적용을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통해 유권해석에 의존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전 유권해석을 통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해당기관 관계자(원장 및 교사 등)는 누리과정이라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⁵⁾ 그러나 법 시행 세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지난 12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T/F는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켰다.⁶⁾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학부모, 영유아들에게 동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현행법 적용에 대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법 집행 및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마지막 검색일: 2017. 4. 1)

5) 연합뉴스, 사설어린이집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형평성 논란, 2016. 9. 5. (마지막 검색일: 2017. 4.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5/0200000000AKR20160905089700001.HTML?input=1195m>

6) 연합뉴스,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서 제외”, 2016. 12. 22. (마지막 검색일: 2017. 4.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2/0200000000AKR20161222061900001.HTML?input=1179m>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6년도 수시과제인 김아름 외 (2016)의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이며, 이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1. 연구대상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애로점과 요구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 및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7)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례 수집을 위한 면담 참여자는 유치원 원장 5인, 어린이집 원장 약 34인, 유치원 교사 5인, 어린이집 교사 3인, 그리고 학부모 총 9인이다. 참여 대상자는 <표 1>에서 제시하였다.

<표 1> 면담 참여자

구분	면담 대상	참여자
1	유치원 원장 5인	국공립유치원원장A, B, 사립유치원원장A, B, C
2	유치원 교사 5인	국공립유치원교사A, B, 사립유치원교사A, B, C, D
3	어린이집 교사 3인	민간어린이집교사A, 국공립어린이집교사A, B
4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34인 ¹⁾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원장A, 직장어린이집원장A, B, 가정어린이집원장A
5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9인	학부모A(가정어린이집), 학부모B(공립단설유치원, 가정어린이집), 학부모C(가정어린이집), 학부모D(가정어린이집), 학부모E(민간어린이집), 학부모F(민간어린이집), 학부모G(공립병설유치원), 학부모H(사립유치원), 학부모I(사립유치원, 가정어린이집)

주: 1)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대상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 및 간담회에 참석한 수는 총 90인이나, 그 중 연구진과 면담을 진행(질의응답 및 적용 사례 제시)한 수만을 기입하였음.

2. 면담내용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한 면담 질문은 1) 청탁금지법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알게 된 경로와 방법, 알고 있는 내용), 2) 청탁금지법 현장 적용 사례(법

7) 본 연구에서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기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는 ‘학부모’로 지칭함.

시행 이후 영유아, 학부모, 원장/동료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례들), 3) 법 적용에 대한 의견, 4) 애로사항 및 요구이다. 또한 학부모에 대한 면담 질문은 1) 청탁금지법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알게 된 경로와 방법, 알고 있는 내용), 2) 법 시행 이후의 경험(유치원, 어린이집과의 관계), 3) 법 적용에 대한 의견, 4) 애로사항 및 요구이다.

3. 면담절차 및 분석방법

면담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2016년 12월 한 달 동안 유치원 원장 1회, 유치원 교사 2회, 어린이집 교사 1회,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1회, 학부모 2회, 총 7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이 속한 기관의 소재지는 서울·경기, 세종 및 경상지역이며, 기관의 설립유형과 자녀연령을 고려하여 편의표집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는 김아름 외(2016)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면담 내용은 녹취 및 기록한 뒤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 질문별로 범주화 과정을 통해 주요어를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위해 면담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 중 일부를 인용문 형태로 제시하였다.

Ⅲ.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1.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범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등의 중앙기관뿐만 아니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다(법 제2조 제1호).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는 1)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2) 공직자 등의 배우자, 3) 공무수행사인, 4)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16b: 10).

2.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법 제5조 제1항). 이 법은 부정청탁에 관한 혼선을 막기 위하여,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를 아래의 <표 2>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 2>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부정청탁 대상 직무 체크항목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직무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 직무
4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관련 직무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직무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
7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관련 직무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 지원 등 관련 직무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등 관련 직무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직무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직무
13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2016c),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p.36.

부정청탁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1) “법령을 위반”하여야 하며, 2)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이천현, 2015: 323).

부정청탁의 요건으로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말하는 ‘법령’의 의미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부에 의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그리고 법령에는 부정 청탁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된다(국민권익위원회, 2016d: 46). 두 번째 요건인 ‘정상적인 거래 관행’은 부정 청탁이 없었다면 문제없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통상적인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16d:

53).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 2016d: 53).

하지만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 7가지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동법의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의정활동 혹은 국민과의 건전한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등에 대하여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다(이천현, 2015: 325).

예외사유로서 규정된 7가지 사유는 <표 3>과 같다(법 제5조 제2항).

<표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부정청탁 예외사유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다른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법 제23조 제1항), 만약 실제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면 해당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22조 제2항).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도 안 되고,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법 제8조 제1항). 또한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가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등을 받아서도,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법 제8조 제2항).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준으로서 3만원 이하 음식물이거나 5만원 이하 선물 혹은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등 아래 <표 4>에 해당하는 8가지 사유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4>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공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22조 제1

향). 또한, 1회 100만원 혹은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공직자 등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23조 제5항).

IV. 유치원·어린이집 적용 사례

1. 유치원 적용 사례

가. 청탁금지법 인지 정도

현재 유치원에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배부된 공문이나 매뉴얼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이나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렇게 수집·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각 가정에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변화나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공문은 접수되었으나, 추가적인 별도의 교직원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에게도 별도의 가정통신문 등은 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혹은 교사 중 1인이 대표로 집단교육에 참가하였고, 그 후에 교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원의 전체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 중에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경우 교사 외의 유치원의 다른 직원들의 참석여부에 관한 물음에는 유치원마다 상이한 답을 하였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공문을 통해 상대적으로 공통된 형태의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법의 적용방식과 이해도는 상이하였다. 일례로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은 학부모를 비롯하여, 교육대상자인 유아에게도 그 어떤 선물이나 먹을 것 등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교육 중에 유아가 건네는 활동결과물이나 간식 등을 받는 경우 당장에 청탁금지법과의 연관성을 떠올리지 못하는 교사도 있었다. 그리고 원장과 교사가 서로 상호간에 선물을 전달하거나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는 행위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각각 상이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의 간식시간에 전달하고자 학부모가 간식을 사오는 경우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하여 일체의 간식선물을 받지 않는 유치원의 경우도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에 올라온 응답을 활용하여 원장과 교사는 부모가 제공하는 간식을 먹지 않고,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었다.

(국공립유치원교사A) : “교사는 무엇이든 받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중략) 아이들이 주는 것은 고민 없이 받았어요. 부모가 주는 것은 모두 거절했구요.”

(사립유치원교사B) : “아이들끼리 먹으라고 들어온 간식도 안 받았고, 들고 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거절했어요.”

한편 상당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부모들은 유치원에서 발송된 가정통신문을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과 활용계획 등을 전달받았다. 특히 유치원에서 학부모와 교사간의 면대면 상담을 하는 경우 교사에게 선물이나 음료 등의 금품을 전달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전달되기도 하였다.

(학부모G) : “가정통신문이랑 문자를 받았어요. 가을에 상담 기간이었으나 음료수도 받지 않겠다, 마음만 받겠다는 안내가 먼저 있었어요. (중략) 남편 직업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찾아봤어요.”

(학부모H) :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 (중략) 향후 선생님들은 일체의 음료, 선물 등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직업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대상자인 관계로 스스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련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관련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부모로서 필요한 정확한 정보는 유치원을 통하여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법의 내용이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앞으로는 일절 선물과 간식 등을 보내지 말아 달라는 식의 통지문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3/5/10만원 원칙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허용되는 범위의 원칙에 대하여 부모와 교사 모두 정확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간담회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러한 3/5/10만원 원칙에 관한 질문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의 경험과 혼란사례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하였다. 일례로, 향후 부모가 교사에게 어떤 부탁이나 민원, 요청 등을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반대로 기관이 학부모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이 만들거나 쓴 그림, 스티커, 편지 등을 교사에게 주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는지, 교육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개별 가정에서 필요한 재료나 준비물을 가져오는 것은 허용되는지, 만약 교사가 학부모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향후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며, 처벌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등에 관한 많은 질문이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유아의 졸업시기와 향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야하니 혼선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변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유치원 교사들은 기존과 달리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하여 학부모가 주는 부담스러운 선물 등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동법의 대상자로서 그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컸으며, 이에 따른 긴장감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유치원교사A) :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의 동생이 백일이어서 할머니가 백일 떡을 준비해 오셨으나, 받으면 안 된다고 돌려보냈더니 너무 서운해 하셨어요. 우리는 교사는 무엇이든 받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중략) 의도를 가지고 선물 하던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절하는 것이 내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거절하기가 편해졌어요.”

선물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마음이 편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정한 날이면 선생님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급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하지만 실상 면대면 상담을 하거나 유치원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 기존과 달리 액수를 떠나 빈손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직은 많이 어색하거나, 혹시 모를 아이의 불이익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I) :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서 좋아졌어요. 마음이 편해요.”

(학부모B) : “상담하러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선물하는 풍토가 없어지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일부 유치원에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부모들에게 선물이나 간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간식이나 선물을 거절하겠다는 통지 등을 받음으로써 원장이나 교사에 비해 법 시행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다.

(국공립유치원원장A) : “법 이전부터 공립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끼리 나눠먹는 간식도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간식을 준비 못하는 부모가 민원을 하니까.”

(학부모G) : “제주도 여행 다녀와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초콜릿 가져가서 나눠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10월 할로윈데이에 어떤 엄마가 아이가 원해서 계란을 포장해서 가져갔으나 그대로 돌려보내는 걸 봤어요. (중략) 아이가 자기가 먹던 젤리 하나를 선생님께 드렸으나 받지 않아서 많이 속상했대요.”

그 밖에 유치원에서 행사를 통해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 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 운영위원회 소속의 학부모들이 다른 학부모들이 건넨 음료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이 있었고, 법 시행 전에는 유치원평가 때 평가위원들이 평가항목의 하나로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먹었지만, 법 시행 이후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급식을 먹지 않는 사례 등이 있었다.

다. 유치원 적용에 대한 견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 중에서 유치원은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그 기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에 참여한 이들은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입학이나 성적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유치원에서 작성하는 생활기록부는 아이의 평가 수단으로서 반드시 초등학교로 인계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실제로도 인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평가나 성적을 매기지 않고 있으며, 교사의 경우 특히 입학에 대한 순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고 인식하였다.

(사립유치원원장C) : “부정 청탁 행위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문이에요. 그나마 10번에 해당하겠지만, 유치원이 입학, 성적에 대한 부정 청탁을 받을만한지.”

(국공립유치원교사A) : “유치원 교사들은 성적을 매기지도 않고 입학 시에 권한이 없어요. (중략) 원내에서 작성된 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로 인계하지 않고 있어 영향력은 없지만, 만약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유치원에서 작성한 생활기록부를 활용한다면 분명 아이에 대한 편견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생활기록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감정의 개입을 배제하고 적고 있어요.”

(국공립유치원교사B) : “청탁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중략) 중요한 점은 아이가 무엇을 했을 때 그 아이를 더 좋아하는 교사는 없어요.”

국·공립유치원 원장들은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 없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하여야 하며, 교사가 실제로 유아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교사들과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치원의 운영위원회의 경우 공립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있겠으나, 초등학교 이상의 경우와 달리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큰 권한을 행사하거나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데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성적과 입학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가능하다면 내 아이에게 조금 더 호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청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울러 만약 어떤 학부모와 교사가 특별히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친밀해 보이는 경우에는 다른 학부모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아이에 대한 평가가 초등학교에 까지 전달되어 향후 초등학교 진학 시에 이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았다.

(학부모) : “유치원에서도 부정 청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적용에 찬성 하고요. (중략) 발표를 더 시켜주거나, 한 번 더 챙겨주거나.”

다음으로 같은 조직인 유치원 내에서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이 서로 상이하게 조사되었다. 즉, 다수는 원장과 교사 외에 차량운행, 조리,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법 적용에 관하여 그 영향력을 감안하였을 때 과연 이러한 직무대상자도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장이 이러한 직원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법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과 교사 외의 다른 직무의 직원들 또한 당연히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국공립과 사립 등 기관의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유치원원장A) : “원장이 관리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교직원들을 구분해서 는 안 되죠. 차량기사도 아이들에게 차별할 수 있어요.”

(사립유치원원장A) : “교직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특히 사립유치원의 조리사나 차량기사는 대상이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 싶어요.”

(학부모) : “유치원 선생님이라면 유형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닌 직원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적으니까.”

라. 애로점 및 개선요구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은 간담회를 통해 많은 애로사항과 우려, 개선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장 주목할 점은 교육적 측면과 아이의 정서적 측면에서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청탁금지법의 강력한 이행에 따른 교사의 행동과 인식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행동발달적 측면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나눌 줄 아는 마음의 소중함’,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예의범절’과 같은 기초적인 단계의 도덕적 가치관을 교육하고 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특별한 도움 없이 아이 스스로가 준비한 작은 정성이나 선물을 ‘부정청탁’이라는 성인들의 물질적 측면으로 간주하여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국공립유치원교사B) : “나눔과 감사의 마음 표시, 배려와 존중을 교육하고 있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 교육의 일부인데. (중략) 그런 인성교육과는 반대죠.”

(사립유치원교사C) : “아이들이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마트에서 간식을 사오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아이들에게 나눔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불가능해 진거죠.”

(국공립유치원교사A) : “아이들이 자의로 준비하기 힘든 선물은 부모의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김밥 중 하나를 교사의 입에 넣어준다면 자의니까 괜찮겠죠. (중략) 유치원 활동 중에 만든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유아들의 자의에 의한 작은 선물이나 교육과정의 결과물들 까지 원장이나 교사에게 주었다고 하여 청탁이나 금품수수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특히 교육활동 중에 만들어진 결과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원장이나 교사가 받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체험적으로 유아가 건네는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전달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장과 교사들의 이러한 반응은 현행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에 비하여 현재 현장에서 더욱 엄격한 법집행과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현장에서는 유치원의 세부적인 적용에 관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법의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교사가 자료를 활용하여 상황별 판단을 직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립유치원원장B) : “지금은 무언가 금지하는 형태인데, 금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권고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행동해야하는 지침이 필요해요. (중략) 교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는 방향보다는 교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국공립유치원원장A) : “각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례들을 모아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사립유치원교사D) : “실시하는 법의 목적이 명확하고 (중략) 교사재량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2. 어린이집 적용 사례

가. 청탁금지법 인지 정도

전체적으로 간담회 과정에서 나타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유치원과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과 이해를 위한 노력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관련 교육과 자료의 배포 등은 통일성이 없었으며, 상당수의 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뉴스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얻고 있었다. 그리고 지자체 등에서 관련 자료가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기보다는 단순한 법조항의 해석 등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나 파악이 어렵고,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교사B) : “구청에서 교육하라고 자료 배부하고, 원장님이 교육도 하고, 그런데 저희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법 몇 항 몇 항,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니까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정도였어요.”

(민간어린이집교사A) : “정통신문을 보냈으나, ***신문에 있는 기사를 보냈어요. 학부모가 쿠키나 음료수를 주거나, 운동회에서 김밥을 주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대상이라고.”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명확하게 학교로 분류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더욱이 모든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 때문에 법의 적용에 있어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모르고 있었다. 즉,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경우에도 영아반과 유아반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와 정도에 관하여 어린이집별로 상이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교사A) : “저희는 모든 것을 받지 않는 상황이에요.”

(학부모E) : “10월 상담 때 빵을 사갔으나 선생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보내는 엄마가 카네이션 꽃 한 송이 보냈으나 돌려보냈다고 들었어요. 아이가 만든 것은 받는다고 했대요.”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각 가정에 청탁금지법에 대해 안내함에 있어서 동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원장이나 교사가 뉴스나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보다 지인들에게 더 많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스스로 뉴스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찾아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D) : “별도로 어린이집을 통해 받은 가정통신문은 없어요.”

(학부모F) : “주변에서 어린이집도 안 된다고 해서 알았어요. 생일 간식도 안 되고, 아이들끼리 나눠먹는 것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학부모A) :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엄마들끼리 소풍날 원가 보내면 곤란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물어봤으나 선생님이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선생님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담회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학부모가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마련한 경우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원장과 교사는 어느 범위까지 받거나 같이 먹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특히 궁금해 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원장A) : “부모님이나 외부에서 후원해주시는 경우, 예를 들어, 아이들과 함께 먹으라고 쌀이나 과일 등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점심식사로 제공되어서 아이들도 먹지만 교사도 함께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기관의 행사에서 기관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보육교직원들 상호간의 경조사에 허용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받아도 무방한 것인지, 보육교직원 상호간에 선물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제공하는 경품이나 기념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아이들이 직접 만든 활동결과물 혹은 편지 등을 교사가 받아도 되는 것인지,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꽃이나 편지를 받는 것은 가능한지 등 개별사안에 관한 질문도 많았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에 경험한 일이나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보육실습을 한 대학생이 인사차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을 때 마련해온 선물을 받아도 무방한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변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변화와 느낌에 대하여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반응은 유사하였다. 부담스러운 선물을 주는 학부모들로부터 거절의 명분이 생겼고, 이를 통해 교사들의 이미지도 개선되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체험활동이나 견학 시 인솔교사들도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시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교사A) : “선물이 좀 과하신 분들이 계세요. 거절하면 선물이 작아서 안 받는다는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략) 이런 것들이 법으로 인해 차단이 되어서 좋은데.”

(민간어린이집교사A) : “받는다는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서 좋지만, 성의 표시나 정이라는 느낌이 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스승의 날에 무언가 바라는 교사도 있을 텐데 그런 이미지가 싫어서 법이 필요는 해요.”

(국공립어린이집교사B) : “견학을 가면 인솔교사 무료가 없어졌어요.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놀러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보호자인데.”

학부모들의 반응은 유치원의 경우와 비슷하게 교사에 대한 선물 부담이 줄어 좋다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평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더러는 자신만 별도의 선물이나 도시락 등을 챙기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하였다.

(학부모C) : “야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선물에 대한 부담은 사라졌어요.”

(학부모A) : “최근에 부모 상담이 있었는데, 막상 부담 없이 가니, 괜스레 나만 그냥 간 것은 아니었나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영아기의 자녀를 두고 있거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장시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 부모들은 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를 표현할 방법이 사라져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다.

(학부모E) : “기저귀도 갈아주고, 선생님들이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데, 법으로 인해 선물도 못 받게 되었다 하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D) : “평소 자녀를 어린이집에 늦은 시간까지 맡기고 있어 항상 미안함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간식 하나도 쉽게 드리지 못하겠네요.”

다. 어린이집 적용에 대한 견해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으로 분류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사가 선물 등을 받게 되더라도 어린이집 내에서는 교사가 아이에게 더 특별한 대우를 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연령 특성으로 인해 부정청탁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낮은 연령으로 인해 일반 학교에서와 같이 성적, 평가 등의 차별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교사B) : “잘못한 행동을 하면 이야기하고, 하루일과 중에 칭찬하는 건 교사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커피 하나 받았다 해서 더 챙겨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중략) 성적도 주지 않고, 보육하는 입장이에요. 직무라는 것은 아이와 얼마나 소통하고 잘 지내는가, 그리고 아이의 하루 일과인 생활이에요.”

(학부모E) : “교사가 아이를 차별한다면, 그건 아이의 특성 때문이지 부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략) 선생님이 차별을 한들 부모가 청탁을 한들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주변 엄마들이랑 이야기해보면 내가 못해서 우리 선생님이 아이한테 못해주는 건 아닐까 걱정 하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 아이가 말썽피우는 건 아닐까 걱정해요.”

(학부모F) : “물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차별 정도가 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차별은 존재할거예요. 다만,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어서 청탁금지법을 어린이집에 적용함에 있어서 야기된 문제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초기에는 누리과정의 실시여부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 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들 중에서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유아반 교사와는 다른 기준의 적용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단순하게 누리과정의 수행여부만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민간어린이집교사A) : “누리과정 하는 반이 있고 안 하는 반이 있잖아요. 이 법이 적용되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중략) 기준이 정확하게 나누어져서 정해지면 좋겠으나, 누구는 받아도 되고, 누구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난감해요.”

(학부모B) :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은 다 안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도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어린이집원장A) : “교사에게 정확하게 교육되었으면 합니다. 누리과정을 하는 어린이집이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러한 혼란을 통해 어린이집에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사실여부를 떠나 어린이집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만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그 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운영위원회 또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현행법상으로는 그 기준이 불분명하

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면담자들의 다수는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애로점 및 개선요구

간담회를 통해 조사된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애로사항과 현행 청탁금지법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적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영유아의 보육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될 여지가 크다는 견해가 있었다. 보육적 관점에서 교사는 영유아에게 직접 아이의 소유물의 일부에 대하여 달라고 하거나,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육활동을 통해 만든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그리고 법의 일괄적인 적용보다 보육현장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른들의 시선보다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시선에서 법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학부모C) : “집에서 선생님 주고 싶다고 그림도 그리고 종이접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 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허용하면 좋겠어요. (중략) 교육 상 아들에게 삭막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교사A) :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까지, 친구들을 위한 마음까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둘째,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더욱 적용대상이 불분명 하고, 보육대상 연령에 영아기의 아이가 포함되는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법의 적용에 대한 지침과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어린이집에서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부모들에게도 명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견해가 있었다.

(학부모A) : “원장님과 교사들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고, 매뉴얼 배부도 되어야 해요. (중략) 어린이집에서 부모들한테 아무런 공지가 없으니까 애매모호해요.”

(민간어린이집교사A) : “구체적인 지침도, 교육도 없고, (중략) 법은 만들어져 있으나 매뉴얼은 주지 않으니까.”

셋째, 어린이집 적용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함께 거론되었다. 이 문제는 이미 청탁금지법의 적용과는 별도로 다루어질 문제이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처우와 신분에서 있어서 혜택은 주지

않으면서, 규제에 대한 경우에만 동일선상에서 적용하는 것은 분명 형평의 문제가 있어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교사 외에도 학부모들 또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민간어린이집교사A) : “보육교사는 4년제 대학을 나와도 가장 낮은 직업군의 하나예요. 법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략) 인권이나 처우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유치원과 호봉도 다르거든요.”

(학부모F) : “보육교사들은 일이 너무 힘들니까, 처우가 유치원 선생님과 같지 않은데 규제는 동일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동일한 대우를 해주어야죠.”

V. 유치원·어린이집 적용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1. 어린이집 교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을 통한 공무수행에 대해 제5조(부정 청탁의 금지)와 제6조(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부정 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까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1조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의 법해석에 따르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16e: 8).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또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에 필요한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령에서는 “누리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규칙으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5호)와 「2016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고시 제2015-84호)가 있을 뿐이다(김아름, 2015: 140-141).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6a: 7-8).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조례 및 규칙을 의미하며, 훈령, 지

침, 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김래영, 2016: 10).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이 “법령”을 근거로 하여 누리과정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리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법 시행 세 달 후 관계부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는데, 그 이전까지 현장에서는 같은 어린이집 내에서도 누리과정반인 교사와 누리과정반이 아닌 교사를 다르게 보아, 누리과정반 교사에 대해서만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보았다.

생각건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 사인의 범위를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단순히 어린이집을 포함시키고자 함이었다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무리하게 해석하기보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만을 특정하여 동법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일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공무수행사인 범위에 1) 어린이집 원장만 해당한다던가, 2) 어린이집 교사 중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그 외 유형의 어린이집 교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부정청탁 및 직무관련성의 범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교육현장에서는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하여, 영유아가 건네는 김밥, 꿀, 사탕류의 음식물도 받으면 큰 일 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 아이가 주는 작은 음식물의 경우에도 일절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는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직자 등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법 제1조)에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영유아가 교사에게 건네는 작은 선물이나 음식물 또한 청탁의 목적을 지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의도를 갖지 않고 주는 음식과 작은 선물에 대해 교사가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고 거절한다면, 이는 영유아에게 크거나 작은 상처가 될 수 있고,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치 못한 대처라는 것이다.

한편,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교사 및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아

이를 돌려주는 것에 따른 감사한 마음으로 선생님께 캔 커피 하나도 사드리지 못하는 지 여부”이다.⁸⁾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승의 날 카네이션, 교수에게 준 캔커피 등이 모두 제재대상이라고 해석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법원에서도 통할지 의문이다. 교사에 주는 가벼운 선물은 원활한 직무활동 내지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설사 학부모가 교사에 주는 선물이 부정한 청탁에 있어서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영유아가 교사에 먹을 것을 건네는 정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관할 부처는 앞서 살펴본 보육·교육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유치원·어린이집에 맞는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3. 어린이집 적용에 있어서 신고·처리 절차의 문제

각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과 다르게 어린이집은 ‘부정청탁 금지담당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원장에게 직접 부정청탁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현행 청탁금지법 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입법과정에서의 미비의 문제로 생각되나, 역설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의 현장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다. 간담회를 통한 면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사립을 불문하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 필요한 공문을 받아보고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다수의 어린이집에서는 그 어느 기관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어린이집은 필요한 교육이나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직접 뉴스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신고절차’와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해당 감독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감독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되는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이 맞는지 조직법적 측면에서 아직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규

8) 헤럴드 경제뉴스, [김영란법 시행 이후 ①] 특권층 겨냥한 법인데, 왜 서민에 불통 튀지?, 2016. 9. 30. (검색일: 2017. 4. 1.) <http://news.nate.com/view/20160930n10304>

제에 앞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세심한 입법적 배려와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

VI. 결론

이상 청탁금지법이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의 명확화와 2) 영유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 적용, 3) 명확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청탁금지법 적용 매뉴얼 또는 적용 사례집 발간과 교육 실시, 4) 이에 따른 개선과제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T/F는 제5차 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포함되지만 법인·단체의 구성원은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포함되지만, 교사들은 제외된다고 해석하게 되었다.⁹⁾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범위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어린이집 유형에는 민간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 해당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이처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법을 적용하고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의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서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고, 수범자가 동법의 적용대상인지 아닌지를 더욱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도록 추후 입법과정에서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어린이집에 대해 법을 적용할 것이라면, 원장에게 부정청탁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담당하는 상급 혹은 감독기관을 명확히 하여 향후의 처리절차에 대한 조직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인가 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이들이 최우선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어른들을 구

9) 연합뉴스,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서 제외”, 2016. 12. 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2/0200000000AKR20161222061900001.HTML?input=1179m> (마지막 검색일: 2016. 12. 22)

제할 목적으로 시행된 법으로 인해 아이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적극적으로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 영유아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그에 맞는 기준과 입법 정비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청렴하고 올바른 보육·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 국민권익위원회(2016a).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국민권익위원회(2016b).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
- 국민권익위원회(2016c).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2016d).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 국민권익위원회(2016e).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16. 10. 28).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첫 회의 열어.
- 김래영(2016). 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 한양법학, 27(4), 3-31.
- 김아름(2015). 누리과정과 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고려법학, 79, 129-164.
- 김아름·배운진·최윤경(2016).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사례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연합뉴스(2016. 9. 5.). 사설 어린이집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형평성 논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5/0200000000AKR2016090508970001.HTML?input=1195m> 에서 2017년 4월 1일 인출함.
- 연합뉴스(2016. 12. 22.).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서 제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2/0200000000AKR2016122206190001.HTML?input=1179m> 에서 2017년 4월 1일 인출함.
- 이천현(2015). 부정 청탁 금지행위와 제재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6(3), 309-333.
- 보건복지부(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제2013-8호).

헤럴드 경제뉴스(2016. 9. 30). [김영란법 시행 이후 ①] 특권층 겨냥한 법인세, 왜 서민에 불통 튀지?, <http://news.nate.com/view/20160930n10304> 에서 2017년 4월 1일 인출함.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메일 kar22@kicce.re.kr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Cases and Future Task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t the Kindergartens and the Childcare Centers in Korea

Ahreum Kim, Yun-Jin Bae, Yoonkyung Choi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hich was enforced in September last year, generated a lot of controversy due to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and the vagueness of standards since the legislation process. Private kindergartens that are defined by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s "schools" fell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t its initial stage, teachers who privately perform public duties at the childcare centers of Nuri-Curriculum and all of the other employees of those centers fell under the Act as well. However, as the legislation process did not consider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care and education of infants, unexpected problems arose in the childcare centers' settings. Notably, confusion escalated when the teachers of the childcare centers came to be exempted from the Act 3 months after its implementation as the relevant government office gave an authentic interpretation. For this reason, this piece of writing analyzed the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perceptions of the Act and examples of its application; and sought tasks for improvement through considering main issues caused by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Key word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mproper Solicitation, kindergarten, childcare center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행동 군집별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문제행동의 차이 분석*

김미라¹⁾ 신유림²⁾

요약

본 연구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놀이행동을 군집화하고, 놀이행동 군집별 유아교육기관의 적응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3, 4세 유아 322명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행동은 성별에 따라 각각 네 개의 유형으로 군집화 되었다. 둘째, 남녀 유아의 놀이행동 군집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었다. 유아들은 다양한 유형의 놀이를 함께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놀이에 차이가 있었다. 다양한 놀이에 고르게 참여하는 유아들은 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놀이를 적게 하는 유아들은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았다. 혼자놀이와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유아들은 사회적 놀이 참여정도에 따라 적응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 놀이의 긍정적인 요소가 다른 놀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기 놀이의 발달적 가치를 재조명 하고, 교육현장에서 유아의 놀이행동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주제어: 놀이행동군집, 유아교육기관의 적응, 문제행동

I. 서론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게 되면서 가족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처음으로 적응하게 된다. 유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아교육기관의 하루일과를 잘 수용하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2017년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1)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석사

2)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고 교사의 기대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며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해 나간다. 반면에 일부의 유아들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심리적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의 하루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놀이를 하면서 보내는데 참여하는 다양한 놀이행동을 통해서 유아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문제행동에 대해 알 수 있다. 유아들은 사회적 놀이에 참여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나누기와 협동하기와 같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Rentzou, 2017). 반면에 혼자놀이에 빈번히 참여하는 유아는 사회적 위축성의 정도가 높고 또래들로부터 수용되는 정도가 낮았다(Coplan, Wichmann, & Lagace-Seguín, 2001). 또한 유아기 비놀이는 행동은 사회적 불안, 우울 및 낮은 자아 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성이 보고되었다(Choo, Xu, & Haron, 2012), 따라서 놀이 연구자들은 유아가 참여하는 혼자놀이, 사회적 놀이 및 거친 신체놀이와 같은 다양한 놀이행동과 적응 및 부적응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실시해왔다.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비놀이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았고(Coplan et al., 2001), 또래와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불안의 정도가 높았으며(김민정, 2005). 놀이단절과 놀이방해 행동을 빈번히 보이는 유아들은 ADHD 성향의 정도가 높았다(이현정·신유림, 2014). 문제행동을 군집화 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모든 유형의 문제행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복합형 집단의 유아들은 놀이방해의 수준이 높았다(신혜영·최혜영, 2011).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놀이는 유아의 적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놀이행동이다. 사회적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들은 또래와 놀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고 자신과 타인의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경험을 하면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러한 유아들은 또래관계의 유능감(김기영·이진희, 2009)과 친사회성의 수준이 높고(박화운·마지순·천은영, 2004), 유아교육기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였다(안효진, 임연진, 2010).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놀이하고 협동적이며 놀잇감을 유통성 있게 사용하는 유아들은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았다(박성선·서현아, 2014).

혼자놀이에 빈번하게 참석하는 유아는 불안감과 위축성의 정도가 높았고, 놀이단절의 정도가 높은 반면에 또래상호작용의 정도는 낮았다(신은수·권미경·정현빈, 2010). 반면에 혼자놀이가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는데 박은영, 신은수·김현진(2012)에 의하면 혼자 탐색과 혼자 구성놀이는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없었다. 혼자놀이는 고유한 놀이가치가 있으며 유아들은 여러 동기

에 의해 놀이에 참여하게 되는데, 혼자놀이를 하는 유아들은 이러한 놀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해도 혼자놀이를 지속한다(엄정애, 2009). 또한 대인 지향적이기 보다 사물 지향적 성향을 보이는 유아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사물을 구성하는 혼자놀이에 빈번하게 참여하게 된다(Coplan et al., 2001).

남아들이 즐겨 참여하는 거친 신체놀이는 외현적 특성이 공격적 행동과 유사하여 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고여훈, 엄정애, 2010). 유아교사들은 거친 신체놀이를 실외에서는 비교적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실내에서는 제한하는 태도를 보인다(Stoli & Sanderselter, 2015).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다르게 거친 신체놀이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유아는 거친 신체놀이에 참여하며 타인이 자신과 같이 취약하다는 인식을 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강영식·마지순·안라리, 2013). 거친 신체놀이에 빈번히 참여하는 유아는 주도적이고(노은아, 문병한, 2012), 또래관계에서 인기가 높았다(김영아, 2007).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사회적 놀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적인 반면에 혼자놀이와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비일관적이므로 이러한 놀이에 대한 발달적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놀이 선행연구들은 분석단위를 변인에 기초한 변인 지향적 접근법(variable-oriented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이 접근법에 의하면 놀이행동을 연구 변인으로 설정하므로 놀이행동별 참여하는 빈도의 차이에 대해서만 알 수 있으며, 비놀이 행동, 혼자놀이, 사회적 놀이 및 거친 신체놀이와 같은 다양한 놀이가 조합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놀이를 관찰해보면 유아들은 한 가지 놀이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보다 다양한 유형의 놀이에 함께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한 가지 특정 놀이행동이 유아의 전형적인 놀이 특성으로 단순화될 수 없다. 유아가 특정 놀이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함께 나타나는 놀이행동은 무엇이며 어떤 놀이에 가장 참여도가 높거나 낮은지에 기초하여 놀이를 이해한다면 놀이에 참여하는 양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놀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적용하여 유사한 놀이참여 양상을 보이는 동질적인 하위 군집을 선별하고 이러한 군집별 적응과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군집분석을 적용한 놀이 선행연구를 보면 또래놀이행동을 기준으로 방해, 단절형과 상호작용 군집으로 분석하여 유아의 기질, 교사-유아관계 및 학급 규모를 비교한 연구(이현정·신유림, 2014)가 있으며, 유아의 사회적 놀이 군집을 놀이를 적게 하는 형,

집단놀이형, 병행/집단놀이형, 병행놀이형, 단독놀이형으로 구분하고 공격성, 비사교성, 배척성, 과잉활동-주의산만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민성혜, 2006) 등 소수의 연구들만이 보고되었다.

유아의 성은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므로 성별에 따라 놀이행동과 놀이 선호에 차이가 있다. 18개월부터 영아들은 자신의 성에 적합한 놀이감과 놀이 활동을 선택하기 시작하여 3세가 되면 성 전형적인 놀이행동은 거의 완성된다(Golombok et al., 2008). 여아들은 돌보기와 양육을 주제로 한 상상놀이에 참여하는 반면에 남아들은 영웅놀이, 싸움놀이, 쫓기게임 및 구출놀이(rescue play)와 관련된 놀이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았다(Stoli & Sanderselter, 2015)). 활동수준이 높은 남아들은 거친 신체놀이에 즐겨 참여하며(고여훈·엄정애, 2009), 동성의 또래와 거친 신체놀이에 빈번히 참여하는 남아들은 인기가 높았다(Lindsey, 2014). 여아들은 놀이 상대방과의 협동을 중요시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놀이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다.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비교해보면 여아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반면에 남아들은 놀이방해와 놀이 단절의 정도가 여아보다 더 높았다(김윤희, 2010). 이러한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행동의 차이에 근거해볼 때, 유사한 놀이참여 양상을 보이는 군집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연령에 따른 놀이의 발달 경향을 보면 언어 및 사회적 미성숙한 영아들은 혼자놀이와 병행놀이에 참여하며 3, 4세가 되면 혼자놀이에서 협동놀로 변화되면서 다양한 놀이행동이 관찰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다양한 놀이행동을 군집화하기 위하여 놀이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3, 4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성별에 따라 놀이행동 군집이 어떻게 분류되는 비교해보고 이러한 군집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의 적응 및 문제행동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 하에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놀이행동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군집화 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유아교육기관적응 및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총 다섯 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 4세 유아 322명이다. 유아의 성별을 보면 남아가 150명(46.6%) 여아가 172명(53.4%)이었으며, 연령은 만 3세가 195명(60.6%), 만 4세가 127명(39.4%)이었다.

설문지에 응답한 교사는 총 16명이며 이들의 연령은 20대가 12명(74.2%), 30대가 3명(19.3%), 40대가 1명(6.5%)이었고, 경력은 3~4년이 7명(42.9%), 5~8년이 7명(43.8%), 9년 이상이 2명(13.4%)이었다. 교사의 학력은 전문대 졸이 8명(49.4%), 4년대 졸이 7명(44.1%), 대학원 졸은 1명(6.5%)이었다.

2. 연구도구

가. 유아의 놀이행동

유아의 놀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oplan과 Rubin(1998)이 개발한 유아 놀이행동 척도(The Preschool Play Behavior Scale)를 번안·수정한 조은옥(2002)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놀이 행동(4문항), 혼자-정적놀이(4문항), 혼자-동적놀이(2문항), 사회적 놀이(6문항), 거친 신체놀이(2문항)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가 놀이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2-36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의 놀이를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 Cronbach's α 는 비놀이 행동 .74, 혼자-정적놀이 .66, 혼자-동적놀이 .80, 사회적 놀이 .88, 거친 신체놀이 .82였다.

나.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Jewsuwan, Luster와 Kostelnik(1993)가 개발하고 김난영, 신유림(2001)이 번안한 유아적응설문지(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교사의 관찰에 기초하여 유아의 적응을 측정하며 친사회성(5문항), 또래유능감(6문항),

자아 강도(6문항), 유치원 일과에 대한 적응(7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며, 24-96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로 *Cronbach's a*는 친사회성 .83, 또래 유능감 .86, 자아 강도 .86, 유치원 일과의 적응 .89였다.

다.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Merrell(1996)가 개발하고 이진숙(2001)이 번안한 유아행동척도(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Behavior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과잉행동(8문항), 공격성(8문항), 사회적 위축(7문항), 불안(8문항) 등 31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하였으며, 31-124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로 *Cronbach's a*는 과잉행동 .90, 공격성 .86, 사회적 위축 .77, 불안 .78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될 질문지의 적절성과 응답방식의 문제점 및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지역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 4세 유아 5명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 4세 유아 3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유아교육기관장 및 교사들과 대면하여 연구의 목적과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323부의 질문지를 모두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질문지 중 질문에 충실하지 않은 1부를 제외하고 총 322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고,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추출한 놀이행동 군집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의 적응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변량분산분석(ANOVA)과 *Scheffe'*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 군집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행동을 추출하기 위해 설명변인으로 사용된 다섯 개의 하위요인을 변인 간 비교가 수월하도록 z점수로 변환하고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군집의 수를 2개 이상으로 지정하고 새롭게 생성된 군집 결과들을 모두 검토하여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놀이행동은 성별 간 구분된 군집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아와 여아 각각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다.

가. 남아의 놀이행동 군집

남아의 군집 타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아의 군집별 놀이특성을 살펴보면, 군집1은 비놀이 행동과 혼자-동적놀이의 수준이 평균이하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혼자-정적놀이와 사회적 놀이, 거친-신체놀이의 수준은 평균이상의 점수를 나타내 ‘균형적 놀이집단’(n=48)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2는 다른 집단에 비해 거친 신체놀이와 사회적 놀이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으나 비놀이 행동과 혼자-정적놀이의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에는 취약하나 비사회적인 놀이특성은 강하게 가지고 있어 이 집단을 ‘비사회적 놀이 선호 집단’(n=26)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3은 다섯 가지 놀이행동 중 거친 신체놀이의 점수가 가장 높고 사회적 놀이의 점수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를 선호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비놀이 행동과 혼자놀이의 점수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이 집단을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선호집단’(n=39)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4는 다른 군집과 비교했을 때 거친 신체놀이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놀이 행동의 점수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놀이의 점수는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나 이 집단을 ‘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n=37)이라고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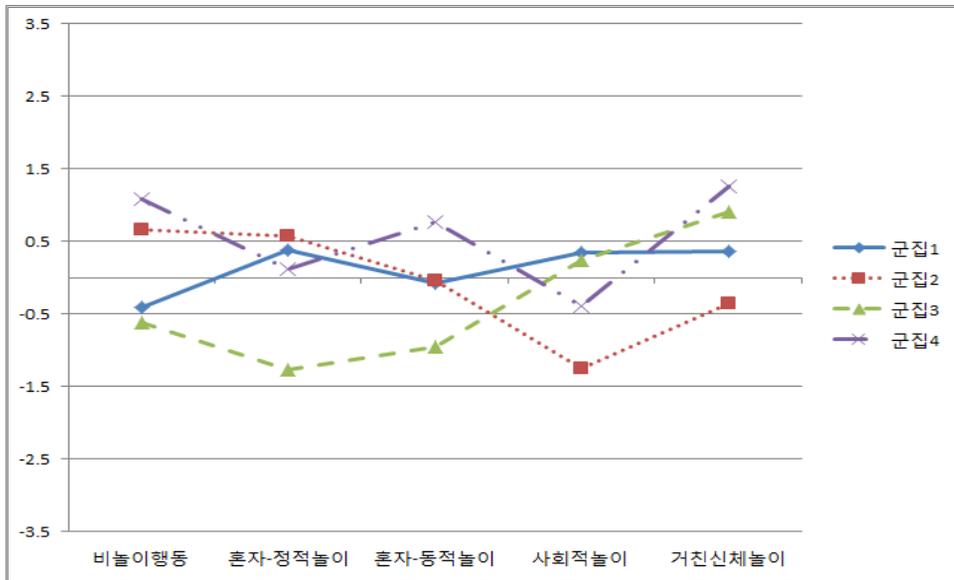
남아의 놀이행동 군은 군집2를 제외하고 모두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군집1은 거친 신체놀이만큼 혼자-정적놀이와 사회적 놀이를 선호하였고, 군집3은 거친 신체놀이에 비해 혼자놀이의 수준은 낮지만 사회적 놀이에는 적절히 참여하는 집단이었다. 또한 군집4는 거친 신체놀이만큼 비놀이 행동을 보였고 사회적 놀이에는

취약하였다. 한편 거친 신체놀이에 가장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군집2는 사회적 놀이 또한 적게 나타났다.

〈표 1〉 남아의 놀이행동 군집에 대한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N=150)

유형	요인	M(SD)				F	Scheffe'
		군집1 (n=48)	군집2 (n=26)	군집3 (n=39)	군집4 (n=37)		
비놀이 행동		-0.42(.48)a	0.66(.86)b	-0.62(.58)a	1.08(.83)b	55.62***	1,3<2,4
혼자 정적놀이		0.38(.67)b	0.57(.67)b	-1.27(.77)a	0.11(.92)b	43.92***	3<1,2,4
혼자 동적놀이		-0.08(.83)b	-0.04(.70)b	-0.95(.67)a	0.77(.56)c	37.38***	3<1,2<4
사회적 놀이		0.34(.65)c	-1.26(.83)a	0.24(.59)c	-0.39(.73)b	36.52***	2<4<1,3
거친 신체놀이		0.36(.80)b	-0.36(.56)a	0.90(.77)c	1.25(.60)c	30.27***	2<1<3,4

***p < .001



[그림 1] 남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표준화된 점수

나. 여아의 놀이행동 군집

여아의 군집 타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거친 신체놀이의 경우 네 개의 집단 모두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집단 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 거친 신체놀이를 제외한 네 개의 하위요인(비놀이 행동, 혼자-정적놀이, 혼자-동적놀이, 사회적 놀이)으로 군집 명을 추출하였다.

<표 2> 여아의 놀이행동 군집에 대한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N=172)

유형	요인	M(SD)				F	Scheffe'
		군집1 (n=46)	군집2 (n=3)	군집3 (n=58)	군집4 (n=65)		
비놀이 행동		-0.42(.58)a	0.239(.69)b	0.79(.91)b	-0.71(.54)a	063.78***	4<1<2,3
혼자 정적놀이		0.59(.88)b	0-.38(.80)a	0.57(.65)b	-0.71(.67)a	041.97***	2,4<1,3
혼자 동적놀이		0.73(.59)c	-1.74(.87)a	0.73(.71)c	-0.88(.68)b	084.28***	2<4<1,3
사회적 놀이		0.84(.53)c	-3.07(.65)a	-0.84(.69)b	0.63(.66)c	101.50***	2<3<1,4
거친 신체놀이		-0.19(.90)	0-.84(.61)	-0.63(.76)	-0.63(.64)	003.90**	-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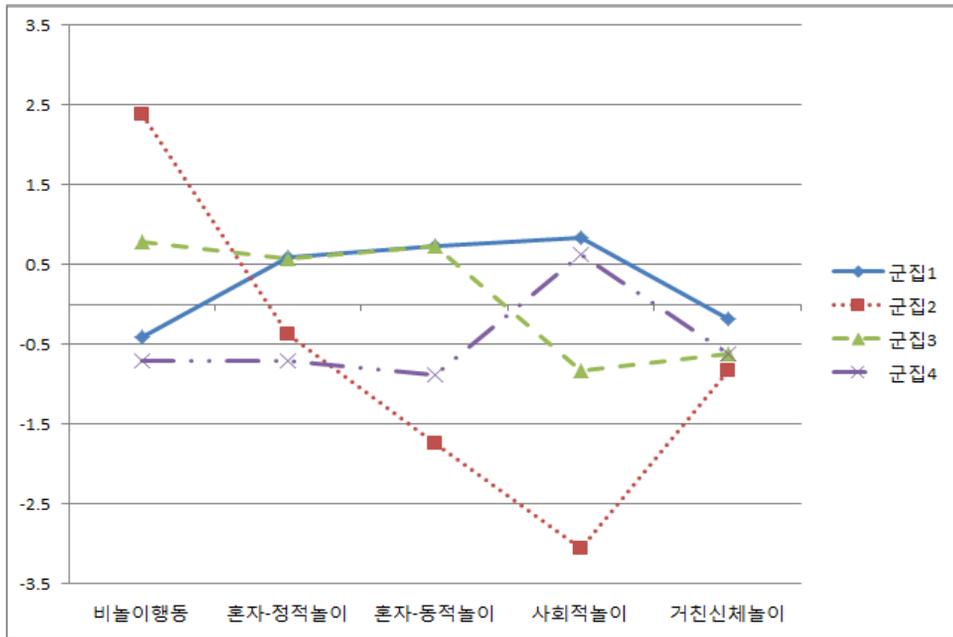
여아의 군집별 놀이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1은 혼자-정적놀이와 혼자-동적놀이, 사회적 놀이가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비놀이 행동과 거친 신체놀이는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나 '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n=46)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2는 사회적 놀이의 z점수가 -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난 점, 비놀이 행동의 z점수가 2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놀이 비참여 집단'(n=3)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3은 사회적 놀이의 점수는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나 혼자놀이와 비놀이 행동의 점수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n=58)이라고 명명하였다. 여아의 군집2와 군집3은 비놀이 행동을 선호하고 사회적 놀이가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와 수준에서 분명한 차이가 발견되며 군집2는 혼자놀이에 취약하고 군집3은 혼자놀이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군집4는 사회적 놀이의 점수가 다른 놀이행동의 점수보다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

다. 반면 비놀이 행동과 혼자-정적놀이, 혼자-동적놀이, 거친 신체놀이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n=65)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군집1과 군집4 모두 사회적 놀이를 선호하지만 군집1은 사회적 놀이만큼 혼자놀이를 선호하였고 군집4는 사회적 놀이를 제외한 모든 놀이에 취약하였다.



[그림 2] 여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표준화된 점수

<표 3> 남녀 유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빈도와 백분율

성별	유아의 놀이행동 군 명칭	N	%	
남아	군집1	균형적 놀이집단	48	32.0
	군집2	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26	17.3
	군집3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선호집단	39	26.0
	군집4	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	37	24.7
	전 체		150	100.0
여아	군집1	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46	26.7
	군집2	놀이 비참여 집단	3	01.7
	군집3	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58	33.7
	군집4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65	37.8
	전 체		172	100.0

2. 성별에 따른 놀이행동 군집별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문제행동의 차이

가. 남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적응과 문제행동의 차이

남아의 놀이행동 군집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에 제시된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을 살펴보면, 친사회성의 경우 군집1(균형적 놀이집단)이 군집4(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또래유능감의 경우 군집4(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가 군집2(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 강도와 유치원 일과에서의 적응 경우 군집1(균형적 놀이집단)과 군집3(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선호집단)이 군집2(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와 군집4(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 남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적응 간 차이

(N=150)

유형	요인	M(SD)				F	Scheffe'
		군집1 (n=48)	군집2 (n=26)	군집3 (n=39)	군집4 (n=37)		
친사회성		3.28(.45)c	2.85(.56)ab	3.10(.49)bc	2.70(.49)a	10.71***	4<1
또래유능감		2.70(.29)bc	2.40(.26)a	2.54(.21)ab	2.86(.28)c	18.14***	2<4
자아 강도		3.20(.52)b	2.58(.69)a	3.21(.50)b	2.75(.59)a	11.04***	2,4<1,3
유치원 일과의 적응		3.47(.46)c	2.99(.49)ab	3.26(.55)bc	2.88(.44)a	12.14***	2,4<1,3
적응 전체		3.06(.24)c	2.66(.31)b	2.90(.27)a	2.83(.27)bc	12.87***	2<1

*** $p < .001$

<표 5>에 의하면 문제행동에서 과잉행동과 공격성의 경우 군집4(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가 군집1(균형적 놀이집단)과 군집2(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군집3(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선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과 불안의 경우 군집2(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와 군집4(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가 군집1(균형적 놀이집단)과 군집3(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선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 남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문제행동 간 차이

(N=150)

유형	요인	M(SD)				F	Scheffe'
		군집1 (n=48)	군집2 (n=26)	군집3 (n=39)	군집4 (n=37)		
과잉행동		1.57(.54)a	1.88(.64)a	1.79(.64)a	2.31(.72)b	9.88***	1,2,3<4
공격성		1.39(.47)a	1.53(.49)a	1.54(.52)a	1.94(.61)b	8.14***	1,2,3<4
사회적 위축		1.32(.35)a	1.82(.53)b	1.36(.34)a	1.68(.47)b	12.11***	1,3<2,4
불안		1.46(.44)a	1.86(.49)b	1.48(.37)a	1.96(.48)b	13.07***	1,3<2,4

*** $p < .001$

나. 여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적응과 문제행동의 차이

여아의 놀이행동 군집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을 살펴보면, 친사회성의 경우 군집1(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과 군집4(사회적 놀이 선호집단)가 군집2(놀이 비참여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래유능감의 경우 군집1(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이 가장 높고 군집2(놀이 비참여 집단)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자아 강도의 경우 군집1(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이 군집2(놀이 비참여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일과에서의 적응의 경우 군집1(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과 군집3(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군집4(사회적 놀이 선호집단)가 군집2(놀이 비참여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 여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적응 간 차이

(N=172)

유형	요인	M(SD)				F	Scheffe'
		군집1 (n=46)	군집2 (n=3)	군집3 (n=58)	군집4 (n=65)		
친사회성		3.41(.47)b	2.67(.12)a	2.96(.51)ab	3.47(.49)b	14.22***	2<1,4
또래유능감		2.86(.31)c	2.06(.38)a	2.60(.34)bc	2.43(.26)b	21.31***	2<4<1
자아 강도		3.32(.56)c	2.11(1.06)a	2.60(.57)ab	3.25(.52)bc	21.56***	2<1
유치원 일과의 적응		3.57(.39)b	2.38(.16)a	3.09(.44)b	3.58(.40)b	12.14***	2<1,3,4
적응 전체		3.18(.22)c	2.23(.41)a	2.77(.30)b	2.97(.23)bc	23.95***	2<3<1

*** $p < .001$

<표 7>에 의하면 문제행동에서 과잉행동의 경우 군집2(놀이 비참여 집단)가

군집1(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과 군집3(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군집4(사회적 놀이 선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의 경우 군집2(놀이 비참여 집단)와 군집3(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이 군집1(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과 군집4(사회적 놀이 선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의 경우 군집3(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이 군집1(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과 군집4(사회적 놀이 선호집단)보다는 높게, 군집2(놀이 비참여 집단)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표 7〉 여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문제행동 간 차이

(N=172)

유형	요인	M(SD)				F	Scheffe'
		군집1 (n=46)	군집2 (n=3)	군집3 (n=58)	군집4 (n=65)		
과잉행동		1.42(.43)a	2.04(.29)b	1.49(.49)a	1.30(.42)a	3.93*	1,3,4<2
공격성		1.30(.36)	1.63(1.08)	1.23(.28)	1.22(.40)	1.52	-
사회적 위축		1.24(.24)a	2.29(.25)b	1.66(.47)a	1.27(.32)a	22.27***	1,4<2,3
불안		1.65(.47)a	2.46(.07)b	1.93(.57)ab	1.58(.50)a	6.87***	1,4<3<2

* $p < .05$,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놀이행동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분포형태에 근거하여 유아의 놀이행동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군집화 되는지 알아보고 형성된 놀이행동 군집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의 적응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의 놀이행동 하위요인을 선호 및 비선호된 특성으로 놀이행동 군집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놀이행동 군은 성별에 따라 구분된 놀이특성을 보였으며 특히 거친 신체놀이의 경우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아의 놀이행동 군은 네 집단 모두 거친 신체놀이의 점수가 평균 이하로 나타나 거친 신체놀이의 참여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지만, 남아의 놀이행동 군은 사회적 놀이에 취약한 군집2(비사회적 놀이집단)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친 신체놀이의 점수가 평균 이상을 보였으며 특히 군집4(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의 경우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많은 연구를 통해 거친 신체놀이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놀이임이 확인되었다(고여훈·엄정애, 2010; Pellegrini, 1988).

그러나 놀이행동을 군집화 하여 다른 놀이행동들과 조직화된 집단을 형성했을 경우에도 거친 신체놀이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를 통해 남아들은 혼자놀이 또는 사회적 놀이를 선호하더라도 신체를 이용한 거친 놀이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아들은 혼자놀이 또는 사회적 놀이를 선호하더라도 거친 신체놀이의 참여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놀이에 고르게 참여하는 유아는 적응 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적응력 있고 적은 문제행동을 보인 집단은 군집1의 남아와 여아들이며 이들은 다양한 놀이에 균형 있게 참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집단의 유아들은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남아의 군집3, 여아의 군집4)의 유아들보다 적응전체를 비교했을 때 더 적응력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사회적 놀이만 선호하는 집단보다 사회적 놀이와 혼자놀이를 모두 선호하는 집단의 적응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유아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성이 발달되어 유아교육기관에서 더욱 적응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놀이는 유아의 기질 및 동기의 영향으로 선호될 수 있으며 개인적 특성으로 혼자놀이를 선호하는 유아들은 연령이 증가해도 이러한 놀이를 지속할 수 있다(엄정애, 2009). 최근 연구에서는 혼자놀이가 유아의 주의집중 시간, 과제 지속성 및 정서능력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Choo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비놀이 행동의 점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집단(남아의 군집2 비사회적 놀이선호집단; 군집4 사회적 놀이선호집단, 여아의 군집2 놀이 비참여집단, 군집3 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에서 외현화 또는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군집2에 속하는 여아들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비놀이 행동의 점수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행동 수준도 가장 높게 나타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기 비놀이는 행동은 사회적 불안 및 우울 및 낮은 자아 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Choo et al., 2012), 또래관계에서 배척, 거부 및 교사와의 갈등적인 관계와도 관련성이 보고되었다(Rubin, Coplan, Bower, 2009),

본 연구결과는 비놀이 행동과 사회성은 부적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Coplan & Rubin, 1998)와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배회하는 행동을 자주 하는 유아는 기질적으로 수줍음을 타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는 연구(김민정, 2005)를 지지

한다. 또한 놀이를 적게 하는 유아들이 또래관계에서 공격성과 과잉행동, 주의 산만성 등을 보이고 배척을 경험한다는 연구(민성혜, 2006)와 유아의 억제된 행동은 문제행동과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Coplan et al., 2001)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성향의 유아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적절한 놀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비놀이 행동이 더욱 심화되고 유지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남아의 분석결과를 보면, 거친 신체놀이의 효과는 유아의 사회적 놀이 참여정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지만 사회적 놀이가 취약한 집단(남아의 군집4 거친 놀이선호집단)에서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놀이도 선호하는 집단(남아의 군집 3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선호집단)에서는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았다. 이 군집에 속한 유아들은 거친 신체놀이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통제하며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강영식·마지순·안라리, 2013)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놀이는 또래와 정서적 감정을 교류하고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놀이로써 사회적 유능감과 친사회성이 요구된다. 즉 유아가 사회적 놀이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 중에 있거나, 사회적 놀이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동일한 집단일지라도 사회적 놀이의 참여정도에 따라 문제행동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거친 신체놀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놀이도 선호하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높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의 거친 신체놀이 신호를 공격적인 메시지가 아닌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이고 거친 신체놀이를 통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발달이 촉진될 것이다.

남아의 군집4(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는 문제행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이면서 또래유능감 또한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놀이는 또래와 함께 큰소리로 떠들기, 레슬링, 텀블링, 점프하기, 달리기, 쫓고 도망가기, 차기, 잡아당기고 밀기, 때리기, 찌르기, 발로차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Flanders et al., 2010), 주로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유사한 성향의 남아들이 함께 참여한다. 놀이 특성 상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남아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기회가 많으므로(강인실·박희경, 2014), 또래 간 지배 위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남아로 하여금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Pellegrini & Bartini, 2000),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고 집

단 내에서 거부되지 않을 수 있다(고윤주·김영신, 2003). Lindsey(2014)의 연구에서도 동성의 또래와 거친 신체놀이에 빈번히 참여하는 남아들은 또래집단에서 인기가 높았다. 이에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지만 사회적 놀이가 취약한 남아에게 또래유능감과 문제행동이 모두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군집4의 남아들은 외현화 문제행동 뿐만이 아니라 내면화 문제행동 또한 높게 나타났다. 우울의 증상인 불행하고 슬픈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공격적인 행동을 실행하는데 우울과 공격성은 상호작용한다(Roland, 2002). 따라서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남아들의 외현적 문제행동 뿐만이 아니라 내면적 심리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수행되었으므로 거친 신체놀이 성향 선호와 문제행동의 관련성을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 설계에 기초한 추후연구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 또한 본 결과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은 교사평정으로 이루어졌다. 교사들은 싸움과 거친 신체놀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유아의 거친 행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거친 신체놀이를 포함한 활동적인 놀이가 일어날 때 놀이를 중단시키고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유아의 놀이에 빈번하게 개입하였다(Schafer & Smith,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거친 신체놀이를 즐겨하는 유아를 공격적이고 과잉 행동적인 유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거친 신체놀이가 과거의 공격적인 놀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지영(2007)의 연구에 따르면 거친 신체놀이를 부정적인 놀이로 간주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가 거친 신체놀이에 안정적으로 참여하여 또래와의 신체접촉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여과시키는 역할(고여훈·엄정애, 2010)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놀이를 선호하는 군집에 속했던 유아들이 전반적으로 적응을 잘 했으며 문제행동 수준도 낮게 나타났다(남아의 군집1 균형적 놀이집단, 군집3 비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선호집단, 여아의 군집1 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군집4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즉 혼자놀이나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유아들이 평소 사회적 놀이에 취약할 경우 문제행동이 높게 평가되었지만(남아의 군집2 놀이 비사회적

놀이 선호 집단, 군집4 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 여아의 군집2 놀이 비참여 집단, 군집3 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혼자놀이나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유아들이 평소 사회적 놀이에 잘 참여한다면 적응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남아의 군집1, 3, 여아의 군집1, 4).

사회적 놀이는 또래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놀이이므로 혼자놀이를 통해서 발달할 수 없는 대인관계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 Newton과 Jenvey(2011)는 놀이과정에서 유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이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혼자놀이나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유아일지라도 또래와 원만한 사회적 놀이가 가능한 유아들은 사회적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며 유아교육기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사 양성과 관련된 정책에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해준다. 유아교사 양성 과정에서 유아들의 다양한 놀이행동을 전문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키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놀이감과 놀이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은 유아의 놀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유아의 사회적 놀이를 촉진시키는 환경 구성능력을 양성과정에서 유아교사에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측정은 교사 평정으로 이루어져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놀이척도는 개발자인 Coplan과 Rubin(1998)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놀이연구에서 연구자들에 의해 빈번히 사용되어져 왔다. 교사보고법과 달리 관찰법은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 대상의 수가 많은 연구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교사 평정과 함께 관찰법을 적용한 추후 연구를 실시한다면 두 측정방법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의 놀이는 다양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놀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의 물리적 환경, 학급 수, 교사변인, 교사-유아 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후속연구에서 고려되어 유아의 놀이행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식·마지순·안라리(2013).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와 대인문제해결력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8(5), 189-202.
- 강인설·박희경(2014). 남녀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에 또래관계, 우울 및 공격성이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3), 213-228.
- 고여훈·엄정애(2010).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 양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동학회지*, 31(4), 75-90.
- 고윤주·김영신(2003).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의 또래수용도와 상호적 친구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21.
- 김기영·이진희(2009). 유아의 단독놀이, 기질, 또래 유능성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28(1), 243-261.
- 김난영·신유림(2001).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49, 145-161.
- 김민정(2005). 유아의 혼자 놀이와 기질 및 문제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1-14.
- 김영아(2007).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와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윤희(2010). 유아의 성별과 인기도에 따른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놀이행동.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노은아·문병환(2012).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 참여정도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과 자아탄력성의 차이. *유아교육연구*, 32(5), 101-119.
- 민성혜(2006). 유아의 사회적 놀이 군집별 또래유능성의 차이.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359-379.
- 박성선·서현아(2014). 유아의 놀이성 및 창의적 성격특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0(4), 119-132.
- 박은영·신은수·김현진(2012). 유아의 사회적 놀이행동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2(4), 249-268.
- 박화윤·마지순·천은영(2004). 유아의 놀이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4), 285-298.
- 신은수·권미경·정현빈(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놀이 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83-209.
- 신혜영·최혜영(2011).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또래 놀이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75-186.

- 안효진·임연진(2010). 유아의 놀이성, 적응, 그리고 문제행동과의 관계성 연구. *아동학회지*, 31(2), 53-68.
- 엄정애(2009). 영유아 놀이와 교육. 파주: 교문사,
- 이지영(2007). 남녀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와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1). 유아의 애착 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현정·신유림(2014). 유아의 도래놀이행동 군집 별 유아, 교사, 학급 변인의 차이. *유아교육연구*, 34(4), 55-73.
- 조은옥(2002). 유아의 기질에 따른 놀이성향과 놀이 행동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Choo, M. S., Xu, Y., & Haron, P .F. (2012). Subtypes of nonsocial pla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Malaysian preschool children. *Social Development*, 21(2), 294-312.
- Coplan, R. J., & Rubin, K. H. (1998). Exploring and assessing non-social play in the preschool: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eschool play behavior scale. *Social Development*, 7(1), 72-91.
- Coplan, R. J., Wichmann, C., & Lagace-Seguin, D. (2001). Solitary-active play behavior: A marker variable for maladjustment in the preschool?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5(2), 164-172.
- Flanders, J. L., Simard, M., Paquette, D., Parent, S., Vitaro, F., Robert O. Pihl, R. O., & Seguin, J. R. (2010). Rough-and-Tumble Play and the Development of Physical Agg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A Five-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Family*, 25(4), 357-367.
- Golombok, S., Rust, J., Zervoulis, K., Croudace, T., Golding, J., & Hines, M. (2008).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ex-typed behavior in boys and girls: A longitudinal general population study of children aged 2.5 - 8 years. *Child Development*, 79(5), 1583 - 1593.
- Jewsuwan, R., Luster, T., & Kostelni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33-51.
- Lindsey, E. W. (2014). Physical activity play and preschool children's peer acceptance: Distinct between rough-and tumble and exercise play. *Journal of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5(3), 277-294.

- Merrell, K. W. (1996). Social-Emotional Assessment in Early Childhood: Preschool and Kindergarten Behavior Scale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Spring*, 20(2), 132-145.
- Newton, E., & Jenvey, V. (2011). Play and theory of mind: Association with soci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1(6), 761-773.
- Pellegrini, A. D. (1988). Elementary-School Children's Rough and Tumble Play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2-806.
- Pellegrini, A. D., & Bartini, M.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bullying, victimization, and peer affiliat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primary school to middle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7(3), 699-725.
- Rentzou, K. (2017). Preschool children's social and nonsocial play behaviors. Measurement and correlations with children's playfulness, behaviour problem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4(4), 633-647.
- Roland, E. (2002). Aggression, depression, and bullying others. *Aggressive Behavior*, 28(3), 198-206.
- Rubin, K. H., Coplan, R. J., & Bow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Schafer, M., & Smith, P. K. (1996). Teachers' perception of play fighting and real fighting in primary school. *Educational Research*, 38(2), 173-181.
- Stoli, R. & Sanderselter, E. B. H. (2015). Pre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rough-and tumble play in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5(11,12), 1995-2009.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1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신유림,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이메일 yoolim@catholic.ac.kr

Abstract

Differences of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s Based on Play Behavior Clusters of Preschoolers

Mira Kim and Yoolim 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lusters of preschoolers' play behaviors. In addition, the research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s based on the play behavior clusters. The participants were 322 preschoolers aged 3 and 4. The results revealed that boys and girls were each clustered into four types which showed distinctive play characteristics. Preschoolers who participated evenly in various play behaviors revealed the high levels of adjustment and the low levels of problem behaviors. On the other hand, the preschoolers who preferred to solitary play and rough and tumble play differed in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s depending on the levels of social play. This implies social play may buffer the negative influences of solitary and rough and tumble play.

Key words: clusters of play behaviors, adjustment, problem behaviors

「육아정책연구」 규정

제정 2007. 1. 12.
 개정 2009. 1. 19.
 2011. 4. 12.
 2012. 4. 10.
 2014. 12. 15.
 2016. 4. 26.
 2016. 8.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육아정책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학술지 발간목적) 육아정책연구의 발간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
2. 육아정책 관련 지식과 정보 교류
3. 한국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지적 기반 확보

제3조(발간횟수 및 발간일) 발간 횟수는 연간 3회로 하고 발간일은 매년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2016. 4. 26 개정)

제4조(게재논문 편수) 1회 게재 논문 편수는 최종 심사결과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 10편 내외로 한다.

제5조(논문 공모주제) 논문 공모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정책 개발, 분석 및 평가
2. 육아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3. 기타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제2장 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구성)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소 내·외부

편집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나 연구위원 중 소장이 지명한다.(2016. 4. 26 개정)

제7조(편집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편집위원의 위촉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은 연구소 출판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자격요건에 있어 전공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또는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관련기관 근무자로 한다.
3. 편집위원은 연구 분야에 있어 유아교육학, 아동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 육아 관련 전공으로 하며, 영문편집위원 1명을 포함한다.(2016. 4. 26 개정)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연구소 출판편집운영세칙 또는 출판편집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논문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 심의
2. 논문 심사
3. 게재 확정 논문 최종 검토

제9조(편집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온라인 회의도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3장 논문 접수 및 심사

제10조(논문 투고) 1. 투고 논문의 주제는 본 학술지 발간 목적에 맞아야 한다.

2. 투고 논문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육아정책연구』 논문 투고 지침”에 따른다.

제11조(논문 심사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투고논문의 『육아정책연구』 학술지 성격 부합 여부에 따라 심사대상 논문과 심사제외 논문을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3.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해당 논문에서 제외한다.(2016. 8. 17 신설)

4.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사의견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판정하며,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받은 논문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2014. 12. 15 개정)
6.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에서 논문을 수정·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7. 재심사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8.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투고자가 수정 후 다시 투고할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하여 투고 절차를 진행한다.
9.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15. 개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심사 판정에 대한 기타 추가사항은 편집위원회 결정을 따른다.

제12조(논문 심사기준) 게재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2014. 12. 15 개정)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독창성
3. 구성의 논리성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타당성
6. 연구결과의 기여도
7. 논문작성의 성실성
8.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9. 논문초록의 적합성
10.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제4장 출판

제13조(저작권) 「육아정책연구」에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육아정책연구소에 있다.

제14조(학술지 공개) 출판된 학술지 전문은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 및 투고자 윤리

제15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16조(투고자 윤리) 육아정책연구는 연구계획, 수행, 심사, 결과보고의 과정

에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와 중복게재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이 같은 경우 논문철회 및 투고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육아정책연구」 윤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기타

제1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세칙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육아정책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9. 12. 1.

개정 2012. 4. 10.

개정 2016. 8. 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육아정책연구소 학술지 「육아정책연구」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일체에 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범위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 윤리

1. 투고자는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 진실성을 왜곡시키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투고자와 심사위원에게 서로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연구윤리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서약을 의무화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5.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참조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1.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지침」에 의해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를 활용한다.

2.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요구될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련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4.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② 변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표절: 타인 저작물에 대한 출처 미표기, 타인 저작물에 대한 번역 후 출처 미표기, 2차 문헌 표절,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직접인용하면서도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 표시를 한 경우, 부분적/한정적으로 출처 표시를 한 경우, 출처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이나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2016. 8. 17 개정)
- ④ 중복게재: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 활용,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 출처표시는 했지만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 ⑤ 부당한 저자표시: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 ⑥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제6조 연구 윤리위반 행위 제보(2016. 8. 17 신설)

1. 연구윤리 위반 행위 제보는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 윤리위반의 조사(2016. 8. 17 신설)

1. 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육아정책연구 윤리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4.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의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항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2016. 8. 17 신설)

1. 연구윤리 지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 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조사결과에 따른 통지(2016. 8. 17 신설)

1.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윤리 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1. 본 학술지에 기 게재된 논문 중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및 심사 시스템]과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구윤리에 대한 위반이 확정된 연구자의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없으며, 관련기관 통보 및 향후 최소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제한한다.(2016. 8. 17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육아정책연구」 논문 투고 지침

제정 2007. 1. 12.
개정 2010. 4. 7.
2011. 10. 10.
2012. 4. 10.
2012. 10. 15.
2014. 8. 1.
2016. 4. 26.
2016. 8. 17.

1. 논문 주제

- 1) 육아정책 개발, 분석 및 평가
- 2) 육아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3) 기타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2. 논문 형태

논문 형태는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추어 작성된 연구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발간횟수 및 시기

「육아정책연구」의 발간횟수는 연간 3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매년 1호는 6월 30일, 2호는 9월 30일, 3호는 12월 31일로 한다.(2016. 4. 26 개정)

4. 논문 투고 방법 및 유의점

- 1)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한 논문 제출과 함께 <별첨 2>의 연구윤리 준수 양식을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에 이메일(kcep@kicce.re.kr)로 제출한다.(2016. 8. 17 신설)
- 2) 투고자는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및 심사 시스템]에서 연구윤리서약을 한 후에 논문을 제출한다.
- 3) 논문은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 마감일은 1호 3월 31일, 2호 7월 31일, 3호 10월 31일로 한다.(2016. 4. 26 개정)

- 4) 논문 투고는 한 호당 1저자에 한하여 1회로 제한한다. 다만 게재 논문의 저자가 중복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2011. 10. 10. 신설, 2012. 10. 15. 개정)

5. 논문 작성

- 1) 논문 작성은 <별첨 1>의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2) 양식에 맞지 않는 논문은 심사하지 않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6.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지원한다.(2012. 4. 10.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0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

□ 논문 작성

- 투고 논문은 논문제목, 성명,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내용,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작성한다.
- 논문 저자의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인 저자의 성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 공동저자일 경우 제1저자를 먼저 제시한다. 제1저자의 구분이 없는 경우, 논문 투고신청서 <참고사항>에 그 사항을 명기한다.
- 저자의 소속은 각주 처리한다.
- 국문초록 밑에는 5개 이내의 주제어를 국문으로 적는다
- 영문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그 밑에 5개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영문으로 적는다.
- 논문의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자로 표기하거나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한다.
- 논문 분량: 논문 편집 기준으로 20쪽 내외로 하고, 최대 35쪽을 초과할 수 없다.

□ 편집양식

- 작성도구: 한글 2004 이상

여백주기	바탕글		각주모양	머리말 홀수쪽만 설정
	문단모양	글자모양		
위쪽 40.0mm	왼쪽여백 0	한(자)글 신명조	번호모양 1)	글자모양
아래쪽 40.0mm	오른여백 0	영문 HCI Tulip	구분선길이 5 Cm	한글·영문: 굴림체
왼쪽 40.0mm	들여쓰기 0		구분선위 3 mm	
오른쪽 40.0mm	줄간격 160	장평 95	구분선아래 2 mm	글자크기 9
머리말 15.0mm	문단위 0	자간 -4	각주사이 1 mm	장평 95
꼬리말 15.0mm	문단아래 0	크기 10.5		자간 -4
제본 0mm	날말간격 0			오른여백 0
	정렬방식 혼합			정렬방식 오른쪽

※ 용지종류 A4, 용지방향 보통으로 할 것

분 류		값	글자 크기	글 꼴	줄간격	문단 위	문단 아래	정렬방식
본문	학술지 본문	10.5		신명조	160	-	-	양쪽
	I. (장)	15		견명조	160	30pts	15pts	양쪽
	1. (절)	13		한컴돋움	160	15pts	12pts	양쪽
	가. (항)	12		한글, 영문: HY그래픽	160	12pts	10pts	양쪽
	1)	12		한글, 영문: 중고딕	160	10pts	5pts	양쪽
	가)	11		한글, 영문: 중고딕	160	10pts	10pts	양쪽
	(1)	10.5		중고딕	160	-	-	양쪽
	면답인용문	9.5		새굴림	130	10	10	가운데
표 (그림)	표 그림	10.5		한글, 영문: 중고딕	130	15pts	-	가운데
	제 목							
	단 위	10		중고딕	130	-	-	오른쪽
	내 용	9.5		중고딕	130 이하	-	-	(앞부분은 양쪽정렬)
각주	주/자료	9		중고딕	130	-	2pts	양쪽
참고문헌	내 용	9		신명조	130	-	-	양쪽
	제 목	15		한컴돋움	130	30	15pts	양쪽
교신저자	내 용	10		신명조	140	-	5pts	양쪽
	내 용	10		새굴림	140	-	4pts	양쪽
영문요약	영문제목	15		Times N. R.(진하게)	160	-	50pts	가운데
	영문저자명	12.5		신명조				
	영문내용	11		Times N. R	160	-	-	혼합

○ 표와 그림

- 그림과 표에 사용되는 양 괄호는 Ctrl+F10 → 문자코드 3412와 3413인 [] 및 3414와 3415인 < > 를 사용하고, 서술형 본문에서 설명할 때는 자판기의 < >, []를 사용함.
- 표와 그림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인쇄할 수 있도록 투고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 표의 선 모양은 맨 윗줄은 이중선, 맨 아랫줄은 가는 실선(0.1mm)으로 하고 좌우 테두리 세로선은 없앤다. 가로 구분선은 최소로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 가는 실선이나 가는 점선을 사용한다.

□ 인용과 참고문헌

<인용>

- 논문 작성시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떼어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 위를 본문에서 한줄씩 비우고 좌우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 인용하는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예> 이에 대해 홍길동은(2006)...
- 인용하는 저자명이 본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한 연구(홍길동, 2006; Anderson, 2005)
-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한다. 4인 이상은 세번째 저자까지 표시하고 OO 외(국내저자), 또는 et al.(국외저자)로 나타낸다.

<참고문헌>

- 논문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나라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에는 한, 중, 일, 서양서 순으로 열거한다. 아래에 예시한 참고문헌 작성방식은 대체로 APA 양식을 따른다.
 - 단행본
홍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서울: OOO
 - 정기간행물의 논문
홍길동·김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 25(4), 1-28.
 - 학위논문
홍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OO대학교 대학원.
 - 인터넷 자료
홍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http://www.kicce.re.kr>
 - 신문기사

OO일보 2006. 1. 1. 육아지원 방안 연구

※ 영문

-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할 것
- 논문 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할 것. 단, 정기간행물의 도서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할 것.

<별첨 2>

「육아정책연구」 연구윤리 준수 양식

0000년 0월 00일

권/호수	() 권 () 호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저자	번호	성명	소속 및 직위
	1		
	2		
	3		
	4		
교신저자	성명		연락처
	e-mail		
학위논문 여부	학위	박사학위 () / 석사학위 ()	
	학위수여일자		
	학위수여학교		
	지도교수		
	심사위원		
학술대회 발표	학술대회명		
	발표일자	년 월 일	미발표 논문()
	발표형식	구두() / 포스터()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		
	지원년도	_____ 년도	지원받지 않음()
연구윤리 관련	KCI 유사도 검사(필수)	_____ % (20% 이상 시 아래 '사유란'에 사유를 기재) 사유:	
	IRB 승인(권장)	승인번호: _____	
참고사항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육아정책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장 귀중

참고문헌

- 장혜진, 이정림, 윤은주, 김해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 조혜주(2012).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 민정원, 김기환, 이세원(2013).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전망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정원(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편집위원

권미경(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권혜진(나사렛대 아동학과 교수)

김동훈(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영옥(전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은심(강릉원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나 정(동국대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

남은영(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박혜원(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서소정(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유해미(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미화(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정대련(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정미라(가천대 유아교육과 교수)

(가나다순)

편집간사

이재복(육아정책연구소 선임행정원)

엄지원(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인 쇄 2017년 6월 29일

발 행 2017년 6월 30일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ISSN 1976-6793

육아정책연구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Tel. 02-398-7700 Fax. 02-398-7798